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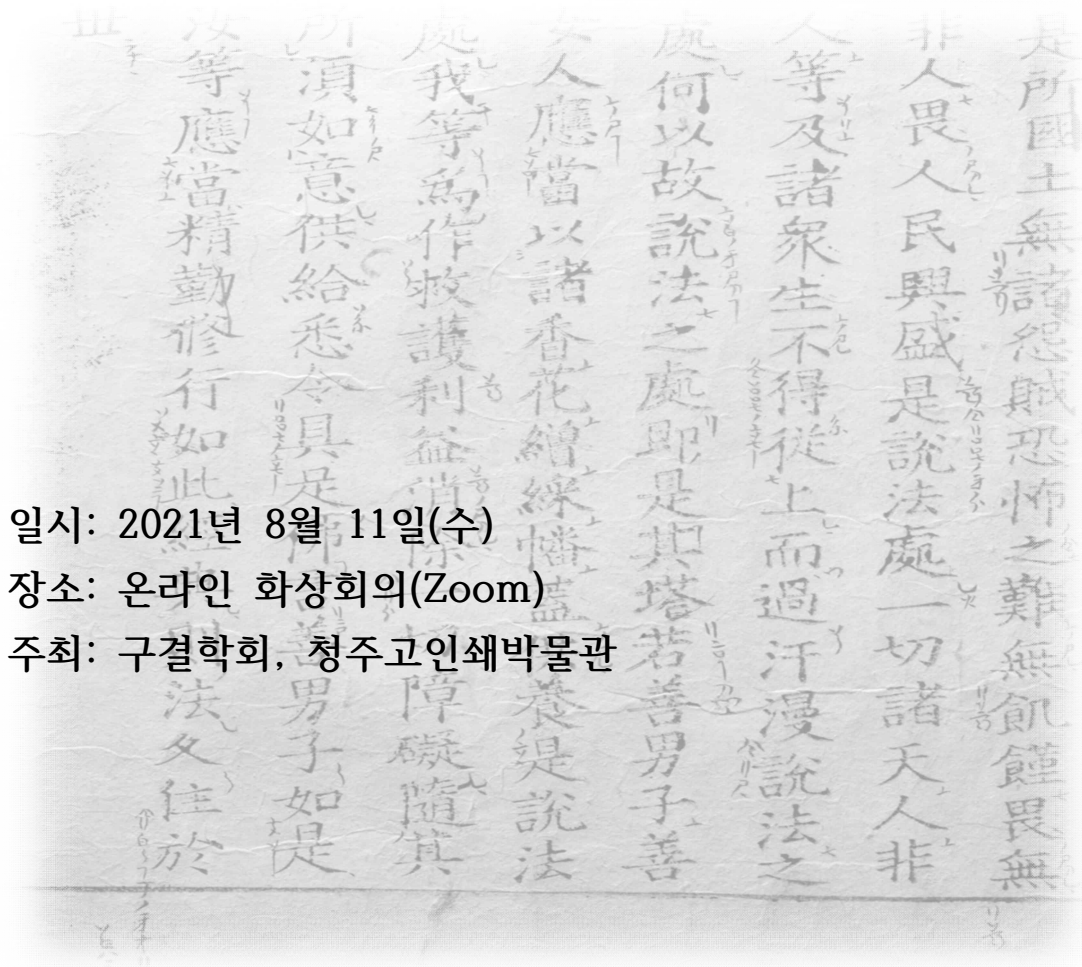
제60회 구결학회 여름 전국학술대회

고려시대 구결본 <합부금광명경> 연구

일시: 2021년 8월 11일(수)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주최: 구결학회, 청주고인쇄박물관



제60회 구결학회 여름 전국학술대회

고려시대 구결본 <합부금광명경> 연구

일시: 2021년 8월 11일(수)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주최: 구결학회, 청주고인쇄박물관

■ 제60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일정표 ■

2021년 8월 11일(수)

일 시		발 표 및 내 용	비 고
안내 및 개회	09:30-09:40	온라인 대기 및 학술대회 진행 관련 안내	사회: 문현수(인하대)
	09:40-09:50	개회사: 장윤희(구결학회 회장)	
[제1부]	개인 연구 발표		이준환(전남대)
	09:50-10:20	한국 한자음의 음절 대응을 통해 본 고대 한국어 '·'의 음가 발표: 장준익(남경대)	
	10:20-10:50	'+'의 중복 현토와 동시성 - 『화엄경소』 권35를 중심으로 발표: 주영민(서울시립대)	
	10:50-11:00	휴식	
	11:00-11:30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능엄경』구결에 대하여 발표: 정은영(대구가톨릭대)	
	11:30-12:00	두시언해의 선어말어미와 어미 구조체 연구 발표: 이수진(전남대)	
	12:00-13:00	점심 식사	
[제2부]	기획 주제 발표		장경준(고려대)
	13:00-13:30	『합부금광명경』 권3의 발견 및 공동 연구 과정 소개 발표: 허인영(고려대)	
	13:30-14:00	『합부금광명경』 권제3의 구결과 현대역의 비교 연구 - 원효의 『금광명경소』 집일본 현대역을 중심으로 발표: 김성주(동국대)	
	14:00-14:30	『합부금광명경』 자토·점토 구결의 기입 양상 - 오류와 수정 양상을 중심으로 발표: 김지오(동국대)	
	14:30-15:00	『합부금광명경』 권3 자토구결과 점토구결의 상관관계 발표: 이강혁(서울대)	
	15:00-15:30	점토석독구결 『합부금광명경』 권3에 사용된 빼침선 연구 발표: 문현수(인하대)	
	15:30-15:50	휴식	좌장 : 정재영 (한국기술교육대)
	15:50-16:20	[종합토론] 남경란(대구가톨릭대), 박진호(서울대), 박용식(경상대), 이병기(한림대)	
	16:20-16:30	휴식	
	초청 발표: 일본 훈점어학회 학자 초청		
	16:30-17:10	(한문훈독과 중세어 연구/한문훈독과 일본어 문체사) 발표: 山本真吾	장경준(고려대)
교육 및 폐회	17:10-17:20	연구윤리 교육	문현수(인하대)
	17:20-17:30	폐회사: 장윤희(구결학회 회장)	

■ 목 차

<개인 연구 발표>

한국 한자음의 음절 대응을 통해 본 고대 한국어 ‘ㆍ’의 음가	장준익	1
‘+’의 중복 현토와 동시성 - 『화엄경소』 권35를 중심으로	주영민	21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능엄경』구결에 대하여	정은영	31
두시언해의 선어말어미와 어미 구조체 연구	이수진	49

<기획 주제 발표>

『합부금광명경』 권3의 발견 및 공동 연구 과정 소개	허인영	67
『합부금광명경』 권제3의 구결과 현대역의 비교 연구 - 원효의 『금광명경소』 집일본 현대역을 중심으로	김성주	86
『합부금광명경』 자토·점토 구결의 기입 양상 - 오류와 수정 양상을 중심으로	김지오	102
『합부금광명경』 권3 자토구결과 점토구결의 상관관계	이강혁	125
점토석독구결 『합부금광명경』권3에 사용된 빼침선 연구	문현수	147

<초청 발표: 일본 훈점어학회 학자 초청>

(한문훈독과 중세어 연구/한문훈독과 일본어 문체사)	山本真吾	165
------------------------------------	------	-----

<개 인 연 구 발 표>

한국 한자음의 음절 대응을 통해 본

고대 한국어 ‘ㆍ’의 음가

張俊翼*

要 約

중고음 모음 ‘*ə’에 대응되는 한국 한자음 모음이 ‘ㆍ’였기 때문에 기존 학자들은 고대 한국어 ‘ㆍ’의 음가를 ‘*ə’로 봤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봤을 때 痕운(*an)과 登운(*aŋ)의 한국 한자음 모음으로 ‘ㆍ’보다 오히려 ‘ㅡ’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국 한자음 모음 ‘ㆍ’는 중고음 모음 ‘*ə’와만 대응돼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한국 한자음 모음 ‘ㆍ’는 운미 별로 상보적 분포를 이루고 있다. 운미가 ‘ŋ/k’, ‘n/t’인 중고음에는 핵모음 ‘*ə’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한자음에서 ‘ㆍ’가 ‘*ə’와 부분적으로 대응됐다. 운미가 ‘m/p’이거나 개음절인 중고음에는 ‘*ə’가 없어 일부 치음자의 대응 모음으로 ‘ㆍ’가 나타날 수 있었다. 운미가 ‘i’인 중고음에는 ‘*ə’도 없었고, 微운(*ii)에는 치음자도 없었기 때문에 중고음 중운 모음 ‘ʌ’를 ‘ㆍ’로 반영할 수 있었다.

한국 한자음의 위와 같은 상보적 분포 및 ‘ㆍ’와 ‘ㄱ’의 관계를 고려할 때 중고음 시기 한국어 모음 ‘ㆍ’의 음가는 ‘ʌ’가 아닌 ‘ɿ’였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중고음, 고모음, 한국 한자음, 음절 대응, /·/

1. 序論

현대 한국어에서 /·/는 이미 소실되었기 때문에 /·/의 음가가 무엇이었느냐에 대해서는 항상 학계에서 논란이 있어왔다.

<표1> 『훈민정음 제자해』(1446)의 모음 도식

	舌不縮	舌小縮	舌縮
口蹙		ㄷ	ㄱ
	ㅣ	ㅡ	ㆍ
口張		ㅏ	ㅑ

다행히도 15세기 訓民正音が 창제되어 다른 모음과의 관계 속에서 /·/의 음가를 추정할 수 있게 됐다. <표1>의 ‘口蹙’, ‘口張’, ‘舌縮’의 개념을 통해 보면 /ㅡ/가 /ㅏ/보다 고모음이면서 /ㄷ/와 달리 비원순 모음인 것과 마찬가지로 /·/도 /ㅑ/보다 고모음이면서 /ㄱ/와 달리 비원순 모음인 것을 알 수 있다. 또 /·/는 舌縮 모음으로서 /ㅑ/, /ㅏ/와 같은 후설 모음인 것도 알 수 있다.

제주도 방언의 사례¹⁾를 보며 허웅(1985)은 15세기 한국어 모음 /·/의 음가를 /*ʌ/와 같은 저모음에 속했을 것이라 추정했고 李基文(1972) 등 다른 학자들의 추정음도 대동소이하다.

* 남경대학교(南京大學) 문학원(文學院) 박사 졸업

1) 李克魯(1948: 19-20)에 따르면 제주도 방언의 ‘ㆍ’의 음가는 ‘ㅏ’와 ‘ㅑ’ 사이에 있다고 했다.

그러나 15세기 이전의 고대 한국어에서도 /·/의 음가는 /*Λ/였을까? 15세기 이전에는 한글이 없었기 때문에 고대 한국어에서 /·/의 음가를 추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고대 한국어의 음운 체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한국 한자음 및 고대 한국어의 漢文 기록²⁾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河野六郎(1968)은 한국 한자음에서 모음 ‘·’가 중국어 ‘*ə’와 주로 대응하는 것을 보고, 고대 한국어 모음 ‘·’의 음가가 ‘*ə’였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恒’[*ʏəŋ]³⁾의 15세기 한국 한자음은 ‘흥’이고, ‘恨’[*ʏən]의 15세기 한국 한자음은 ‘흔’이다.

伊藤智ゆき(2007), 위국봉(2015), 申祐先(2017) 등 후속 학자들도 河野六郎(1968)의 이같은 주장에 동조해 중고음을 차용하던 당시 고대 한국어 모음 ‘·’의 음가를 ‘*ə’로 재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음 모음 ‘*ə’가 한국 한자음에서 모두 ‘·’와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肯’[*kʰəŋ]의 15세기 한국 한자음은 ‘궁’이고, ‘根’[*kən]의 15세기 한국 한자음은 ‘근’인 것을 보면 ‘一’와도 대응된다. 또 ‘德’[*tək]의 15세기 한국 한자음이 ‘덕’이고, ‘賊’[*dzək]의 15세기 한국 한자음이 ‘적’인 것을 보면 ‘ㄷ’와도 대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 한자음 모음 ‘·’는 중고음의 다른 모음과도 대응된다. 예를 들어 ‘森’[*fim]⁴⁾의 15세기 한국 한자음은 ‘숨’이고, 『切韻』(601) 음운 체계의 1, 2등 重韻자 ‘皆’[*kæi]와 ‘改’[*kai]⁵⁾의 15세기 한국 한자음은 모두 ‘기’다.

<표2> 한국 한자음 모음 ‘·’의 대응 문제

중고음	ə	i, ɪ, i	æ	Λ
한국 한자음	· (일부)	· (精, 莊)	· (皆)	· (哈)
	恒 흥	思 스, 森 숨	皆 기	改 기
	一, ㄷ	一(莊), ɪ(章)	卜(威)	卜(覃)
	肯 궁, 德 덕	瑟 슬, 深 심	滅 감	感 감

정리하자면 한국 한자음에서 모음 ‘·’는 중고음 모음 ‘*ə’ 이외에 다른 모음과도 대응돼 나타나고 있으며 각 모음과의 대응 양상이 일관적이지 않다. ‘*ə’와 대응되는 모음은 ‘·’ 이외에도 ‘一’, ‘ㄷ’가 있다. 일부 치음의 한국 한자음 모음도 ‘·’ 이외에 ‘一’도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精, 莊조 성모자와 달리 章조 성모자의 경우 거의 일관적으로 대응 모음이 ‘ɪ’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한국 한자음은 모든 重韻 모음을 구분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유독 蟹攝운자의 경우에만 ‘*Λ’와 ‘*æ’를 ‘·’와 대응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한국 한자음 모음 ‘·’의 대응 문제에 대해서 기존 학자들의 견해를 참고하고자 한다. 먼저 중고음 모음 ‘*ə’와 한국어 모음 ‘·’의 대응 문제다. 이에 대해 河野六郎(1968), 申祐先(2017)은 중고음 모음 ‘*ə’와 한국 한자음 모음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은 다양한 역사

2) 예를 들어 『鷄林類事』(1103)와 같은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다만 한국어를 한자로 표현하는 한계로 인해 같은 자료를 참고했어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李基文(1968)은 『鷄林類事』(1103)를 통해 고대 한국어 /·/의 음가를 [*ɔ]라고 재구해 냈다. 반면 같은 자료를 보고서도 김동소(1998)는 고대 한국어에 /·/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3) 중고음의 재구음은 주로 潘悟雲(2000), 鄭張尙芳(2003)을 참고했다. 단 喉音의 경우 潘悟雲(2000), 鄭張尙芳(2003)은 ‘h’, ‘f’ 따위로 재구하나 위국봉(2015: 42)에서 지적하는 대로 중국어에는 원래 ‘x’와 ‘h’, ‘ɣ’와 ‘f’의 구분이 없고, 역사적으로 개음 ‘i’ 앞에서 ‘*x, *ɣ > ɕ’로 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x’, ‘ɣ’를 쓴다.

4) 潘悟雲(2000)은 莊조 성모자를 ‘tɕ’ 따위의 권설음으로 재구하나 鄭張尙芳(2003)은 ‘tʃ’ 같은 경구개음으로 재구하고 본고는 鄭張尙芳(2003)을 따른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5) 본고에서는 鄭張尙芳(2003)의 재구음 ‘*ai’를 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층위의 한자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河野六郎(1968: 238, 247)은 최세진의 『四聲通解』(1517)에서 중국어 모음 ‘ə’를 한국어 모음 ‘ㅡ’로 사음하는 것을 보고 중국어 모음 ‘ə’를 한국어 모음 ‘ㅡ’로 대응하는 것을 새로운 방법이며, ‘·’로 대응하는 것을 예전 방법으로 봤다. 즉, 중고음 시기 한국인은 ‘·’로 ‘ə’를 대응했으나 15세기 근대음 시기 한국인은 ‘ㅡ’로 ‘ə’를 대응했다고 본다. 그리고 ‘德’[*tək]의 한국 한자음 ‘덕’과 ‘賊’[*dzək]의 한국 한자음이 ‘적’은 상고음을 반영한 것이라 했다.

그러나 ‘德’과 ‘賊’ 모두 상고 職부(*ək)⁶⁾에 속한 한자이기에 상고음부터 중고음까지 크게 변화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四聲通解』(1517)에서 중국어 모음 ‘ə’를 한국어 모음 ‘ㅡ’로 대응해 표기했다고 해서 당시 한국어 모음 ‘ㅡ’가 ‘·’보다 중국어 모음 ‘ə’ 표기에 유리했다는 뜻이 아니다.

『四聲通解』(1517)에 수록된 『四聲通攷』 凡例를 보면 이 시기 중국어 모음 ‘ə’를 사음한 모음 ‘ㅡ’가 실제 한국어 모음 /ㅡ/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1) 『四聲通解』(1517) 중 『四聲通攷』 凡例

대체적으로 본국의 음은 가볍고 얕으나 중국의 음은 무겁고 깊다. 오늘날 훈민정음은 본국의 음을 기초로 한 것이라 만약 중국음에 적용하려면 반드시 변용해야만 문제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ㄴ’, ‘ㄷ’, ‘ㄹ’, ‘ㄺ’ 같이 입을 벌리는 모음은 초성을 발음한 뒤 입이 움직이지 않는다. ‘ㄱ’, ‘ㄲ’, ‘ㄷ’, ‘ㄸ’ 같이 입을 오므리는 모음은 초성을 발음한 뒤 혀가 움직이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 음의) 중성 ‘ㄴ’은 ‘ㄴ’과 ‘·’ 사이로, ‘ㄷ’은 ‘ㄷ’과 ‘·’ 사이로, ‘ㄹ’은 ‘ㄹ’과 ‘·’ 사이로, ‘ㄺ’은 ‘ㄺ’과 ‘·’ 사이로, ‘ㄻ’은 ‘ㄻ’과 ‘·’ 사이로, ‘ㄼ’은 ‘ㄼ’과 ‘·’ 사이로, ‘ㄽ’은 ‘ㄽ’과 ‘·’ 사이로, ‘ㄾ’은 ‘ㄾ’과 ‘·’ 사이로, ‘ㄿ’은 ‘ㄿ’과 ‘·’ 사이로 발음해야 중국음에 적합하게 된다. 이제부터 중성이 변한 것에 대해서는 중성 맨 앞 자 밑에 풀어 설명하겠다.⁷⁾

『四聲通攷』 凡例에서 중국어 모음 ‘·’와 ‘ㅡ’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둘 다 한국어 모음 ‘·’와 ‘ㅡ’ 사이로 발음해야 한다고 것을 보면 동모음 ‘ə’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四聲通解』(1517)에서 ‘ㅡ’로 중국어 모음 ‘ə’를 사음한 것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은 사음 모음으로 ‘·’가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四聲通攷』 凡例의 설명대로 중국어 모음 ‘ə’ 표기를 위해 사용된 모음 ‘ㅡ’가 한국어 모음 ‘·’와 ‘ㅡ’ 사이로 발음해야 하는 것이라면 ‘·’가 다시 등장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즉, 『四聲通解』(1517)에서 한국어 모음 ‘ㅡ’가 중국어 모음 ‘ə’ 표기에 더 유리했기 때문에 ‘·’가 아닌 ‘ㅡ’로 중국어 모음 ‘ə’를 표기한 것은 아닌 것이다.

예를 들어, 현대 한국어에는 영어의 ‘f’가 없다. 따라서 한국인은 영어 외래어 ‘Fighting’[faiɪŋ]을 ‘파이팅’으로도 발음하고, ‘화이팅’으로도 발음한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일관적인 표기를 위해 ‘파이팅’을 표준음으로 규정했지만 그렇다고 한국인이 현대 영어

6) 본고의 상고음 재구음은 唐作藩(2013)을 따른다. 단, 鄭張尙芳(2003)은 職부의 핵모음을 ‘u’로 재구한다.

7) 大抵本國之音輕而淺, 中國之音重而深. 今訓民正音出於本國之音, 若用於漢音, 則必變而通之, 乃得無礙. 如中聲 ㄴ ㄷ ㄹ 張口之字, 則初聲所發之口不變. ㄱ ㄲ ㄸ 縮口之字, 則初聲所發之舌不變. 故中聲爲 ㄴ 之字, 則讀如 ㄴ · 之間. 爲 ㄷ 之字, 則讀如 ㄷ · 之間. ㄹ 則 ㄹ 一 之間, ㄺ 則 ㄺ 一 之間, ㄻ 則 ㄻ · 之間, ㄼ 則 ㄼ · 之間, ㄽ 則 ㄽ 一 之間, ㄾ 則 ㄾ 一 之間, ㄿ 則 ㄿ 一 之間. 然後庶合中國之音矣, 今中聲變者, 逐渭中聲首字之下論釋之.

‘Fighting’[faitɪŋ]을 ‘파이팅’으로만 발음하는 것은 아니다. 언중에서는 여전히 ‘화이팅’으로도 발음한다.

申佑先(2017: 190, 211)은 중국어 모음 ‘ə’의 대응 모음이 ‘·’인 것은 痕(*ən), 眞운(*in)과 登(*əŋ), 蒸운(*iŋ)을 구분했던 위진남북조 시대의 한자음을 반영한 것이며, 대응 모음이 ‘一’인 것은 唐대 痕(*ən), 眞운(*in)과 登(*əŋ), 蒸운(*iŋ)의 합류한 것을 반영한 것이라 했다. 그러나 한국어는 중국어의 방언이 아니며 한국 한자음은 기본적으로 중국어를 외국어로서 수용한 결과물이다. 차용되는 언어의 음운 체계가 차용하는 언어의 음운 체계와 다를 때 일대다 대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현대 영어 ‘ɔ’와 완전히 일치하는 현대 한국어 모음이 없는 상황에서 현대 영어 ‘ɔ’는 한국어 외래어에서 ‘ㅓ’로도 나타날 수 있고, (‘coffee’[kɔ : fi]의 한국어 외래어는 ‘커피’다.) ‘ㅓ’로도 나타날 수 있다. (‘audio’[ɔ : dioʊ]의 한국어 외래어는 ‘오디오’다.) 그리고 현대 영어 ‘oʊ’의 한국어 외래어 모음은 당연히 ‘ㅓ’다. (‘open’[oʊpən]의 한국어 외래어는 ‘오픈’이다.) 申佑先(2017: 190, 211)의 주장은 마치 한국어 외래어에서 일부 ‘ɔ’를 ‘ㅓ’로 반영한 것을 두고 현대 영어의 ‘oʊ’가 일부 ‘ɔ’와 합류했다고 보는 것과 같을 수 있다.

伊藤智ゆき(2007: 330)는 平山久雄(1998)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고음 당시 登운(*əŋ)의 운미가 ‘ŋ/k’가 아닌 ‘n/c’였다고 봤고 ‘əŋ > əɪŋ > eŋ(ɪŋ)’의 음운 변화가 있었음을 추정하면서 한국 한자음 모음 ‘一’는 ‘eŋ’의 핵모음을 ‘一’로 반영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위국봉(2015:119)이 지적한 대로 일본 학계에서 제기된 ‘n/c’ 운미설을 직접 지지해줄 고대 기록이 없어 일반적으로 중국 학계에서는 이 학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국봉(2015: 120)은 당오대 서북방음(763-857)의 漢藏對音を 근거로 중고음 모음 ‘*ə’가 당오대 서북방음에서는 ‘i’로 바뀐 것을 한국 한자음이 반영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漢藏對音 자료 역시 외국인이 중국어를 전사한 것이라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중고음 모음을 藏音 ‘ə’로 전사한 예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중고음 모음 ‘ə’를 ‘i’나 ‘e’로 전사했다고 해서 당오대 서북방음의 ‘ə>i’ 변화를 가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중고음 모음 ‘ə’와 완전히 일치하는 藏語 모음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i’나 ‘e’로 전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중국어 일부 치음과 한국 한자음 모음 ‘·’의 대응 문제다. 有坂秀世(1944)는 한국 한자음의 주요 역사층위가 宋代 開封音이라고 봤는데 莊조 성모자의 한국 한자음 모음이 ‘·’인 것도 권설음을 반영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森’[*fim]의 근대음에서는 ‘sə m’⁸⁾인데 한국 한자음 ‘숨’의 모음 ‘·’가 바로 근대음 모음 ‘ə’를 반영한 것이 된다.

止섭운자의 한국 한자음은 精조 성모자도 莊조 성모자와 마찬가지로 ‘·’인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도 근대음 모음 ‘i’(精조), ‘ɪ’(莊조)를 각각 반영한 것으로 봤다.

河野六郎(1968)은 한국 한자음의 주요 역사층위를 『慧琳音義』(807)⁹⁾ 시기로 봤지만 동시에 여러 역사 층위의 한자음도 차용한 흔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有坂秀世(1944)의 학설을 일부는 받아들였다. 즉, 일부 치음자의 한국 한자음 모음 ‘·’는 주 역사층위인 b층(『慧琳音義』 807)이 아닌 c층(宋代 開封音)의 흔적으로 본 것이다.

다만 위국봉(2015: 104)이 지적하는 것처럼 한국 한자음에서는 莊조와 章조 성모자의 대응 음절이 다른 것에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侵운[*im]자 임에도 莊조 ‘森’[*fim]의 한국

8) 중국어 근대음은 기본적으로 『中原音韻』(1324)의 음운을 참고하며 그 재구음은 寧繼福(1985)을 따른다.

9) 慧琳의 『一切經音義』(807)를 말한다. 玄應의 『一切經音義』(649)와 구분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慧琳音義』(807)로 약칭한다.

한자음은 ‘습’이지만 章조 ‘深[*cim]의 한국 한자음은 ‘심’이다.

비록 『慧琳音義』(807)에서는 『切韻』(601)의 음운 체계와 마찬가지로 莊, 章조 성모가 구분되어 있지만 唐五代 서북방음(763-857)에서는 둘을 구분하지 못하며, 唐末 守溫의 三十字母에서도 이미 莊, 章조가 照조 하나로 합류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만약 莊조자의 한국 한자음 모음 ‘·’가 宋代 開封音を 반영한 것이 맞다면 章조는 물론 知조¹⁰⁾ 성모자의 한국 한자음에서도 일부라도 대응 모음 ‘·’가 나타나는 것이 이치에 맞지만 한국 한자음은 이들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분명한 중고음의 특징이며 위국봉(2015)은 이 역시도 한국 한자음이 『慧琳音義』(807) 시기의 한자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위국봉(2015: 98-99)에서는 『切韻』(601) 음운 체계의 侵운(*im)이 唐 武玄之의 『韻詮』에서 琴운과 岑운으로 분화됨을 지적했는데 岑운에는 莊조 성모자만 있다. 한국 한자음은 이를 반영해 대응 모음이 ‘·’가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止섭운의 변이음 ‘i’, ‘ɿ’에 대해서도 『慧琳音義』(807)의 반절을 조사하면 莊조 성모자는 莊조 성모자끼리 精조 성모자는 精조 성모자끼리 반절 下字를 공유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慧琳音義』(807) 시기에 이미 精, 莊조 성모의 모음이 ‘i>ɿ, ɿ’와 같은 변화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다만 有坂秀世(1944)와 위국봉(2015)은 역사 층위에 대해서만 견해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들은 모두 일부 치음의 한국 한자음 모음 ‘·’를 중고음 모음 ‘i/i/ɿ’의 변이음 모음 ‘ə’, ‘i’, ‘ɿ’를 반영한 결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伊藤智ゆき(2007: 250)는 중국어 모음 ‘i’, ‘ɿ’가 한국어 모음 ‘ㅡ’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했다. 만약 옛 한국어 모음 ‘·’의 음가가 ‘ə’였다면 ‘ㅡ’가 ‘i’, ‘ɿ’와 더 가까운데 한국 한자음에서는 ‘ㅡ’가 아닌 ‘·’가 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申祐先(2009)은 중국어 방언 및 근대 운서 운부의 규범을 통해 볼 때 止섭 開口韻 치음자의 핵모음이 ‘i>əi>ə>ɿ, ɿ’의 방향으로 변해갔고, 精, 莊조 성모자의 한국 한자음은 ‘ə’ 역사 층위의 한자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申祐先(2009: 15-16)은 朱熹의 『詩集傳』에 볼 때 精, 莊조 성모자가 서로 ㅁ音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한국 한자음이 바로 이 당시의 한자음을 차용한 결과라고 했다.

이렇듯 학자들마다 역사 층위 및 구체적인 음가에 대해서 세부적인 차이점은 있지만 일부 치음, 적어도 莊조 성모자의 한국 한자음 모음이 ‘·’가 된 것에는 중국어 자체의 역사 변화를 반영한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潘悟雲(2000)의 중고음 음운 체계에서 모음이 ‘i/i/ɿ’인 모든 莊조 성모자의 모음은 역사적으로 ‘ə/ɿ/ɿ’ 따위로 변하지만 한국 한자음에서는 止섭운(*i)과 侵운(*im/p) 莊조 성모자의 대응 모음만 ‘·’고, 다른 운 莊조 성모자의 대응 모음은 ‘·’가 아니다. 예를 들어 止섭운 ‘師’[*ʃi]와 侵운 ‘澁’[*ʃip]의 한국 한자음은 각각 ‘스’, ‘습’¹¹⁾인데 반해 ‘瑟’[*ʃip]의 한국 한자음은 ‘슬’이다.

앞서 중고음 모음 ‘ə’의 대응 모음도 ‘·’와 ‘ㅡ’가 혼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치음 변이음 ‘ə/ɿ/ɿ’의 대응 모음에도 ‘·’와 ‘ㅡ’가 혼재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10) 근대음에서는 知, 莊, 章조 성모가 모두 권설음으로 합류한다.

11) 權仁瀚(2019)에서는 ‘습’이나 다른 侵운(*im) 莊조 성모자의 한국 한자음 모음도 ‘·’며, 현대 한국 한자음 ‘샵’의 재구형을 추정하면 ‘습’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입성자 ‘瑟’[*ʃip]의 한국 한자음과 대조, 비교하기 위해 무리해서 ‘澁’[*ʃip]을 예로 들었다.

옛 한국어 모음 ‘ㆍ’가 중국어 모음 ‘ə’와 완전히 일치하는 모음이었는지 의심스럽다.

마지막으로 중고음 重韻과 한국 한자음 모음 ‘ㆍ’의 대응 문제다. 河野六郎(1968)은 Karlgren(1926)의 중고음 재구음을 주로 참고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왜냐하면 Karlgren(1926)은 중고음 重韻의 차이를 단순히 장단음의 차이로 봤는데 河野六郎(1968)은 ‘ㄴ’은 장모음과, ‘ㆍ’은 단모음과 각각 대응된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 학계에서는 중고음 重韻의 차이를 모음 음가의 차이로 보고 있다. 다만 哈, 覃운 핵모음의 음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한국 한자음 대응 모음 ‘ㆍ’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Pulleyblank(1962), 黃笑山(1995), 潘悟雲(2000)의 경우 泰, 談운의 핵모음 ‘a’와 대비해 哈, 覃운의 핵모음을 ‘ə’로 재구한다. 만약 이 재구음이 옳다면 ‘ㆍ’와 ‘ə’가 대응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 논의와 크게 모순되지 않는다. 즉 哈운자 ‘改’의 한국 한자음이 ‘기’라고 해도 哈운의 핵모음이 ‘ə’라면 河野六郎(1968) 등 한국 한자음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대체적으로 ‘ㆍ’의 음가를 ‘ə’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고음과 중고음은 시기상 거리가 너무 멀고, 『切韻』(601)의 哈, 覃운은 『慧琳音義』(807)에서 200년 여 년만에 泰, 談운의 모음 ‘a’와 합류한다.

마치 15세기 한국어 모음 ‘ㆍ’가 시기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ㅏ’와 합류하기 때문에 15세기 한국어 모음 ‘ㆍ’의 음가에 대해서 ‘ㅏ’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듯이 邵榮芬(1982), 鄭張尙芳(2003)은 哈, 覃운의 핵모음을 ‘b’나 ‘ㅏ’ 같은 저모음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본고에서는 鄭張尙芳(2003)의 ‘ㅏ’를 취한다. 문제는 哈, 覃운의 핵모음이 ‘ㅏ’라면 중고음 차용 시기 한국어 모음 ‘ㆍ’의 음가는 15세기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ㅏ’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哈운(*ʌi) 말고 皆운(*æi)의 한국 한자음 대응 모음도 ‘ㆍ’다. 예를 들어 앞서 설명했듯이 ‘皆’[*kæi]의 한국 한자음이 ‘기’다. 또한 蟹屑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覃운(*ʌm)의 경우 대부분의 한국 한자음 대응 모음이 ‘ㅏ’며, ‘ㆍ’인 경우가 도리어 극히 적다.¹²⁾

정리해 보면 한국 한자음 모음 ‘ㆍ’와 중고음 모음의 대응이 매우 혼란스럽다. 상이한 모음과 대응돼 있고, 대응 양상도 일관적이지 못하다. 게다가 기존 학자의 주장대로라면 宋代 開封音 혹은 후기 중고음 모음 ‘ə’, ‘ɿ/ʌ’로 변한 것을 반영한 것도 ‘ㆍ’고 『切韻』(601) 음운 체계의 重韻 모음 ‘ㅏ’, ‘æ’를 반영한 것도 ‘ㆍ’다. 다른 한국 한자음 모음보다 반영된 역사층위의 편차가 큰 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중고음 모음 ‘ə’에 대응되는 한국 한자음을 심도 있게 검토해보고자 한다. 중고음에서 모음이 ‘ə’인 痕(*ən), 登운(*əŋ)의 경우 상고음에서도 文(*ən), 蒸부(*əŋ)에 거의 속해 있다. 또한 입성자를 제외하고 근대음에서도 眞文(*ən), 庚靑(*əŋ)운에 속해 있어 변화가 적었다.

따라서 痕(*ən), 登운(*əŋ)의 한국 한자음 모음은 입성 운미가 탈락하지 않았다면 어떤 역사 층위의 한자음을 받아들였든 중국어 모음 ‘ə’와의 대응 관계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 다음 한국 한자음 모음 ‘ㆍ’가 어떻게 중고음 모음 ‘ə’ 말고 다른 모음의 대응 모음으로도 나타날 수 있었는지 한국 한자음의 음절 대응 및 옛 한국인의 중고음 인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2) 예를 들어 ‘蠶’[*dzʌm]의 한국 한자음이 ‘좁’인데, 상용한자 중에서 중고음 覃운(*ʌm)자 중에 한국 한자음 대응 모음이 ‘ㆍ’인 유일한 예외다.

마지막으로 한국 한자음 모음 ‘ㆍ’의 음절 분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중고음 시기 한국어 모음 ‘ㆍ’의 음가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2. 중고음 모음 ‘ㅐ’와 한국어 모음의 대응 문제

한국 한자음의 구체적인 실례에 대해서는 기존 학자들의 연구를 참고했다. 특히 伊藤智ゆき(2007), 權仁瀚(2009)에서는 여러 운서 및 사전류 서적에서 15세기 및 16세기 한국 한자음을 조사하였는데 본문에서는 이들의 자료를 주로 참고했다. 또한 현대 한국어의 상용한자 3,500개를 주요 비교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이유는 상용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음이 실제 구어 중에 발화됐는지 의심스럽고, 구어 중에 발화되지 않았던 한자음은 운서에 의해 규정된 음으로 나타나거나 聲符에 의해 유추된 한자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15, 16세기 문헌에서 3회 이상 출현한 한자음¹³⁾의 경우에는 상용한자 3500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 보편적인 사용을 근거로 주요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운모 성모	痕 *ən/t		登 *əŋ/k	
幫p				北 북
並b				
滂pʰ				
明m				墨 목
端t			德 덕	登/得 등/득
定d				騰/特 등/특
透tʰ	呑 툐			愿 특
泥n				能 능
來l				稜/勒 룡/록
精ts				增/則 증/즉
從dz			賊 적	贈 증
淸tsh				
心s				僧 승
見k	良 ㄹ	根 ㄴ	巨 흥	
溪kʰ	懇 ㄴ		刻 ㄷ	肯/克 ㄱ/극
曉x				黑 흑
匣ɣ	恨 흥	痕/飢 혼/홀	恒 흥	
疑ŋ		根 은		
影(?)		恩 은		

<표3> 痕, 登운 한국 한자음의 실례¹⁴⁾

<표3>을 통해 보면 중고음 모음 ‘ㅐ’는 한국어 모음 ‘ㆍ’와 ‘ㅡ’로 주로 대응된다.

‘ㅡ’로 나타나는 경우는 단 두 예밖에 없고 모두 입성자에 한한다. ‘ㄴ’가 앞서 河野六郎(1968)의 주장대로 상고음을 받아들인 것이라 볼 수는 없지만 극히 적은 예로 나타나는 만큼 예외적인 대응으로 본다면 중고음 모음 ‘ㅐ’는 한국어 모음 ‘ㆍ’와 ‘ㅡ’로 주로 대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만약 옛 한국어 모음 ‘ㆍ’의 음가가 정말 중고음 모음 ‘ㅐ’와 같았다면 중고음 모음 ‘ㅐ’

13) 伊藤智ゆき(2007)의 자료를 참고해 3회 이상 출현의 기준을 정한다.

14) 중복되는 한자음 음절은 구태여 반복해 제시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懇’과 ‘懇’은 중고음에서 동음자인데 이런 경우 한국어에서 좀더 자주 쓰는 ‘懇’만을 제시했다.

는 대부분 ‘ㆍ’와 대응돼야 한다. 하지만 본고의 연구 대상인 상용한자 중에 중고음 모음 ‘ə’가 ‘ㆍ’와 대응되고 있는 것은 겨우 8개고, (吞良壘懇恨刻恒亘¹⁵⁾) ‘一’와 대응되고 있는 것은 38개로 ‘一’와의 대응이 도리어 압도적으로 많다.

앞서 ‘ㄴ’와의 대응례가 두 예밖에 없어 예외적인 대응이라고 했는데 ‘ㆍ’와의 대응도 주류 대응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중고음 시기 한국어 모음 ‘一’의 음가가 ‘ə’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성모 \ 운모	微 *ii	殷 *in/t	登 *iq/k	
幫p			氷	빙
並b			憑	빙
知t			徵/植	딩/딕
澄d			澄/直	딩/딕
徹t ^h			勅	딕
娘n			匿	닉
來l			陵	릉
精從章 ts/dz/tc			蒸/卽 증/즉	職 직
淸昌 tsh/tc ^h			稱	칭
心書 s/ç			升	승
邪船禪 z/dz/z			承	승
莊 tʃ				側 측
初 tʃ ^h				測 측
見k	幾 기	斤 근	兢 궁	棘 극
群g	祈 기	勤 근		極 극
溪k ^h	氣 기			
曉x	希 희	欣 혼	興 흥	
疑ŋ	毅 의		凝 응	
影(?)	依 의	殷 은	應 응	
以j			孕 잉	翼 익

<표 4> 微, 殷, 蒸운 한국 한자음의 실례¹⁶⁾

潘悟雲(2000)의 중고음 음운 체계에서 之운의 재구음도 ‘*i’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 한자음에서 之운은 이미 支(*ie), 脂운(*)과 합류했다. 또 潘悟雲(2000)은 幽운을 鄭張尙芳(2003)은 尤운을 각각 ‘*iu’ 따위로 재구하지만 한국어에는 운모가 ‘ㅍ’ 또는 ‘ㄷ’로 변형돼 나타나기 때문에 ‘一’와의 대응을 보이는데 유리하지 못해 <표 4>에서 보이지 않았다.

<표 4>에서 보듯이 중고음 모음 ‘i’가 한국 한자음에서 대체적으로 모음 ‘一’로 대응돼 나타나는 것을 보면 중고음 당시에 모음 ‘一’의 음가는 ‘i’와 비슷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ㅣ’와 대응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3등 개음 ‘i’를 반영한 것이다. 潘悟雲(2000) 음운 체계의 재구음 ‘*i’는 Karlgren(1926) 등 초기 중고음 연구에서는 ‘*ia’로 재구됐었다. 潘悟雲(2000:80)에서 ‘*ia > *i’의 변화를 추정하며 새롭게 재구한 것이다. 즉, 중고음 모음 ‘*i’는 ‘i’

15) ‘亘’의 15세기 한국 한자음 기록은 ‘흥’이지만 현대 한국 한자음은 ‘궁’이다. 원래 見모자이기 때문에 ‘궁’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15세기 기록은 ‘恒’의 유추음으로 생각된다.

16) 역사층위가 다른 예외 대응의 한자음은 표에 보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力[*lik]은 <표 4>에서 보이는 것처럼 ‘력’ 혹은 ‘릭’이 원칙이겠지만 실제로 15세기 한국 한자음은 ‘력’이다. 이는 河野六郎(1968)이 주장한 것처럼 梗섭과 曾섭의 혼란을 보여주는 예로 역사층위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의 영향을 받은 ‘ə’의 변이음이지만 개음 ‘i’의 영향이 강하게 남은 경우에 한해 ‘i’와의 대응도 불가능한 게 아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중고음 모음 ‘*i’가 ‘·’로 대응되는 예는 아예 없다는 것이다.

정리해 보면 중국어 모음 ‘*ə’는 한국 한자음에서 ‘ㅡ’와 ‘·’로 대응돼 있고, ‘*i’는 ‘ㅡ’와 ‘i’로 대응돼 한국 한자음은 ‘*ə’와 ‘*i’를 어느 정도 구별했다고 볼 수 있다. 즉, ‘ㅡ’는 기본적으로 ‘*i’와 대응되지만 ‘*ə’와도 가까웠던 것이다. 반면 ‘·’는 ‘*ə’와만 대응돼 나타나며 ‘*i’와는 완전히 대응될 수 없었다.

국제 음성 기호 때문에 혼란이 있어서 그렇지 중국어 모음 ‘ə’와 현대 한국어 모음 ‘i’는 엄연히 다른 모음이고, 오히려 현대 한국어에서는 ‘ㅡ’와 가깝다. 예를 들어, ‘愿’[ən]의 현대 보통화의 국제 음성 기호도 ‘ən’이다. 그러나 중국어 모음 ‘ə’는 ‘ɤ’가 변이음으로 나타나는 고모음으로 현대 보통화 ‘ən’을 표준 한국어를 구사하는 현대 한국인이 들었을 때 ‘언’보다는 ‘은’에 더 가깝게 들린다.

통시적인 관점에서 중국어 韻母는 개음 및 입성 운미의 영향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愿’[ən]에는 개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입성 운미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 한자음은 상고 文부(*ən), 중고 痕운(*ən), 근대 眞文운(*ən)에 속해 변화가 없었다.

앞서 살펴봤듯이 중고음 당시 한국어 모음 ‘ㅡ’가 ‘*i’와 대응돼 있는 것을 보면 현대 한국어 ‘ㅡ’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 경우 중고음 모음 ‘*ə’와 한국 한자음 모음 ‘ㅡ’의 대응이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운모 성모	魂登 *uən/ŋ/t/k		文蒸 *iun/ŋ/t/k ¹⁷⁾
幫p	本 분	奔 분	分/不 분/불
並b	勃 불	盆 분	焚/佛 분/불
滂pʰ		噴 분	芬/拂 분/불
明m	沒 물	門 문	文/物 문/물
端t	敦 돈		
定d	豚/突 돈/돌	臀 돈	
透tʰ			
泥n		訥 늘	
來l	論 론		
精ts	尊/卒 존/졸	樽 준	
從dz	存 존		
淸tsh	村/猝 촌/졸		
心s	孫 손		
見k	昆/骨 곤/굴	國 국	君 군
群g			群/掘 군/굴
溪kh	困 곤	窟 굴	屈 굴
曉x	昏/忽 혼/홀		訓 훈
匣ɣ	婚/弘/或 혼/홍/혹		
云ɣj			云 운
影(?)	溫 온		鬱 울

<표5> 魂, 文운과 登, 蒸 합구호운 한국 한자음의 비교

재미있는 것은 合口呼운의 관계도 開口呼운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중고음 모음 ‘*ə’와 대응되는 한국 한자음 모음이 ‘·’와 ‘ㅡ’고, ‘*i’와 주로 대응되는 한국 한자음 모음이 ‘ㅡ’인

17) 潘悟雲(2000)은 文운을 ‘iun’으로 재구하나 諄운(*iun)과 대조해 보면 鄭張尙芳(2003)의 재구음 ‘iun’이 타당해 보인다.

것처럼 ‘*uə’¹⁸⁾와 대응되는 한국 한자음 모음은 ‘ㄱ’과 ‘ㄷ’며, ‘*iu’와 주로 대응되는 한국 한자음 모음은 ‘ㅌ’다. 한국어에서 비원순 모음 ‘·/ㅡ’가 원순 모음으로 활용될 때 각각 ‘ㄱ/ㄷ’로 변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결과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본고의 연구 대상인 상용한자 중에 중고음 모음 ‘*uə’가 ‘ㄱ’과 대응되고 있는 것은 39개고, ‘ㅡ’와 대응되고 있는 것은 12개다. 이번에는 반대로 ‘·’의 원순 모음 활용형 ‘ㄱ’이 ‘ㅡ’의 원순 모음 활용형 ‘ㅌ’보다 더 대응례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開口운과 ㅁ口운의 대응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ㄱ’과 ‘ㅡ/ㅌ’는 대응상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 한자음에서 역사 층위가 다른 한자음은 주류 한자음에 비해서 소수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江운(*ʌŋ)의 한국 한자음 모음은 대부분 ‘ㅌ’고, ‘·’인 것은 ‘學’[*ɣʌk]의 한국 한자음 ‘혹’ 하나뿐이다. 당연히 ‘혹’(學)이 역사 층위가 다른 한자음이고 나머지 모음이 ‘ㅌ’인 것이 주류 한국 한자음이다.

河野六郎(1968), 申佑先(2017)의 주장대로 중고음 모음 ‘ə(ɣ)’의 대응 모음 ‘·’와 ‘ㅡ’가 역사 층위가 다른 한자음이라면 한국 한자음은 주로 중고음 역사층위를 반영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소수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이다. 또한 중국어 모음 ‘ə(ɣ)’ 자체가 입성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역사층위가 다른 한자음이 나오기도 힘들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와 ‘ㅡ’는 둘다 ‘ə(ɣ)’와 비슷한 모음이었지만 완전 일치하는 모음이 아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해 보이며, 중고음 모음 ‘ə(ɣ)’와의 대응 양상만으로 ‘·’의 음가를 함부로 재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중고음 시기 ‘·’의 음가는 15세기 한국어처럼 ‘ʌ’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만약 중고음 당시 한국어 모음 ‘·’의 음가도 15세기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ʌ’였다면 ‘ʌ’는 ‘ə(ɣ)’와 가깝지도 않고, 아주 상이한 모음 ‘ㅡ’[ɯ]와 ‘·’[ʌ]가 동시에 ‘ə(ɣ)’에 대응돼 나타난 것이 된다. ㅁ口呼운 모음 ‘ㅌ’[u]와 ‘ㄱ’[o]와의 상관성을 고려하면, ‘ㅡ’, ‘·’의 음가는 ‘ㅌ’, ‘ㄱ’의 음가와 마찬가지로 꽤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한국 한자음 모음 ‘·’가 중고음 모음 ‘ə(ɣ)’와만 대응돼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한국 한자음 모음 ‘·’가 다른 중고음 모음과 어떻게 대응될 수 있었는지 한국 한자음 모음 ‘·’와 중고음 모음 간의 대응 관계를 확인한 다음에야 중고음 시기 한국어 모음 ‘·’의 음가에 대해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한국 한자음 모음 ‘·’의 상보적 분포

3.1. 일부 처음의 한국 한자음 모음 ‘·’

한국 한자음에서 莊조 성모자의 대응이 독특한 것은 비단 모음 ‘·’와의 대응만의 문제는 아니다. 3등운자의 한국 한자음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莊조 성모자의 한국 한자음은 다른 치음자와 다른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8) 潘悟雲(2000)에서는 ‘*uo’로 재구한다. ‘ə’와 합구호 개음 ‘u’의 영향으로 ‘o’로 변한다고 보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비교를 위해서 鄭張尙芳(2003)의 ‘uə’를 취한다.

<표 6> 3등 치음자의 한국 한자음 대응 양상

성모 운모	精조					莊조					章조				
	精 ts	從 dz	清 tsh	心 s	邪 z	莊 tf	崇 dʒ	初 tʃʰ	生 ʃ	侯 ɜ	章 te	昌 tɕʰ	書 ɕ	船 dz	禪 z
陽 ¹⁹⁾ *iaŋ/k	將 장		槍 창	相 상	詳 상	莊 장	常 상	創 창	霜 상		章 장	昌 창	商 상		常 상
支脂之 *i	子 즈	字 즈	此 츠	司 스	辭 스		士 스		使 스	侯 스	支 지	侈 치	施 시	示 시	是 시
侵 *im/p	浸 침	集 집	侵 침	心 심	尋 심	簪 줌		參 참	森 삼		斟 짐	瀋 심	深 심		甚 심
眞臻 *i(i)n/t	津 진	秦 진	親 친	新 신	燼 신	櫛 즐			瑟 슬		眞 진	噴 진	申 신	神 신	辰 신
蒸 *iŋ/k	稷 직			息 식		側 측	測 측				織 직	稱 칭	識 식	食 식	殖 식
魚 *io		咀 저	睢 저	絮 서	序 서	阻 조	助 조	初 초	所 소			處 처	書 서	抒 서	署 서
虞尤 ²⁰⁾ *i/iu	酒 유		秋 추	需 슈	袖 슈	鄒 추		芻 추	數 수		朱 유	樞 슈	收 슈		受 슈
支脂 *iui	醉 취	萃 취	翠 취	雖 슈	隨 슈				衰 쇠		雖 슈	吹 취	水 슈		睡 슈
諄 *iun/t	俊 준		竣 준	筍 순	巡 순				率 솔		準 준	春 춘	瞬 순	脣 순	純 순
東 *iuŋ/k				宿 속			崇 숭		縮 축		衆 중	充 충	叔 속		熟 속

<표 6>을 보면 3등 莊조 성모자의 한국 한자음은 다른 치음자와 달리 개음 ‘i’가 없는 것은 기본이고, 핵모음도 일반적으로 다른 것이 특징적이다. 예외는 東 3등운뿐이고, 앞서 언급했듯이 止섭운의 경우에는 精조 성모도 莊조 성모와 같은 경향을 보인다.

止섭운은 매우 특이한 경우기 때문에 후술하도록 하고, 우선 한국 한자음에서 莊조 성모자가 다른 치음자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중국어의 역사 변화와 한국인의 중국어 성모 인지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표 7> 중국어 치음의 역사 변화

시대 성모	상고음	중고음	근대음
精조	tsi-	tsi-	tei-
莊조	tsri-	tʃi-	tɕ-
章조	ti-	tei-	

周組謨(1957), Karlgren(1963), 黃侃(1980), 李方桂(1980), 鄭張尙芳(2003) 등 학자들의 상고음 연구를 참고해 보면 중고음 시기의 세 종류 치음은 상고음 성모와 개음과 관련 있는 음운 변화의 산물임을 잘 알 수 있다.

精조 성모는 상고음에서 중고음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이고, 章조 성모는 상고음 당시에는 설음이었던 것이 개음 혹은 모음 ‘i’의 영향을 받아 치음이 된 것이다.

중고음 차용 시기 한국어에서는 아직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옛 한국어에서 치음 성모는 개음 ‘i’와 결합할 수 있었지만 중국어처럼 ‘tsi’와 ‘tei’를 구분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중고음의 精조 성모는 3등 개음의 영향으로 점차 구개음 ‘*tsi > tei’로 변해 가는데 한국어 치음에서도 훗날 같은 역사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

19) 潘悟雲(2000), 鄭張尙芳(2003)은 陽운을 ‘*ieŋ’로 재구한다. 그러나 한국 한자음의 대응 양상을 볼 때 邵榮芬(1982) 같은 이전 학자들의 재구음인 ‘*iaŋ’을 취한다.

20) 潘悟雲(2000)은 尤운(*iu)과 구분하기 위해 ‘io’로 재구하나 중국어가 본래 ‘o’와 ‘u’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통시적으로도 魚운(*io)과 함께 ‘u’나 ‘y’로 변한다. 옛 한국인은 尤운(*iu)과 거의 동음으로 봤다.

한자음에서 精조 성모와 章조 성모를 구분할 수 없었던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莊조 성모는 다르다. 15세기 한국어에도 복자음의 기록은 있지만 영어의 ‘tree[tri :]’처럼 ‘-r’계 복자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옛 한국인에게는 상고 개음 ‘r’의 영향으로 변화된 중고음 莊조 성모는 精, 章조 성모와는 매우 다르고 이질적으로 들렸을 것이다. 문제는 중고음 음운 체계에서는 3등운에 精, 莊, 章조 성모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국어는 중국어와 달리 한 종류의 치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精, 章조 성모자와 완전히 다르게 들리는 莊조 성모자를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개음과 모음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중고음 음운 체계 자체로도 3등 개음 혹은 모음 ‘i’는 성모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치음을 구분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는 변이음의 형태로 발음했을 수 있다.

실제로도 중국 학계에서는 중고음 莊조 성모의 음가가 ‘tɕ’ 류의 권설음이었느냐 ‘tʃ’ 류의 경구개음이었느냐에 대해서 논의가 분분한데 그 주된 원인은 3등 개음 혹은 모음 ‘i’와 결합 가능 여부에 있다. Karlgren(1926)은 莊조 성모를 ‘tɕ’ 류의 권설음으로 재구했지만 과연 ‘tɕ’ 류의 권설음이 개음 혹은 모음 ‘i’와 결합할 수 있었느냐는 의문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tʃ’ 류의 경구개음으로 莊조 성모를 재구한다.

본고에서는 陸志韋(1947), 鄭張尙芳(2003) 등의 견해를 받아들여 개음 혹은 모음 ‘i’와 결합 가능한 ‘tʃ’ 류의 경구개음으로 莊조 성모를 재구한다.²¹⁾ 이는 중고음 3등 음운 체계를 고려했을 뿐 아니라 중고음 莊조 성모를 근대음 권설음과 구별하기 위함이었다. 다만 莊조 성모가 개음 혹은 모음 ‘i’와 결합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개음 혹은 모음 ‘i’가 소실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것에는 당연히 동의한다.

이렇듯 중고음 내부적으로도 莊조 성모와 개음 혹은 모음 ‘i’의 결합이 쉽지 않았는데 하물며 외국음으로 들었던 옛 한국인 입장에서는 청각적으로 莊조 성모와 ‘i’의 결합을 수용하기 힘들었을 것이라 보인다.

단, 止섭운의 精조 성모는 다른 3등운 精조 성모처럼 통시적으로 구개음화하지 않는다. 앞서 소개한 대로 ‘*tsi > tɕi’의 변화가 일어난다.

물론 『切韻』(601) 음운 체계나 『慧琳音義』(807) 음운 체계에서 이미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러한 치음들은 3등운이 아닌 1등운에 배치됐을 것이다. 다만 莊조 성모와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는 ‘i’의 변이음으로 조금 다르게 들릴 수는 있었을 것이다.

한국어에는 ‘r’나 ‘ɾ’ 같은 모음이 존재하지 않고 존재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아무리 중고음 역사 층위의 한자음을 받아들였더라도 ‘r’와 비슷한 변이음은 ‘i’와는 완전히 다르게 들렸을 것이다. 따라서 止섭운에 한해서는 精조 성모자(*tsi > tɕi)가 章조 성모자(ɕei)보다는 오히려 莊조 성모자(*tʃi > tɕɿ)와 비슷하게 들렸던 것으로 보인다.

<표 8> 치음자의 한국 한자음 모음 /·/의 상보적 분포

모음 운미	ə	i		(w)i/ɿ	
		莊	精章	(精)莊	精章
개음절	X	X		支脂之(*i)	
				·	ɿ
-ŋ/k	登(*əŋ/k)	蒸(*iŋ/k)		X	
	·/—	—	—/ɿ		

21) 다만 陸志韋(1947: 16)에서 언급했듯이 영어의 ‘tʃ’보다는 조음 위치가 뒤에 있다고 본다.

-n/t	痕(*ən/t)	隱(*in/t)	眞臻(*i(r)n/t)	
	·/—	—	—	
-m/p	X	X	侵(*im/p)	
			·	

<표 8>은 <표 3>, <표 4>, <표 6>을 간략하게 도식화해 중고음 모음과 한국 한자음 모음을 비교 분석해 보인 것이다.

치음자의 한국 한자음 모음 ‘·’의 음절 분포는 매우 독특하다. 侵운(*im/p), 支脂之운(*i)의 (精)莊 조 성모자는 거의 예외 없이 한국 한자음 모음이 ‘·’다. 반면에 蒸(*iŋ/k), 臻운(*m/t) 莊 조 성모자의 한국 한자음 모음은 거의 예외 없이 모두 ‘—’다.

중국어 역사적으로는 支脂之운(*i)의 精, 莊 조 성모자와 侵(*im/p), 蒸(*iŋ/k), 臻운(*m/t) 莊 조 성모자의 모음은 모두 ‘ə,ɪ/ɿ’ 따위로 변하지 일부만 변하고 일부는 변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다. 특히 운미별로 따로 변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주목할 점은 중고음 음운 체계에서 ‘*ən/t’(痕), ‘*əŋ/k’(登) 같은 음절은 있었어도, ‘*ə’, ‘*əm/p’²²⁾ 같은 음절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 한자음에서는 중고음 모음 ‘*ə’를 ‘·’ 혹은 ‘—’와 대응시키고 있는데 ‘ə, əm/p’ 따위의 음절이 중고음 음운 체계에 없었기 때문에 한국 한자음 음절 ‘·/ㅁ/ㅂ’를 일부 치음자를 구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치음자의 한국 한자음 모음 ‘·’와 ‘—’는 모두 중고음 모음 ‘i/i/ɪ’의 변이음을 표현한 것이다. 다만 조음 위치 측면에서 ‘·’가 ‘—’보다 더 후설 모음이었기 때문에 구분이 더 쉽고 어찌면 중국어의 권설음과 조음 위치가 비슷했을 수 있다.

그러나 중고음의 일부 치음자의 모음은 실제 중고음 모음 ‘ə(ɻ)’와 비교해서는 확실히 ‘i/i/ɪ’의 변이음으로 인지됐던 것이다. 痕(*ən), 登운(*əŋ)이 있는 상황에서는 蒸(*iŋ/k), 臻운(*m/t)의 莊 조 성모자의 모음은 ‘i’와 비교적 가까운 ‘—’로 들렸던 것이다.

또한 만약 ‘i/i/ɪ’의 치음 변이음이 근대음에서처럼 ‘ə,ɪ/ɿ’ 따위로 완전히 정착된 상태에서 한국 한자음에 수용된 것이라면 痕(*ən), 登운(*əŋ)의 한국 한자음 모음과 대응 양상이 비슷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伊藤智ゆき(2007: 250)가 지적하는 대로 ‘ɿ’, ‘ʌ’는 한국어 모음 ‘—’에 가깝게 들리기도 하고 본고에서 지적하는 대로 ‘ə(ɻ)’도 한국어 모음 ‘—’와 가깝게 들린다. 즉, ‘ə,ɪ/ɿ’와 대응하기 위해 한국 한자음 대응 모음으로 ‘·’와 ‘—’가 혼재하는 양상으로 나타나지 <표 8>에 서처럼 운미별로 완벽한 상보적 분포를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3.2. 重韻 대응 한국 한자음 모음 ‘·’

한국 한자음에서는 유독 蟹攝운에서만 1, 2등 重韻 모음을 구분돼 있는 것은 매우 독특한 사실이다.

<표 9> 기타 1, 2등 중운의 한국 한자음 실례

운모	佳/ㄱ/威/耕	麻/刪/銜/庚	歌/寒/談/唐	覃/江
성모	*æ ²³⁾	*a	*ɑ	*ʌ

22) 앞서 언급했듯이 본고에서는 鄭張尙芳(2003)의 견해를 따라 覃운을 ‘*ʌm/p’로 재구한다. 설령 覃운이 ‘*əm/p’였다 하더라도 한국 한자음은 重韻 모음 ‘*ə’를 반영하지 못하고 핵모음을 ‘ɿ’와 대응시키고 있다.

23) 潘悟雲(2000)은 2등에 개음 ‘w’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 鄭張尙芳(2003)은 2등에 개음 ‘ɻ’가 있었다고 보고

幫p	八 판		芭/班 파/반	百 빅	幫 방	邦 방
並b	罷/辦 파/판		阪 판	彭 핑	傍 방	龐 방
滂pʰ			爬/攀 파/반	澎 핑	膊 박	朴 박
明m		萌 밍	麻/慢 마/만	盲 밍	忙 망	
端知tt	站 참				丹/騰/當 단/담/당	耽/卓 담/탁
定澄dd	綻 탄		茶 다	宅 틱	檀/談/唐 단/담/당	潭/幢 담/당
透徹tʰtʰ			拏 나	撐 팅	灘/塔/湯 탄/담/탕	貪 탐
泥娘nn					難/囊 난/낭	男 남
來l				冷 링	蘭/藍/郎 란/람/랑	
精莊tstʃ	齧/斬 잔/참	爭 징	炸 자	窄 칙	贊/臧 찬/장	捉 착
從崇dzdʒ	讖 참		查/棧 사/잔		殘/暫/藏 잔/잠/장	雜 잡
淸初stʰtʰ	察/插 찰/삽	冊 칙	差/刹/機 차/찰/참	柵 칙	餐/蒼 찬/창	窓 창
心生sf	山 산	索 식	沙/刪 사/산	生 싱	珊/三/喪 산/삼/상	朔 삭
見k	佳/間/減 가/간/감		家/諫/監 가/간/감	羹 깅	干/甘/崗 간/감/강	感/江 감/강
溪kʰ	偃 간			坑 깅	看/瞰/康 간/감/강	堪/腔 감/강
曉x	陷 함				漢/壑 한/학	含/肛 함/항
匣ɣ	閑/咸 한/함	幸 힝	下/轄/銜 하/할/함	行 힝	寒/航 한/항	項 항
疑ŋ	眼 안		牙/顏/嚴 아/안/압	額 익	岸/昂 안/양	巖 악
影(?)		鶯 잉	啞/晏/鴨 아/안/압		安/惡 안/악	庵/握 암/악

<표 9>에서 보듯이 한국 한자음에서는 일반적으로 중고음 重韻 모음 ‘*a’와 ‘*æ’, ‘a’와 ‘ʌ’를 구분하지 못한다. 梗섭 2등운인 耕(*æŋ), 庚(*aŋ)운의 대응 모음이 이중 모음인 ‘ㅣ’로 독특한데 이에 대해 위국봉(2015:138)은 ‘*æ/e’와 같은 중국어 전설 모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국 한자음에서 변형된 것으로 본다.

즉, 梗섭 2등운만 ‘*æ/e’와 같은 중국어 전설 모음으로 인지했을 뿐, 옛 한국인들은 전체적으로 1, 2등 重韻 모음 ‘*a’, ‘*æ’, ‘a’, ‘ʌ’를 모두 ‘ㅣ’로 인지했던 것이다.

<표 10> 皆, 夬, 泰, 咍운 한국 한자음의 실례

운모 성모	皆 *æi	夬 *ai	泰 *ai	咍 *Ai
幫p	拜비	敗패	貝패	
並b	憊비 排비	嘔패	沛패	倍비
滂pʰ	湃비			
明m	埋미	邁매		

있다. 다만 한국어에는 이런 개음이 없었기 때문에 중고음 당시 2등에 개음이 있었다고 해도 반영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기존 학자들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2등에 개음이 없다고 본다.

端t/t			帶디	戴디
定ᵛᵛ/d			大대	臺디
透徹tʰ/tʰ			太태	態딕
泥娘n/ŋ			奈내	耐내 乃니
來l			賴외	來릭
精莊ts/tʃ	齋지			災지
從崇dz/dʒ	豺치	塞채		才지
淸初tsʰ/tʃʰ			蔡채	猜치 彩치
心生s/ʃ				塞시
見k	階계 介개 皆지		蓋개	溉개 改지
溪kʰ			愷개	凱개 開지
曉x				海히
匣ɣ	械계 諧히		害해	咳히
疑ŋ			艾애	礙애
影(?)			曖애	哀이

반면 <표 10>에서 보듯이 다소 예외는 있지만 蟹攝운에서는 ‘*a’와 ‘a’를 ‘ㅏ’로 ‘*æ’와 ‘ʌ’를 ‘ㅓ’로 인지해 구분하고 있다.

<표 11> 한국 한자음 모음 /·/의 상보적 분포

모음 운미	æ	ʌ	ə	i	(w)i/r
	佳(*æ)			莊 精章	(精)莊 精章
개음절	ㅏ	X	X	X	支脂之(*i)
					· ㅓ
-i	皆(*æi)	哈(*ʌi)	X	微(*ii)	X
	·	·		X(치음 X)	
-ŋ/k	庚(*æŋ/k)	江(*ʌŋ/k)	登(*əŋ/k)	蒸(*iŋ/k)	X
	·ㅓ	ㅏ	·/ㅡ	ㅡ ㅓ/ㅓ	
-n/t	山(*æn)	X	痕(*ən/t)	隱(*in/t)	眞臻(*i(r)n/t)
	ㅏ		·/ㅡ	ㅡ	ㅡ ㅓ
-m/p		覃(*ʌm/p)	X	X	侵(*im/p)
		ㅏ			· ㅓ

<표 11>은 <표 3>, <표 4>, <표 6>, <표 9>, <표 10>을 정리해 도식화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 한자음 모음 ‘·’는 중고음 모음 ‘ə’와 일부 대응될 수 있다. 또한 ‘i/i/r’의 변이음의 형태로 일부 精, 莊조 성모자의 대응 모음으로도 ‘·’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중고음 음운 체계에는 ‘əi’ 유형의 음절은 없다. 微운(*ii)에는 치음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중고음 차용 시기 옛 한국인들은 ‘ㅓ’와 ‘ㅕ’를 활용해 ‘*a’와 ‘*æ’, ‘a’와 ‘ʌ’를 각각 구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중고음 음운 체계에 ‘əi’ 같은 음절 유형이 있었거나 微운(*ii)에 치음이 있었다면 과연 蟹攝운의 한국 한자음이 重韻 모음을 구별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스럽다.

앞서 살펴봤듯이 중고음 음운 체계에는 ‘əŋ/k’(登) 같은 음절 유형이 있었기 때문에 중고음 모음 ‘*ə’가 일부는 한국 한자음에서 ‘·’로 대응되고, 일부는 ‘ㅡ’로 대응돼 나타났다. 예를 들어 ‘恒’[*ɣəŋ]의 한국 한자음은 ‘홍’이고, ‘肯’[*kʰəŋ]의 한국 한자음은 ‘궁’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蒸운(*iŋ/k) 莊조 성모자의 한국 한자음 대응 모음으로 ‘·’가 나타날 수 없었고, 江운(*ʌŋ/k)의 한국 한자음 대응 모음으로도 ‘·’가 나타날 수 없었다.

또한 중고음 음운 체계에 ‘əɱ/p’ 같은 음절 유형은 없었지만 侵운(*im)에 莊조 성모자의 대응 모음으로 ‘·’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森’[*fim]의 한국 한자음은 ‘숨’이다. 이런 상황에서 覃운(*ʌm/p)의 한국 한자음 대응 모음은 일반적으로 ‘·’가 될 수 없었다.

4. 중고음 시기 한국어 모음 ‘·’의 음가

본고에서는 먼저 중고음 모음 ‘ə’가 한국 한자음에서 ‘ㅡ’와 ‘·’로 분산돼 대응되며 대응상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점에서 중고음 당시 한국어 모음 ‘·’가 ‘ə(ɣ)’와 일치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한국 한자음 모음 ‘·’는 각 운미별로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상보적 분포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한국어 모음 ‘·’와 완전히 일치하는 중국어 모음이 없는 상황에서 옛 한국인이 어떻게든 중고음의 음운을 구분하기 위해 ‘·’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상보적 분포에도 우선순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한국 한자음 모음 ‘·’는 가장 우선적으로 일부이지만 ‘ə(ɣ)’에 대응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일부 精, 莊조성모자의 대응 모음으로 나타나며 마지막으로 일부 重韻 모음 ‘*æ’, ‘*ʌ’와 대응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중고음 시기 ‘·’의 음가는 ‘*ʌ’와 가깝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중고음 시기 한국어 모음 ‘·’가 15세기 한국어처럼 ‘*ʌ’였다면 한국 한자음 모음 ‘·’의 대응 우선순위는 바뀌었을 것이다.

하운(*ʌi)뿐 아니라 江운(*ʌŋ)과 覃운(*ʌm)의 한국 한자음 대응 모음도 ‘·’가 주류를 이루었을 가능성이 높다. 도리어 江운(*ʌŋ)의 한국 한자음 대응 모음이 ‘·’였기 때문에 登운(*əŋ)의 한국 한자음 대응 모음은 거의 ‘·’가 아닌 ‘ㅡ’가 주류가 됐을 가능성도 있다.

<표 12> 중고음과 한국 한자음 모음 /·/의 전체적인 대응 양상

조음 위치	전	중	후
매우 높음	i: ‘ㅣ’	i: ‘ㅡ’	i/ɨ/I 莊조: ·/ㅡ
조금 높음		ə(ɣ): ‘·/ㅡ’ uə: ‘ㅓ/ㅓ’	
조금 낮음	æ: ‘·ㅣ’(梗), ‘·’(皆), ㅓ		ʌ: ‘·’(哈), ㅓ
매우 낮음	a, ʌ: ‘ㅏ’		

중고음과의 대응을 전체적으로 보면 ‘ㅡ’는 중설 모음 ‘i’에 가깝고 ‘·’는 ‘*ʌ’와도 일부 대응된다는 점에서 후설 모음에 가깝다. 그리고 한국 한자음 모음 ‘·’와 ‘ㅓ’는 開合의 짝을 이루고 있는데 ‘ㅡ’[ɯ]와 ‘ㅓ’[u]가 開合의 짝을 이룸과 동시에 조음 위치가 비슷한 것처럼 ‘·’[ɣ]와 ‘ㅓ’[o]도 開合의 짝을 이룸과 동시에 조음 위치가 비슷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의 음가를 /*ɣ/로 추정하면 ‘ㅡ’[ɯ]와 ‘·’[ɣ]가 둘 다 중고음 모음 ‘ə(ɣ)’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대응상 우열을 가리기 힘든 한국 한자음의 상황에 잘 부합한다. 또, ‘·’가 후설 모음 ‘ɣ’였기 때문에 일부 莊조성모자의 핵모음 ‘i’의 변이음으로써 ‘·’가 대응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음 위치가 莊조성모와 비슷했기 때문이다. 또한 중고음 당시 한국어 모음 ‘·’의 음가가 ‘ɣ’였기 때문에 한국 한자음은 蟹攝운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중고음 重韻 모음 ‘a’와 ‘ʌ’의 차이를 구분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15세기 이후 한국어 기록을 참고해도 ‘·’의 옛 음가 ‘ɣ’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옛 한국어 모음 ‘·’는 2음절에서 ‘ㅡ’로 1음절에서 ‘ㅏ’로 변화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2음

절의 변화가 1음절의 변화에 선행한다. 적어도 2음절의 모음 ‘·’는 ‘一’와 가까운 ‘ʌ’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張玉來(2009)가 주장하듯이 원순 모음 ‘ɔ’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옛 한국어 ‘·’의 음가가 ‘ʌ’인 것이 ‘ʌ’인 것보다도 음운 체계적으로 보면 더 안정적이다. 물론 張玉來(2009)는 제주도 방언 등 한국어의 방언 자료 및 ‘· > ㅏ’의 역사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15세기 한국어 모음 ‘·’의 음가도 ‘ʌ’였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중고음 시기라면 불가능하지 않다.

다만 이렇게 봤을 때 한국어 모음 ‘·’의 음가가 왜 ‘*ʌ > *ɔ > a’와 같이 하강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하기 힘들다. 본고에서는 중고음과 한국 한자음의 음절 대응을 분석해 중고음 시기 한국 한자음 모음 ‘·’의 음가는 ‘*ʌ’인 것으로 재구했을 뿐이다.

5. 結論

한국어와 중국어는 본디 동원 관계에 있는 언어가 아니다. 중고음 모음 ‘ə(ʌ)’가 한국 한자음 모음 ‘·’와 대응된다 하더라도 중고음 시기 한국어 모음 ‘·’가 ‘ə(ʌ)’인 것은 아니다. 게다가 통계적으로만 보면 ‘ə(ʌ)’와 더 많이 대응되는 한국 한자음 모음은 ‘·’가 아닌 ‘一’다.

그밖에도 한국 한자음 모음 ‘·’의 대응 양상은 매우 복잡한데 본고에서는 한국 한자음 모음 ‘·’가 각 운미별로 상보적 분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대응상 우선순위를 이용해 중고음 시기 한국어 모음 ‘·’의 음가를 ‘ʌ’가 아닌 ‘ʌ’였을 것이라 추정했다.

한국 한자음은 고대 한국어를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지만 한국어는 중국어의 방언이 아니기 때문에 옛 한국인이 중국어를 외국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앞으로의 한국 한자음 연구에서도 옛 한국인이 외국어로서 중국어를 수용하는 문제를 더 엄밀히 다루었으면 좋겠다.

참고문헌

- 김동소(1998), 「《계림 유사》와 《조선관 역어》의 한국어 모음 체계 연구」, 『한글』 242, 7-30.
- 權仁瀚(2009), 『中世 韓國漢字音의 分析的 研究』, 박문사.
- 박병채(1971), 『古代 國語의 研究』, 고려대출판부.
- 박병채(1989), 『국어 발달사』, 世英社.
- 劉昌惇(1964), 『李朝語辭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위국봉(2015), 「고대 한국어 음운 체계 연구: 한국 한자음을 대상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 李基文(1968), 「鷄林類事의 再檢討」, 『東亞文化』8, 205-248.
- 李基文(1972), 『國語史概說』, 塔出版社.
- 李克魯(1948), 『國語學論叢』, 正音社.
- 이익섭(1986), 『국어학개설』, 화연사.
- 허웅(1985), 『국어 음운학』, 샘문화사.
- 唐作藩(2013), 『上古音手冊』, 中華書局.
- 董同龢(1968), 『漢語音韻學.台灣』, 學生書局.
- 潘悟雲(2000), 『漢語歷史音韻學』, 上海教育出版社.
- 邵榮芬(1982), 『切韻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申祐先(2009), 『止攝開口齒音字今讀舌尖元音之歷史演變』, 國立臺灣大學中國文學系碩士論文.
- 申祐先(2017), 『韓國漢字音歷史層次探析』, 元華文創.
- 寧繼福(1985), 『中原音韻表稿』, 吉林文史出版社.
- 陸志韋(1947), 『古音說略』, 哈佛燕京學社出版.
- 李方桂(1980), 『上古音研究』, 常務印書館.
- 李榮(1956), 『切韻音系』, 科學出版社.
- 張玉來(2009), 「再釋內外轉並論及早期韻圖的性質」, 『語言研究』 2009(03), 27-45.
- 張玉來(2009), 「朝鮮諺文漢字正音對音體系的轉寫問題」, 『民族語文』 2017(01), 28-40.
- 周組謨(1957), 『漢語音韻論文集』, 常務印書館.
- 鄭張尚芳(2003), 『上古音系』, 上海教育出版社.
- 有坂秀世(1944), 『國語音韻史の研究』, 明世堂書店.
- 伊藤智ゆき(2007), 『朝鮮漢字音研究』, 汲古書院, (이진호 역(2011), 『한국 한자음 연구: 본문 편, 자료편』, 역락)
- 平山久雄(1998), 「隋唐音系里的脣化舌根音韻尾和硬顎音韻尾」, 『言語學論叢』 20, 117-139.
- 河野六郎(1968), 『朝鮮漢字音の研究』, 天理時報社, (이진호 역(2010), 『한국 한자음의 연구』, 역락)
- 黃笑山(1995), 『《切韻》和中唐五代音位系統』, 文津出版社.
- 黃侃(1980), 『黃侃論學雜著』, 上海古籍出版社.
- Bernhard Karlgren(1926), Etudes sur la phonologie chinoise, Archives d'études orientales publiées par J.A. Lundell, Vol. 15, (趙元任 譯(1940), 『中國音韻學研究』, 常務印書館.

Bernhard Karlgren(1963), Compendium of Phonetics in Ancient and Archaic Chinese, Elanders Boktryckeri.

Ramstedt G. J. (1949, 1953), Studies in Korean Etymology, MSFOu.

Edwin G Pulleyblank (1962), The consonantal system of old Chinese, Taipei: Verlag nicht ermittelbar, (潘悟雲, 徐文堪 譯, 『上古漢語的輔音系統』, 中華書局, 1999.)

The phonetic value of ancient Korean vowel ‘·’ analyzed by the syllable system of the sound of Sino-Korean characters

Jang, Jun-ik

‘*ə’, the vowels of ancient Chinese are matching with Korean vowel ‘·’. Therefore, it is very easily accepted that the value of ancient Korean vowel ‘·’ was also ‘*ə’.

However, statistically speaking, the Korean vowel of Heun(痕) and Deung(登) Rhyme is usually not ‘·’, but ‘—’. Moreover, Korean vowel ‘·’ is also matching with other vowels of ancient Chinese.

In the sound of Korean sound of Sino-Korean characters, it is possible to find the complementary distribution of the vowel ‘·’. If there is an ending sound ‘ŋ/k’ or ‘n/t’ in ancient Chinese, there is also vowel ‘*ə’, so, the vowel ‘·’ of Sino-Korean characters is partly matching with ‘*ə’. However, if there is no ending sound or an ending sound ‘m/p’ in ancient Chinese, there is also no vowel ‘*ə’. Some vowels of dental sounds is matching with Korean vowel ‘·’. But if there is an ending sound ‘i’, there is also no vowel ‘*ə’ and dental sounds in the rhyme of Mi(微). In this condition, it is possible to match the Jung-un(重韻) vowel ‘ʌ’ in the ancient Chinese with Korean vowel ‘·’.

Considering this complementary distribution and the relationship of Korean vowel ‘·’ and ‘—’, it is possible to think the phonetic value of ‘·’ of ancient Korean can be reconstructed as ‘*ʏ’, not ‘ʌ’.

Key words: Ancient Sound, high vowel, sound of Sino-Korean characters, syllable matching, ‘·’

-『화엄경소 권35』를 중심으로

- 21 -

身；始受灌頂，轉輪王位，七寶具足，王四天下。’와 ‘或有人來白王言：『大王當知！……以施於我！』’를 연결지으면서 후행 문장에 속해 있다. 이런 원문의 구조를 반영해서 두 절 사이에는 할주가 삽입되어 있다.



시각적으로 할주가 ‘王四天下’와 ‘時’를 나누고 있지만,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此菩薩’이 ‘王四天下’한 시점에 ‘或有人來白王言’이라는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풀이된다. 원문과 달리 해석문에서는 ‘王四天下’와 ‘時’가 하나로 묶이고 ‘或有人來白王言’가 후행하는 셈이다.

현토자는 ‘王四天下’와 ‘時’가 할주에 의해 분할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한 채 의미상으로 하나로 묶어야 했기 때문에 ‘王ッナ 1 1’와 ‘時’에 거듭 ‘+’를 현토하여 의미적 연관성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할주 뒤에 ‘時+’가 나오면, 그 앞에 ‘+’가 언제나 현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외가 존재한다. 어떤 환경에서 ‘時’의 전후에 ‘+’의 중첩이 나타나고 어떤 환경에서 ‘時’의 전후에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중첩 현상의 출현 환경

‘時’의 앞뒤에 ‘+’가 중첩 현토되는 현상이 <화소>에만 모두 7번 나타난다.

<화소10:16-17> 始セシ 灌頂 轉輪王位ニ 受ル 七寶 具足ッホ 四天下ニ 王ッナ 1 1 + 時+ 或カ 有ナ
1 人リ 來ッホ 王ヲ 白ル 言白ナフ丁

<B화소11:01-03> 但ハ 慈念ノ尸入乙 見ルホ 以ッ {於}我ヲ+ 施ッロハ 弗ッホ 1 1 + 爾セッ 1 時
+ 菩薩 1 {是}リ 念言ノ尸入乙 作ッナフ丁

<B화소11:07-09> 始セシ 灌頂 轉輪王位ニ 受ル 七寶 具足ッホ 四天下ニ 王ッナ 1 1 + 時+
或カ 有ナ 1 人リ 來ッホ 王ヲ 白ル 言白ナフ丁

<B화소11:11-09> 我 1 當ハ 統領ッホ 王ヲ 福樂ニ 受ゼッホ 1 1 1 1 + 爾セッ 1 時
+ 菩薩 1 {是}리 念言ノ尸入乙 作ッナフ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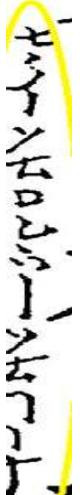
<B화소11:16-18> 佛子 1 {此}리 菩薩 1 上尸 說ヲ 1 所 如支ッ 輪王セ 位 1 + 處ッホ 七
寶 具足ッ 四天下ニ 王ッナ 1 1 + 時+ 或カ 有ナ 1 人 而 來ッホ 白ル 言白ナフ丁

<B화소11:20-12:01> 并 及セ 王ヲ 身カ 我ヲ 臣僕 1 1 {爲}入乙ッ 1 1 1 1 + 爾セッ 1 時
時+ 菩薩 1 {是}리 念言ノ尸入乙 作ッナ프丁

<B화소12:08-09-12:01> 佛子 1 {此}리 菩薩 1 亦ッ 1 上尸 說ヲ 1 如支ッ 輪王セ 位 1 + 處
1 七寶 具足ッ호 四天下ニ 王ッナ 1 1 + 時+ 有ナ 1 量 1 無セ 1 貧窮ッヒセ{之} 人 1 來
1 其 前 1 + 詣 1 而 1 {是}리 言乙 作ッナ프丁

그런데 이 예들은 모두 선행 어휘와 후행 어휘 사이에 할주가 출현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화소10:17	화소11:02	화소11:08
		
二明乞 境現前 時 _ナ	行者 爾時 _ナ 立	境 時 _ナ 或

화소11:11	화소11:18	화소11:20	화소12:09
			
恒 爾時 _ナ	境 時 _ナ	修 爾時 _ナ	境 時 _ナ

이를 출현 위치, 선행어휘, 할주, 후행 어휘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時’ 위치	선행 어휘	할 주	후행 어휘
화소10:17	王ッナ 1 +	○	時+
화소11:02	施ッロハ 弗ッホ 1 +	○	爾セッ 1 時+
화소11:08	王ッナ 1 +	○	時+
화소11:11	受ゼッホロ乙シ ッホ 1 +	○	爾セッ 1 時+
화소11:18	王ッナ 1 +	○	時+
화소11:20	臣僕リ尸{爲}入乙ッロハ 弗ッホ 1 +	○	爾セッ 1 時+
화소12:09	王ッナ 1 +	○	時+

그런데, '時'와 관련하여 할주 전후에 '+'가 중복 현토되는 경우는 현토 전후 문장이 동시에 해석된다.

먼저 <화소> 10:17에서 할주 전후가 동시에 해석되는지 'sktot_2019'번역본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

始セシ 灌頂 轉輪王位乙 受ッ 七寶 具足ッホ 四天下乙 王ッナリト
 비로소 灌頂(하교) 轉輪王位를 받아 칠보가 갖추어져서 사천하를 다스릴 때에
 時ト 或ハ 有ナリ 人リ 來ッホ 王ヲト 白ッ 言白ナリト
 그 때에 또 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왕에게 사되어 말하는 일이.

<화소10:16-17>

번역문으로 보아도 앞 문장의 마지막 구절 '다스릴 때에'와 뒤 문장의 첫 구절 '그 때에'는 [+동시성]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할주 뒤에 나타나더라도 할주 전후가 동시에 해석되지 않는 구절에는 '時'에만 '+'를 현토하고 추가로 현토되지 않는다. <화소> 10:07에 있는 '時+'는 할주 뒤에 나오지만, 할주의 앞 부분에는 '+'를 현토한 어휘가 보이지 않는다.



<B화소10:06-07-08> 若セ 已ラ今乙 {輟[捨]ロ 欠ヲト 施ッナリト 則チ 窮苦ッホ 天命ノチト 時ト 或ハ 有ナリ 人リ 來ッホ {是}リ 言乙 作ッナリト

그런데 이 구절은 할주 전후가 동시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 용례의 '時+'은 <화소> 09:20~10:13의菩薩 竭盡施와 관련된 긴 단락 내부에서 나타난다. 단락을 구성하는 문장의 구성의 의미상의 흐름을 가늠하기 위해 먼저 원문⁵⁾을 살펴보면, 時 앞의 구절은 '若~, 若~'으로 된 가정의 연쇄이다. 따라서, 할주 뒤의 구절인 '或有人來作是言'과 동시에 일어난 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문장들 간의 관계가 가정과 귀결인 것을 고려하여 구절문에서 할주

5) 云何爲菩薩竭盡施? 佛子! 此菩薩得種種上味飲食、香華、衣服、資生之具, 若自以受用則安樂延年, 若輟已施人則窮苦天命。時, 或有人來作是言: 『汝今所有, 悉當與我。』菩薩自念: 『我無始已來, 以飢餓故喪身無數, 未曾得有如毫末許饒益衆生而獲善利。今我亦當同於往昔而捨其命, 是故應爲饒益衆生, 隨其所有, 一切皆捨; 乃至盡命, 亦無所吝。』是名: 竭盡施。

앞의 문장이 ‘天命ノチヒト乙6)’로 끝난다. 구결문도 ‘만약 ~면 ~ 요절할 것이거늘’라는 해석으로 보아 할주 앞과 뒤는 [-동시성] 자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화소>의 현토자는 할주 뒤에 ‘時+’가 출현하면, 할주 전후가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면, ‘+’를 중첩 현토하고, 할주 전후가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를 추가로 현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중첩 구문과 관련된 어미 구조체

전절에서 ‘時+’와 관련된 중첩 구문의 출현 조건으로 [+동시성] 자질을 설정했다. 그런데 중첩 구문 뒤에는 ‘ッナ 1 | +’ 혹은 ‘ッホ 1 | +’가 뒤따른다. 이 두 어미 구조체⁷⁾ ‘ッナ 1 | +’와 ‘ッホ 1 | +’와 후행 어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치	선행 어휘	후행 어휘
화소10:17	王ッナ 1 +	時+
화소11:08	王ッナ 1 +	時+
화소11:18	王ッナ 1 +	時+
화소12:09	王ッナ 1 +	時+
화소11:01	施ッロハ而立ッホ 1 +	爾セッ 1 時+
화소11:11	受セイッホロ乙乙 ヌホ 1 +	爾セッ 1 時+
화소11:20	臣僕リ尸{爲}入乙ッロハ而立ッホ 1 +	爾セッ 1 時+

이 둘중 ‘ッナ 1 | +’의 경우에는 ‘화소10:16-17, 화소11:07-08, 화소11:16-18, 화소12:09-10’등 중첩 구문에만 4회 출현하고 ‘ッホ 1 | +’의 경우에는 화소11:01, 화소11:11, 화소11:11’, 등 3회는 중첩 구문에 ‘화소15:20-16:01’ 비중첩구문에 1회 출현한다.

이중 ‘ッナ 1 | +’는 4회 모두 시간을 나타내고 동일한 구조의 구문에 쓰이기 때문에 구결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⁸⁾ 있다. 이에 반해 ‘ッホ 1 | +’는 표제어의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제어에서 제외된 것은 ‘화소 15:20-16:01’에 사용된 ‘ッホ 1 | +’는 나머지 예문들과 달리 조건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다음 예문에서 ‘ッホ 1 | +’는 다음 구절의 ‘조건’으로 기능하고 있다.

<D화소15:20-16:01> 惟ハ 願ロ尸入 1 仁慈… 善 方便乙 以ハ 己ヲ {有} 4 而乙 1 所乙 捨ッホ {我} 又乙 具足 令リロハ而立ッホ 1 | +

오직 원컨대 인자함으로 좋은方便을 삼아 당신께서 가지신 바를 버려서 우리를 구족하게 하소서.”

6) <D화소10:06-07> 若ヒ 己ヲ今乙 {輟}[捨]ロ 人ヲヲ 施ッ 1 | + 1 則支 窮苦ッ호 天命ノチヒト乙

만약 자기의 것을 버리고 남에게 보시한다면 곤궁하여서 요절할 것이거늘
<D화소10:07-08> 時+ 或カ 有ナ 1 人リ 來ッ호 {是} 1 言乙 作ッナ尸丁
그때에 또 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말을 하는 일이.

7) ‘sktot_2019’에서 ‘ッホ 1 | +’와 ‘ッナ 1 | +’를 검색한 결과를 토대로 한다.

8) #1 ヌナ 1 | +[헌견다괴]

【ッ/동사+ナ/선어말어미+1/동명사어미+1 | +[ㄷ/의존명사+아괴/처격조사]; ヌ/동사+ナ/선어말어미+1/동명사어미+1/의존명사+나/처격조사】

한 때에.

한다면

<D화소16:02> 菩薩 1 {之} 聞 口 卽 支 便 施 與 ノ 尸ム

보살은 이를 듣고 즉시 곧 施與하되

이 예문 탓에 ‘ㄷ 1 1 +’가 시간 관련 표현의 중첩 구문에 쓰인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에 주저하게 된다. 그런데, ‘조건’의 의미에 주목하면 ‘ㄷ 1 1 +’가 ‘ㄷ 1 1 + 19’에서 ‘1’가 생략된 형태로 볼 가능성이 생긴다. 말하자면, <화소15:20-16:01>의 ‘ㄷ 1 1 +’를 ‘ㄷ 1 1 + 1’에서 ‘1’가 생략된 것으로 간주하면, ‘ㄷ 1 1 +’가 사용된 세 예문들은 모두 ‘시간’의 의미로 중첩 구문에 쓰인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

4. ‘ㄷ 1 1 +’과 ‘-ㅁㅅㅅ’[숯끓더]

전절에서 ‘ㄷ 1 1 +’가 중첩 구문에 쓰임을 밝혔다. 이때 ‘時’가 출현한 할주의 전후는 [+동시성]을 지니므로 ‘時’에서 부사절은 끝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면, 의미상 하나인 시간 부사구를 두 문장에 나눠서 해석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¹⁰⁾. 문제는 이렇게 부사구를 앞뒤 문장으로 나누면, 후행하는 절의 구조를 잘못 파악하게 된다는 점이다. ‘ㄷ 1 1 +’ 뒤에 ‘-ㅁㅅㅅ’가 따라 나오는 구문은 셋¹¹⁾ 존재한다. 선행연구들에서 이 세 문장의 ‘ㅁㅅㅅ’는 ‘有 1’의 주어로 해석되었다¹²⁾.

9) 이 형태는 ‘화소11:03, 화엄02:20, 화엄02:21, 화엄02:24, 화엄03:02, 화엄03:04, 화엄03:05, 화엄03:07, 화엄03:09, 화엄03:10, 화엄03:11, 화엄03:12, 화엄03:22, 화엄03:23, 화엄03:24, 화엄04:01, 화엄04:03, 화엄04:05, 화엄04:07, 화엄04:08, 화엄04:09, 화엄04:14, 화엄04:18, 화엄04:19, 화엄04:20, 화엄07:03, 화엄07:05, 화엄07:11, 화엄07:24, 화엄08:09, 화엄08:10, 화엄08:14, 화엄15:16, 유가17:14-15’ 등 구결 문헌에 34회나 사용되었고 거의 예외 없이 [조건]의 의미로 쓰인다. 구결 사전에도 같은 취지로 설명되어 있다.

구결사전, P417에 나오는 ‘ㄷ 1 1 + 1[흔전다근]’ 항목.

【ㄷ/용언+ㅁ/선어말어미+1/동명사어미+1+[ㄷ/의존명사+아괴/처격조사]+1/보조사; ㄷ/용언+ㅁ/선어말어미+1/동명사어미+1/의존명사+ㅁ/처격조사+1/보조사】

할 때에는. 할 경우에는. § 조건절에 쓰임.

10) 구결사전, ‘sktot_2019’등 선행연구들은 두 시간 부사구를 각각 전후 문장에 속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11)

어미 구조체	위치	시간 부사구
王 ㄷ 1 1 +	화소10:17	時 +
王 ㄷ 1 1 +	화소11:08	時 +
王 ㄷ 1 1 +	화소11:18	時 +

12) 위에 적은 것처럼 ‘sktot_2019’(번역본)의 해석에서도 이를 파악할 수 있고, 다음에 인용하는 구결사전(P169)에서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ㅁㅅㅅ[숯끓더]

【ㅁ/선어말어미+ㅁ/선어말어미+ㅁ/동명사어미+ㅅ[ㄷ/의존명사+여/조사】

-(으)로이. -(으)ㄴ 것이. § 여기서 ‘ㅅ’는 ‘有 1’의 후치된 주어절에 붙은 요소임.

¶ 時 + 或 刀 有 1 人 來 ㄷ 1 王 ㅁ ㅁ 言 ▶ ㅁㅅㅅ ◀ <화소10:17-18>

時 + 或 刀 有 1 人 來 ㄷ 1 王 ㅁ ㅁ 言 ▶ ㅁㅅㅅ ◀ <화소11:08-09>

時 + 或 刀 有 1 人 而 來 ㄷ 1 ㅁ ㅁ 言 ▶ ㅁㅅㅅ ◀ <화소11:18-19>

佛子 此 菩薩 假使 有 1 量 無 1 衆生 或 刀 有 1 眼 無 1 1 來 ㄷ 1

<D화소10:17> 時十 或刀 有ナ | 人リ 來ッホ 王ヲ十 白ヨ 言白ナ尸丁

그때에 또 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왕에게 사뢰어 말하는 일이.

<D화소11:08-09> 時十 或刀 有ナ | 人リ 來ッホ 王ヲ十 白ヨ 言白ナ尸丁

그때에 또 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왕에게 사뢰어 말하는 일이.

<D화소11:18> 時十 或刀 有ナ | 人リ 而… 來ッホ 白ヨ 言白ナ尸丁

그때에 또 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사뢰어 말하는 일이.

이들 세 문장에 쓰인 ‘言白ナ尸丁’을 현재처럼 선행 요소와 연결지어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 직접적으로 판정할 방법이 없다. 다행히 <화소15:19-20>에 ‘言白ナ尸丁’의 용례가 하나 더 있다.

이 문장과 비교를 통해 ‘言白ナ尸丁’의 해석 방법의 적정성을 판단해 보아야 한다.

<화소15:19-20>가 포함된 단락의 ‘sktot_2019’(번역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D화소15:17-18> 佛子ヨ {此}リ 菩薩一 假使…ハ 有ナ | 量リ 無セ一 衆生リ

불자야, 이 보살은, 가령 있다, **한량없는 중생이**,

<D화소15:18-19> 或刀 有ナ | 眼 無セ一リ ; 或刀 有ナ | 耳 無セ一リ ; 或ナ | 鼻 : 舌 : 及
セ 以ヨ 手 : 足 : ノ々 無セ一リ ;

또 있다, 눈 없는 이가. 또 있다, 귀 없는 이가. 또 있다, 코니 혀니 및 손이니 발이니 하는 것이 없는 이가.

<D화소15:19-20> 來ッホ 其 所ヨ十 至ヨ 菩薩尸十 告ッホ 言白ナ尸丁

와서는 그 곳에 이르러 보살께 고하여 **사뢰기를**

<D화소15:20> {我}ヌヲ 身一 薄祐ッホ 諸一 根 殘缺ッホセノ |

“우리의 몸은 박복하여 모든 근이 손상되었습니다.

<D화소15:20-16:01> 惟ハ 願ロ尸ム一 仁慈… 善 方便乙 以ヨハ 己ヲ {有}ナホイ一 所乙 捨ッホ
ホ {我}ヌ乙 具足 令リロハホ立ッホ一 |十

오직 원컨대 인자함으로 좋은方便을 삼아 당신께서 가지신 바를 버려서 우리를 구족하게 하소서.” 한다면

<D화소16:02> 菩薩一 {之}リ乙 聞ロ 卽チ 便リ 施與ノ尸ム

보살은 이를 듣고 즉시 곧 **施與**하되

번역문을 참조해서 문장 구조를 파악해 보면 ‘言白ナ尸丁’의 주어는 ‘有ナ | 量リ 無セ一 衆生リ’과 ‘或刀 有ナ | 眼 無セ一리 ; 或刀 有ナ | 耳 無塞一리 ; 或ナ | 鼻 : 舌 : 及セ 以ヨ 手 : 足 : ノ々 無塞一리 ;’이고, 객체는 ‘菩薩尸十’이다. 이 문장은 ‘言白ナ尸丁’을 서술어로 마무리되면서, 다음 문장 ‘{我}ヌヲ 身一 薄祐ッホ 諸一 根 殘缺ッホセノ |’을 인용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문장으로 이루어 ‘言白ナ尸丁’는 후행하는 문장을 인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화소10:17, 화소11:08, 화소11:18의 문장 전후의 구조도 이와 유사하게 볼 여지가 있다. 다시 말해 이 세 문장에서 ‘時十 或刀 有ナ | 人リ’를 주어로, ‘王ヲ十’를 객체로, ‘言白ナ尸丁’를 서술어로 보면 ‘화소15:19-20’와 비슷한 문장 구조가 된다. 이렇게 문장 구조를 달리 해석하면, 이들 구절의 해석은 다음과 같이 달라지게 된다.

其 所ヨ十 至ヨ 菩薩尸十 告ッホ 言▶白ナ尸丁◀ <화소15:17-20>

【관련】 ヌナ尸丁, (ッ)ナ尸

<D화소10:17> 時+ 或^ナ 有^ナ 人^リ 來^ッ 王^ヲ 白^ク 言^ハ ナ^リ 丁

그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와서 왕에게 삶아 사뢰기를

<D화소11:08-09> 時+ 或^ナ 有^ナ 人^リ 來^ッ 王^ヲ 白^ク 言^ハ ナ^リ 丁

그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와서 왕에게 삶아 사뢰기를

<D화소11:18> 時+ 或^ナ 有^ナ 人^リ 而^ニ 來^ッ 王^ヲ 白^ク 言^ハ ナ^リ 丁

그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와서 왕에게 삶아 사뢰기를

이렇게 여기 쓰인 세 ‘言^ハナ^リ丁’도 후행 요소와 연결지어 해석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불경 원문의 구조적 유사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다음은 <화소>10:17이 포함되어 있는 불경 원문이다.

云何爲菩薩內施? 佛子! 此菩薩年方少盛, 端正美好, 香華、衣服以嚴其身; 始受灌頂, 轉輪王位, 七寶具足, 王四天下。時, 或有人來白王言: 『大王當知! 我今衰老, 身嬰重疾, 熒獨羸頓, 死將不久; 若得王身手足、血肉、頭目、骨髓, 我之身命必冀存活。唯願大王莫更籌量, 有所顧惜; 但見慈念, 以施於我!』 爾時, 菩薩作是念言: 『今我此身, 後必當死, 無一利益; 宜時疾捨, 以濟衆生。』

이 불경 원문 중 ‘或有人來白王言’을 보면, ‘或有人來’가 주어이고, ‘白’이 동사, ‘王’이 간접 목적어 ‘言’이 목적 보어로 파악되므로 ‘有’와 ‘言’은 직접적으로 문법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또, ‘大王當知’는言의 피인용 성분이다. 이렇게 ‘言^ハナ^リ丁’를 후행 요소와 연결지으면 원문과 문장 구조가 거의 유사해진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時+’ 앞에 중첩된 ‘+’가 존재하면, 이때의 ‘時+’는 앞 절과 연결지어 해석하고 有^ナ 뒤에 나오는 ‘人’을 주어로, ‘言^ハナ^リ丁’를 서술어로 해석해야 불경 원문의 구조와 부합하고, ‘言^ハナ^リ丁’를 가진 또 다른 용례인 <화소15:19-20>의 기존 해석과도 부합하게 된다.

5. 요약 및 결론

다른 자토석독구결문헌과 달리 <화소>에만 할주 뒤의‘時’에‘+’가 현토되고 할주 앞에도 추가로‘+’가 현토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 현상이 나타나는 7차례 모두‘時+’ 앞에 할주가 존재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예외도 존재한다. 이 예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時’전후 문장의 [±동시성] 자질 여부에 따라‘+’의 중첩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또 주로 중첩 구문에 쓰이는 어미 구조체 ‘^ッナ^リ+’혹은‘^ニナ^リ+’가 시간과 관련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밝혔고, 아울러 중첩 구문과 관련된 ‘白^クナ^リ丁’[숯끓더]의 경우 후행요소와 관련짓는 것이 원문의 구조에 상응할 뿐 아니라 문장 전후의 의미 맥락에도 맞다는 점을 밝혔다.

참고문헌

- 남풍현(2011), 古代韓國語의 謙讓法 助動詞‘白/畚’과 ‘內/아’의 發達, 『口訣研究』 26, 131-166.
-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고대 국어 , 국립국어연구원, 121-205쪽.
- 이승재(1998), 「고대 국어 형태」,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고대 국어 , 국립국어연구원, 41-75쪽.
- 이승희(1996), 「중세국어 감동법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홍고 테루오(2002), 「이두자료의 경어법에 관한 통시적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황선엽·이전경·하귀녀·이용·박진호·김성주·장경준·서민욱·이지영·서형국(2009), 釋讀구결사전 , 박문사.

구결 검색 전자 자료 sktot_2019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능엄경』의 구결에 대하여

-한글구결을 중심으로-

정은영(대구가톨릭대학교)

1. 머리말

이 글은 프랑스 국립도서관(BnF) 소장 『능엄경』에 기입된 구결에 대해 고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능엄경』에는 한자 약체자구결과 한글구결¹⁾이 함께 기입되어 있다. 이 문헌에는 전권에 걸쳐 한글구결이 빠짐없이 기입되어 있는데, 원문 한자의 새김과 문법형태소까지 자세히 나타나 있는 편이다. 따라서 한글구결의 음운 및 표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입 연대 추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능엄경』과 간경도감본 『능엄경언해』은 번역양상이 흡사하므로 두 문헌의 비교를 통해 한글구결의 음운 및 표기의 특징을 살펴보고 한글구결 기입의 연대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능엄경』은 한지희·김효경·이혜경(2017)에서 처음 소개된 이후, 하정수(2020)에서 권1, 2에 기입된 구결 및 한글에 대해 연구되었다. 전체 10권 5책에 1042면의 방대한 분량으로 자료의 정리와 연구가 쉽지 않은 면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전권을 대상으로 하여 한글구결의 표기 및 음운을 언해본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그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서지

『능엄경』의 원명은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이며, 줄여서 『대불정수능엄경』, 『수능엄경』이라고도 한다. 대승경전의 하나로 당나라 때 반라밀제(般剌蜜帝)가 한역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에 전래된 『능엄경』은 송나라 때 계환(戒環)이 한역본을 요해(要解)한 것으로 『능엄경요해(楞嚴經要解)』(전10권)라고도 불리며, 고려시대 때부터 널리 알려졌다.²⁾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능엄경』은 1401년(태종 1) 태조의 명으로 판각한 책을 1456년 다시 인출한 인본이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능엄경』의 권수제는 “大佛丁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이며, 판심제는 ‘楞’이다. 기존 장정을 풀고 양장 형식으로 재제본되어 있는데, 내부 책 표지에 ‘首楞嚴經’이라 서명이 적혀 있다. 전체 10권 5책의 완질본³⁾으로 두 권씩 한 책으로 제철되어 있다. 각 책의 권수제 윗부분과 권말에 장서인이 찍혀 있다. 또 각 책의 표지 뒷면에 ‘豐西’라는 장서인이 찍혀 있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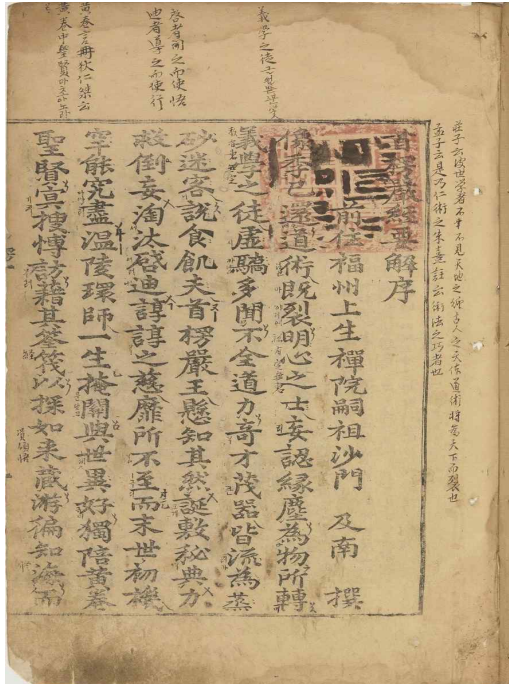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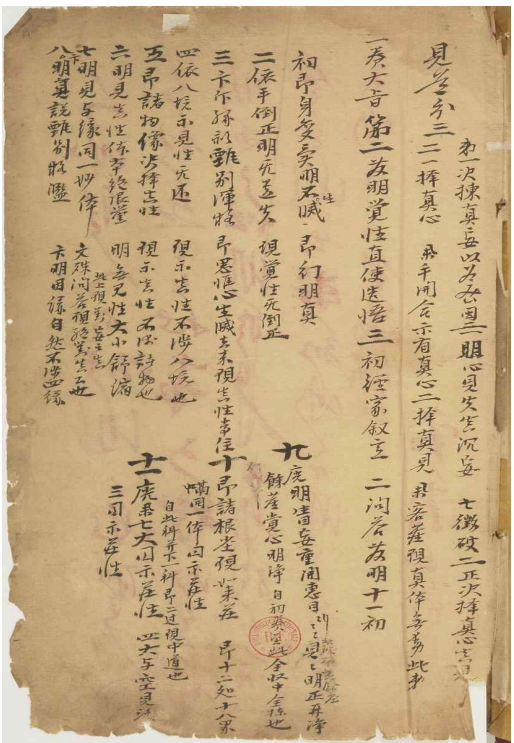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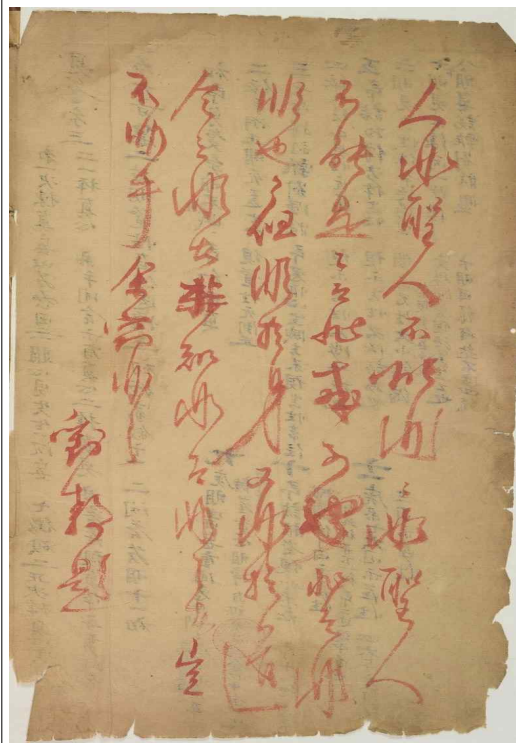
1) 우측에 현토된 구결 가운데 한글로 표기된 구결에 한정하므로 ‘한글구결’이라 지칭하도록 한다.

2) 남권희(2014) 참조.

3) 1401년 간행 판본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보물 제759호)이 완전본이나 권1 서문과 권수 부분이 낙장된 반면 이 책은 서문과 권수까지 온전한 상태라서 더욱 가치가 있다. 한지희 외(2017) 참조.

4) ‘豐西’는 조선 말기 학자 유응두(柳應斗)[1847~1914]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책의 크기는 38.0 × 22.0 cm이고, 변란은 사주쌍변(四周雙邊)에 반곽의 크기는 26.9 × 17.9 cm이다⁵⁾. 판심에는 흑구와 어미가 없이 판심제 ‘楞’과 권차, 장차가 나타난다. 반엽 8행 20자로 배열되어 있고 계선은 없다.

	 
권1 권수	소장인
	
권1 내지 앞면 목서	권1 내지 뒷면 주서

5) 한지희 외(2017) 참조.

<그림 1>과 같이 권1의 내지에 목서로 필사된 내용이 나오고 뒷면에 붉은 글씨의 초서로 적은 부분이 있다. 앞면 목서로 적힌 부분은 『능엄경』의 본론에 해당하는 정종분(正宗分) 가운데 견도분(見道分)에 대해 대강의 내용을 적은 것이다. 뒷면 주서로 적힌 부분은 “人非聖人 不能非非 非聖人 不能是是 而非或可所非而非非也 日但非於身 又非於道 今之非者非 知非而非之者 豈不非乎 余竊非之 動靜題”와 같이 판독되나, 출처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책에는 “建炎改元(1127)中秋吉日善集堂序”의 서문과 “建炎乙酉(1129) … 行儀”, “建文三年辛巳(1401) … 權近(朝鮮) 跋, 信眉(朝鮮) 書”의 발문, “景泰七年丙子(1456) … 山人學祖 謹跋”의 인출 당시 발문 모두 세 가지 발문이 확인된다.

권근(權近)의 발문(跋文)에 의하면 조선 태조가 태상왕(太上王)으로 있던 1401년(태종 1)에 신충(信聰)에게 대자로 능엄경을 쓰게 하여 어람(御覽)하고 판각하게 하여 보시(布施)하였다. 판각한 각수는 명호(明昊), 선관(善觀), 중오(中悟), 혜공(惠空), 지부(知孚), 김오(金悟), 노신(盧信), 임득중(任得中), 김윤(金潤), 최장(崔漳), 최유(崔有) 등이며, 간역(刊役)의 감독관은 내속고적(內速古赤)·통선랑(通善郎) 승녕부판관(承寧府判官) 윤백안(尹伯顔)이 하였다.

또, 이 책의 인출 당시 학조의 발문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首楞嚴王諸經之骨髓修證之正路所以開發眼目饒益人天者也我東宮嬪韓氏爲先
考妣印出是經二十五部裝潢備飾流布無窮以成經之勝緣因法施之大願蒙益先靈
超生淨域四生三有同霑利樂良可期矣
景泰七年丙子十月日山人學祖證跋

위 발문에 의하면 이 책은 1456년 동궁빈 한씨(인수대비)가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 25부를 인출한 것이다. 사실 인수대비의 아버지 한확(韓確)은 1456년에 명나라에 세조의 왕위 찬탈이 양위라고 설득하기 위해 사은사(謝恩使)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하포(沙河浦)에서 졸하였다. 이미 어머니 홍씨(洪氏)는 1450년 인수대비가 13세일 때 졸하였다. 이에 평소 불교 경전에 조예가 깊었던 인수대비가 일찍 세상을 뜬 부모님을 위해 1401년 개판되었던 왕실판 『능엄경』을 다시 인출하였다.

이 책에 나타나는 구결의 형태는 목서(墨書)로 되어 있으며, 원문의 오른쪽에 한자약체자로 음독구결이 기입되어 있다. 그리고 원문의 왼쪽에는 원문 해독을 위해 한글과 한자약체자를 혼합하여 현토하였고 한자 표기도 보인다. 그리고 어순 표시 등 다양한 부호가 나타나는 점도 특징적이다. 책 전반에 걸쳐 구결은 수정된 부분이 많이 보인다. 그리고 책의 상란에는 두주(頭註)가 많이 기입되어 있다.

3. 한글구결의 특징

원문 해독을 위해 왼쪽에 기입한 한글구결에 대해 언해본과의 비교를 통해서 음운 및 표기의 특징을 분석해 보도록 한다.

1) 병서표기

문헌에 기입된 한글구결 가운데 병서 표기가 나타나는 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자병서>

ㅅ: 쓰거[書]<7권27A:2>, 쓰디[疏]<1권05A:5>, 쯔[讓]<6권07A:2>, 어써[罔]<10권01A:7>

<ㄱ계 합용병서>

ㄱ: 끄<1권13B:7>, 썸[隙]<1권43A:7>, 쥘문[籠]<1권22B:8>, 썸문[夢]<4권54A:2>, 썸장[窮]<2권14B:6>, 답까와[悶]⁶⁾<2권13A:5>

ㄷ: 짜[處]<7권28B:8>, 짜히[土]<7권04B:5>, 썸[蒸]<4권08B:8>, 쯔[兼]<6권21A:6> 썸르미[而已]<7권41A:8>, 거너뛰여[超越]<8권57B:8>

ㅅ: 짜라[瞪]<2권06B:7>, 짜혀[抽]<8권30B:6>, 썸혀[拔]<5권05B:1>, 썸[骨]<4권25B:6>, 썸남굿[桑]<7권44A:1>, 썸[獨]<3권41A:4>, 썸빅[捏]<2권35A:2>

ㅅ: 어써비[恕]<3권35A:5>

<ㄴ계 합용병서>

ㄴ: 뵈[陷]<7권44B:2>, 뵈[滅]<4권03A:3>, 그뵈[于]<1권14B:5>

ㄷ: 뵈[瞪]<3권03B:7>, 뵈러디며[墜]<8권38A:7>, 뵈[殊]⁷⁾<2권44B:3>, 뵈[垢]<9권09A:5>, 뵈[情]<4권52B:6>

ㄴ: 뵈[用]<8권18A:8>, 뵈[熏]<8권43B:4>, 뵈츠[觸]<8권35A:5>, 뵈니[服]<8권54B:4>, 뵈[說]<5권22A:8>

ㄴ: 뵈[織]<4권34A:5>, 뵈기[偶]<6권12B:8>, 뵈옴⁸⁾[裂]<4권38B:4>, 뵈[鹹]<3권13A:1>

ㄴ: 뵈[決]<4권41B:7>, 뵈디[垢]<9권20A:6>

<ㅂ계 합용병서>

ㅂ: 뵈혀[剖]<6권07A:4>, 뵈듀트[論]<9권31A:7>, 뵈혀[剖]⁹⁾<2권21A:8>, 뵈[挾]<6권46B:5>, 뵈료[括]<8권14B:6>, 뵈[時]<4권53A:1>

ㅂ: 뵈미[洋]<8권44A:1>, 뵈여[觸]<6권32A:7>

문헌에 기입된 한글구결 가운데 병서 표기는 각자 병서와 ㄱ계 합용병서, ㄴ계 합용병서, ㅂ계 합용병서가 나타난다. 각자 병서로는 ‘ㅅ’이 있고, ㄱ계 합용병서로는 ‘ㄱ, ㄷ, ㅅ, ㅅ’이 있다. ㄴ계 합용병서는 ‘ㄴ, ㄷ, ㄴ, ㄴ, ㄴ’이 나타나며, ㅂ계 합용병서는 ‘ㅂ, ㅂ’가 사용된 예를 찾을 수 있다.

이들 병서 표기가 사용된 한글구결들은 대체로 언해본과도 일치하는 편이지만 일치하지

6) ‘답까와[悶]’는 언해본에서 ‘답잡다’와 ‘답감다’로 혼동되어 나타난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책의 한글 석독 가운데 ‘답켜<2권32A:8>’로 기입된 곳이 있다는 점이다.

7) ‘뵈[殊]’는 언해본에서 ‘뵈로’로 나타난다.

8) ‘뵈옴’은 언해본에서 ‘뵈옴’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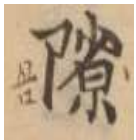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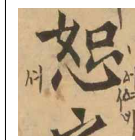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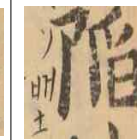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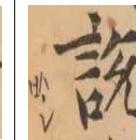
9) ‘뵈혀’는 언해본에서 ‘뵈혀’로 나타난다.

않는 예들도 간혹 보인다. 일치하지 않는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결본

언해본

ㅅ: ㅅㅅ[隙]<1권43A:7>	:	ㅅㅅ
ㅅ: ㅅㅅ[蒸]<4권08B:8>	:	ㅅㅅ
거너ㅅㅅ여[超]<8권57B:8>	:	건네ㅅㅅ니
ㅅㅅ: ㅅㅅㅅㅅ[捏]<2권35A:2>	:	비ㅅㅅ여
ㅅㅅ: 어ㅅㅅㅅ[怨]<3권35A:5>	:	怨성ㅎ시고
ㅅㅅ: ㅅㅅㅅㅅ[陷]<7권44B:2>	:	ㅅㅅㅅㅅ
ㅅㅅㅅㅅ[滅]<4권03A:3>	:	ㅅㅅㅅㅅ
그ㅅㅅ[于]<1권14B:5>	:	그ㅅㅅ
ㅅㅅ: ㅅㅅㅅㅅ[說]<5권22A:8>	:	ㅅㅅ노니
ㅅㅅ: 힘ㅅㅅ[奮]<9권47B:4>	:	힘ㅅㅅ

						
ㅅㅅ	ㅅㅅ	ㅅㅅㅅㅅ	ㅅㅅ	ㅅㅅㅅㅅ	ㅅㅅㅅㅅ	ㅅㅅ

<그림2> 언해본 불일치 병서 표기 예

먼저 ‘ㅅ’ 병서 표기 가운데 ‘ㅅㅅ[隙]’은 ‘ㅅㅅ’의 형태로 15세기 문헌에 나타나다가 차츰 ‘ㅅ’이 탈락한 된소리 ‘ㅅㅅ’만이 쓰이게 되었다. 『훈몽자회』(1527)에서 ‘ㅅㅅ’이 확인된다. 본 문헌의 한글구결에서는 ‘ㅅㅅ’은 나타나지 않고 ‘ㅅㅅ’의 형태로 3회 발견되는데 언해본에서는 모두 ‘ㅅㅅ’으로 대응된다.

‘ㅅ’ 병서 표기 가운데 ‘ㅅㅅ[蒸]’가 확인된다. ‘ㅅㅅ다[蒸]’는 『능엄경언해』부터 『두시언해(초간본)』, 『번역노걸대』 등에서 ‘ㅅㅅ다’로 나타났으며 이후 ‘ㅅㅅ다’가 되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ㅅㅅ다’로 등장하였다. 또, ‘거너ㅅㅅ다[超]’의 ‘ㅅㅅ다’는 18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나는 표기이다. 이전에는 ‘ㅅㅅ다’로 사용되었다. 이 문헌에서는 ‘ㅅㅅ다’와 ‘ㅅㅅ다’가 동시에 나타난다.

‘ㅅㅅ’ 병서 표기 가운데 ‘ㅅㅅㅅㅅ[捏]’가 나타나는데 이 부분이 언해본에서는 ‘비ㅅㅅ여’로 번역되어 있다. 『구급방언해』(1466)에서도 ‘비ㅅㅅ다’는 ‘ㅅㅅㅅㅅ다’로 나타난 바 있다.

‘ㅅㅅ’ 병서 표기는 단 한 차례 ‘어ㅅㅅㅅ[怨]’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어ㅅㅅㅅ’의 ‘ㅅ’을 초성에 잘못 적은 것이 아닌가 한다. 언해본에서는 이 부분이 ‘怨성ㅎ시고’로 한자어 그대로 번역되었는데, 한자에 대한 훈을 한글로 적은 듯하다. 그리고 한자의 왼쪽에는 한자음 ‘ㅅㅅ’이 기입되어 있고 오른쪽에 이 훈을 적었다.

‘ㅅㅅ’ 병서 표기는 이 문헌에서 두 차례 확인된다. 그 예를 보면 ‘ㅅㅅㅅㅅ[陷]’과 ‘ㅅㅅㅅㅅ[滅]’, ‘그ㅅㅅ[于]’ 등이다. 이들은 본래 ‘ㅅㅅ’의 형태로 언해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결본에서는 ‘ㅅㅅ’과 ‘ㅅㅅ’가 동시에 발견되는데, ‘ㅅㅅ’ 표기는 ‘ㅅㅅ’에서 ‘ㅅ’이 탈락되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국어사 자료 가운데 ‘ㅅㅅ’은 『정속언해』(1518), 『이륜행실도』 초간본(1518) 등에서 나타났다. 다시 말해 ‘ㅅㅅ’은 16세기부터 등장하여 17세기에 확대되어 사용하였다.

‘ㅍ’ 각자 병서 표기 가운데 ‘힘썌[奮]’가 나타난다. 언해본에서 ‘힘뻘’로 쓰인 부분이다. ‘힘쁘다’가 ‘힘쓰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부터이다. 특히 17세기 문헌인 『마경초집언해』에 ‘힘쁘다’와 ‘힘쓰다’가 동시에 나타났다.

반면 언해본에서는 병서 표기로 나타나지만 구결본에서 병서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결본

언해본

ㅍ: 소며[射]<8권38B:6>	:	쏘며
ㄴ: 스니니[傷]<2권04B:2>	:	슬몃니
ㅇ: 밋옴[縛]<8권17B:1>	:	밋옴
ㅎ: 뻘혀[剖]<6권07A:4>	:	뻘혀
ㅈ: 기야[寤]<4권54A:2>	:	끼야

‘ㅍ, ㄴ, ㅇ, ㅎ’ 등의 각자병서 표기가 구결본에서는 ‘ㅅ, ㄴ, ㅇ, ㅎ’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 나타난 각자병서 표기 중 ‘ㅇ’은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 피동·사동형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ㅎ’ 역시 강한 마찰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ㄴ’은 ‘ㄴ’ 소리가 연달아 날 경우, ‘ㅍ’은 ‘ㄷ’과 같이 ‘ㄷ’ 다음에 이어서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각자병서의 사용은 훈민정음 초기 문헌의 특징이라 볼 수 있으며, 간경도감본 언해본 역시 훈민정음 초기 문헌이기에 이들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구결본에서는 ‘ㅍ’을 제외하고는 각자병서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ㅍ’이 나타난 경우도 ‘ㄷ’ 뒤가 아닌 ‘쓰거[書]<7권27A:2>’, ‘쓰디[疏]<1권05A:5>’, ‘쓰[讓]<6권07A:2>’와 같이 다른 환경에서 사용된 경우이다. 특히 ‘힘썌<9권47B:4>’는 언해본에서는 ‘힘뻘’로 나타난다. 이러한 표기는 ‘ㅍ’이 세조대 다른 각자병서와 함께 사용이 폐지되었다가 16세기 이후 다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표기가 아닌가 한다.

‘기야[寤]<4권54A:2>’는 언해본에서는 ‘끼야’로 경음 표기를 보이지만 구결본에서는 경음이 사용되지 않은 예이다.

구결본에 나타난 병서 표기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1> 병서 표기

종류	표기	구결본	언해본	사용 시기
각자병서	ㄴ	×	○	15C(~1465년)
	ㅇ	×	○	15C(~1465년)
	ㅎ	×	○	15C(~1465년)
	ㅍ	○(ㅅ의 대체)	○	17C ~(ㅅ의 대체)
	ㅈ	×	○	15C(~1465년), 17C 중엽~
합용병서	ㅅ	○	○	15C~19C
	ㅈ	○	○	15C~19C

	서	○	○	15C~19C
	소	○	×	다른 예 없음
	비	○	×	16C ~19C
	비	○	×	15C~19C 초
	비	○	○	15C~19C
	비	○	○	15C~19C
	비	○	○	15C~ 17C 말
	비	○	○	15C~17C 중엽
	비	○	○	15C~17C 초

위 표를 바탕으로 병서 표기만으로 구결본에 나타나는 한글 토의 기입 시기를 추측해 보자면 ‘힘쓰다’가 사용된 것으로 볼 때 17세기 이후부터 ‘비’이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17세기 말까지 기입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힘쓰다’가 단 한 차례 나타난 어휘이므로 다른 병서 표기를 바탕으로 기입 시기를 추정한다면 ‘비’이 사용된 16세기 이후에서 17세기 말까지를 한글구결 기입 시기라 범위를 넓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병서 표기의 사용 시기는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국어사 자료를 대상으로 추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 자료들은 목판본이나 활자본 등 인출된 간본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반해 본 문헌에 사용된 한글구결은 필사된 자료로 인출 간본에 비해 정제되지 않은 편이다. 더욱이 언어 사용의 개인적 특징 또한 무시할 수 없다.

2) 연철/중철/분철

본 문헌의 표기법은 대체적으로 중세국어의 연철 표기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언해본과 비교를 통해 중철 표기와 분철 표기 또한 사용된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중철 표기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중철 표기>

구결본		언해본
스녁괴[右]<5권10A:8>	:	右肱스녀괴
잔내[厄]<6권44A:8>	:	자내
므ㄴ겨ㄴ리[波]<6권18B:8>	:	물겨리
ㄹ롬미[磨]<8권40A:3>	:	ㄹ로미
근테[致]<1권03A:2>	:	그테
기훈니[期]<9권46A:8>	:	期꺄限한이
겻트ㄴ[傍]<4권40A:5>	:	겨트로
븐트ㄴ[粘]<9권03A:7>	:	븐투몰
쌌뻬[隙]<1권44A:3>	:	쁘뻬
시름미ㄴ[患]<4권50B:1>	:	시르밀씨
몸미라[身]<2권13A:4>	:	모미라

썩롬미·[而已]<6권22A:4>	:	썩르미라
썩니시리[唯]<5권25B:5>	:	썩니시리잇고
섬긴논[事]<9권45A:2>	:	섬기리
스니러[消]<6권31A:5>	:	스러
곶티[絃]<6권47A:8>	:	시울ㄹ티
낫치[一]<3권31A:3>	:	나치
번득기[顯]<9권28A:3>	:	번드기

위 예를 보면 ‘명사(형)+조사’, ‘어간+어미’, ‘어근+접사’의 사이에서 중철 표기가 나타난다. 주로 ‘ㄱ’, ‘ㄴ’, ‘ㄷ’, ‘ㄹ’ 자음이 덧나면서 중철 표기가 나타나고 있다. 문헌 전체로 볼 때는 연철의 빈도가 높은 편이나 중철 표기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철 표기>

구결본	언해본
글니워니으니[文籍]<8권39A:4>	글워를
므니겨니이[波]<8권36B:5>	몹겨리
ㄹ숨아라[愛主]<6권06B:4>	ㄹ스마라
ㄹ숨안[掌]<2권10B:3>	ㄹ스만
불어[故]<8권48A:2>	부러

위 예들은 언해본에서 연철로 나타나지만 구결본에서 분철 표기를 따른 경우인데, 중철 표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빈도가 많지 않은 편이다. 주로 ‘ㄷ’ 뒤에서 분철 표기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

‘△’은 훈민정음 초기 문헌부터 사용되다가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가면서 차츰 소멸되어 간다. 훈민정음 초기 문헌인 언해본과 구결본의 비교를 통해 ‘△’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의 변화

어휘	△	入	ㅇ(∅)	ㅈ	원문 한자
짓다	지서 <5권14A:4>	지스샤ㅅ <6권18B:2>	지어 <10권23A:1>	-	築, 作, 造
넉다	-	니슴 <10권11A:4>	니으 <6권14A:1>	-	續, 貫, 繼
붓다	-	브서 <5권31B:4>	브으 <1권39A:5>	-	灌, 注

둥다	드순 <9권40B:5>	드사 <4권36A:7>	드아 <9권38B:3>	-	愛, 戀
중다	-	-	조아 <1권19B:5>	-	頂, 稽
앗다	아스라 <5권29A:3>	아스ㄴ <9권17A:7>	아아 <4권34B:1>	-	取, 除去, 奪
나사가다	나사가 <7권04B:3>	나사가 <8권06A:6>	나아가 <1권43A:5>	-	前, 進, 造, 卽
그속ㅎ다	그속ㅍ <8권10B:8>	그속ㅍ <5권22A:7>	그속ㅍ <7권41B:4>	-	暗, 陰隱
즈슴ㅎ다	-	즈슴ㅍ <4권10A:3>	-	-	隔
그스기	그스기 <7권42A:4>	그스기 <10권02A:7>	그으기 <8권50A:5>	-	幽, 潛, 昧
처섬	처섬 <6권36B:4>	섬 <7권33B:1>	처엄 <2권21A:2>	처점 <1권44A:2>	始, 首, 初, 方
스시	스시 <5권17A:8>	스시 <4권25B:7>	스이 <3권43B:8>	-	間
즈	즈새 <6권13B:5>	스 <3권41B:2>	즈이 <10권38A:3>	-	邊
그슴	그슴 <9권22A:6>	그슴 <7권10A:3>	-	-	期, 限, 局
눈썸	-	-	즈이 <3권01A:8>	-	睛
프영귀	-	-	프영귀 <2권14B:5>	-	草
ㅎ오사	ㅍ오사 <3권16B:4>	ㅎ오사 <5권04A:8>	아 <7권04B:2>	자 <9권12A:3>	孤, 獨

<표2>는 언해본에 나타나는 ‘△’이 포함되는 어휘를 중심으로 구결본에서 대응되는 형태를 제시한 것이다. ‘△’은 ‘△’, ‘ㅍ’, ‘ㅇ(∅)’ 등으로 대응하여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문헌에 출현 빈도가 잦은 ‘그속ㅎ다’, ‘그스기’, ‘나사가다’, ‘ㅎ오사’와 같은 어휘들은 ‘△’, ‘ㅍ’, ‘ㅇ(∅)’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처섬’과 ‘ㅎ오사’는 ‘ㅍ’으로 변환 모습도 한 차례씩 확인된다. 또 위 표의 예 외에도 객체 존재 선언어말어미 ‘습/습/읍’의 혼기, 보조자 ‘-사’의 혼기 등도 나타난다.

동일 어휘에서 ‘△’이 ‘△’, ‘ㅍ’, ‘ㅇ(∅)’, ‘ㅍ’으로 혼기된 것은 이미 ‘△’의 탈락 현상이 일어난기 때문이다. 따라서 ‘△’ 표기를 통해 구결본에 기입된 한글구결은 16세기 국어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16세기 중엽까지 사용된 점을 상기할 때 한글구결의 기입 시기가 16세기 중엽 이후로 미뤄지지는 않을 것이다. 구결본에서 혼기되기는 했지만 ‘△’이 활발히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상 ‘△’이 언해본에 나타날 때 구결본에 대응하는 모습을 중심으로 ‘△’ 표기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런데 언해본에는 ‘△’이 사용되지 않았으나 구결본에서 ‘△’이 사용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구결본

수시[易]<4권23A:2>
 락시[猛]<7권07B-4>
 모샛[沙]<7권28B:1>

언해본

수이
 락이
 몰엣

위 예들은 구결본에서는 ‘△’이 사용되었으나 언해본에서는 모음이나 유성 후두음 ‘ㅇ’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러한 형태는 다른 문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4) ‘·’

언해본과 구결본을 비교해 보면 ‘·’의 표기에서도 많은 차이가 발견됨을 알 수 있다. 언해본의 ‘·’에 대응하여 ‘·’가 아닌 다른 모음이 사용된 구결본의 표기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3> 언해본 ‘·’에 대응하는 구결본의 어형

모음	어형
ㅡ	모물[己](모물) ¹⁰⁾ , 모로ㄴ가[恐迷](모룻가), 므느니[住](머므느니), 니르와도미[發](니르와도미), 뽁옴[裂](뽁옴), 수고로이[辛](受餮苦콩로이), 즈조므ㅅ[促](즈조므로브터), 므ㅅ[引](히려로), 니르느[稱](니르느니라), 도흔[嘉](도흔), 피[身](모피), 두므[獲](어두믈), 비[寶](보빛)
ㅏ	조로므ㄴ[絞](조로물), 듣줍디[承](듣줍디), 받줍게ㅅㅅㅁ[享奉](받줍게ㅎ샤믈), 노로샛[獻](노르샛), 노외[更](느외), 좇소ㅏ[稽](좇소와), 뽁ㅅ[殊](뽁로), 잘외[囊](잘외), 도원 거스ㄴ[性](드외는 거슬)
ㅓ	군[修](뚫곤)
ㅑ	바라래[海](바르래), 나타나[露](나트니라), 다만[特](다믈), 아래[宿](아룻)

위 예를 보면 ‘·’는 ‘모물’과 같이 ‘명사+조사’, ‘도흔’과 같이 ‘어간+어미’의 형태소 경계에 서뿐만 아니라 ‘니르느’ 등과 같이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도 ‘ㅡ’로 변화한 모습을 볼 수 있다. 16세기 이후 제2 음절 아래에서 ‘·’가 다른 모음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기에 이러한 혼란을 겪은 것이다. 한편 ‘뽁옴’, ‘조로므ㄴ’, ‘뽁ㅅ’ 같은 경우에는 제1 음절에서 ‘·’가 다른 모음으로 변화한 경우이다¹¹⁾. 또 ‘·’가 ‘ㅑ’로 나타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바라래’를 제외하고는 모두 15세기~16세기 당시 혼용되던 어휘들이다. 다만 ‘바라래’는 다른 자료에서 보이지 않는다.

이상 ‘·’가 언해본에 나타날 때 구결본에 대응하는 모습을 중심으로 ‘·’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 살펴 보았다. 한편 언해본에는 ‘·’가 아닌 다른 모음이 사용되었는데 구결본에서 ‘·’

10) []의 한자는 원문 한자이며, ()의 어형은 언해본에 대응하는 어형이다.

11) 김동소(1997:110)에서는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서부터 ‘·’가 제1 음절에서 혼란이 있었음을 예로 제시하여 ‘·’를 음양 이론에 바탕한 표기법으로 비현실적 표기 문자라고 지적하였다.

가 나타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표4> 구결본에만 나타나는 ‘·’ 사용례

모음	어형
ㅡ	스러[消](스러), 나드논[出入](나든), 니르[起](니르완논), 녀느[他](녀느), 므 르거느 ㄴ[乾](므르거늘), 어디[何](어디), 브 ㄴ 디르디[燔](블 디르디), 서르 [互](서르), 브트니[由](브트니라), 어미[首](처서미), 그르논[解](그르논)
ㅏ	즈춘디[從](조춘디), ㄴ고ㅁ ㄴ[融](노고몰), 익요 ㄴ ㄴ[失](외요몰), 븐[攝](자 본), 아스 ㄴ[奪](아소몰), 몰라[恐迷](모름가), ㅁ오누린[魘](ㅁ오눌인)
ㅓ	너출게[蔓](너출에), 허롭[傷毀](허롭)
ㅕ	봣좁[承](받좁더니), 맛드며[堪](맛담직하며)
ㅗ	네 사든드 ㄴ[故居](네 사던들), ㅁ[庶](번드기)

위 예들은 모두 구결본에서는 ‘·’가 사용되었으나 언해본에서는 다른 모음이 나타나는 경
우이다. 언해본에 ‘ㅡ’, ‘ㅏ’, ‘ㅓ’, ‘ㅕ’, ‘ㅗ’가 사용된 다양한 환경에서 구결본에 ‘·’가 나타난
다. 조사나 어미에서 혼란스럽게 나타난 것은 모음조화 표기가 잘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혼
란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형태소 내부에서나 제1 음절에 사용된 ‘·’는 16세기부터 ‘·’
가 다른 모음으로 교체되면서 혼란스러워진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5) 모음조화

언해본과 구결본을 비교해 보면 모음조화 표기에서도 차이가 발견된다. 언해본은 비교적
모음조화가 잘 지켜진 훈민정음 초기 문헌인 데 반해서 구결본은 언해본에서 지킨 모음조화
가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모음조화 표기에 차이를 보이는 구결본의 표기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5> 구결본과 언해본의 모음조화 표기 차이

모음	어형
· / ㅡ	히 ㅓ 브료믄[壞滅](히야브료믄), 어미[首](처서미), ㅁ다드모므 ㄴ[研](ㅁ다드 모몰), 토포 ㄴ[掌](토포)
ㅏ / ㅓ	어도온딛[暗](어드운딛), 허류ㅁ ㄴ[傷](허료몰), 메오느니[充](메우느니라), 이쇼려[存](이슈려), 머쿄매[噉](머큐매), 최[鑑](비취며), 궤오[復然](궤우 면), 저조[潤](저주믄), 그 ㄴ 후미[沸](글호미), 여 ㄴ 온[薄](열운), 그릇드되고 ㅓ[跣](그릇드되유미), 비르소[始](비르수디), 브트려[欲然](브트려툃), 니료 [起](니루미니), 비론[假](비론), 두로[周](두루), 사교미[箋](사규미)
ㅕ / ㅗ	타[擊](터)

<표5>의 첫 번째 예는 양성모음으로 끝난 명사형 뒤에 언해본에서는 ‘으’, ‘을’, ‘이’가 사
용되었으나 구결본에서는 ‘은, 을, 의’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두 번째 예는 양성모음 어간 뒤

에 언해본에서는 ‘ㄱ’ 어미가 나타나지만 구결본에서는 ‘ㄷ’ 어미가 사용되었다. 또 반대로 음성모음 어간 뒤에서 언해본에서는 ‘ㄷ’ 어미가 나타나지만 구결본에서는 ‘ㄱ’ 어미가 사용되었다. 그런데 ‘사교미<9권47B:3>’의 경우는 언해본에서 양성모음 뒤에서 ‘우’가 사용되어 있는 반면 구결본에서는 모음조화를 지켜 ‘사교미’로 현토하였다. 세 번째 예는 ‘티다’ 뒤에 언해본에서는 음성모음 ‘ㄱ’이 사용되었으나 구결본에서는 ‘ㅌ’가 붙어 ‘타’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6) 종성 표기

구결본에 기입된 한글토 가운데 종성 표기에 사용된 자음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ㅌ, ㄽ, ㄾ, ㅌ, ㅍ,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ㅠ, ㅡ, ㅣ]

중세 국어의 종성 표기법과 많이 다르지는 않다. 이 가운데 ‘ㅌ’, ‘ㅑ’, ‘ㅒ’, ‘ㅓ’은 사이시옷이 결합된 것이고, ‘ㅑ’, ‘ㅒ’, ‘ㅓ’은 ‘ㅑ, ㅒ, ㅓ’의 오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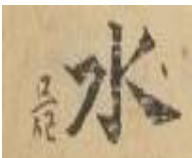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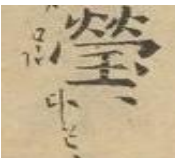
구결본에는 ‘ㅅ’과 ‘ㅈ’이 언해본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15세기에는 8종 성법에 따라 ‘ㅅ’과 ‘ㅈ’이 음운론적 대립을 이루었으나, 16세기 초부터 ‘ㅅ’과 ‘ㅈ’이 중화되면서 두 자음이 종성에서 혼기되었기 때문이다. ‘ㅅ’과 ‘ㅈ’의 혼기 및 언해본과 차이를 보이는 종성 표기를 확인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6> 구결본과 언해본의 종성 표기 차이

종성	어형
ㅅ → ㅈ	횡도라[環](횡도라), 스믈[了](스믈), 님다ㅅㅅ[忘](님다ㅎ샤미), 즈빈[慈](慈종悲빙ㅅ), 즐[妄](거짓), 베틀[僅](베틀), 푸면논[懷](푸멧논), 서든[雜](섯근듯), 곧[花](꽃)
ㅈ → ㅅ	곳[卽](곧), 받노뇨[承](받노뇨), 나든[遇](맞나듯ㅎ니), 받좁[承](받좁더니), 닷[別](단), 못[詰](물건댄), 못[不](물거든), 던덜ㅈ[常](던덜디), 붓ㅈ[局](붙들이다), ㅅㅅㅅㅅ[同](곶ㅎ시며), 전곶펴[縱恣](전곶펴), 붓둥기ㅈ[攀](붙둥기논), 문닫고[掩關](門문닫고)
ㄹ → ㄷ	오ㅅㅅㅅㅅ[遷](옴노니로), 어ㅅㅅㅅㅅ[纏](엄미요매)
ㅌ → ㄷ	ㅅㅅㅅㅅ[如踐](곶듯ㅎ노니라), ㅅㅅ[說](숯노니), ㅅㅅㅅㅅ[疊](곶ㅎ야)
ㅑ → ㄷ	블비치ㅅ[焰](블비치라)
ㅒ → ㅁ	아롭[私](아롭)
ㅓ → ㅍ	넉[魄](넉)
기타	블[涉](브트샤), 물[水](물), 마+ㅅㅅ[分寸](맷), 목ㅅㅅㅅㅅ[瑩](목다ㅎ니라)

먼저 언해본에서 종성이 ‘ㅅ’이나 구결본에 ‘ㅈ’으로 나오는 경우와 언해본에서 ‘ㅈ’ 종성이 구결본에서는 ‘ㅅ’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또 언해본의 ‘ㄹ’ 겹받침이 ‘ㄷ’로 나타나거나 ‘ㅌ’이 ‘ㄷ’로 적히기도 하였다. ‘ㅑ’, ‘ㅒ’은 사이시옷이 결합된 겹받침인데 구결본에서는 사이시옷이 탈락되어 ‘ㄷ’, ‘ㅁ’으로 나타났다. ‘블’에 사용된 종성 ‘ㅌ’은 변별적인 음운이라기보다 ‘브트샤’와 같이 읽으라는 의미에서 적은 표기일 것이다. ‘ㅑ’, ‘ㅒ’, ‘ㅓ’은 그림을 먼저 제시

하면 아래와 같다.

		
물[水]<5권29A:7>	마+ㄴ[分寸]<5권30B:4>	목ㄴ다ㄴ히·[瑩]<5권07A:6>

<그림3> 오류 추정 종성 표기

그림을 보면 ‘물’, ‘마+ㄴ’ ‘목ㄴ’로 각 음절을 기입해 놓았는데, 이 음절의 종성들은 ‘ㄹ’, ‘ㄴ’, ‘ㄷ’이 앞뒤 순서가 바뀐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오기인 것이다. 특이하게도 이러한 오류는 모두 권5에서 발견이 되었다.

7) 자음동화

구결본이 언해본과 가지는 차이 중에 한 가지가 자음동화 표기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문헌에 나타나는 자음동화는 ‘ㄴ’ 앞에서 받침 ‘ㅅ’이나 ‘ㄷ’이 ‘ㄴ’으로 변하는 비음화이다. 그 예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7> 자음동화 표기

자음	어형
ㅅ → ㄴ/ㄷ	인ㄴ[有](잇는), 그지 ㄴ[限](그지잇는), 존ㄴ[循](죇는), 빈ㄴ[文](빋난), 브턴 ㄴ 1[依](브턴ㄴ)
ㄷ → ㄴ/ㄷ	돈ㄴ[奔](돌는), 돈니ㄴ[遊](돌니는), 만ㄴ[聞](만는), 븐ㄴ니라[從](븐ㄴ니라), 븐ㄴ돌[焚](븐ㄴ 돌호미), 니르ㄴ[起](니르완ㄴ니)

종성에 사용된 ‘ㅅ’과 ‘ㄷ’ 두 자음이 ‘ㄴ’ 앞에서 ‘ㄴ’에 동화되어 변화한 경우이다. 앞서 종성 표기에서 ‘ㅅ’과 ‘ㄷ’이 중화되어 혼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후 ‘ㄴ’이 뒤따라오는 상황에 음운현상이 일어났으며 이를 표기에 반영한 예라고 할 수 있다.

8) 유성 후음 ‘ㅇ’

중세국어에서는 유성 후음 ‘ㅇ’이 존재하였다. 이 자음은 ‘ㄷ’과 모음 사이, ‘ㅌ’과 모음 사이, ‘ㄴ’으로 끝나는 이중 모음과 모음 사이 등에서 실현되었다. 언해본에 나타난 유성 후음 ‘ㅇ’이 구결본에서는 모음화하여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결본

빠라[瞻]<2권06B:7>
노로ㅁ[弄]<6권24B:3>

언해본

빨아
놀요ㅁ

이리[威]<8권16B:8>	일위
기루미[長養]<8권12A:4>	길우미니
기우루스[傾]<4권18A:7>	기울우며
ㄱ으누린[麗]<9권28A:4>	ㄱ오눌인
이루디[濟]<8권10A:5>	일우디
하라[毀]<8권03A:2>	할아고
부러니르디[開演]<5권05B:3>	불어니르디
드르스[懸]<8권40B:1>	돌요미
어리노스[凝]<9권26B:1>	얼의요미

위 예를 보면 언해본에서 ‘ㄹ’과 모음 사이에 유성 후음 ‘ㅇ’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구결본에서는 자음 ‘ㅇ’이 모음화함으로 인해 중성의 ‘ㄹ’이 뒷 모음에 연철하여 표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성 후두음 ‘ㅇ’은 중세국어에서 자음 ‘ㄱ’의 유성 후음화에도 사용되었다. 자음 ‘ㄱ’이 ‘ㄹ’이나 ‘ㄴ’ 뒤에서 유성 후음화되어 ‘ㅇ’으로 바뀌어 표기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형태소 경계에서 비교적 규칙적으로 일어났다. 훈민정음 초기 자료인 언해본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구결본에서는 이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구결본

너출게[蔓]<8권38A:2>
 ㄱ슴ㅏ고[掌]<6권08A:7>
 밍굴고져노口[欲成]<1권32B:8>

언해본

너출에
 ㄱ슴알오
 밍굴오져 흠

‘너출게[蔓]’는 ‘너출-’에 ‘-게 하다’의 ‘-게’가 붙은 형태이다. 언해본에서는 ‘-게’의 ‘ㄱ’이 후두 유성음화하여 ‘ㅇ’으로 나타났으나 구결본에서는 ‘게’로 사용되었다. ‘ㄱ슴ㅏ고[掌]’는 ‘ㄱ슴알-’에 어미 ‘-고’가 붙었으며, 언해본에서는 ‘ㄱ’이 유성 후음화하여 ‘ㄱ슴알오’로 나타났다. ‘밍굴고져노口[欲成]’는 ‘밍굴-’에 ‘-고져 하다’가 결합된 어형인데, 언해본에서는 ‘-고져’의 ‘ㄱ’이 유성 후음화하여 ‘ㅇ’으로 바뀐 후 표기되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능엄경』에 기입된 한글구결을 대상으로 언해본과의 비교를 통해 음운 및 표기의 특징에 대해 알아 보았다. 병서 표기, 연철/분철/중철 표기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살펴 보았다. 또 ‘△’, ‘·’, 유성 후두음 ‘ㅇ’ 등의 음운 및 표기의 변화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모음조화, 자음동화 등 음운현상에 의한 표기도 비교하여 보았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능엄경』에 기입된 한글 석독 표기는 16세기 이후에서 17세기 사이에 기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능엄경』과 간경도감판 언해본 비교의 가장 큰 전제는 두 문헌에 나타나는 구결이 그만큼 유사하기 때문이다. 두 문헌은 번역 양상에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마치 간경도감판 언해본을 보고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하지만 음운 및 표기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고려한다면 보고 적은 것보다는 언해본을 누군가가 낭독하고 그것을 듣고 옮겨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이러한 추측은 개인적인 상상일 뿐이므로 좀 더 확실한 증거가 될 만한 자료가 뒷받침될 때 입증 가능할 것이다.

참고 웹사이트

프랑스 국립도서관(BnF) <https://gallica.bnf.fr>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

참고 문헌

- 곽동화(2007) : 「능엄경 판본에 관한 서지적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국립국어연구원(1996) : 『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1-중세국어』,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1997) : 『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1-근대국어』, 국립국어연구원.
- 김남경(2018) : 「기림사본 음독 구결에 대하여 - 『능엄경』 <권8>, <권9>를 대상으로」, 『한국말글학』 35, 한국말글학회.
- 김동소(1997) : 『한국어 변천사』, 형설출판사.
- 김문웅(1986) : 『15세기 언해서의 구결 연구』, 형설출판사.
- 남경란(2001) : 「<능엄경>의 음독 입겇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남경란(2009) : 『여말선초 음독 입겇 자형과 기능의 통시적 연구』, 경인문화사.
- 남경란(2016) : 『한글 창제 전후의 입겇 연구』, 경인문화사.
- 남권희(1997ㄱ) : 「高麗 口訣資料 3種 紹介」, 제16회 구결학회 겨울 공동연구 발표 요지문, 관동대학교, 1-7.
- 남권희(1997ㄴ) : 「高麗末에서 朝鮮中期까지의 口訣資料에 관한 書誌學的 研究」, 『書誌學研究』 16, 서지학회.
- 남권희(1997ㄷ) : 「차자 표기 자료의 서지」, 『새국어생활』 7-4, 국립국어원.
- 남권희(1999) : 「朝鮮中期부터 舊韓末까지의 口訣資料에 관한 書誌學的 研究」, 『書誌學研究』 18, 서지학회.
- 남권희(2002) :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청주고인쇄박물관.
- 남권희(2012), 「구결본 <南明泉和尚頌證道歌 ; 증도가>의 서지적 고찰」,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 남풍현(1990) : 「高麗末·朝鮮初期의 口訣 研究--楞嚴經 記入吐의 表記法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69, 진단학회.
- 남풍현(1999) : 『국어사를 위한 구결 연구』, 태학사.
- 민현주(2013) : 「<남명친화상송증도가>의 구결 자료에 대하여」, 『한국말글학』 29, 한국말글학회.
- 박영섭(2008) : 『능엄경언해 어휘 연구』, 박이정.
- 박부자(2000) : 「정문연본 <永嘉證道歌>의 구결에 대하여」, 『口訣研究』 6, 구결학회.
- 박진호(1996) : 「奎章閣 所藏 口訣資料 楞嚴經 2種에 대하여」, 『口訣研究』 1, 구결학회.
- 세종대왕기념사업회(1998) : 『(역주)능엄경언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안대현(2021) : 「원각사본 <능엄경>의 음독구결과 언해 기반 석독 표기」, 구결학회 제59회 겨울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 안병희(1977) : 『中世國語 口訣의 研究』. 일지사.
- 옥영정(2008) : 「장서각 소장 <능엄경>과 <원각경>의 인쇄문화적 가치, 『장서각』 20, 한국학중앙연구원.
- 운허기념사업회 언해불전연구소(2021) : 『능엄경언해 대조색인』, 운허기념사업회.
- 이승재(1990) : 「高麗本 梵網經의 口訣」, 『애산학보』 9, 애산학회.
- 이은규(2004) : 「석독 입결문의 동사 “삼-”의 의미 기능, 『언어과학연구』 30, 언어과학회.
- 이전경(2002) : 「15세기 口訣의 表記法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경준(2021) : 「<법화경>의 언해 기반 토 표기와 부호의 사용 - 법응스님 소장본 권1과 영천역사박물관 소장본 권4를 중심으로-」, 구결학회 제59회 겨울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 장영길(1992) : 「능엄경과 능엄경언해에 대하여」, 『동악어문학』 27, 동악어문학회.
- 정은영(2005) : 「<몽산화상육도보설>이본의 입결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재영(2006) : 「불갑사 소장의 화암사판 <부모은중경>에 대하여-이 자료에 기입되어 있는 구결과 언해문을 중심으로-」, 『영남학』,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원.
- 최범희(1997) : 「능엄경의 성립과정과 전래의 자료에 관한 고찰」, 『불교학보』 34,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 최은규(1993) :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の 口訣에 대하여」, 『國語史資料와 國語學의 研究』, 문학과지성사.
- 하정수(2020) : 「프랑스국립도서관(BnF) 소장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1,2에 기입된 구결 및 한글 연구」, 『국어국문학』 74, 국어국문학회.
- 하정수(2021) : 「<선종영가집> 구결 자료에 대한 고찰」, 구결학회 제59회 겨울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 한상화(1994) : 「祇林寺本 <楞嚴經>口訣의 研究」, 성심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지희·김효경·이혜은(2017) : 「프랑스국립도서관 필사부장서부에 소장된 한국 고문헌 연구」, 『서지학연구』 69, 한국서지학회.

『두시언해』의 선어말어미와 어미구조체

이수진(전남대)

<목 차>

1. 서론
 2. 선어말어미의 분석과 불연속형태
 3. 『두시언해』에 나타나는 어미구조체 분석
 4. 결론
- <참고문헌>

1. 서론

『두시언해』는 15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언어 사실과 형태적 측면에서 다른 특징이 발견된다. 이러한 점은 『두시언해』의 문헌적 특성을 고려하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석보상절』, 『월인석보』와 같은 불경 언해서가 대다수인 15세기 국어의 표기나 표현과는 또 다른 『두시언해』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형태, 문법 형태소 등이 존재한다. 또한 『두시언해』는 1481년에 초간본이 간행된 이후 1632년에 중간본이 간행되어 후기 중세국어 시기와 근대국어 시기 사이의 언어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이다.

후기 중세국어라는 시기적 측면뿐만 아니라 15세기의 문헌 대다수가 불경 언해서라는 점에서 문장의 표현과 문법 형태소의 사용 양상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이해된다. 불경 언해서에서 자주 보이는 ‘-습-’이 『두시언해』에서는 그리 나타나지 않는 차이점도 있으며 구어체에 가까운 형태로 표기되었을 것이라는 믿음, 혹은 한시 언해서라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구결문과 구결문의 언해라는 점 등이 『두시언해』에 나타난 언어적 사실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 『두시언해』는 총 25권이라는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는 만큼 다양한 언어 표현이 존재한다.¹⁾ 문법 형태의 차이는 언해문의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이를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작품과 당대의 언어 사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두시언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간본(1481)과 중간본(1632)이 전하고 있어서 각각 15세기와 17세기 언어변화와 문법 변화로 인한 새로운 언해 등을 대조할 수 있어서 문헌 연구 자료로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²⁾ 최근 김성주(2019) 등에서는 『두시언해』의 문법 형태와 어휘의 특징을 살피고 15세기 문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경 언해서, 유학서, 의학서와 비교했을 때에도 시가서로서 『두시언해』가 국어사 자료로 어떤 가치를

1) 『두시언해』는 『분류두공부시언해(分類杜工部詩諺解)』가 정식 제목이다. 세종 때 편찬된 『찬주분류두시(纂註杜工部詩)』를 원전으로 하여 본문과 주석을 언해한 책이다. 1443년(세종 25)에 착수하여 1481년(성종 12)에 간행되었고, 왕명에 의해 승려 의침(義砮)·유윤겸(柳允謙)·유휴복(柳休復)·조위(曹衛) 등이 주해하였다.

2) 이호권(2008: 196-199)에서는 중간본과 대조하여 초간 교정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기초 작업을 진행하였다. 당대의 시가서로는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을 『두시언해』와 함께 묶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훈민정음 창제 초기라는 시기적 특수성에 더해 『두시언해』는 노래로서 불렸을 시가라는 점에서 또 다른 특징을 지닌다. 『두시언해』에 한시에 붙여 활용한 구결과 이를 언해한 부분의 양상도 정밀히 분석하여 문법 형태소인 어미를 이해하는 데에 여러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두시언해』에 나타나는 선어말어미와 어미구조체의 분석을 진행한다. 15세기의 여타 문헌과는 차별점을 지닌 지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전 시기의 언어가 반영된 모습 역시 발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선어말어미 {-거-}, {-더-}와 결합하는 어미구조체를 살펴보고 {-엇-}, {-엇-}을 분석하고자 한다. 15세기에 선어말어미로서 명확한 문법적 지위를 상정할 수 없던 {-거-}와 {-더-}의 분석 및 {-엇-}, {-엇-}과 같은 형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어미구조체의 문법화 과정을 고려해 보고자 한다.³⁾

이 글은 『15세기 국어 활용형 사전』에 제시된 용언 활용형 중 『두시언해』에서만 단독으로 나타나는 용언 활용형 6080개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⁴⁾ 용언 활용형의 형태소 분석은 각 어미의 기능을 통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미의 형태와 기능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형태소 분석의 기본 원리는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통합관계와 계열관계를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 논문 역시 각 형태소의 통합관계와 계열관계를 분석을 통해 선어말어미의 분석과 특히 {-거-}와 {-더-}, {-어잇-}의 축약형으로 이해되는 {-엇-}과 {-엇-}의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2. 선어말어미의 형태소 분석과 불연속형태

2.1. 선어말어미 {-거-}의 분석 여부

중세국어 선어말어미 {-거-}의 분석은 여러 난점을 동반하고 있다. 이 시기 문헌에 나타나는 {-거-}를 선어말어미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거-}의 이형태 문제나 기능, ‘-거시-’, ‘-시거-’의 공존에 따른 선어말어미 배열순서 문제, 선어말어미 ‘-거-’의 통합형으로 보이는 어미들에서의 분석 문제 등 유창돈(1963)에서 ‘-거-’, ‘-어-’, ‘-나-’를 이형태로 처리해야 함을 주장한 이후로 다양한 관점에서 {-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중세국어 자료에 접근할 때 일차적으로 형태소 분석을 시도하게 되고, 형태소의 의미 기능에

3) 15세기 문헌에서 나타나는 어미구조체는 ‘ㅎ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 442개의 형태가 나타났다. 전성 어미를 제외하면 345개로 어말어미 목록을 어떤 형태까지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에 따라서 어미 목록이 달라질 수 있다.

4) 『15세기 국어 활용형 사전』은 15세기 문헌의 활용형과 성조 정보를 표제어별로 정리한 것이다. 특기할 점은 한자어를 어근으로 하는 ‘Xㅎ다’형은 성조 정보가 그리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고 ‘Xㅎ다’형 표제어 중에 어근이 훈민정음으로 표기된 것은 활용형과 성조를 제시하였다. 『15세기 국어 활용형 사전』은 체언과 용언의 형태를 표제항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출현 문헌 역시 확인할 수 있다. 단, 출처의 경우 지면과 편집상의 문제로 전체 출현 문헌 제시하지 않고 문헌 간행 시기를 고려해 2개의 출처까지만 제시하였으므로 특정 형태의 문헌별 분포는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 사전은 총 50,343개의 활용형을 수록하고 있으며 이중 용언 활용형은 37,944개로 성조 정보가 상이할 경우 동일 형태라도 별도 수록하였다. 『두시언해』에서만 단독으로 나타나는 용언 활용형 6080개였다. 다만 이 글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형태는 어간과 어미 결합에서 유일레일 뿐 어미 형태소 자체가 유일한 것은 아님을 부연해 둔다.

따라 문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결정하게 된다. 현대인의 언어적 직관이 닿지 않는 부분은 수많은 자료 속에서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통합관계와 계열관계에 따라 형태소 분석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공시적으로 형태소를 분석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중세국어 연구할 때에도 유의미한 기준이 된다. 만약 이러한 계열관계와 통합관계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그것은 더이상 생산적인 형태소로서 지위를 가진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중세국어 선어말어미 중 {-거-}와 {-더-}는 어미와의 통합관계에서 불완전한 모습을 보인다. 이 때문에 선어말어미 {-거-}와 관련된 연구는 중세국어 시기의 {-거-}를 선어말어미로서 인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어미의 일부로 볼 것이냐 하는 점에서부터 대립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불완전한 활용을 보이긴 하지만 선어말어미 {-거-}를 인정하는 태도를 취한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거-}가 통합된 대표적인 형태로는 ‘-거든’, ‘-거늘’, ‘-건마련’, ‘-거니’, ‘-거나’, ‘-거지라’, ‘-거라’ 등이 있다. 이병기(2014: 41-44)에서는 위의 통합형 어미에서 {-거-}를 분석 여부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바 있다. 고영근(1981/1998)에서는 ‘-거-’로 시작하는 연결어미들은 한 형태소로 굳어진 것이라고 하였고, ‘-거든’, ‘-거늘’ 등은 중세어에도 이미 하나의 형태소로 굳어졌다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시’가 이들 어미 내부에 삽입되는 형태로 ‘-거시든’, ‘-거시늘’과 같이 문헌에 출현한다는 점이다. 고영근(1981/1998)은 이런 류의 형태를 ‘불연속형태’라고 보고 ‘시’의 형태소 내부 개재를 설명해 내었다. 그런데 형태소 분석의 기본 원리로 통합관계와 계열관계를 만족시키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분석을 할 때 한 형태소 내부에 삽입되는 형태를 과연 ‘한 형태소’로 볼 수 있는가? 이미 다른 형태소에 의해 두 형태가 분리되었다는 데에 상당한 부담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남미정(1998)에서는 ‘-거-’ 통합형 어미들의 분석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거든’의 분석가능성은 이승녕(1961), 허웅(1975), 고영근(1978)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거-}로 시작하는 어미 사이에 다른 선어말어미의 개입이 허용되고 ‘-거-’ 역시 어느 정도 의미상의 특수성이 있다고 보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거시든’, ‘-시거든’이 중세국어 시기에 공존하는 현상은 선어말어미의 배열순서의 질서가 {-거-}와 {-더-}의 대립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1) ㄱ. 주거 가더든 누를 브터 알외리오 도라와 비루소 내 슬허 흥노라

(死去憑誰報 歸來始自憐) <杜詩5:6>

ㄴ. 두 사르미 我를 뒹터든 흥나흔 靑山에 잇고 흥나흔 길헤 이시리 <金三4:17>

ㄷ. 흥다가 부테 相을 물더시든 또 能히 相으로 對答흥스오리라 <金三3:12>

ㄹ. 필종이 제 친히 아니 간는 양이더든 가져 간 놈 바비나 흥여 머기소 <순천72:10>

(1)을 살펴보면 ‘-거든’의 ‘-거-’를 분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든’이나 ‘-더시든’의 존재로 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다. ‘-거든’, ‘-더든’, ‘-더시든’에서 ‘-든’은 ‘-거-’와 ‘-더-’의 계열관계를 만족시킨다. 선어말어미 {-거-}와 {-더-}를 인정할 경우 ‘-시-’가 결합한 ‘-거시든’의 형태소 분석은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 개입되는 ‘-시-’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남미정(1998: 28)에서 ‘-거시-’, ‘-시거-’의 혼재가 17세기에 이르러 ‘-시거-’형으로 정착됨을 지적하고 이것이 선어말어미 배열순서 변화에 대해 ‘-거-’의 기능약화와 관련시켜 생각해볼 수 있다고 하였다.⁵⁾ ‘-거든’의 경우는 ‘-더든’과 계열관계 확

인이 용이한 편이지만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거늘’이나 ‘-거니와’, ‘-건’ 같은 {-거-} 계열 통합형 어미는 또 사정이 다르다.

(2) ㄱ. 法駕 | 처섬 도라오더신 나래 群公이 별 모든 듯 허더라

(法駕初還日 群公若會星) <杜詩24:6^ㄴ>

ㄴ. 또 如來 아래 니르시던 五種雨障을 또 消滅키 亨쇼셔 <月釋10:85^ㄱ>

(3) ㄱ. 부테 오나시늘 보스바 술보디 나를 조고맛 거슬 주어시든 <釋詳6:44^ㄴ>

ㄴ. 이 썸니물 기르더니 나히 즈라거시늘 <釋詳11:40^ㄴ>

(4) ㄱ. 그 길호로 오시거늘 부터를 브라습고 큰 나뭇 뒤헤 드러 습거늘 <月釋7:10^ㄱ>

ㄴ. 이는 아기 도망호샤 가거시늘 당자 집 종이 보고 자바 가습느니라 <月釋 8:95>

15세기 문헌에서 ‘*-더늘’은 확인되지 않는다. ‘*-늘’, ‘*-든’이 ‘-거/어-’ 외에는 결합하지 못한다는 점은 어미 활용에서 불구적인 면모를 지닌다. 임흥빈(2020: 446-448)에서도 ‘늘’과 ‘든’에 대해서 단일형태소라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다. 고영근(1981: 36-38)에서는 ‘-거나, -거든, -거늘, -건대’의 ‘-거-’가 통합관계와 계열관계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독립된 형태소로 분석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때 계열관계나 통합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거-’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미의 문제인지는 살펴볼 필요는 있다. 임흥빈(2020: 447)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늘’은 형태소로서 자격을 지닌다.⁵⁾

‘-거늘’, ‘-거든’의 ‘-거-’의 통합관계에서는 ‘-거-’와 통합하지 않는 단독형태의 ‘*-늘’, ‘*-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형태소로 처리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이용(2000: 34-37)에서와 같이 구결문에서의 확인되는 ‘-거’와 ‘-든’의 분석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는 중세국어의 ‘-거든’, ‘-더든’ 분석에도 참고할 만하다. 다만 통시적인 변화에 의해서 15세기에는 이전 시기보다 제약이 더 많아졌고 통합되는 어미의 범주 역시 좁아졌다고 할 수 있다. 통시적인 변화를 공시적인 분석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오랜 논란이 되어 왔다.

2.2. 불연속형태와 문법화 과정

불연속형태의 설정은 결국 언어가 끊임없는 변화의 산물이라는 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전 시기의 문법 변화가 현재에 이어져 공시적으로는 불구적이거나 이전과는 다른 활용 양상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 차자표기로 문자생활을 하던 환경에서 훈민정음 창제 이후 우리말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문자로 표기생활을 하게됨으로써 확인되는 변화 역시 존재한다고 본다.

불연속형태로 이해할 수 있는 문법 형태소는 대표적으로 ‘-거늘’, ‘-거든’, ‘-지이다’ 등이 있다. ‘-거시-’와 ‘-시거-’의 공존에 대해서 ‘-거-’를 선어말어미로 형태소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 ‘-시거-’와 ‘-거시-’의 통시적인 양상을 살펴보자면 15세기 이전 구결문에서는 ‘-거-’와 ‘-시-’가 분명히 선어말어미로서 기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어말어미의 통합순서가 불안정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통시적인 변화 과정의 언어 사실적 단면이 당대 문헌 자료에서 달리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혹은 이러한

5) 한동완(1986)에서는 ‘-엇-’의 생성이 ‘-거-’의 기능 약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았다.

6) ‘-늘’은 동명사 어미 ‘-ㄴ’에 대격조사 ‘을’이 결합하여 형성이 되었을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듯하다. ‘-늘’에 대해서는 이용(2000), 남미정(2003)을 참고할 수 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구어가 반영된 문헌에서 대거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는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용(2000: 41)에서는 ‘인접성의 원리’에 의해 문법 형태화는 모두 인접한 형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ㄴ+을(늘)’, ‘-ㄴ#ㄷ+익’(ㄴ딤), ‘-ㄴ#ㄷ+익+-ㄴ’(ㄴ딤), ‘ㄹ#ㄷ+-ㄴ’(ㄹ든) 등의 연결 어미가 모두 인접한 것들이 하나로 굳어지면서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통시적 변화는 형태소가 인접한 경우에 한해 일어나며 ‘-거시늘’의 ‘-거...늘’처럼 예외적인 경우는 기능 변화를 형태 변화가 따르지 못해 생긴 불연속 형성소로 파악하려 하였다. 이런 불연속형태는 문법화 과정의 과도기적 형태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불연속형태를 삼을 때의 부담은 ‘형태소’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이다.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최소의 단위라는 점을 무시하게 되므로 해당 형태소의 지위를 부여할 때 혼란이 오게 된다. 어휘 형성의 과정으로 유추해 보아도 복합어가 될 때 의미 기능이 유지되는가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함을 본다면 불연속형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안한 처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거-’와 ‘-더-’를 선어말어미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연쇄를 따로 처리하지 않는 태도에서 기인하며, ‘-거-’와 ‘-더-’를 선어말어미로 처리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불구적인 활용이 이들 형태의 이해에 장애가 된다.

불연속형태는 중세국어의 어미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닌 듯하다. 황선엽(2004)에서는 석독구결 자료에서 나타나는 ‘-ㅁ 1(곤)’을 하나의 어미로 처리하였다. 구성적으로는 선어말어미 ‘-ㅁ(고)-’와 동명사어미 ‘-1(ㄴ)’이 통합한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ㅁ 1(곤)’의 연쇄 사이에 ‘-ㅁ/ㄴ(시)-’가 통합되면 ‘-ㅁ ㅁ ㅁ 1/ㅁ ㅁ ㅁ 1(곡신)’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통해 ‘-ㅁ 1’을 불연속 형태소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⁷⁾

3. 『두시언해』에 나타나는 어미구조체 분석

3장에서는 『두시언해』에 나타나는 여러 어미구조체 중 {-거-}와 {-더-}의 통합형과 {-어시-} 통합형 어미구조체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이는 선어말어미 체계 및 배열순서 변화에 영향을 끼친 선어말어미 {-거-}와 {-더-}가 『두시언해』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또한 {-어 잇-}의 축약형으로 이해되는 {-옛-}과 {-엇-}의 검토를 통해 향후 과거시제 선어말어미로 이해되는 {-엇-}의 형성을 이해하고 『두시언해』의 문헌적 특성 역시 확인해 보고자 한다.

3.1. {-거-} 통합형 어미구조체

『두시언해』 문헌에 나타나는 용언 활용형을 분석하여 선어말어미 {-거-}가 통합한 어미구조체를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는 {-오-}, {-엇-}, {-옛-}과 결합한 어미구조체 형태를 표로

7) 황선엽(2005: 121)에서도 ‘-ㅁ ㅁ ㅁ 1/ㅁ ㅁ ㅁ 1’가 ‘-ㅁ 1’의 기능적인 면에서 공통되지만 주체높임의 선어말어미 ‘-ㅁ/ㄴ-’가 더 통합되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를 중세국어 문헌에 나타나는 ‘-거늘’ 등과 같이 연결지어 생각하기에는 ‘-ㅁ/ㄴ-’에 선행하여 ‘-ㅁ(ㄱ)’이 출현한다는 점이 해석에 어려움을 더한다. 이 시기에 ‘-ㅁ 1’이 선어말어미 ‘-ㅁ-’와 동명사어미 ‘-1’이 통합할 수 있다는 점과 이들이 하나의 연결어미로 기능하였지만 아직 완전한 형태소로 결합력이 높지는 않은 단계라고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시하고 각각의 선어말어미 결합에 해당되는 칸에 관련 형태를 제시하였다.

	{-오-} 결합	{-엇-} 결합	{-옛-} 결합
-거닐/거늘		앗거닐/엇거늘 앗거늘/엇거늘	옛거닐 옛거늘/옛거늘/옛거늘
-거늘샤			
-거나			
-거녀			
-거뇨	가뇨		
-거니			
-거니라		엇거니라	옛거니라/옛거니라
-거니썌녀			
-거니오	가니오	앗거니오	
-거니와	가니와		옛거니와
-거든/거든		엇거든	옛거든/옛거든
-거라	가라		
-거시니			
-거시니라			옛거시니라
-거시니오			
-거시든			
-거신마론			
-거샤			
-건			
-건마론	간마론	앗건마론/엇건마론	옛건마론/옛건마론
-시킨마론			
-어닐	아닐		
-어든/어든	아든		
-어라			
-어시닐			
-어시니라			
-어지라			

<표 33> {-거-}와 통합하는 어미구조체

선어말어미 {-거-}는 ‘-거-’, ‘-어-’, ‘-나-’로 교체되며 『두시언해』에서 {-거-}가 통합하는 어미는 ‘-닐/-늘’, ‘-늘샤’, ‘-나’, ‘-녀’, ‘-뇨’, ‘-니’, ‘-니라’, ‘-니썌녀’, ‘-니오’, ‘-니와’, ‘-든/-든’, ‘-라’, ‘-시니’, ‘-시니라’, ‘-시니오’, ‘-시든’, ‘-신마론’, ‘-샤’, ‘-건마론’, ‘-시닐’, ‘-지라’였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5) ㄱ. 애긔븐 소리를 므더니 너기고져 호간마론 므스미 어즈럽건 디 호마 오랄시니라
<杜詩5:26b-27>

ㄴ. 百年 內에 萬事를 므던히 너기간마론 네 사던 디를 므스매 耿耿호야 니조미 어럽

도다 <杜詩3:13⁷>

ㄷ. 勳庸을 세오져 스랑^ㅎ간마^ㄹ말^ㅎ며 아니호매 그들 어루 알 거시라 <杜詩3:21^ㄴ>

ㄹ. 내 丹砂 잇는 디 나사가고저간마^ㄹ프를 불오며 므를 건나매 모믹 꺾보몰 아노라
(我欲就丹砂 跋涉覺身勞) <杜詩8:58^ㄴ>

ㄹ. 道甞人신이 날오디 들간마^ㄹ보디 몬^ㅎ야 잇노라 <月釋20:74^ㄴ>

(6) ㄱ. 님그미 시름^ㅎ샤 盜賊을 急急 너기거신마^ㄹ軍師 | 늘거 京都 | 거츠렛도다 (主優急盜賊 師老荒京都) <杜詩22:46⁷>

ㄴ. 오히려 思想호디 朝廷에 나사가면 머릿 터럭마니나 社稷을 돕스오련마^ㄹ얼구리
이제 이 곧^ㅎ니 나사가거나 물러오거 (尙想趨朝廷 毫髮裨社稷 形骸今若是 進退委行色) <杜詩6:53⁷>

ㄷ. 하^ㄴ 險은 므츠매 難히 셔리언마^ㄹ柴門에 어느 다시 디나가리오 (天險終難立 柴門豈重過) <杜詩7:9^ㄴ>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는 ‘-간마^ㄹ’이다. ‘-간마^ㄹ’은 ‘-건마^ㄹ’에 의도법 선어말어미 ‘-오-’가 결합한 것으로 이해되는 형태이다.⁸⁾ ‘-건마^ㄹ’을 한 형태라고 한다면 ‘-오-’의 결합도 (6ㄱ)의 ‘-거신마^ㄹ’처럼 한 형태소 내부에 개재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6ㄱ)의 ‘너기거신마^ㄹ’를 분석해 보자면 ‘너기- + -거- + -시- + -ㄴ마^ㄹ’으로 분석할 수 있다.⁹⁾

(7) ㄱ. 즉제 길 너 나가^ㄴ날 당춘이 글월^ㅎ야 량식 업다커^ㄴ <삼강(동),충:22⁷>

ㄴ. 즉자히 길 너 나거^ㄴ날 張俊이 글월^ㅎ야 糧食이 업다커^ㄴ <삼강(런),충:22⁷>

(7)의 예문은 동일한 『삼강행실도』의 판본이 다른 예이다. (7ㄱ)은 ‘나가^ㄴ날’, (7ㄴ)은 ‘나거^ㄴ날’인데 (7ㄱ)이 어간을 ‘나가-’로 착각한 오각일 수도 있다.¹⁰⁾ ‘-가^ㄴ’로 교체되는 경우 선어말어미 ‘-오-’와 결합하는 환경을 제시한 바 있는데 동일한 『삼강행실도』의 동경대본과 런던대본의 표기 차이를 확인할 때 문맥상 선어말어미 ‘-오-’의 개입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8) 선어말어미의 배열순서를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연구자별로 다루고 있는 선어말어미가 차이가 나며 ‘-습-’, ‘-더-’, ‘-시-’, ‘-ㄴ-’, ‘-이-’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지만 ‘-거-’, ‘-오-’, ‘-돛-’, ‘-리-’, ‘-니-’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이 존재하는 듯하다.

① 유창돈(1964): 습 - 거 - 리 - 다/더 - 시 - ... - ㄴ - ... - 니 - 이

② 이기문(1972/1998): 습 - 거/더 - 시 - ㄴ - 오 - 리 - 돛 - 이

③ 이승욱(1973): 습 - 더 - 시 - ㄴ - 오 - 리 - 이

④ 안병희·이광호(1990): 습 - 거/더 - 시 - ㄴ - 오 - 리 - 돛 - 니 - 이

⑤ 최동주(1995): 습 - 시 - (리) - 더/ㄴ - 리 - 돛 - 오 - (리) - 이

⑥ 김소희(1996): 습 - 시 - (리) - 거/더/ㄴ - 리 - 돛 - 오 - (리) - 이

⑦ 김유범(1998): 습 - 거1/더1 - 시 - ㄴ - 오 - 리 - 거2/더2 - 니 - 이

⑧ 박부자(2005): 습 - 더/거 - 시- (리) - ㄴ/(더) - 스,웃,도/돛 - 오 - 리 - (더)/(거) - 이

이 글에서는 『두시언해』에서만 출현하는 용언 활용형을 모두 분석하여 ‘-습-’, ‘-거-’, ‘-더-’, ‘-시-’, ‘-ㄴ-’, ‘-오-’, ‘-리-’, ‘-돛-’을 선어말어미 목록에 넣어두었다.

9)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ㄴ마^ㄹ’은 이미 어미로서 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보이도 무방할 것이다.

10) 오각일 가능성에 무게가 높아지지만 ‘나가 + -아^ㄴ날’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을 해 보아도, ‘-어/아-’의 출현환경으로 이해되는 타동사적 용법이 이 문장에서는 맞지 않는다.

2.2. {-더-} 통합형 어미구조체

	{-오-} 결합	{-엇-} 결합	{-엿-} 결합
-던	단	앗던/엇던	엿던
-더니	다니	엇더니	엿더니
-더니라		앗더니라/엇더니라	엿더니라
-더라	다라	앗더라/엇더라	엿더라/엿더라/엿더라
-더든			
-더신			
-더시니라			
-단			
	다소라		

<표 34> {-더-}와 통합하는 어미구조체

{-거-}와 {-더-}는 15세기 이전 대립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지만 점차 대립관계가 해소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표 1>과 비교했을 때에도 결합하는 어미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 {-더-}와 결합하는 어미는 ‘-ㄴ’, ‘-니’, ‘-니라’, ‘-라’, ‘-든’, ‘-신’, ‘-시니라’였으며, ‘*-더소라’는 문헌상 출현하지 않으며 ‘다소라’는 ‘-더- + -오- + -소라’로 분석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8) ㄱ. 스물 히를 조차 돈녀 흰히 長安에서 醉^ㅎ다소라

(追隨二十載 浩蕩長安醉) <杜詩16:18⁷>

ㄴ. 다른 ㅁ을히 네 혼 더 노라 제여곰 닐오디 올마 돈니는 다붓 ㅁ토물 아천노라 ㅎ다소라

(異縣昔同遊 各云厭轉蓬) <杜詩19:43^ㄴ>

ㄷ. 漢入 閣에서 느려듀물 ㅎ오사 붓그리노니 秦入 뜰헤 우루물 모다 議論^ㅎ다소라

(獨慙投漢閣 俱議哭秦庭) <杜詩24:6⁷>

ㄹ. 王侯의 門에 ㅁ장 말^ㅎ고 밋헤 수플 아래 馬鞅을 밧기다소라

(劇談王侯門 野稅林下鞅) <杜詩24:39^ㄴ>

(9) ㄱ. 네 鳳翔都에 이서 金閨엿 籍을 다뭇 通^ㅎ소라

(昔在鳳翔都 共通金閨籍) <杜詩7:26^ㄴ>

ㄴ. 여러 히를 지즈루 머리 여희여쇼니 患難 하매 便安히 사디 몰^ㅎ소라

(積年仍遠別 多難不安居) <杜詩8:43⁷>

(8)은 후기 중세국어 문헌 중 『두시언해』에서만 출현하는 형태 ‘-다소라’이다. (8ㄱ)은 ‘스무해를 좇아 따라 다녀 호탕하게 장안에서 취하였노라’로 풀이할 수 있다.¹¹⁾ ‘*-더소라’ 형태

11) 이 구절의 ‘ㅎ다소라’에 대해 송준호(2014: 146)에서는 ‘취했었노라’로 직역을 하였다. 고영근(2020 ㄴ: 14)에서는 ‘-오-’에 의해 의역의 주체인 두보를 드러내기 위해 ‘나’를 보충하여 ‘나...취했었다’와 같이 운문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나 제안한 바 있다. 이 글에서 ‘醉^ㅎ다소라’를 ‘취했었노라’로 해석하지 않은 이유는 이 시의 후행구절 때문인데 ‘卿相의 지뵈 가 노피 놀애 브르곡 글 순 거슨 마술

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화자의 회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화자 표지 ‘-오-’를 분석해낼 수 있다. 또 『두시언해』에서만 출현하는 ‘-뫏더라’를 살펴보자.

- (10) ㄱ. 너를 기들우노라 가마괴와 가치를 띄여흐다니 글워를 더더 鶴鵠을 뫏뫏더라
 (待爾嗔烏鵲 拋書示鶴鵠) <杜詩8:39^ㄱ>
 ㄴ. 韶州人 원의게 브터 알외노니 새 그를 어제 브터 보내뫏더라
 (憑報韶州牧 新詩昨寄將) <杜詩23:29^ㄴ>

(10)의 어미구조체를 분석하면 ‘어간 + -뫏- + -더라’로 분석할 수 있다. ‘-뫏-’의 선어말어미 배열을 고려하면 ‘-더라’의 ‘-더-’를 분석하게 된다면 박부자(2005)의 선어말어미 배열을 참고할 만하다. 위 (8)에서 ‘-더-’가 확연히 어미 앞에 위치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 (11) ㄱ. 法駕 | 처섬 도라오더신 나래 群公이 별 모든 뫏흐더라
 (法駕初還日 群公若會星) <杜詩24:6^ㄱ>
 ㄴ. 흐다가 부테 相을 묻더시든 또 能히 相으로 對答흐스오리라 <金三3:12^ㄴ>

3.3. {-어시-} 통합형 어미구조체

형태소 분석	두시언해 출현 활용형
-아시--+ㄱ 제	미야실 제(22:45a)
-아시--+ㄱ 건	사라션(8:63b)
-아시--+옴+이	안자쇼미(15:29a, 16:45a)
-아시--+오--+매	ㄱ득 흐야쇼매(6:34b), ㄱ외야쇼매(15:43a, 25:33a), 벼슬 흐야쇼매(21:45a), 사라쇼매(11:2a), 안자쇼매(3:50a, 23:26b)
-아시--+오니	안자쇼니(10:2b)
-아시--+옴+온	내와다쇼몬(18:22a), 씨야쇼몬(21:35b), 흐야쇼몬(16:45b)
-아시--+옴+올	ㄱ득 흐야쇼물(10:1b, 16:50b), 미야쇼물, 미자쇼물, 사라쇼물, 안자쇼물, 와쇼물
-아시--+옴+이	모다쇼미
-아시--+우--+ㄱ	모다술
-아시--+리오	갈마시리오
-아시--+ㄱ	묻흐야실
-아 이시--+니	ㄱ르덜에시니(20:51ㄱ), 니세시니(10:6ㄴ), 뒤쇼더(16:34ㄱ), 무테시니(15:12ㄱ), 떠테시니(15:9ㄱ), 안재시니(16:33ㄱ), 왜시니(15:28ㄴ)

둘해 느랏더라(高歌卿相宅 文翰飛省寺)이어 보자면 ‘장관과 정승들 집에 가서 높이 노래 부르고서, 글 쓴 것을 관청들에 날렸다’이다.

-어시---(오)디	가져쇼디(25:39ㄴ), 니셔쇼디(8:22ㄴ), 두퍼쇼디(22:41ㄴ)
-어시---(우)디	이러슈디(20:26ㄴ)
-어시--오--니	드외여쇼니(20:3ㄱ), 브터쇼니(6:51ㄱ), 안자쇼니(10:2ㄴ), 여희여쇼니(8:42ㄴ)
-어시--오--라	누어쇼라(23:34ㄱ), 디러쇼라(3:28ㄱ), 셔쇼라(10:8ㄱ)
-어시--오--매	거더쇼매(14:11ㄱ), 브터쇼매(6:32ㄴ), 여희여쇼매(15:48ㄱ)
-어시--옴+온	구버쇼몬(20:48ㄱ), 누워쇼몬(15:51ㄱ), 믹여쇼몬(21:29ㄴ)
-어시--옴+올	가져쇼몰(16:14ㄴ), ㄱ려쇼몰(14:3ㄴ), 드려쇼몰(20:50ㄱ), 버프러쇼몰(6:37ㄱ), 브리여쇼몰(18:6ㄱ), 여희여쇼몰(16:11ㄱ), 지여쇼몰(16:23ㄱ)
-어시--옴+을	드려슈몰(25:13ㄴ), 버프러슈몰(23:54ㄱ), 브터슈몰(14:2ㄱ), 여희여슈몰(17:17ㄴ)
-어시--옴+이	굿브러쇼미(3:53ㄱ), 브터쇼미(6:20ㄴ), 여희여쇼미(16:23ㄴ)
-어시--옴+이	브리여슈미(20:7ㄴ)
-어시--우--라	디러슈라(7:23ㄱ), 브리여슈라(8:56ㄴ), 셔슈라(8:2ㄴ)
-어시--옴+애	여희여슈매(20:8ㄱ)
-어시--옴+에	드외여슈매(19:26ㄱ), 브터슈매(8:29ㄴ), 여희여슈매(8:46ㄴ)
-어시--우--니	디러슈니(22:49ㄴ)
-어시--리오	가져시리오(18:18ㄴ)

<표 35> 『두시언해』의 {-어시-} 통합형 어미구조체와 활용형 목록

연결어미 {-어}와 ‘시-(有/在)’ 결합은 『두시언해』에서 유난히 많이 보이는 어미구조체이다. ‘-어 잇-’, ‘-어 이시-’와 같은 보조용언 구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시-’ 통합형은 분석 대상으로 삼은 6080개 활용형 중 46개가 확인되었다. 최명옥(2002: 138-141)에서는 과거 시제 어미의 분포를 살펴보았는데 관형절 안에서 모두 나타났으며,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엿-’이나 ‘-엇-’으로, 모음소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에시-’나 ‘-어시-’로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최명옥(2002: 140)에서 『두시언해』는 ‘-엿-’, ‘-엇-’으로 바뀌는 양상이 과거시제 어미가 출현하는 문헌자료를 구분짓는 교량이라고 하였는데 이전 시기 문헌에 일반적으로 실현되던 ‘-엿-’이 두시언해에서는 ‘-엇-’으로 바뀌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¹²⁾

국어사 문법화에서 대표적으로 ‘-어 잇->-엿->-엇-’의 변화를 살펴보면 인접 형태소의 통합과 음성적 축약이 의미 변화와 분화를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시-’는 이전 시기 ‘去有’ 구성에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잇-’, ‘이시-’의 쌍형어인 ‘시-’에 대한 논의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자.

12) 『두시언해』는 이와 같이 문헌이 담고 있는 언어 사실이 15세기 문헌 중에서도 독특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엿-’과 ‘-엇-’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간행 시기가 뒤라고 해서 이것이 그 시기의 언어 변화상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을까 하는 물음에는 쉽게 답을 할 수가 없다. 『두시언해』에는 일반적인 중세국어 문헌에서 보여주는 언어 사실과 차이나는 이유를 운문 자료이기 때문이라는 점, 구결문이 있는 시가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두시언해』에서의 언어 사실을 분석하면 이전시기 고려가요나 향가 등과 관련지어볼 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15세기 ‘시다’ 활용형			
활용형	문헌	활용형	문헌
쇼니	『두해』 3:44ㄱ	슈메	『두해』 11:10ㄱ
쇼매	『두해』 10:16ㄱ	슈믄	『두해』 10:2ㄱ
쇼매	『두해』 3:20ㄱ	슈믈	『두해』 10:6ㄴ
쇼미	『두해』 10:25ㄱ	슈미	『금삼』 1:11ㄱ 『두해』 11:40ㄱ
쇼믄로	『두해』 11:18ㄴ	슈미사	『두해』 16:25ㄴ
쇼몬	『두해』 10:9ㄱ	슈믈	『능엄』 8:130ㄴ 『두해』 14:38ㄴ
쇼믈	『두해』 10:2ㄱ	시니	『두해』 8:51ㄴ
슈니	『두해』 11:32ㄴ	시리로소니	『두해』 6:18ㄴ
슈매	『두해』 11:30ㄱ	시리오	『두해』 11:37ㄴ

<표 36> 15세기 ‘시다’ 활용형

이승녕(1976)에서 ‘시-’에 대해 ‘시다’의 활용형이 ‘시니, 시니라, 시며, 시라, 신, 실, 신디, 신더, 셔, 술, 슈라, 솜/쑤, 쇼디/슈디’ 등으로 제한적인 활용형만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제한적인 활용형을 근거로 15세기의 ‘시다’는 ‘잇다’의 쌍형어로서 존재하긴 하되 소실기에 들어선 것으로 본 것이다.¹³⁾ 용언 활용에서 제약이 따르지만 {-어시-}에 ‘시-’를 설정해야 한다. 이 논의에서 ‘시-’를 설정한 근거를 위에 제시한 <표 3>을 살펴보면서 해당 활용형을 확인할 수 있다.

(12) ㄱ. 브스웬 時節에 내 아시 주리며 치워 濟州를 바라 가슈믈 든노라

(喪亂聞吾弟 飢寒傍濟州) <杜詩8:34ㄱ>

ㄴ. 노파 무레 내와다쇼몬 檉柳 | 아니오 퍼러햐 석디 아니호미 엇데 楊梅리오

(落落出群非檉柳 青青不朽豈楊梅) <杜詩18:22ㄱ>

위 (12ㄱ)는 ‘어지러운 시절에 내 아우가 굶주리며 추워하면서 제주 부근에 가 있음을 든노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슈믈’의 분석은 ‘가- + #시- + -옵+을’로 ‘잇-’의 쌍형어 ‘시-’를 분석해 낼 수 있다.

정언학(2003: 34-35)에서는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시-’를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엇-’의 분석과 연관한 ‘-어시-’의 분석을 하지 못한 논리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¹⁴⁾ ‘-어시-’는 ‘-어#잇-’과 마찬가지로 ‘-어#시-’이나 보조용언 구성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13) ‘시-’를 ‘이시-’의 공존형으로 설정한 논의는 일찍이부터 제기되었으며 이승녕(1976), 이희승(1956), 안병희(1959/1978), 현평효(1975), 김완진(1975), 이승욱(1986) 등이 있다.

14) 이 외에도 정언학(2003)에서는 이 시기의 ‘잇-’이 결합 환경이 자음만 가능했던 것과 달리 ‘이시-’는 ‘시-’, ‘-어시-’는 상보적 분포 환경의 모음어미와만 결합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시-’, ‘시-’, ‘-어시-’의 음운론적

할 수 있다. 『두시언해』에서 ‘-어 잇-’의 축약형 중 {-엇-}이 15세기 문헌 대비 대규모로 출현하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문헌명	{-엇-}	문헌별 출현 비율	문헌명	{-엇-}	문헌별 출현 비율
1461능엄	7	1.0%	1481삼강(런)	5	0.7%
1463법화	2	0.3%	1482금삼	9	1.3%
1465원각	3	0.4%	1482남명	20	2.9%
1466구방	4	0.6%	1489구간	20	2.9%
1467목우자	1	0.1%	1493 태을	1	0.1%
1475내훈	2	0.3%	1496육조	4	0.6%
1481두해초	607	88.5%	1500개법	1	0.1%

<표 37> 15세기 문헌별 ‘-엇-’의 출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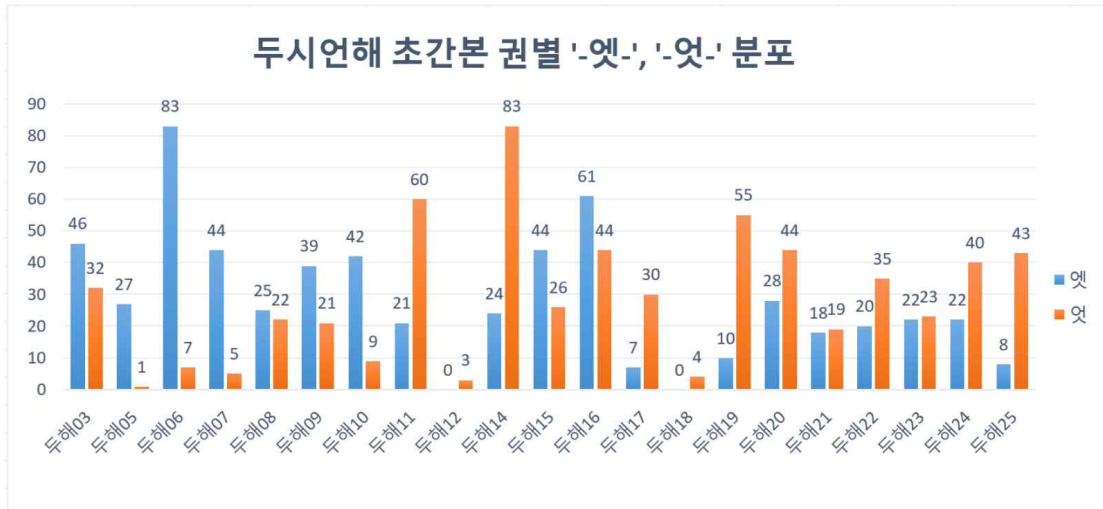
형태 자체는 다수 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언학(2003)의 주장은 15세기 ‘-엇-/엇-’가 하나의 형태소로 기능한다고 보아야 가능할 것이다. 문법화 과정 중에 있는 어떤 형태가 출현한다고 해서 기능까지 완전히 달라졌으리라는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 『두시언해』의 ‘-어시-’는 대체로 ‘-어 있다’의 의미로 해석되고 ‘-엇-’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엣-’, ‘-엇-’, ‘-어시-’의 문법화 단계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시-’의 제한적 활용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잇-/이시-’와 ‘시-’가 쌍형어로서 동일한 의미 기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형태상의 분포와 활용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언급할 수 있다.

위 <표 5>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엇-’은 『두시언해』에 집중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과거시제 혹은 완망의 『두시언해』 이후에 점차 발달된다고 보았으나 실제 ‘-엇-’의 출현 양상을 살펴보면 『금강경삼가해』, 『남명집언해』, 『구급간이방』 정도에서 1~2% 가량의 증가세를 보일 뿐이며, 크게 유의미한 수치로 보기는 무리가 따른다. 『두시언해』의 시가 언해서라는 문헌의 특성에 따라 구어적인 축약 또는 형태 표기의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¹⁵⁾

그리고 『두시언해』라는 동일한 문헌 내에서도 {-엣-}과 {-엇-}의 출현 양상은 제법 차이가 있다. 아래 <그림 1>을 살펴보고 이것에 뜻하는 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분포가 동일한 것이 ‘시-’를 부정할 수 있는 근거로 주장한 바 있다. 쌍형어의 형성이나 세력에 밀려 소멸되는 과정에는 결합 환경의 축소 등의 원인이 있겠으나 공식적 분석이 가능한 형태가 합리적으로 도출되었음에도 ‘시-’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15) 『두시언해』 초간본의 오류를 교정하여 중간본 간행에 적용한 경우도 있어서 『두시언해』 초간본에 나타나는 언어 사실 모두를 당시의 언어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여러 문헌이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다양한 문헌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15세기의 언어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림 33> 『두시언해』 초간본 권별 '-엿-', '-엇-' 분포

정언학(2000: 304-311)에서 고려가요의 ‘-고시’와 15세기 ‘시-’가 다른 체계의 것이라고 보고 ‘-고시-’ 형이 고려가요의 훈민정음 표기 문헌에서만 나타나고 동시기의 다른 문헌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점이 『두시언해』에서 나타나는 형태에 이전 시기 구전 혹은 구어체적 습관이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적어도 『두시언해』의 ‘-어시-’는 15세기보다 이전의 언어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현평효(1975)에서는 제주도 방언의 ‘시’나 ‘ㅅ’이 어미로 나타날 때 존재사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방언적 지식에 의해 15세기 국어의 ‘시-’가 모음 어미 앞에서만 실현된다는 점은 분명 활용상의 제약이 따르는 것이어서 불구적인 어형이라 할지도 ‘시-’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다.

‘-어시-’의 ‘시’는 주체존대의 ‘-시-’로는 볼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시-’의 활용은 ‘샤/셔’ 형이나 ‘시-’의 활용은 ‘쇼/슈’형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승재(1992)는 고려시대 이두에서 ‘去有’가 13세기 중엽 이후 생산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15세기의 ‘-거시/어시-’의 ‘시-’는 ‘이시-’ 동사의 ‘시-’라고 보았다. 적어도 ‘-어시-’의 형성은 15세기 이전의 구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축약으로 인한 음성변화와 기능상의 변화가 일어나 근대국어 시기 ‘-엇-’의 발달의 초기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생략)

참고문헌

- 고영근(1980), 「중세어의 어미활용에서 나타나는 '거/어'의 교체에 대하여」, 『국어학』 9, 55-99.
- 고영근(1987),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고영근(1999), 『국어형태론연구』(증보판), 서울대학교 출판부.
- 고영근(2017), 「고대·중세어의 어미 구조체에 대하여」, 『형태론』 19(2), 형태론, 218-227.
- 고영근(2020ㄱ), 「중세어의 소망 평서문의 정체성 문제-임홍빈(2018)과 관련하여-」, 『형태론』 22-1, 71-76.
- 고영근(2020ㄴ), 「서평: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역주 분류두공부시언해』 -권 3 상/하 2016, 2017, 권 16 상/하 2014, 12015, 권 21 2017을 대상으로-」, 『텍스트언어학』 48, 1-19.
- 고영근(2020ㄷ), 『표준중세국어문법론』(제4판), 집문당.
- 김완진(1971), 「음운현상과 형태론적 제약」, 『학술원논문집』 10, 대한민국학술원, 91-115.
- 김홍석(2004), 「존재의 보조동사 '시-'에 대한 통시적 고찰」, 『어문연구』 12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83-106.
- 남미정(1999), 「접속어미 '-거든'의 통시적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미정(2003), 「접속어미 '-ㄴ ㄷ'에 대한 일고찰」, 『구결연구』 12, 구결학회, 157-189.
- 박부자(2006), 「한국어 선어말어미 통합순서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박용찬(2011), 「“두시언해” 초간본과 중간본의 문법적 특징 비교」, 『우리말글』 53, 우리말글학회, 1-44.
- 백낙천(2017), 「접속어미의 사전 표제어 기술에 대한 일고찰」, 『국제언어문학』 37, 국제언어문학회, 95-118.
- 백두현(1995),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경어법 선어말어미 '-ㄴ-, -ㅁ-'의 분포와 기능에 관한 연구」, 『어문론총』, 경북어문학회, 45-114.
- 이승녕(1976), 「15세기 국어의 쌍형어 '있다, 시다'의 발달에 대하여」, 『국어학』 4, 국어학회, 1-23.
- 이승욱(1970), 「과거시제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49·50, 국어국문학회, 211-222.
- 이승욱(1973), 『국어문법체계의 사적 연구』, 일조각.
- 이승욱(1986), 「중세국어 시상법의 형태범주」, 『동아연구』 10,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40.
- 이승재(1992), 『고려시대의 이두』, 국어학총서 17, 국어학회, 태학사.
- 이 용(2000), 「연결 어미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호권(2008), 「『두시언해』 권 3 영인 해제」, 『한국어연구』 5, 한국어연구회, 193~200.
- 장윤희(2002), 『중세국어 종결어미 연구』, 국어학회.
- 정언학(2000), 「15세기 국어 '시-'에 대한 재고」, 『국어학』 36, 국어학회, 285-312.
- 최명옥(2002), 「과거시제 어미 형성과 변화」, 『진단학보』 94, 진단학회, 51-68.
- 최동주(1995), 『국어 시상체계의 통시적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명옥(2002), 「과거시제 어미 형성과 변화」, 『진단학보』 94, 진단학회, 51-68.
- 한동완(1986), 「과거시제 '있'의 통시론적 고찰」, 『국어학』 15, 국어학회, 217-248.
- 한동완(1996), 『국어의 시제연구』, 태학사.

- 한동완(2000), 「‘-어 잇-’ 구성의 결합제약에 대하여」, 『형태론』 2-2, 도서출판 박이정, 257-285.
- 한재영(1986), 「중세국어 시제체계에 대한 관건」, 『언어』 11-2, 한국언어학회, 258-284.
- 한재영(2002), 「16세기 국어의 시제체계와 변화 양상 연구」, 『진단학보』 93, 진단학회, 199-219.
- 한재영(2005), 「‘엇’과 ‘더’의 통합관계」, 『우리말연구 서른아홉 마당』, 태학사, 709-725.
- 현평효(1975), 「고려속요에 나타난 /-고시-/ 형태에 대하여」, 『국어학』 3, 국어학회, 127-135.
- 허 웅(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허 웅(1977), 「15세기에서 16세기에 이르는 국어 때매김법의 변천」, 『세림 한국학 논총』 1, 세림학술재단(허 웅(1987), 『국어 때매김법의 변천사』에 재수록).
- 허 웅(1987), 『국어 때매김법의 변천사』, 샘문화사.

<기 획 주 제 발 표>

『합부금광명경』 권3의 발견 및 공동 연구 과정 소개

허인영

1. 머리말

석독구결의 연구는 1973년 『구역인왕경』이 발견된 이후 반세기 가까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다. 특히 1990년대 초반 새로운 자토석독구결 자료의 발견과, 2000년 점토석독구결 자료의 발견은 연구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이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촉매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석독구결 연구는 특히 1990년대 후반 구결학회의 월례강독회와 2000년대 소장 연구자들의 모임에서 진행된 여러 연구자들의 공동 연구를 통해 진일보하였다. 2004년에는 그때까지 자토석독구결 자료로만 알려져 있던 『합부금광명경』 권3(이하 <금광>)에 점토석독구결 또한 기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과 제반사항의 미비로 인하여 <금광>에 기입된 두 종류의 석독구결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이제까지 <금광>을 전면적으로 다룬 연구는 사실 많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면서 <금광>을 본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구결학회를 중심으로 하여 석독구결 연구자들은 2019년부터 <금광>의 본격적인 종합적 연구에 착수하였고, 자료조사를 비롯하여 자토구결과 점토구결을 아우른 자료 전체의 판독과 해독 등의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석독구결 연구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제까지 <금광>이라는 자료가 어떻게 (재)발견되었고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지를 정리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학계의 연구 성과는 당연히 학술 논문으로 발표되고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자료의 발견이나 구체적인 연구 진행 과정이 이른바 ‘무용담’, ‘후일담’으로만 전해지는 것은 좋다고 하기 어렵다. 다른 석독구결 자료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금광>은 자토와 점토가 동시에 기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고, 그 뒤 소장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공동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수준이 급속도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학계에 새로 발을 들이는 젊은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논문만을 통해서 이 자료가 어떻게 발견되고 연구되어 왔는지 자세한 맥락을 알기 어렵다. 역사적인 연구 분야에서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친 공동 연구를 통하여 급속도로 연구가 진전된 경우는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제까지의 석독구결 연구에서 가장 큰 특징은 연구자들의 기탄없는 토론이 이루어진 공동 연구와, 이러한 공동 연구가 세대를 거치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석독구결의 연구사를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출판물로는 전모를 알기 어려운 공동 연구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석독구결을 비롯한 차자표기 전반에 흥미를 갖게 하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자료 및 연구 과정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난 약 30년 간의 <금광> 연구사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금광>이 자토 석독구결 자료로서 발견되고 10년 뒤 점토 석독구결 자료로서 (재)발견된 과정과, 2000년대 소장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공동 연구가 진행되어 온 과정을 소개하였다. 다음으로는 2019년 이후 <금광>에 대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새롭게 진행된 강독과 자료조사 등 전반적인 연구 과정에 대하여 기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 이루어진 공동 연구가 지난 공동 연구와 다른 점과, 해당 공동 연구에서 새롭게 얻게 된 몇 가지 소득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2. 『합부금광명경』 권3의 (재)발견

2.1. 자토석독구결 자료로서의 발견

자토석독구결자료는 1973년 『구역인왕경』 권상(殘卷)이 발견된 이후 20년 가까이 새로운 자료가 학계에 보고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1993년에 보고된 『유가사지론』 권20을 시작으로 하여 1990년대 초반에 무려 4종의 자료가 속속 학계에 보고되었다. 이후 2015년에는 『자비도량참법』 권4(殘卷)까지 보고되면서 현재로서는 총 6종의 자토석독구결 자료가 알려져 있다. 이 자료들의 발견 및 학계 보고는 전적으로 서지학자인 경북대 남권희 교수에 의한 것이다. 이 가운데 <금광>에 대해서는 남권희 교수가 1994년 11월 구결학회 월례강독회에서 ‘고려 석독구결 자료 금광명경 권3의 소개’로 소개한 뒤, 1995년 12월 ‘高麗釋讀口訣 資料 《金光明經》 卷三의 書誌的 分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바 있고(남풍현 1996: 228 각주 1), 이후 남권희(1997, 1998, 2002)에서 상세히 정리된 바 있다.

남권희 교수의 일련의 연구에 따르면 <금광>은 1994년 9월 개인 소장자의 자료에서 발견하였다. 소장자에 따르면 <금광>은 1988년경에 권자본(卷子本) 『유가사지론』 몇 권과 함께 불복장(佛腹藏)에서 나왔으며, 이 중 일부는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어 개인에게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¹⁾ 남권희 교수는 <금광>의 형태서지적인 분석을 통해 판각 시기를 13세기 중엽, 구결의 기입 시기를 13세기 후반으로 보고, 사용된 50여 개의 구결자는 다른 석독구결 자료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을 지적하였다. 이 자료는 1996년에 흑백 복사본이 만들어져 학계에 공유되었는데, 그 뒤 2002년 이전에 배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2. 점토석독구결 자료로서의 재발견²⁾

점토석독구결 자료는 일본의 훈점(訓點) 및 각필(角筆) 연구의 대가인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芳規) 교수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2000년 7월에 한국의 각필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고바야시 교수는 남풍현 교수의 주선으로 성암고서박물관을 방문하여 고려시대 귀중본을 조사하던 중 『유가사지론』 권8에 각필로 된 점토구결이 기입되어 있다는 것을 처음 확인하였다. 이후 호림박물관, 연세대학교 도서관, 가천박물관 등에서도 다양한 불경에 각필로 기입된 점토석독구결의 존재가 확인되어 현재는 총 16종에 달하는 점토석독구결 자료가 학계에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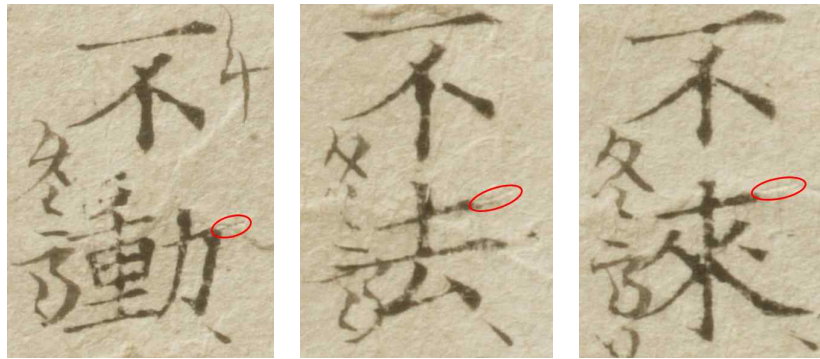
<금광>은 앞서 기술하였듯이 자토석독구결 자료로서는 1994년에 처음 발견되었으나, 거기에 자토뿐만 아니라 점토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기까지는 10년의 시간이 필요하였다. 그 계기가 된 것은 2004년부터 조계종과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시작된 ‘한일공동

1) 여기에는 남풍현 교수를 거쳐 현재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가사지론』 권20도 포함되어 있다.

2) 이 절의 기술은 전적으로 박진호(2019)에 의한 것이다. 해당 발표의 내용을 압축한 설명은 안대현(2019: 27-28)에도 실려 있다. 본고의 기술은 좀 더 자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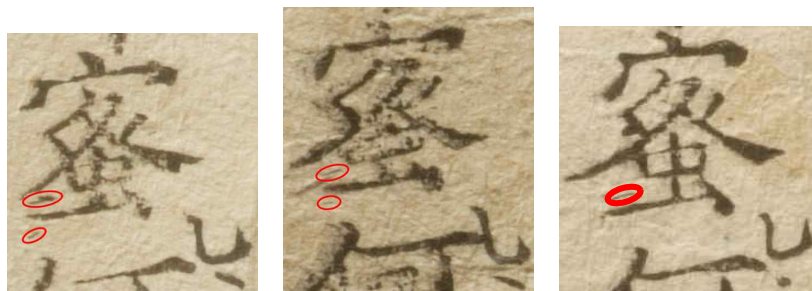
초조대장경 디지털DB 구축 및 영인본 출판'이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표는 현전본이 거의 없는 초조대장경 인출본을 한국과 일본의 여러 소장처에서 확인하고 촬영하여 연구자와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 사업을 기획한 핵심적 주체는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스님), 남권희 교수, 국어학자 정재영 교수였다. 이들 가운데 정재영 교수는 자료 조사 과정에서 각필구결 자료가 새롭게 출현할 것을 기대하고, 실물조사에 구결 전문가를 동행하게 하였다. 정재영 교수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었던 2004년에는 박진호 교수(당시 한양대학교 전임강사)가 실물 조사에 참석하였다.

2004년 4월 26일, 해당 프로젝트의 첫 번째 조사처인 청주 고인쇄박물관에서 초조대장경 일 가능성이 있는 자료 4종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는 '서지조사 → 각필 기입 여부 확인 → 사진 촬영'의 순서로 이루어졌는데, 4종의 자료에서는 각필 기입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곳에는 소장자로부터 위탁받은 <금광>이 전시 중이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박진호 교수는 박물관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금광>을 조사할 기회를 얻었다. <금광>을 조사하던 박진호 교수는 제14장의 한 부분에서 『유가사지론』 계통의 점토석독구결이 각필로 기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림 1] <금광> 제14장에 각필로 기입된 15~25(-)의 예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읽어 나가면서 점토가 있을 만한 위치를 관찰한 결과, <금광> 전체에 걸쳐 각필뿐만 아니라 묵서로도 점토가 기입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자토 'ㄴ'이 기입되어 있는 동사의 목적어 끝부분에 42(-), 51~52(·)가 규칙적으로 기입되어 있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새로운 점토석독구결 자료를 발견하는 순간이었다.



[그림 2] 42(-)과 51~52(·)의 예

이상이 자토와 점토가 함께 기입되어 있는 자료로서 <금광>을 재발견하게 된 경위이다.

이 자료의 점토구결 기입 여부는 처음 조사된 것이 아니다. 2002년 8월, 한국어세계화재단의 ‘디지털한글박물관’ 사업에서 <금광>의 이미지를 촬영할 때에도 점토구결이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였으나 그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2004년에 <금광>에 기입된 점토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발견자인 박진호 교수가 그 이전에 소장 연구자들과의 공동 연구를 통하여 『유가사지론』 계통의 각필점토석독구결에 대한 지식을 체득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 당시까지는 자토석독구결 자료로서만 연구되어 왔던 <금광>은, 함께 기입된 점토가 발견되면서부터 더욱 큰 주목을 받았다. 지금은 석독구결 연구에 있어 자토와 점토 간의 관련성을 분명히 해 주는 중요한 자료로 취급되고 있다.⁴⁾ 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최근까지도 <금광>은 어엿한 연구 대상으로 자리잡지는 못하였다.

3. 『합부금광명경』 권3의 공동 연구 과정

3.1. 2019년 이전

구결학회는 1988년 2월에 ‘구결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발족한 뒤 1996년 학회 명칭을 ‘구결연구’로 고치면서 학회지인 『구결연구』를 창간하였다. 1991년 4월부터 1994년 4월까지는 음독구결 자료를 월 1회 강독하였고, 그 이후에는 『대방광불화엄경』 권14를 시작으로 하여 1990년대 초반에 새로 발굴된 자토석독구결 자료와 이두 자료를 중심으로 강독을 이어 왔다. 2000년 이후에는 점토석독구결 자료 또한 월례강독회에서 다루게 되었다. 이 가운데 자토석독구결 자료로서의 <금광>을 강독한 것은 1996년부터 1997년까지 1년간이다.

1996.3.~1997.3.: 남풍현, 백두현, 이견식, 박진호, 황선엽, 박성중, 이규호, 이승희⁵⁾

강독에 참여한 이들의 면면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이미 학계의 중진이었던 연구자들과, 갓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한 연구자들이 번갈아가며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폭넓은 스펙트럼에 속하는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구결학회의 월례강독회는 처음부터 기

3) “사실 『合部金光明經』 권3에 찍혀 있는 모필 점토 석독구결은 2004년 박진호 교수가 실사하기 전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1994년에 소개되어 연구 자료로 이용되었던 자료임에도 10년 뒤에야 점토 석독구결이 발견된 것은, 모필 점토석독구결이 아주 미세하게 기입되어 있어 쉽게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설령 점토가 찍혀 있더라도 점토 석독구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이를 발견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장윤희 2019: 53)

“동일한 자료임에도 점토구결이 자토구결보다 훨씬 늦게 발견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로 자토를 구성하는 구결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지만 점토를 구성하는 구결점은 크기가 매우 작고 눈에 잘 띄지 않아 전문가가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로 2000년에 <유가사지론>에서 점토구결이 발견되기 전에는 연구자들이 점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한자의 안팎에 기입된 점, 선이 구결의 일종이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셋째로 자토구결과 점토구결은 각각 독립적이고 완결된 표기 체계를 지니고 있어서 동일한 원문에 자토와 점토를 모두 기입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다른 자료에서는 자토와 점토가 병기된 사례가 없다.”(장경준 2019: 81-82)

4) “『합부금광명경』에는 점토구결이 보이는데 2004년 4월에 박진호 교수가 발견하였다. 이 발견은 매우 중요하다. 『합부금광명경』에는 점토구결과 자토구결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어 점토구결의 해독에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점토구결이 자토구결의 해독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이용 2019: 102)

5) 이상의 <금강> 강독 기간과 주관자에 대한 정보는 『구결연구』 제2집의 「취보」에서 발췌한 것이다.

탄없이 자신의 견해를 내보이고, 그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⁶⁾ 이후 소장 연구자들이 점토석독구결 자료를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데에는 이처럼 기존에 정립되어 있던 구결학회 월례강독회의 문화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점토석독구결자료로서의 <금광>에 대한 연구는 당연히 <금광>에서 점토구결이 발견된 2004년 이후에야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전인 2000년 7월에 최초로 점토석독구결 자료가 발견되어 한국에 점토석독구결 자료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생기고, 2002년부터 소장 연구자들의 공동 연구를 통하여 점토석독구결 자료, 특히 『유가사지론』 계통 자료에 대한 연구가 급진전되었던 것이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먼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점토석독구결 체계에 대한 이해가 확립되지 않았다면 <금광>에서 점토석독구결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거나, 발견되더라도 2004년보다 훨씬 먼 훗날의 일이 되었을 것이다.

장경준(2008)에서는 점토구결 연구의 성과와 당면 과제를 정리하면서, 2000년 7월에 점토구결 자료가 처음 발견된 이후 8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이루어진 연구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바 있다. 국보나 보물급 자료가 많은 점토석독구결 자료의 실물을 조사하기 어려웠던 초기 상황에서는 자료조사에서 작성한 이점본(移點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후 정밀한 사진 영인본의 촬영 및 보급과 함께 소장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2002년 1월에 발족한 공동 연구 모임에서 점토구결을 판독하고 해독하는 방법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 공동 연구 모임은 2001년 11월 4일에 박진호 교수와 이용 교수가 뜻을 모은 뒤, 구결학회 월례발표회에 참여하는 소장 연구자들과 함께 결성하였다. 초기에는 새로운 자료의 명칭에 대한 학계의 의견이 분분하여 (점토/부호/부점이 아닌) ‘각필구결 연구 모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고, 공동 연구 모임 자체도 한동안은 비밀리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2002년 1월에 박진호, 서민욱, 서형국, 이병기, 이용, 이전경, 장경준, 황선엽 등 8명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내 국어연구소에서 모이면서 시작되었다. 2월 한 달 정도는 매주 모이고, 3월부터는 『유가사지론』 권8을 강독하기 시작하였다. 1년 반 정도는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오가면서 모임을 가지다가, 1년 반이 지나면서 서울대학교로, 이후에는 새로 지어진 양지원으로 장소를 옮기게 되었다. 2002년 12월부터는 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점토석독구결자료의 사진 영인본과 판독 및 해독안을 출판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공동 연구 모임은 더욱 활성화되었다.⁷⁾ 이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작업은 당시 연

6) 남풍현(1996: 7)에서는 “경전은 깊은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므로 이 내용을 잘못 파악하면 그 안에 담긴 언어의 기능도 잘못 파악하게 된다. 또 고려시대와 조선초기의 구결은 그 토가 15세기 국어의 문법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해독하기 어려운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여러 사람이 함께 읽고 토론하여 극복하여 보자는 것이 이 독회의 가장 큰 목적이었다.”라고 하여 월례강독회의 취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한편 남풍현(2008: 23)에는 월례강독회의 분위기와 관련하여 인상적인 언급이 있다. “口訣學會의 討論은 매우 辛辣하고 私情이 없이 進行되어 온 면이 없지 않다. 차자표기는 종래 체계가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恣意的으로 解釋하여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갖기가 쉬웠으므로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태도가 생긴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이미 학계에서 상당한 硏究水準에 올라 있는 분들이 이 분야에 새로 參與하고자 하다가 비판을 받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미안한 뜻을 표하여 둔다.”

7) 2008년 2월 19일에 있었던 ‘구결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좌담회’(사회 정재영, 정리 김지오. 이후 『구결학회의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구결연구』 제21집에 실림)에서 박진호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2000년 각필구결의 발견 이후 젊은 연구자들은 이 자료를 막연한 소문으로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 중에는 유일하게 이전경, 장경준 선생님만 각필구결의 자료 조사에 참여하였었고, 2002년 1월에 몇 사람이 모여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유가사지론』에 대해 이미 상당히 연구를 한 장경준 선생님께서부터 배우는 입장이었는데, 당시 우리들은 같이 모여

구보조원으로 참여했던 공동 연구 모임의 구성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결과물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각필구결의 해독과 번역’(5권)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당시 소장 연구자들이 공동 연구를 통하여 도달한 점토석독구결 연구의 수준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⁸⁾⁹⁾

장경준(2008: 74 [표 2])에 따르면 <금광>은 2004년 5월부터 8월까지, 2005년 7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 강독한 것으로 되어 있다. 2004년 5월부터 강독이 시작된 것은 같은 해 4월 26일에 <금광>에 기입된 점토구결이 발견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 이후 2008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한번 더 강독이 진행되었다. 제1~3차 <금강> 강독 모임의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이 세 차례 강독 과정의 성과를 종합한 결과물은 구결 연구자들 사이에서 한글 파일(.hwp) 형태로 공유되었다.¹⁰⁾

제1차(2004.5.~2004.8.): 김성주, 박부자, 박준석, 박진호, 서민욱, 손명기, 양순경, 이병기, 이용, 이진경, 장경준, 황선엽

제2차(2005.7.~2005.10.): 김선영, 김성주, 김천학, 박진희, 서민욱, 송신지, 신중진, 유경민, 이승희, 이진경, 장경준, 조은주

제3차(2008.10.~2009.5.): 김선영, 김성주, 김지오, 박진호, 이진경, 장경준, 정경재¹¹⁾

이처럼 <금광>은 학계에서 여러 번 공동으로 강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연구는 2019년 이전까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재영(1998)에서 간단한 문법 설명과 함께 구결의 독법과 현토 양상을 고찰하였으나 자토구결만을 대상으로 한 개괄적인 연구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 외에는 <금광> 자토구결의 오기를 정리한 김지오(2010), 자토석독구결 전산 입력 및 교감을 다룬 장경준(2004-2019, 2011), 각성인(刻成人)을 다룬 최연주(2005), <금광>과 『유가사지론』 권20의 구결자 서체를 비교한 유민호(2010) 정도가 있다. 이 연구들은 모두 자료의 기초적인 교감이나 형식적인 부분만을 다룬 것이다.

국어학적인 연구로는 <금광>의 ‘尸’을 다룬 남풍현(1996)과 <금광>의 특이한 자형과 구결에서 나타나는 문법 현상을 다룬 백두현(1997/2005), 석독구결 사전의 용례로 <금광>의 예도 포함한 황선엽 외(2009) 정도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자토석독구결 연구가 발전하면서, 자토석독구결 전반을 검토할 때에는 <금광>도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다. 조은주

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무척 즐거웠습니다. 특히 출신 학교와 지도 교수가 제각각인 여러 사람들이 모여 함께 연구하는 분위기가 공부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승재 선생님께서 추진하신 학술진흥재단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도움도 많이 받게 되었고, 모임도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각 학교의 학생들이 이 모임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주셔서 이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8) 이 프로젝트 모임은 매주 수요일(이후 월요일) 저녁에 이루어졌는데, 2008년 이후 이 프로젝트 모임 이전의 오후 시간에 다른 국어사 자료를 강독하는 시간이 생겼고, 시간이 흐르면서 오전에 또 다른 자료를 강독하는 시간이 더해졌다.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진 이 모임은 ‘수요모임’, ‘월요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면서 2010년 정도까지 많은 국어사 연구자들이 모여 공부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 모임에서는 석독구결 자료뿐만 아니라 『법화경』, 『능엄경』, 『법방경』 등의 음독구결 자료나 『노걸대』, 『인어대방』, 『석보상절』·『월인석보』·『법화경언해』 등 언해 자료도 강독하였다. 현재 이 모임의 일부 기록 및 관련 자료는 다음 카페 구결연구(<https://cafe.daum.net/gugyeol>)에서 찾아볼 수 있다.

9) 이 단락의 내용은 김성주, 김지오, 이용, 장경준 선생님의 증언에 기반하여 정리한 것이다.

10) 구결학회 월례강독회에서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점토석독구결 자료인 『유가사지론』 권8을 강독하였다(남풍현 2008: 19).

11) 제3차 강독에 대해서는 회차별 참석자를 다 확인할 수 없어 각 장의 발제자 이름만 정리하였다.

(2003), 서민욱(2005), 문현수(2011) 등 학위논문은 물론이고, 자토석독구결의 문법 현상을 검토한 다양한 논문에서도 <금광>을 포함하여 다루었다.¹²⁾ 한편 <금광>의 점토석독구결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자토와 점토를 아울러 다룬 논문은 발표된 바가 없다. 박진호(2008)에 자토와 점토가 함께 기입된 자료의 예로 짧막하게 언급되었을 따름이다. 여기에는 초기에 <금광>을 조사한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가 계속해서 발표되지 않았던 것과, 구결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밀한 사진 자료가 없었던 것이 큰 이유로 작용하였다.

한편 2000년대 후반 이후로 석독구결 자료를 깊이 있게 공부한 소장 연구자들이 대학에 자리를 잡으면서 각 대학에서도 석독구결 자료에 대한 강의와 스터디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물로 장경준 외(2015)와 같은 역주서가 간행되기도 하였다. 2017년부터는 국어사를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자토석독구결 자료를 강독하는 모임이 결성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모임에서는 『유가사지론』 권20을 시작으로 『자비도량참법』을 거쳐 현재는 『구역인왕경』을 강독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금광>의 자토석독구결을 강독하였다. <금강>의 강독 기간과 주관자는 다음과 같다.

2018.10.~2019.6.: 김준수, 성우철, 이강혁, 장지혜, 엄상혁, 정태균, 여채려, 장리리, 오민석, 정은진 등

2000년대 초반 석독구결 연구에 매진하던 젊은 연구자들이 대학에 자리잡아 석독구결을 비롯한 차자표기에 관심을 갖는 제자들을 길러내었고, 다시 이들을 통하여 여러 대학의 대학원생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 공부하는 모임을 이어나가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성장한 학문후속세대는 후술할 <금광>의 새로운 공동 연구에서 중요한 한 축을 맡게 되었다.

3.2. 2019년 이후

2008년의 제3차 공동 연구 이후로 한동안 <금광>에 대한 연구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2010년대부터 석독구결을 공부하는 연구자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구결학회 내에서는 이제라도 <금광>을 본격적이고도 종합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게 되었다. 이러한 뜻을 모아 연구진을 구성하고 공동 연구를 추진한 결과 ‘중층적 구결 자료 <합부금광명경> 권3의 종합적 연구’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연구책임자 장경준 교수)가 한국연구재단의 2019년도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년 반 동안(2019.7.~2021.12.)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현재 <금광>을 소장하고 있는 청주고인쇄박물관의 전폭적인 협조가 크게 작용하였다.¹³⁾

이 프로젝트의 1차적인 목적은 자토구결과 점토구결이 함께 기입된 <금광>의 실물 조사와 함께 정밀한 사진 자료를 확보하고, 자료의 판독과 해독을 통하여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신뢰할 만한 연구 성과를 산출하는 것이다. 나아가 2000년대 초반의 각필구결 연구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번 연구에서도 학문후속세대의 지원과 양성을 기대하며 연구

12) 여기에는 2004년부터 시작하여 2019년까지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는 장경준 교수의 ‘sktot(석독구결 자료 전산입력본)’에 <금광>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13) 이 자리를 빌려 2019년의 실물 사진 촬영과 2021년의 자료조사를 허락하고 촬영 및 열람의 편의를 제공해 주신 청주고인쇄박물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보조원으로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자료를 접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갖게 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연구 성과가 국어사뿐만 아니라 서지학, 불교학, 문자학 등 인접 학문과 대중 일반에까지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금광> 강독을 연구팀만의 과제로 삼지 않고, 연구원과 연구보조원뿐만 아니라 <금광>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학계의 증견 및 신진 연구자들이 함께 공부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였다. 그리고 앞서 진행되었던 소장 연구자들의 ‘점토구결 연구 모임’에서 이루어진 강독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제4차 공동 연구로 간주하였다. 자료를 강독하는 동안 참석한 이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2019.8.~2020.3.: 강서현, 권인한, 김성주, 김지오, 문현수, 성우철, 안대현, 이강혁, 이용, 이윤규, 장경준, 장윤희, 장지혜, 정태균, 주영민, 최준호, 하정수, 허인영, 황선엽

강독 과정에서 결과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물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금광>의 실물 조사를 위해 소장처인 청주고인쇄박물관을 찾아 <금광>을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강독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들을 미리 정리해서 가져가 실제 자료를 통해 확인하면서 의문점을 해소하였다. 자료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다음과 같다.

2021.3.12.: 김성주, 문현수, 성우철, 이강혁, 이용, 장경준, 최준호, 하정수, 허인영

자료 조사를 통하여, 낮은 해상도의 사진 영인본을 통한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묵서로 된 구결점이 있으리라고 판단한 곳들에는 실제로 구결점이 기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각필점은 실물을 확인했을 때 종이의 주름 등이어서 구결점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정밀한 사진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판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생긴 부득이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자료 조사는 점토석독구결 연구에서 실물 확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나아가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한 학문후속세대에게도 대단히 큰 경험이 되었다.

공동 연구가 진행 중이던 2019년 12월에는 청주고인쇄박물관의 협조를 통하여 <금광>에 대한 이제까지의 연구 성과를 정리한 김성주(2019), 안대현(2019), 이용(2019), 장경준(2019), 장윤희(2019) 등의 논문이 『고인쇄문화』 제26집에 게재되었다. 그리고 김지오(2021)은 <금광>에 사용된 부호를 정리한 것으로, 기존의 각필 부호의 체계와는 다른 묵서 부호의 특이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연구들은 <금광>에 대한 그때까지의 최신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금광>에 대한 최신 연구 성과는 해당 논문들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 연구들은 이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12월 이후로도 강독 및 연구가 계속 진행되었으므로, 최종 결과물에는 좀 더 정확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들도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 프로젝트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나, 프로젝트의 참여자 가운데 한 명인 허인영은 구결학회와 일본 훈점어학회 간 학술 교류의 일환으로 2019년 10월 20일에 도쿄대학에서 열린 제121회 훈점어학회 연구발표회에 초청받아 『合部金光明經』卷三の二種類の釋讀口訣について(『합부금광명경』 권3의 두 종류의 석독구결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발표에서는 먼저 일본의 훈점 연구자들이 한국의 차자표기에 대해 구체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초적인 수준에서 구결의 개념과 분류를 소개하고, 일본의 한문독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음독구결을 사진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다. 발표의 뒷부분에서는 1973년과 2000년에 한국에서도 자토와 점토 석독구결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자토석독구결 자료로 알려졌던 <금광>에서 점토구결이 발견된 경위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이 자료의 자토와 점토 석독구결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간단한 예를 들어 읽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한국어사 연구와 불전 해석에서 갖는 의의를 언급하고, 이제까지 이루어진 공동 연구의 과정을 소개하고 이를 통한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일본 연구자들은 <금광> 및 공동 연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고, 원로부터 소장까지 여러 연구자들이 어우러져 기탄없이 논의하는 공동 연구 방식에 큰 관심을 보이며 부러움을 표하기도 하였다.

4. 제4차 공동 연구의 특징

4.1. 제1~3차 공동 연구와의 차이점

2019년부터 이루어진 <금광>의 공동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지난 세 차례의 공동 연구와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① 학계의 중견 연구자와 신진 연구자가 함께하였다는 점
- ② 실물 자료 조사가 이루어진 점
- ③ 최종 결과물이 출판될 예정이라는 점

① 중견·신진 연구자의 조화

제4차 공동 연구의 강독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차적으로 진행되었고, 이후 담당자를 바꾸어 진행된 2차 강독에서는 1차 강독의 결과물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1차와 2차 강독의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1차 강독: 하정수, 허인영, 안대현, 문현수, 성우철, 이강혁, 정태균, 최준호, 하정수, 정태균, 이강혁, 성우철, 문현수

2차 강독: 문현수, 허인영, 안대현, 하정수, 성우철, 최준호, 이강혁

강독 담당자는 석독구결 전문가도 있지만 주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연구보조원들이 중심이 되었다. 권인한, 김성주, 김지오, 이용, 장경준, 장윤희 등 이미 학계에 자리잡은 중견 연구자들은 함께 강독에 참여하면서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신진 연구자들은 자료를 보는 눈을 기르는 한편 자신의 새로운 해석을 주장하기도 하였고, 이를 통하여 학문적인 발전도 도모할 수 있었다. 중견 연구자들은 기존의 연구 성과만을 내세우기보다는 열린 자세로 신진 연구자들의 견해를 듣고, 새로운 연구 과제를 제시하는 등 발전적인 방향으로 공동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이전의 공동 연구에

서는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실물 자료 조사

2019년 이전까지 <금광>의 공동 연구는 다른 점토석독구결 자료의 공동 연구와 마찬가지로 사진 촬영본을 함께 보면서 진행되어 왔다. 이는 실물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문제와 함께, 확대하여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안대현 2019: 28). 점토석독구결 자료의 연구는 디지털화를 통해 사진 촬영본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유가사지론』을 비롯하여 기존에 알려진 점토석독구결 자료는 고화질 사진 촬영본이 존재하는 반면, <금광>은 발견 초기인 1996년에 흑백으로 복사되었으며 2004년에야 사진 촬영본이 공유되었다. 이러한 제반 상황의 미비는 2004년 이전까지 <금광>이 자토석독구결 자료로만 취급되는 데 한몫을 하였다. 2004년 촬영본은 해상도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묵서 점토를 확인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어 2008년까지 공동 연구에서 활용되었다. 한편 2019년에는 새롭게 <금광>의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이때는 촬영 장비나 조건이 열악하여 점토 확인에 최적화된 촬영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¹⁴⁾

제4차 공동 연구에서는 1996년의 흑백 복사본, 2004년과 2019년의 컬러 사진을 참고로 하여 강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이전에는 놓치고 지나갔던 구결점이나 불확실하여 추정만 했던 것들을 확인하는 수확도 있었으나 여전히 확인할 수 없었던 것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묵서와 각필 구결점이 문제가 되었다. 여러 종류의 사진을 비교해 보아도 사진상으로는 묵서 구결점인지 아니면 먹흔 또는 잡티인지, 각필 구결점인지 종이의 주름인지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던 것이다.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2021년 3월의 실물 자료 조사를 통하여 직접 확인하고 강독 자료에 수정하여 반영할 수 있었다.

③ 최종 결과물의 출판

제1~3차 공동 연구는 석독구결 연구에 뜻을 둔 소장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물은 한글 파일 형식으로 학계에 공유되었다. 파일 형식은 공유와 검색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학계와 인연이 없는 이들에게는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제4차 공동 연구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판독 및 해독안을 결과물로서 출판할 예정이다. 이 결과물은 이제까지 연구자들이 자료의 특성이나 전모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자토석독구결 자료의 일종으로만 활용해 왔던 <금광>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차이점은 제4차 공동 연구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중견 연구자와 신진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닐 수 있었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4.2. 제4차 공동 연구의 성과

제4차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유무형의 성과는 적지 않다. 이하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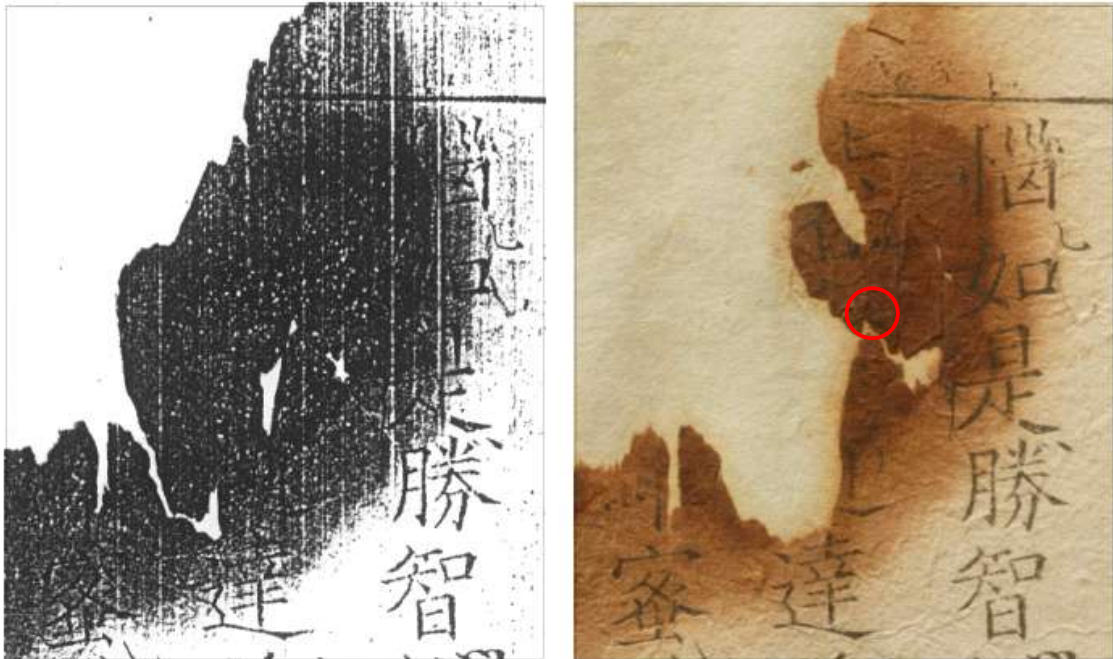
14) 정재영·남권희·남경란(2006)을 참고하면 이미 2006년 시점에 <금광>의 매우 정밀한 영인본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현재까지도 학계에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 가운데 특기할 만한 것들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 ① 사진 자료의 올바른 판독
- ② 실물 조사를 통한 확인
- ③ sktot의 수정 보완
- ④ 공동 판독 및 해독안의 정비
- ⑤ 새로운 연구 주제의 발견

① 사진 자료의 올바른 판독

<금광>은 불복장에서 나온 것으로, 상단에는 송진에 의한 부식으로 떨어져 나간 부분이 존재한다. <금광>은 1996년 흑백으로 복사된 이후 2002년 이전에 배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배접하는 과정에서 부식으로 인해 떨어져 나간 부분을 잘못된 위치에 복원한 사례가 있다. [사진 3]에서는 본래 제3행의 첫 글자인 ‘法’의 바로 아래에 있어야 할 두 번째 글자 ‘皆’의 떨어져 나간 左下 부분을 지나치게 올려서 붙여서 ‘皆’에 달린 구결자 ‘ㄷ’을 오랫동안 판독하지 못하였다. 제4차 강독을 진행하면서 여러 영인본의 면밀한 비교를 통하여 ‘ㄷ’이 ‘皆’에 달린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안대현 2019: 29). 송진에 오염되어 글자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단편에 불과할지라도,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면 올바른 위치로 복원할 수 있다. 앞으로 고전적 자료의 복원을 비롯한 관리 작업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복원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그림 3] <금광> 4:2-5의 흑백 복사본(좌)과 컬러 사진(우)

② 실물 조사를 통한 확인

제1~3차 공동 연구에서는 [사진 4]에 있는 ‘本’에는 아무런 구결점이나 부호가 기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4차 공동 연구에서 강독을 진행하면서 해당 위치의 ‘本’에는 ‘ㄴ’에 해당하는 43 위치의 단점이 기입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실물 조사 과정에서 해당 부분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기입된 부호의 모양이 일반적인 단점과 다르고 다른 자료에 비해 빼침선의 길이가 대단히 짧은 <금광>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을 고려하면 ‘ㄴ ㅂ’에 해당하는 43 위치의 빼침선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¹⁵⁾



[그림 4] <금광> 4:13 ‘本[빼침선(43)]’

③ sktot의 수정 보완

장경준 교수가 편집한 자토석독구결 자료 전산 입력본, 이른바 ‘sktot’는 2004년부터 공개되기 시작하여 2019년까지 꾸준히 업데이트되었다. 해당 자료는 한문 원문에 기입된 구결토를 그대로 제시한 원본,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오류를 수정한 교감본, 형태소 분석 태그를 기입한 주석본, 현대어 번역이 추가된 번역본까지 네 종류의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sktot’는 공개된 이후로 석독구결 입문자나 연구자들에게 편리한 통합 검색의 대상이자 일관된 전산 입력본의 출처로서 기능해 왔으며, 석독구결 연구의 보급에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sktot’는 공개 당시부터 2019년까지 장경준 교수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공동 검토 및 수정을 통하여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점을 추가하고 오류를 수정하였다. 이번 제4차 공동 연구에서는 <금광>의 자토석독구결 부분에서는 ‘sktot’를 1차적인 출처로 삼았는데, 사진 영인본과 면밀하게 비교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30곳 이상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었다. 여기에는 ‘sktot’ 내의 비일관적인 처리를 수정한 것, 강독 및 실물 조사 검토를 통하여 확인한 내용을 본문 및 교감 내용에 반영한 것 등이 있다.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5) 이 밖에도 빼침선과 관련해서는 강독 과정을 통하여 문헌수(2014)에서 23 위치로 파악했던 것을 22~32 위치와 23~24 위치로 세분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금광3, 04:07-08>

P: 三者大慈大悲…入出ノ尸ム自在^ㄱッカ

Q: 三者 大慈大悲… 入出ノ尸ム 自在^ㄱッカ

→ ‘^ㄱ’가 있는 부분은 먼저 몇 글자(ッ^ㄱ1?)를 적었다가 그 위에 ‘^ㄱ’를 덧붙인 것처럼 보인다. sktot에 이와 관련된 교감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금광3, 04:21>

P: 二者能^ㄱ令[^ㄱカ]一切衆生^ㄱ入[、]於^ㄱ甚深^ㄱッヒセ之法^ㄱヲ十、

Q: 二者 能^ㄱ 一切 衆生^ㄱ {於^ㄱ}甚深^ㄱッヒセ{之} 法^ㄱヲ十 入 令^ㄱカ

sktot 원본: 二者 能^ㄱ 一切 衆生^ㄱ 甚深^ㄱッヒセ之 法^ㄱヲ十 入 令^ㄱカ

sktot 교감본: 二者 能^ㄱ 一切 衆生^ㄱ 甚深^ㄱッヒセ{之} 法^ㄱヲ十 入 令^ㄱカ

→ sktot에는 ‘於^ㄱ’ 자가 빠져 있다. 각각 ‘於^ㄱ甚深^ㄱ’, ‘{於^ㄱ}甚深^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금광3, 06:04-06>

P: 四方風輪^ㄱ種種^ㄱヒ妙花^ㄱニ悉^ㄱヲ皆^ㄱヒ散灑^ㄱニ^ㄱロ1圓滿^ㄱ[^ㄱヒセノ1入^ㄱニ]地上^ㄱヲ十、菩薩^ㄱ1悉見^ㄱッナニセ |

Q: 四方 風輪^ㄱ 種種^ㄱヒ 妙花^ㄱニ 悉^ㄱヲ 皆^ㄱヒ 散灑^ㄱニ^ㄱ로1 地上^ㄱヲ十 圓滿^ㄱ히세노1入^ㄱニ 菩薩^ㄱ1 悉 見^ㄱッナニセ

→ sktot 원본과 교감본에는 ‘散灑^ㄱニ^ㄱ로1’으로 되어 있으나, 구결자의 자형상으로도 ‘ッ로1’에 더 가깝고 유가사지론 계통은 아니지만 ‘散^ㄱ’과 ‘灑^ㄱ’가 있으므로 ‘ッ로1’으로 수정해야 할 듯하다.

제4차 공동 연구에서 확인된 ‘sktot’의 수정 사항은 전산 입력된 국어사 자료는 끊임없이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하는 운명을 지니고 있다는 점, 따라서 연구자들은 항상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러한 자료의 수정과 보완은 한두 사람이 아닌 여러 연구자의 공동 작업을 통해서 더 진전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④ 공동 판독 및 해독안의 정비

<금광>은 다른 석독구결 자료와 달리 자토와 점토가 함께 기입되어 있는 자료이므로, 해당 자료의 판독 및 해독안을 작성하는 과정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기존에 세 차례의 강독 과정에서 만들어진 공동 판독 및 해독안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다.

<자료명, 장차:행차>

P: 자토구결 판독안

Q: 자토구결 해독안

A: 점토구결 판독안

- B: 점토구결 점토-자토 대응 표시
 C: 점토구결 해독안
 D: 구결문에 의거한 현대국어 번역
 E: 동국대학교 역경원 번역(한글대장경 수록)
 N: 『金光明最勝王經』(권4)의 해당 부분 신수대장경 입력 자료(괄호 안은 번역문-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제공)

위와 같은 틀에 따라 작성된 판독 및 해독안의 예는 다음과 같다.

<금광3, 02:01>

P: (譬如寶須彌)山王、是乙名下檀波羅蜜因_{一ノ牙分}

Q: (譬 寶須彌)山王 (如) 是乙 名下 檀波羅蜜因_{一ノ牙分}

A: (譬如寶須彌)山王[11~21(··), 구결자(ッ白ィ)]{45(·)}是[34(·)]名[54(·)?-각]檀波羅蜜因
 [53(·), 55(·)?-각]

B: (譬如寶須彌)山王[ッ白ィ]是[乙]名[下]檀波羅蜜因[一, ノ牙分]

C: (譬 寶須彌)山王 (如支)ッ白ィ 是乙 名下 檀波羅蜜因_{一ノ牙分}

D: 비유하면 寶須彌山王과 같은 것 이것을 일컬어 檀波羅蜜因이라 하며

E: 비유하면 보배로 된 수미산과 같으니 이것을 보시바라밀의 인(因)이라 한다.

N: 善男子。譬如寶須彌山王 饒益一切。此菩提心 利衆生故。是名第一布施波羅蜜因。

(선남자야, 마치 보배 수미산왕이 온갖 것을 이익케 하는 것과 같이, 이 깨달음의 마음도 중생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1 보시바라밀의 인(因)이라고 이른다.)

점토구결 판독안에서 사용된 두 자리 숫자는 구결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한자를 정사각형으로 추상화한 공간을 그 주변을 포함하여 5×5로 나눈 것인데, 왼쪽 숫자는 세로 위치, 오른쪽 숫자는 가로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번호를 부여하여 구결점을 표시하는 방법은 ‘점토구결 연구 모임’에서 이용 교수가 처음 제안하였고(장경준 2003: 113 각주 4), 이후의 점토구결 연구에서도 모두 따르고 있는 것이다.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31	32	33	34	35
41	42	43	44	45
51	52	53	54	55

[그림 5] 점토의 위치 표시 예

제4차 공동 연구의 공동 판독 및 해독안은 제1~3차 공동 연구의 결과물에 기반하되 몇 가

지 중요한 변화를 주었다. 먼저 자토석독구결 부분에서는 판독안과 해독안을 각각 장경준(2004-2019)의 원본과 교감본에 기반하였다. 장경준(2004-2019)의 교감을 거친 전산 입력본은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사람이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현재까지 학계에 제공된 입력 자료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신뢰도를 지닌 것이다.¹⁶⁾

점토석독구결 부분에서는 판독안에서 여러 가지 부가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부호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보다 분명히 명시하였다.

- =: 구결점의 위치 변이가 심하게 일어남
- +: 한자의 바깥쪽에 현토된 구결점이 일반적 위치보다 멀리 떨어져 있음
- #: 둘 이상의 해석 가능성이 있음(좀 더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앞세움)
- ?: 영인본의 관찰로는 구결점인지의 여부가 분명치 않음
- { }: 관찰된 구결점을 해독에 반영하기 어려움
- 각: 각필만 기입되어 있음
- 복: 각필과 묵서의 기입 위치가 겹쳐 있음
- 잡: 각필과 묵서의 기입 위치가 근접해 있음
- 잡+: 각필과 묵서의 기입 위치가 멀리 떨어져 있음

⑤ 새로운 연구 주제의 발견

제4차 공동 연구에서는 자료의 면밀한 강독과 실물 조사를 통하여 자토와 점토의 중층적 석독구결 자료인 <금광>의 전모를 확인하는 한편, 기존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겨난 문제의식은 단지 <금광>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었다. 공동 연구 내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발전시키는 것을 권장하였으며, 자체 세미나를 통하여 발표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자체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 『合部金光明經』의 부호 연구
- 석독구결본 『합부금광명경』 권제3의 불교문화사적 의의
- <<합부금광명경>>에 나타나는 합부와 역독선의 기능
- 『합부금광명경』 권3 자토와 점토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 ‘諸佛’의 현토 양상과 띄어쓰기에 대한 문제
- ‘-乙良’류 조사에 대한 연구
- 점토석독구결 『합부금광명경』 권3에 사용된 빼침선 연구
- 15(c)의 해독에 대하여
- 출현 빈도가 낮은 구결점들의 해독 방안

이상의 연구 주제 가운데에는 이미 김지오(2021)과 같이 논문 형식으로 학계에 보고된 것도 있고, 이번 전국학술대회를 통하여 발표의 형식으로 학계에 처음 보고되는 것들도 있다. 이러한 연구 주제 중에는 <금광>의 석독구결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것들

16) 앞서 ③에서 언급하였듯이 강독 과정에서 sktot의 <금광>의 내용 가운데 수정할 사항을 적지 않게 발견하였고, 이 내용은 차후 공개될 sktot의 새 버전에 반영될 것이다.

도 있고, 다른 차자표기 자료를 함께 다루어 새로운 시사점을 주는 것들도 있다. 이처럼 <금광>에서 파생된 새로운 연구 주제의 발견은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강독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고, 따라서 제4차 공동 연구의 중요한 성과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장윤희(2019: 48-53)에서는 <금광>의 한국어사 자료로서의 가치를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 ① 양질의 고대 한국어 문법사 자료
- ② 유일한 자토·점토의 중층적 석독구결 자료
- ③ 점토 석독구결 해독의 준거[點圖集] 자료
- ④ 유일한 모필 점토 석독구결 자료

<금광>이 갖는 이러한 가치는 전적으로 해당 자료가 자토와 점토가 함께 기입되어 있는 석독구결 자료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중층적인 석독구결 자료에 대한 종합적 연구는 개별 연구자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내기 어렵다. 따라서 여러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공동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공동 연구는 학계의 중진부터 신진 연구자까지 다양한 학문적 경험을 지닌 이들이 참여해야 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까지 20년 가까이 진행된 <금광> 공동 연구의 역사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금광>의 (재)발견 과정 및 공동 연구 과정을 소개하고, 2019년 이후의 공동 연구가 이전의 연구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고의 지나치게 소상한 연구사 설명은 어느 논문이라면 한두 문단 정도로 정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10년 전 처음 점토석독구결을 공부할 때 선생님들의 ‘무용담’을 들으면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글을 읽는 젊은 연구자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적어보았다. 앞으로 더 많은 국어사 연구자들이 <금광>을 비롯한 자토·점토 석독구결 자료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성주(2008). 「字吐釋讀口訣 研究의 回顧와 展望」, 『구결연구』 21. 구결학회. 39-66.
- 김성주(2019). 「석독구결본 『합부금광명경』 권제3의 불교문화사적 의의」, 『고인쇄문화』 26. 청주고인쇄박물관. 57-77.
- 김지오(2010). 「『合部金光明經』 字吐口訣의 誤記」, 『구결연구』 25. 구결학회. 145-175.
- 김지오(2016). 「석독구결 ‘如’구문의 의미와 논항구조」, 『國語學』 79. 국어학. 105-158.
- 김지오(2021). 「『合部金光明經』의 부호 연구」, 『어문연구』 49-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57-281.
- 남권희(1997). 「차자 표기 자료의 서지」, 『새국어생활』 7-4. 국립국어연구소. 147-194.
- 남권희(1998). 「高麗 口訣本 《(合部)金光明經》 卷3에 관한 書誌的 考察」, 『서지학연구』 15. 서지학회. 309-338.
- 남권희(2002).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청주: 淸州古印刷博物館.
- 남권희·남경란(2016). 「12세기 高麗 釋讀口訣本 『慈悲道場懺法』 卷4 殘片의 구결 소개」, 『국어사연구』 22. 국어사학회. 199-232.
- 남풍현(1996). 「《金光明經》 卷三 釋讀口訣에 나타난 尸의 用法에 대하여」, 『이기문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신구문화사. 228-251.
- 남풍현(2008). 「口訣學會 20年の 回顧와 展望」, 『구결연구』 21. 구결학회. 5-25.
- 문현수(2011). 「석독구결 용언 부정사의 의미기능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현수(2020-). 「《구역인왕경》과 《자비도량참법》의 석독구결 현토 양상에 대하여」, 『국어학』 93. 국어학회. 123-155.
- 문현수(2020-). 「석독구결에 쓰인 구결자의 특성」, 『국어사연구』 30. 국어사학회. 71-98.
- 백두현(1997). 「고려본 금광명경에 나타난 특이 형태에 대하여」, 『국어학 연구의 새 지평』 (성재 이돈주 선생 화갑 기념). 태학사.
- 백두현(2005). 「금광명경의 문법형태」, 『석독구결의 문자 체계와 기능』. 한국문화사. 485-536.
- 박진호(2008). 「口訣 資料 해독의 방법과 실제」, 『한국문화』 44.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339-348.
- 박진호(2019). 「합부금광명경 권3 점토구결 발견 경위」, 『중층적 구결 자료 <합부금광명경> 권3의 종합적 연구』 연구모임 발표 자료(2019년 7월 23일).
- 서민욱(2005). 「『瑜伽師地論』 卷5·8의 點吐口訣 研究」,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대현(2019).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 『合部金光明經』 권3의 서지적 특징」, 『고인쇄문화』 26. 청주고인쇄박물관. 3-35.
- 유민호(2010).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서체 연구: 『금광명경』 권3과 『유가사지론』 권20을 중심으로」, 『구결연구』 25. 구결학회. 107-143.
- 이건식(1996).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助詞에 대한 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용(2013). 「『합부금광명경』 권3 석독구결의 현대어역」, 『제46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141-225.
- 이용(2019). 「『合部金光明經』 자토구결과 현대어 번역」, 『고인쇄문화』 26. 청주고인쇄박물관. 99-215.
- 장경준(2003). 「점토석독구결 자료의 판독 및 해독 결과 기록 방안: 『유가사지론』 권5, 8을

- 대상으로」, 『제28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2003.8.) 발표 논문집』, 구결학회, 111-121.
- 장경준(2004). 「구결점의 현토 위치의 세분과 위치 변이 현상에 대하여: 「유가사지론」 권5, 8을 대상으로」, 『구결연구』 13, 구결학회, 149-174.
- 장경준(2004-2019). 「sktot(석독구결 자료 전산입력본)」, 미간행(최신 버전 2019. 1. 17. 공개).
- 장경준(2008). 「點吐口訣 研究의 成果와 當面 課題」, 『구결연구』 21, 구결학회, 67-98.
- 장경준(2009). 「점토구결 자료의 문법 형태에 대하여」, 『국어학』 56, 국어학회, 249-317.
- 장경준(2011). 「석독구결 자료의 전산 입력 및 교감에 대하여」, 『국어사연구』 13, 국어사학회.
- 장경준(2019). 「『합부금광명경』 권3의 점토구결 기초 연구」, 『고인쇄문화』 26, 청주고인쇄박물관, 79-98.
- 장경준·오민석·문현수·허인영(2015). 『『유가사지론』 권20의 석독구결 역주』, 서울: 역락.
- 장경준 외(2021). 「역주 원고 초안」(한국연구재단 지원 “중층적 구결 자료 <합부금광명경> 권3의 종합적 연구” 중간 결과물 2021. 6. 13. 최종 작성본), 미간행.
- 장윤희(2003). 「석독구결 및 그 자료의 개관」, 『구결연구』 12, 구결학회, 47-80.
- 장윤희(2019). 「『合部金光明經』 권3의 한국어사 자료적 가치」, 『고인쇄문화』 26, 청주고인쇄박물관, 37-56.
- 정재영(1998). 「合部金光明經(卷三)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구결연구』 3, 구결학회, 113-193.
- 정재영·남권희·남경란(2006). 「<금광명경> 부호 구결 연구」, 제32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2006.2.7.) 발표 원고.
- 조은주(2001).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부정법 연구」, 『구결연구』 7, 구결학회, 135-165.
- 조은주(2003). 「전기 중세국어의 부정법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연주(2005). 「『合部金光明經』 간행과 『高麗大藏經』 각성사업」, 『고문화』 66, 한국대학박물관협회, 37-56.

합부금광명경 구결과 현대역의 비교 연구

-『금광명경소』의 經文 현대역과 <한글대장경> 현대역을 중심으로-

김성주(동국대학교)

1. 서론
 2. 합부금광명경의 구결과 현대역의 비교
 - 2.1. 구결 vs. 현대역
 - 2.2. 기타
 - 2.3. 十地 依功德力陀羅尼
 3. 결론
- 참고문헌

1. 서론

- . 이 글은 청주 고인쇄박물관 소장본 『합부금광명경』 권3에 기입된 구결과 『합부금광명경』의 현대역을 비교하여 구결의 해석이 현대역보다 옳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부금광명경』의 현대역에 구결이 참고될 수 있음을 주장한 글이다.
- . 구결본 『합부금광명경』에는 고려시대의 자토석독구결과 점토석독구결이 기입되어 있다. 구결본 『합부금광명경』의 간행은 13세기 중엽이며(남권희 1998, 최연주 2005) 구결은 13세기 중엽 이후 고려 말 사이의 시기에 기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금광명경’은 曇無讖 역 4권본 『금광명경』, 寶貴 합편 8권본 『합부금광명경』, 義淨 역 10권본 『금광명최승왕경』이 현존한다.
- . 청주 고인쇄박물관 소장 구결본 『합부금광명경』 권3의 내용은 제6 다라니최정지품인데, 경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경은 보귀가 4권본 『금광명경』을 기준으로 일부를 그때까지 현존하던 ‘금광명경’의 번역들에서 발췌하여 편집한 경으로 권3에 해당하는 제6 다라니최정지품은 眞諦 역 『金光明帝王經』의 ‘다라니최정지’를 발췌한 부분이다.¹⁷⁾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합부금광명경』 권제3은 진제역이 되는 셈이다.¹⁸⁾
- . 이 글에서 사용한 『합부금광명경』의 현대역은 한명숙 역(2019) 『집일본 합부금광명경소』의 經文 현대역과 <한글대장경>의 『합부금광명경』 번역이다.
- . 한명숙 역(2019)가 집일(輯逸)하여 역주한 『집일 금광명경소』에 제시된 『합부금광명경』의 현대역은 『금광명경소』의 현대역이라 표시한다.¹⁹⁾
- . 동국대학교 역경원에 번역 간행한 한글대장경의 『복개정행소집경 외』에 수록된 『합부금광

17) 한명숙 역(2019)의 해제에 의하면 진제역 『금광명제왕경』은 제6 다라니최정지품의 보충한 7권본과 보충 이전의 6권본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18) 그러나 보귀 등이 금광명경을 편집하면서 본문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편집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하나의 완성된 경으로 만들면서 원문에 많은 편집을 가했을 가능성도 있다.

19) 원효의 『금광명경소』와 같이 원본이 소실된 불전을 대상으로 후대의 스님이 인용한 부분 등에서 원본을 재구한 것을 집일본(輯逸本)이라 한다. 원효의 『금광명경소』 집일본은 일본의 후대 주석서 중 일본 스님인 원효(願曉)의 『金光明最勝王經玄樞』 등을 토대로 김상현(1994), 福士慈稔(2011~2013), 한명숙 역(2019) 등이 집일하였다.

명경』의 현대역은 <한글대장경>으로 표시한다.

. 이 글은 한국연구재단 지원 "중층적 구결 자료 <합부금광명경> 권3의 종합적 연구"의 중간 결과물(2021. 6. 13. 현재)인 「역주 원고 초안」(장경준 외(2021)로 표시함)을 바탕으로 하였다.

. 이 글의 원래 의도는 원효 스님의 『금광명경소』가 『합부금광명경』에 바탕을 둔 주석서이기 때문에 원효 스님의 『금광명경소』는 구결본 『합부금광명경』 권3(제6 다라니최정지품)의 내용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를 바탕으로 구결과 현대역의 해석 양상을 비교해 보고 불경의 해석에서 구결을 참고할 필요성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작성되었지만 실제로는 구결과 현대역의 차이를 비교해서 구결 해석이 더 나아 보이는 보는 점들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 이 글의 예문 부호는 장경준 외(2021)의 「역주 원고 초안」에 쓰인 부호를 따랐다. 약호는 아래와 같다.²⁰⁾

원문: 『합부금광명경』 원문(백문)

P: 자토구결 판독안(sktot 2019.1. A버전 원본 참조)

Q: 자토구결 해독안(sktot 2019.1. B버전 교감본 참조)

A: 점토구결 판독안

B: 점토구결 점토-자토 대응 표시

C: 점토구결 해독안

D: 구결문에 의거한 현대국어 번역

&: 한명숙 역(2019) 『집일 금광명경소』의 ‘합부금광명경’ 현대역

E: 동국대학교 역경원 번역(한글대장경 수록)

N: 『金光明最勝王經』(권4)의 해당 부분 신수대장경 입력 자료(괄호 안은 번역문-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제공)

2. 합부금광명경의 구결과 현대역의 비교

2.1. 구결과 현대역(『금광명경소』=<한글대장경>)

여기서는 구결본 『합부금광명경』에 현토된 자토·점토구결과 현대역 2개의 경문(經文) 해석을 비교하였다. 사용된 2개의 현대역은 한명숙 역(2019)의 『집일본 금광명경소』에서 번역된 『합부금광명경』의 현대역과 <한글대장경>의 『합부금광명경』 현대역이다.

구결의 현토가 옳고 현대역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다.

(01) 功德法藏

원문: 如是[第五心上種種功德法藏猶未滿足]是名禪波羅蜜因

20) ‘&’로 한명숙 역(2019)의 『집일본 금광명경소』에서 제시한 금광명경 본문 번역을 보충하였다. 또한 설명의 편의를 위해 『합부금광명경』의 원문(백문)을 추가하였다.

P: 如[ㄹ]是、[第五心ㄹ上ㄷ種種ㄷ功德法藏ㄹ+猶ㄹ未[ㄹ스ㄷノ]滿足ㄹ、]是乙名下禪波羅蜜因ㄷノヲカ<금광3, 02:06-08>

A: 如是[11(·)]第五心[22~32(·)]上[42(·)]種種功德法藏[44(·)-각]猶[22~32(·)]未滿[합부]足[22~32(·),15~24(/)#빼침선(23~24),21(·)]是[34(·)]名[54(·)]禪波羅蜜因[53(·),+55(·)]{+55(·)}

&: 이와 같이 [다섯 번째 마음은 뛰어난 여러 가지 공덕(선정)을 갖추기는 했지만 법장(法藏, 지혜)은 아직 원만하게 갖추지 못하였으니] 이것을 선바라밀(禪波羅蜜)의 원인이 라고 한다.

E: 이와 같이 [다섯째 마음은 가지가지 공덕을 낳되 아직 법의 공간[法藏]을 다 채우지 못함과 같으니] 이것을 선정[禪]바라밀의 인이라 한다.

N: [靜慮法藏求滿足故]。是名第五靜慮波羅蜜因。([정려(靜慮: 禪定)의 법의 광[法藏]이 만족을 구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5 정려바라밀의 인이라고 이른다.)

이 부분은 제5지 선정바라밀의 인(因)을 비유와 함께 밝히는 부분이다. 원문의 ‘第五心上種種功德法藏猶未滿足’ 중 ‘功德法藏’에 대한 해석을 비교하고자 한다. 자토구결의 ‘第五心上ㄷ種種ㄷ功德法藏ㄹ+猶ㄹ未[ㄹ스ㄷノ]滿足ㄹ、’은²¹⁾ 현대역하면 ‘第五心이 상위의 갖가지 功德의 法藏에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기 때문에’ 정도로 볼 수 있다. 구결의 경우 ‘功德法藏ㄹ+’로 현토되어 있다. 『금광명경소』의 현대역은 ‘뛰어난 여러 가지 공덕(선정)을 갖추기는 했지만 법장(法藏, 지혜)은 아직 원만하게 갖추지 못하였으니’로, <한글대장경>의 현대역은 ‘가지가지 공덕을 낳되 아직 법의 공간[法藏]을 다 채우지 못함과 같으니’로 되어 있다.

여기서 『금광명경소』의 현대역은 ‘갖추다’를 보충하여 ‘공덕을 갖추기는’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선행구에 ‘갖추다’를 보충하여 번역할 근거는 없다. 또한 이 구절을 선행구인 ‘上種種功德’과 후행구인 ‘法藏猶未滿足’으로 나눌 근거도 없어 보인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글대장경>의 현대역은 선행구에 ‘낳다’를 보충하여 번역하였는데 이 역시 선행구 ‘上種種功德’에서 ‘낳다’를 보충할 근거는 없으며 ‘上種種功德’와 ‘法藏猶未滿足’으로 구분할 근거도 없다. 『금광명경소』와 <한글대장경>의 번역은 ‘功德法藏’을 무리하게 끊어서 해석하였기 때문에 원문에 없는 동사를 보충하여 해석한 셈이 된다.

『금광명최승왕경』(줄여서 『최승왕경』이라 함)의 해당 부분 ‘靜慮法藏求滿足故(정려(靜慮: 禪定)의 법의 광[法藏]이 만족을 구하기 때문에)’을 참조하면 이 구절은 ‘靜慮法藏’과 ‘求滿足故’로 나눌 수 있는 것으로 보여서 『합부금광명경』의 ‘功德法藏’을 『금광명경소』나 <한글대장경>의 현대역처럼 ‘功德’과 ‘法藏’으로 나누는 것은 어색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부분의 해석은 구결이 옳고 『금광명경소』의 현대역과 <한글대장경>의 현대역이 잘못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²²⁾

(02) 解脫生死二處

원문: 二者解脫生死二處不著

P: 二者解脫[스ㄹㄷイ](生死)二處(ㄹ+?)不著ㄹカ<금광3, 03:18-19>

21) 이 부분은 자토와 점토가 모두 어색한 부분이다. 여기서는 ‘功德法藏’에만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한다.

22) 점토석독구결의 “上[42(·)]種種功德法藏[44(·)-각]猶[22~32(·)]未滿[합부]足[22~32(·),15~24(/)#빼침선(23~24),21(·)]”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로 볼 수 있는지가 주목되는데 자토구결과 점토구결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으로 자토와 점토 각자의 현토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 양자가 해석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어서 더 이상의 상론은 하지 않는다.

D: 둘째, 生死 二處에서 해탈하게 하려 집착하지 않으며,
 &: 둘째는 해탈과 생사를 두 가지 처(處)라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며,
 E: 둘째는 해탈과 생사의 두 곳에 집착하지 않음이고,
 N: 二者常願解脫不著二邊故。(둘째는 해탈을 늘 위하여 두 변(邊)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요,)

이 부분은 ‘十波羅蜜을 성취하는 법’(02:21-05:08)을 설하는 부분으로 다섯 가지 중에서 제 5 선정바라밀의 두 번째 이유를 제시한 부분이다. 원문의 ‘解脫生死二處’에 대해서 구결은 ‘스 리 헤 이’가 현토되어 있으므로 ‘解脫’을 동사로 보았고, ‘生死二處’는 ‘生’과 ‘死’를 ‘二處’로 보았다. 그런데 『금광명경소』와 <한글대장경>의 현대역은 각각 ‘해탈과 생사를 두 가지 처(處)’와 ‘해탈과 생사의 두 곳’으로 번역하고 있으므로 ‘二處’를 ‘생’과 ‘사’의 ‘二處’가 아닌 ‘解脫’과 ‘生死’의 ‘二處’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의 ‘二處’는 ‘生死二處’로 보는 것이 옳은 것 같다.

한문 경전은 ‘4字 1句’ 단위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 구절을 ‘二者 解脫生死 二處不著’으로 해석하기 쉬우나 『금광명경소』와 <한글대장경>의 현대역도 ‘二者 解脫生死二處 不著’으로 보게 되는 것이어서 ‘4字 1句’로 끊어 읽는 일반적인 해석법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다. ‘解脫’을 동사로 보면 ‘[[解脫][生死二處不著]]’의 구조가 되는데 ‘해탈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두 곳에 들러붙지 않는’ 근거로 해석하게 된다. 『최승왕경』의 경문과 번역도 ‘常願解脫不著二邊(해탈을 늘 위하여 두 변에 집착하지 않는 것)’로 되어 있다. 二邊(두 변)은 물론 生死二邊이다.

(03) 諸佛菩薩聰慧大智

원문: 一者一切①諸佛②菩薩③聰慧大智供養親近心無厭足

P: 一者一切諸佛_ㄴ菩薩_ㄴ聰慧大智_ㄴニ_ㄴ供養_ㄴ親近_ㄴ心_ㄴ無厭足_ㄴ <금광3, 03:24-25>

A: 一者一切諸佛[53(·)]菩薩[53(·)]聰慧大智[22~32(·),52~53(:)#=53(:),+35(\),구결자(ニ_ㄴニ_ㄴ)]{45(·)}供養[35(·)]親近[35(·),+13(·)]心[44(·)]無厭足[+15~25(-),55(·)]

&: 첫째는 모든 부처님의 충명한 지혜와 큰 지혜를 공양하고 친근히 하면서 싫증을 내면서 만족하는 일이 없는 것이고,

E: 첫째 모든 부처님과 보살의 충명한 지혜와 큰 지혜에 가까이하여 공양하여 마음에 싫증내거나 만족함이 없으며,

N: 一者常於一切諸佛菩薩及明智者。供養親近不生厭背。(첫째는 언제나 온갖 모든 부처님과 보살과 밝은 지혜 있는 이에게 공양하고 친근하여 싫어하거나 배반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제6 반야바라밀을 성취하는 법 중 첫 번째 이유를 제시한 부분이다. 원문의 ‘諸佛菩薩聰慧大智’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구결에서는 ‘諸佛’, ‘菩薩’, ‘聰慧大智’ 각각에 나열의 ‘ㄴ’을 현토하였다. 특히 마지막 구인 ‘聰慧大智’는 ‘ㄴニ_ㄴニ_ㄴ’가 현토되어 있어 ‘聰慧하고 大智를 갖춘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구결은 ‘①諸佛과 ②菩薩과 ③聰慧大智한 사람’으로 해석한 셈이다. 그러나 『금광명경소』와 <한글대장경>은 ‘①諸佛’과 ‘②菩薩’은 나열하고 ‘③聰慧大智’는 ‘충명한 지혜와 큰 지혜’로 해석하였다.²³⁾ 『최승왕경』의 해

非人等, 災橫, 諸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구결의 현토 양상은 ‘①一切惡獸 ②一切惡鬼 ③人非人等 ヽ ㄱ ㄴ ④災橫 ⑤諸惱’를 모두 ‘㉠一切怖畏’가 총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금광명경소』는 ‘㉠두려움의 대상인 것, 곧 ①일체의 악한 짐승과 ②일체 귀신과 ③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 등의 해침과 ④재난·횡액과 ⑤모든 번뇌’로 해석하였고 <한글대장경>은 ‘①일체 두려움과 ②일체 악한 짐승과 ③일체 악귀와 ④사람과 사람 아닌 이 등의 재난과 ⑤횡액의 모든 고뇌’로 해석하였다.

『금광명경소』의 번역은 원문의 ‘㉠一切怖畏’를 이후에 나오는 나머지 것들을 총괄하는 의미로 해석한 것은 맞으나 ‘③人非人等’을 ‘③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 등의 해침’으로 번역한 것이 특이하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반복되는 원문에서 ‘人非人等怨賊’으로 나오기 때문에 ‘人非人’ 등의 원적(怨賊)’이라는 의미이어서 ‘怨賊’이 원문에 빠진 이 대목에서는 구결과 같이 ‘人非人等 ヽ ㄱ ㄴ (人非人 같은 이니)’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 또한 <한글대장경>은 ‘得度’를 ‘깨달음을 얻어서’로 번역한 잘못은 차치하고라도 원문의 ‘㉠一切怖畏’를 나머지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해석하지 않고 ‘一切怖畏, 一切惡獸, 一切惡鬼, 人非人等, 災橫, 諸惱’ 모두를 나열항으로 보았다. 또한 <한글대장경>은 원문의 ‘③人非人等④災橫⑤諸惱’를 ‘④사람과 사람 아닌 이 등의 재난과 ⑤횡액의 모든 고뇌’ 즉 ‘人非人等災’와 ‘橫諸惱’로 나누어 본 것도 경문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一切怖畏一切惡獸一切惡鬼人非人等災橫諸惱’는 ‘一切怖畏’를 나머지 나열항을 아우르는 명사구로 파악하고, 나머지 나열항은 ‘一切惡獸, 一切惡鬼, 人非人等, 災橫, 諸惱’의 다섯 개로 나누어 본 구결의 해석이 더 타당하다.

2.2. 기타

이 절에서는 구결과 2개의 현대역 중 1개와 일치하지 않거나, 장경준 외(2021)에서 제시한 「역주 원고 초안」의 잘못된 부분 등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구결과 『금광명경소』의 해석이 일치하고 <한글대장경>의 해석이 다른 부분이다.

(07) 三者眞俗勝智

원문: 三者眞俗勝智

P: 三者眞俗勝智 ヽ ㄱ ㄴ <금광3, 04:01>

A: 三者眞俗勝智[34(·),55(·)]

D: 셋째, 眞俗 勝智를 하며,

&: 셋째는 진제와 속제에 대해 뛰어난 지혜를 일으키는 것이고,

E: 셋째는 진과 속[眞俗]에 가장 훌륭한 지혜[勝智]요,

N: 三者眞俗勝智樂善分別。(셋째는 진(眞)과 속(俗)을 훌륭한 지혜로 즐겨 잘 분별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십바라밀을 성취하는 방법 중 제6 반야바라밀을 성취하는 세 번째 방법을 제시한 부분이다. 그런데 세 번째로 제시된 『합부금광명경』의 경문이 ‘三者眞俗勝智’와 같이 동사 없이 명사로만 이루어져 있다. 구결은 ‘ㄴ-’ 동사를 보충하여 ‘眞俗勝智’ 전체를 ‘ㄴ-’ 동사의 목적어로 해석하였다. 『금광명경소』는 ‘眞俗勝智’ 전체를 목적어로 본 것은 구결과 동일하나 추가한 동사가 ‘ㅎ-’가 아니라 ‘일으키-’라는 차이가 있으나 ‘구결’과 『금광명경소』의 현대역이 모두 동사를 보충하여 해석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이에 반해 <한글대장경>

은 ‘眞俗’을 장소 또는 대상으로 파악하고 ‘勝智’를 계사의 보어로 보아 ‘진과 속에 가장 훌륭한 지혜’로 번역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구결’과 『금광명경소』의 현대역은 동사를 보충하여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이에 반해 <한글대장경>은 계사문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이들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금광명최승왕경』과 『합부금광명경』의 비교가 필요한 부분이다. 『최승왕경』은 해당 부분이 ‘眞俗勝智樂善分別(眞과 俗을 훌륭한 지혜로 즐겨 잘 분별하는 것이 고)’로 되어 있어 원문 자체에 동사 ‘分別’이 들어 있다. 그런데 『합부금광명경』의 경문은 동사가 없어 ‘구결’이나 『금광명경소』의 현대역에서 동사를 보충하여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08) 不可伏故

원문: 是修行方便勝智自在難得故 / 見思煩惱不可伏故 / 是故五地說名難勝地

P: 見思煩惱 ㄹ 不[ㄱ 1 ㄷ ㅈ ㅅ ㅈ 1 ㅅ ㅅ] 可[ㅈ 1 ㅈ] 伏ノ ㄱ 故ノ <금광3, 07:05-07>

A: 見思煩惱[22°32(·)]不可伏[42(·)#42(·),33(·),34(·)#34(·)]故[22(·),43(·),21(·)]

&: 견번뇌(見煩惱)와 사번뇌(思煩惱)는 조복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것을 이루니),

E: 견혹과 사혹[見思]의 번뇌를 항복하지 못하므로 이런 까닭에 오지(五地)를 난승지(難勝地)라 이름한다.

N: 見修煩惱難伏能伏。是故五地名爲難勝。(조복받기 어려운 견도(見道)와 수도(修道)의 번뇌를 능히 조복받으므로)

이 부분은 ‘十菩薩地の 이름(06:23-7:15)’ 중 제5 難勝地の 이름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원문의 ‘見思煩惱不可伏故’를 자토구결과 점토구결은 각각 ‘不[ㄱ 1 ㄷ ㅈ ㅅ ㅈ 1 ㅅ ㅅ] 可[ㅈ 1 ㅈ] 伏ノ ㄱ’와 ‘不可伏[42(·)#42(·),33(·),34(·)#34(·)]’으로 되어 있고 『금광명경소』는 ‘조복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것을 이루니)’로 되어 있어 구결과 『금광명경소』는 ‘見思煩惱를 조복시키는 것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조복시키므로’ 정도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반해 <한글대장경>은 ‘견혹과 사혹[見思]의 번뇌를 항복하지 못하므로’로 번역되어 있다.

제5 難勝地는 ‘어려운 것을 이기는 지위’이므로 어렵지만 조복시키는 것으로 해석해야지 <한글대장경>의 번역과 같이 ‘견혹과 사혹[見思]의 번뇌를 항복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조복시키는 것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조복시키므로’라는 해석을 이끌어 내는 방식에서 구결과 『금광명경소』의 해석 방식은 차이를 보인다. 구결은 자토구결과 점토구결의 현토가 거의 동일한데 자토의 현토 양상을 살펴보면 ‘見思煩惱 ㄹ 伏ノ ㄱ(ㄱ) 可ㅈ 1 不ㄱ 1 ㄷ ㅈ ㅅ ㅈ 1 ㅅ ㅅ’ 즉 ‘見思煩惱가 調伏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로 직역할 수 있다. 관건은 ‘不ㄱ 1 ㄷ ㅈ ㅅ ㅈ 1 ㅅ ㅅ’에 있는데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조복시키다’와 같은 의미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구결은 ‘ㅈ-’ 동사를 보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거기에 반해 『금광명경소』의 현대역은 ‘견번뇌(見煩惱)와 사번뇌(思煩惱)는 조복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것을 이루니)’와 같이 원문에 없는 ‘이루다’를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번역하지 못하고 ‘괄호’를 사용하여 의미를 보충하고 있다.²⁶⁾

26) 한명숙(2019: 360 각주 1131, 각주 1132)에 의하면, 견번뇌는 ‘견혹(見惑)이라고도 한다. 진리를 비추어 볼 때 끊어지는 번뇌이기 때문에, 그리고 헤아리는 성질을 가진 번뇌이기 때문에 견혹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사성제(四聖諦)의 도리에 관하여 잘못 인식함으로써 일어나는 아견(我見)·변견(邊見) 등의 번뇌를 말한다.’로, 사번뇌는 ‘사혹(思惑)·애혹(愛惑)·사혹(事惑) 등이라고도 한다. 일단 진리를 보고 견혹을 끊은 뒤 다시 진리를 사유·수습함으로써 끊어지는 번뇌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간의 허망한 사물을 사유함으로써 일어나는 번뇌이기 때문에 사혹이라 한다. 예를 들면 세간의 사물

이 부분에 대한 『최승왕경』도 주목할 만하다. 해당 부분의 『최승왕경』의 본문은 ‘見修煩惱難伏能伏’인데 <현대역>은 ‘견도(見道)와 수도(修道)의 번뇌를 능히 조복받으므로’로 되어 있다. 번역의 결과는 『합부금광명경』의 <한글대장경>과는 달리 ‘제5 難勝地’에 어울리는 번역이라고 생각되지만 원문에 충실한 번역은 아니다. 『최승왕경』의 ‘見修煩惱難伏能伏’를 직역하면 ‘見修煩惱를 조복시키기 어려우나 능히 조복시키며’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최승왕경』의 번역에서도 ‘조복시키기 어렵다’를 넣는 것이 ‘제5 難勝地’에 걸맞는 번역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은 구결과 <한글대장경>의 번역이 동일하고 『금광명경소』의 현대역이 다른 경우이다.

(09) 解脫三昧

원문: 無漏無間無相思惟解脫三昧遠修行故是地清淨無障無礙故是故七地說名遠行地

P: 無漏無間ヲ無相ト相思惟ト々々々々解脫三昧ト遠リ修行ト々々々々{故}カ<금광3, 07:09-10>

A: 無漏無間無相[44(·)]思惟[15~24(/), 42(·)]解脫三昧[34(·)]遠[22~32(·)]修行[43(l)]故[=55(·)]

& 무루(無漏)와 어떤 간격도 없고 무상(無相)을 사유하며 해탈(解脫)과 삼매(三昧)를 깊이 수행하기 때문에

E: 번뇌도 없고[無漏] 틈도 없고[無間] 모양도 없음을 사유하여 해탈삼매로 멀리 수행하므로

N: 無漏無間無相思惟。解脫三昧遠修行故。(무루(無漏)와 무간(無間)과 무상(無相)을 사유하고 해탈삼매를 멀리 닦아 행하므로)

이 부분은 ‘十菩薩地の 이름(06:23-7:15)’ 중 제7 遠行地の 이름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구결과 <한글대장경>은 ‘解脫三昧’를 ‘三昧’의 일종으로 보고 ‘解脫三昧’를 하나의 단위로 해석하였다. 이에 반해 『금광명경소』는 ‘해탈(解脫)과 삼매(三昧)’로 나누어 번역하였다. 그러나 ‘三昧’는 수행의 대상이 되지만 ‘解脫’은 수행의 결과이기 때문에 어색하게 보이는데 한명숙 역(2019: 369 각주 1133)에 의하면 『금광명최승왕경소』 권4(T39, 261c)에서는 “해탈은 팔해탈(八解脫)이다.”라고 되어 있다 한다. 이 부분의 해석이 ‘해탈삼매’인지 ‘해탈과 삼매’인지는 필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문제로 보이지만 ‘구결’과 <한글대장경>의 해석이 일치하고 『금광명경소』의 번역이 이와 다른 부분임은 확실하다. 참고로 구결, <한글대장경>, 『최승왕경』은 모두 ‘解脫三昧ト, 해탈삼매로, 해탈삼매를’로 현토하거나 번역하였다.²⁷⁾

다음은 미해결 부분으로 자토와 점토도 일치하지 않으며 『금광명경소』와 <한글대장경>의 번역도 잘못된 곳으로 보여서 해석이 쉽지 않은 부분이다.

(10) 意欲煩惱行

P: 一者(於)一切衆生ニ意欲煩惱行ニノ々々心悉ク通達トカ<금광3, 04:05-06>

과 대상에 대해 일어나는 탐욕·분노·어리석음 등의 번뇌를 말한다.’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 스님인 願曉의 『금광명최승왕경현주』(T56, No.2196)에 인용된 원효의 『금광명경소』에는 “‘사번뇌’라는 것은 구생기의 탐애와 교만 등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 모두 수도위(修道位)에서 끊어야 할 번뇌에 섭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四煩惱者. 俱生貪愛及驕慢等. 皆是修道所斷攝故.)”라 되어 있다고 한다. 『최승왕경』의 해당 경문이 ‘見修煩惱’로 되어 있기 때문에 ‘見思煩惱’의 해석과 관련해서도 따져 봐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27) <한글대장경>에서 解脫과 三昧를 동격으로 보았을 가능성도 있다.

A: 一者(於)一切衆生意欲煩惱行[53(·),24(\\),44(·)]心悉[22(·)]通達[55(·)]

D: 첫째, 一切 衆生이니 意欲 煩惱行이니 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이 다 통달하며,

&: 첫째는 일체 중생의 의욕과 번뇌의 작용을 마음으로 모두 통달하는 것이고,

E: 첫째 일체 중생의 뜻의 욕심과 번뇌의 행을 다 통달함이요,

N: 一者於一切衆生意樂煩惱心行差別。悉皆通達。(첫째는 온갖 중생의 의락(意樂)·번뇌(煩惱)·심행(心行)의 차별을 모조리 통달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제7 方便勝智波羅蜜을 성취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부분으로 원문의 ‘意欲煩惱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최승왕경』의 해당 경문을 보면 ‘意樂, 煩惱, 心行’이 병렬되어 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합부금광명경』의 원문은 ‘一者於一切衆生意欲煩惱行心悉通達’인데 자토구결과 점토구결의 현토가 다르다. 자토구결은 ‘一切衆生’과 ‘意欲煩惱行’을 동격으로 파악하였고, 점토구결은 ‘53(·)’이 ‘行’에 현토되어 다른 나열항이 있을 것은 짐작할 수 있으나 훼손된 부분이어서 정확한 정보를 알 수는 없다. 그런데 『최승왕경』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구절은 ‘一切衆生’과 ‘意欲煩惱行’으로 나열될 부분이 아니라 ‘一切衆生’은 후행하는 ‘意欲煩惱行’의 수식어이며, ‘意欲煩惱行’은 각각 ‘意欲’, ‘煩惱’, ‘行’으로 나열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²⁸⁾ 게다가 『합부금광명경』의 ‘行’은 『최승왕경』에서는 ‘心行’으로 되어 있는데, 『합부금광명경』에서 후행하는 ‘心悉通達’에 ‘心’이 있어 해석을 더욱 어렵게 한다.²⁹⁾

2.3. 十地 依功德力陀羅尼

여기서는 十地에서 功德力에 의거하여 陀羅尼를 설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 부분도 이 글의 구성과 같이 ‘구결과 현대역이 다른 부분’의 관점에서 나누어야 하지만 반복되는 부분으로 원문도 각각의 반복 부분이 일치하지 않고, 그에 따라 구결도 일치하지 않으며, 『금광명경소』와 <한글대장경>의 현대역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글의 구성과는 별도로 한 절로 다루기로 한다.

(11) 十地 依功德力陀羅尼(08:25-13:01)

표준 원문: 善男子是陀羅尼名過X恒河沙(數)諸佛爲救護X地菩薩誦持此陀羅尼呪得度(脫)一切怖畏一切惡獸(虎狼獅子)一切惡鬼人非人等(怨賊)災橫諸惱(=諸有惱害)解脫五障不忘念X地

(12) 初地

P: 得Xホ度脫[ッ]①一切怖畏 ㄱ ①一切惡獸 ㄴ ②一切惡鬼 ㄴ ③人非人等 ㄴ ㄱ ㄴ ㄴ ④災橫 ㄴ ⑤諸惱 ㄴ ㄴ ㄴ

D: 능히 一切 怖畏인, 一切 惡獸니 一切 惡鬼니 人非人 등이니 災橫이니 모든 煩惱니 하는 것을 度脫하여

&: 모든 두려움의 대상인 것, 곧 일체의 악한 짐승과 일체 귀신과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 등의 해침과 재난·형액과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고

E: 깨달음을 얻어서 일체 두려움과 일체 악한 짐승과 일체 악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

28) 장경준 외(2021)도 ‘-’는 문맥상 ‘衆生’이 아니라 ‘意欲’에 현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29) 참고로 장경준 외(2021)은 ‘意欲’과 ‘煩惱行’이 나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겪는 번뇌에서 벗어나고

E: 일체의 두려움과 일체 독의 피해와 호랑이·이리·사자와 일체의 악한 귀신과 사람과 사람 아닌 이 등이나 원수와 도적의 사나운 재앙과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고

(17) 제6지

P: 得度[ヲ 〽] ①一切怖畏ニ ①一切毒害ニ 虎狼獅子ニ ②一切惡鬼ニ ③人非人等 ヲ 怨賊ニ ④災横ニ ⑤諸有 ヲ 惱害ニ ノ 尸 乙 、

D: 능히 一切의 怖畏인, 一切 毒害인 범·이리·사자니 一切 惡鬼니 人非人 等の 怨賊이니 災横이니 여러 존재하는 惱害니 하는 것을 건너

&: 모든 두려움의 대상인 것, 곧 일체의 해독을 끼치는 짐승인 호랑이·이리·사자와 일체의 악한 귀신과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으로서 원수인 도적과 재난·형액과 모든 존재로서 겪는 번뇌에서 벗어나고

E: 일체의 두려움과 일체의 독의 피해와 호랑이·이리·사자와 일체의 악귀 사람과 사람 아닌 이 등이나 원수와 도적의 사나운 재앙과 모든 고뇌를 벗어나며

(18) 제7지

P: 得度[ヲ 〽] ①一切怖畏ニ ①一切惡獸ニ 虎狼獅子ニ ②一切惡鬼ニ ③人非人等 ヲ 怨賊ニ ④毒害ニ ⑤災横ニ ノ 尸 乙 、

D: 능히 一切 怖畏인, 一切 惡獸인 범·이리·사자니 一切 惡鬼니 人非人 等の 怨賊이니 毒害니 災横이니 하는 것을 건너

&: 모든 두려움의 대상인 것, 곧 일체의 악한 짐승인 호랑이·이리·사자와 일체의 악한 귀신과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 등으로서 원수인 도적과 독약에 의한 재난·형액에서 벗어나고

E: 일체의 두려움과 일체 사나운 짐승 호랑이·이리·사자와 일체 악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 등이나 원수와 도적과 독의 피해나 사나운 재앙을 벗어나고

(19) 제8지

P: 得度[ヲ 〽] ①一切怖畏ニ ①一切惡獸ニ 虎狼獅子ニ ②一切惡鬼ニ ③人非人等 ヲ 怨賊ニ ④毒害ニ ⑤災横ニ ノ 尸 乙 、

D: 능히 一切 怖畏인, 一切 惡獸인 범·이리·사자니 一切 惡鬼니 人非人 等の 怨賊이니 毒害니 災横이니 하는 것을 건너

&: 모든 두려움의 대상인 것, 곧 일체의 악한 짐승인 호랑이·이리·사자와 일체의 악한 귀신과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 등으로서 원수인 도적과 독약에 의한 재난·형액에서 벗어나고

E: 일체의 두려움과 일체의 사나운 짐승 호랑이·이리·사자와 일체 악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 등이나 원수와 도적이나 독의 피해나 사나운 재앙을 벗어나고

(20) 제9지

P: 得度[ヲ 〽] ①一切怖畏ニ ①一切惡獸ニ 虎狼獅子ニ ②一切惡鬼ニ ③人非人等 ヲ 怨賊ニ ④毒害ニ ⑤災横ニ ノ 尸 乙 、

D: 능히 一切 怖畏인, 一切 惡獸인 범·이리·사자니 一切 惡鬼니 人非人 等の 怨賊이니

毒害니 災橫이니 하는 것을 건너

&: 모든 두려움의 대상인 것, 곧 일체의 악한 짐승인 호랑이·이리·사자와 일체의 악한 귀신과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 등으로서 원수인 도적과 독약에 의한 해침과 재난·횡액과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고

E: 일체 두려움과 일체 사나운 짐승 범·이리·사자와 일체 악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 등과 원수와 도적이니 독의 피해나 사나운 재앙을 벗어나고

(21) 제10지

P: 得_レ 度[ヌ] ①一切怖畏 ②一切惡獸虎狼師子③一切惡鬼④人非人等 ヌ ①怨賊 ④毒害 ⑤災橫 ヌ ノ 尸 乙 、

D: 능히 一切 怖畏인, 一切 惡獸인 범·이리·사자니 一切 惡鬼니 人非人 등의 怨賊이니 毒害니 災橫이니 하는 것을 건너

&: 모든 두려움의 대상인 것, 곧 일체의 악한 짐승인 호랑이·이리·사자와 일체의 악한 귀신과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으로서 원수인 도적과 독약에 의한 해침과 재난·횡액과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고

E: 일체의 두려움과 일체 사나운 짐승 범·이리·사자와 일체 악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 등이나 원수와 도적이니 독의 피해나 사나운 재앙을 넘어서

10지 각각에서는 각각의 지(地)에 제시된 다라니를 외우면 일체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五障을 벗어나 각각의 지(地)를 잊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12~21)은 각각의 지에서 제시된 일체의 두려움을 언급한 부분들이다.

먼저 『합부금광명경』에서 원문의 차이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초지~제3지까지는 ‘得度脫’이지만 제4지~제10지까지는 ‘得度’이다. 그런데 『금광명경소』는 원문이 ‘得度脫’이든 ‘得度’이든 상관없이 ‘벗어나다’로 번역하고 있지만 <한글대장경>의 경우에는 초지에서 ‘得度’를 ‘깨달음을 얻어서’로 번역하고 ‘脫’을 ‘벗어나-’로 해석하는 잘못을 범했으며, 제4지와 제10지는 ‘넘어서-’, 나머지는 ‘벗어나-’로 번역하고 있어 번역의 일관성 또한 없다. 이 부분은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표현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오해를 피하는 방법이다. 또한 <한글대장경>은 초지에서 원문의 ‘③人非人等’을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 등의 해침’으로 번역하여 원문에 없는 ‘의 해침’을 보충하였으나 이후의 원문을 고려하면 이 부분은 ‘人非人等怨賊’이어서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 등의 원적(怨賊)’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합부금광명경』의 원문은 ‘虎狼師子’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제3지~제8지까지는 ‘虎狼師子’가 원문에 있고 나머지는 없다. 그런데 원문에 ‘虎狼師子’가 나올 경우 이것은 ‘一切惡獸’의 예로서 제시된 것이다. 그런데 유독 제5지와 제6지에서는 ‘一切毒害虎狼師子’와 같이 원래 ‘惡獸’가 있어야 할 자리에 ‘毒害’가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한 <한글대장경>의 현대역은 ‘일체 독의 피해와 호랑이·이리·사자와’로 번역하고 있다. ‘一切毒害’와 ‘虎狼師子’를 병렬 구조로 파악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러한 번역의 근본 원인은 『합부금광명경』의 원문이 ‘一切惡獸虎狼師子’이어야 할 것이 제5지와 제6지에서는 ‘一切毒害虎狼師子’로 잘못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2) 初地

N: 得脫 ①一切怖畏。所謂①虎狼師子惡獸之類。②一切惡鬼③人非人等。④怨賊災橫及⑤諸

苦惱。

<한글역> 온갖 두려움, 이른바 호랑이·사자 같은 악한 짐승 따위와 온갖 악귀와 사람인 듯하면서 사람이 아닌 것 등과 원수나 도적의 재난과 횡액 및 모든 고통과 번민에서 벗어날 것이며,

(23) 제2지

N: 脫①諸怖畏①惡獸②惡鬼③人非人等。④怨賊災橫及⑤諸苦惱。

<한글역> 모든 두려움과 악한 짐승, 악한 귀신, 사람인 듯하면서 사람이 아닌 것과 원수나 도적의 재난과 횡액 및 모든 고통과 번민에서 벗어날 것이며,

(24) 제10지

N: 脫①諸怖畏①惡獸②惡鬼③人非人等。④怨賊災橫。⑤一切毒害。(皆悉除滅。)³⁰⁾

<한글역> 모든 두려움을 벗으며 악한 짐승, 악한 귀신, 사람인 듯하면서 사람이 아닌 것과 원수나 도적의 재해와 횡액 및 모든 고통과 번민에서 벗어날 것이며,

(22, 23, 24)는 (12~21)에서 제시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광명최승왕경』의 초지, 제2지, 제10지의 원문과 <한글역>이다.³¹⁾ 그런데 『금광명최승왕경』의 경문은 초지의 경우 ‘③人非人等。④怨賊災橫’으로 되어 있고 <한글역>은 ‘사람이 아닌 것 등과 원수나 도적의 재난과 횡액’로 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부분은 ‘人非人 등의怨賊’과 ‘재난·횡액’으로 나누어져야 할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효(元曉) 스님은 『금광명경소』에서 “글에 다섯 가지 장애를 갖추었다. 첫째는 일체의 악한 짐승이고, 둘째는 일체의 악한 사람이며, 셋째는 일체의 악한 귀신이며, 넷째는 일체의 재난·횡액이며, 다섯째는 일체의 번뇌이다.(文具五障. 一一切惡獸. 二一切惡人. 三一切惡鬼. 四一切災橫. 五一切諸惱.)”라고 하였다.³²⁾

원효 스님이 말한 ‘一切惡人’은 『합부금광명경』의 ‘人非人等’이고, 『합부금광명경』의 ‘災橫’은 원효 스님의 『금광명경소』에서 ‘四一切災橫’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원수나 도적의 재난과 횡액’으로 번역하는 것은 잘못으로 보인다.³³⁾

3. 결론

30) 『최승왕경』의 <한글역>에는 ‘皆悉除滅’이 번역에서 빠져 있다.

31) 『금광명최승왕경』의 경우 제3지~제9지의 원문과 <한글역>은 제2지와 동일하므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였다.

32) 원효(元曉) 스님의 『금광명경소』 집일문과 번역은 모두 한명숙 역(2019: 387-388)를 인용하였다.

33) 참고로 구결이 현토된 부분이 아니지만 元曉 스님에 의해서 『합부금광명경』의 원문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것이 있다. ‘十波羅密的因’을 기술하는 대목 중 ‘初發菩提心’ 부분인데, 『합부금광명경』에서는 ‘일체의 공덕과 선근에 의지하여 발생하니(依一切功德善根 而得發出)’의 구결이 제1 보시바라밀에 국한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제1 보시바라밀에 국한될 부분이 아니라 보살 10지 전체에 걸쳐야 할 부분임을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금광명최승왕경』에 의하면 이 부분은 ‘이것은 일체의 공덕과 선근에 의지하여 생긴다(此依一切功德善根. 而得生起)’로 되어 있으며 십바라밀을 총괄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합부금광명경』의 원문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慧沼의 『금광명최승왕경소』에는 『합부금광명경』에서 ‘初發心’ 앞의 ‘是名’ 두 글자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한명숙 옮김(2019: 340-341 (각주)1076 발췌 인용).

이 글은 불경을 현대역할 때 구결 자료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하에 청주고 인쇄박물관 소장 구결본 『합부금광명경』 권3을 대상으로 구결과 현대역의 차이를 살펴보고 그 중에서 구결의 해석이 현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제시한 글이다.

구결본 『합부금광명경』 권3은 고려시대의 자토석독구결과 점토석독구결이 기입되어 있는 자료이며, 『합부금광명경』의 현대역으로는 <한글대장경>의 『합부금광명경』과 한명숙 역(2019) 『집일본 금광명경소』의 ‘합부금광명경’ 현대역을 이용하였다. 이하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을 제시한다.

먼저 구결과 현대역이 차이를 보이는 것 중 구결의 해석이 맞을 것으로 보여 현대역에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功德法藏<금광3, 02:06-08>은 현대역과 같이 功德과 法藏을 분리하여 해석하지 말고 구결과 같이 하나의 의미 단위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둘째, 解脫生死二處<금광3, 03:18-19>는 구결과 같이 解脫은 동사로 二處는 生과 死의 이처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셋째, 諸佛菩薩聰慧大智<금광3, 03:24-25>는 구결과 같이 諸佛, 菩薩, 聰慧大智로 구분하는 것이 옳다. 특히 聰慧大智는 현대역과 같이 ‘충명한 지혜’와 ‘큰 지혜’가 아니라 ‘충명하고 큰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넷째, 對治諸法之門<금광3, 04:06-07>은 현대역과 같이 對治가 諸法을 수식하는 구성이 아니라 구결과 같이 對治와 諸法이 나열되는 구성이다.

다섯째, 如寶女人一切莊嚴<금광3, 06:06-08>에서 ‘如’의 지배범위는 구결과 같이 ‘寶女人’으로 보아야지 현대역과 같이 ‘寶女人一切莊嚴’으로 볼 수 없다.

『합부금광명경』의 구결과 현대역의 비교에서 현대역 중 구결과 『금광명경소』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구결과 <한글대장경>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 글에서는 『합부금광명경』의 경문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예. 毒害)과 『금광명최승왕경』의 현대역이 잘못된 부분(예. ‘사람이 아닌 것 등과 원수나 도적의 재난과 횡액’)도 간단히 언급하였다.

이 글은 불경을 현대역할 때 구결의 도움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으로 고려시대 자토석독구결과 점토석독구결을 모두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료인 『합부금광명경』 권3의 구결과 현대역을 비교한 것이다. 불경을 번역할 때 참고를 하면 보다 좋은 번역이 될 수 있을 만한 단편적인 것들을 제시하였고 필자의 한계로 인해 불교 교리에 해당하는 중요한 부분을 다룰 수는 없었다는 한계가 있지만 불경 번역에서 좋은 구결자료를 참조할 필요성이 있음은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성주(2019), 석독구결본 『합부금광명경』 권제3의 불교문화사적 의의, 『고인쇄문화』 26, 청주고인쇄박물관, 59-77.
- 김지오(2010), 「『合部金光明經』 字吐口訣의 誤記」, 『口訣研究』 25, 口訣學會, 145-175.
- 김지오(2021), <합부금광명경> 자토·점토 구결의 현토 양상 - 오류와 수정 양상을 중심으로 - 2021년 여름 구결학회 발표문.
- 남경란(2021), 고려시대 불경에 사용된 표점(標點)의 형태와 양상 연구, 『민족문화논총』 77,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35-170.
- 南權熙(1998), 「高麗 口訣本 《(合部)金光明經》 卷3에 관한 書誌的 考察」, 『書誌學研究』 15, 韓國書誌學會, 309-338.
- 문현수(2014), 「『瑜伽師地論』 系統 點吐釋讀口訣에 사용된 빼침선의 기능」, 『口訣研究』 33, 口訣學會, 249-283.
- 박진호(1997), 「借字表記 資料에 대한 통사론적 검토」, 『새국어생활』 7-4, 국립국어연구원, 117-145.
- 백두현(1997), 「高麗本 金光明經에 나타난 特異 형태에 대하여: ‘口口七’, ‘口口’, ‘言口口’ 및 ‘言口口口」, 『국어학 연구의 새지평』, 성재 이돈주 선생 화갑 기념 논총간행위원회, 121-137.
- 안대현(2009),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의 빼침선에 대하여」, 『口訣研究』 22, 口訣學會, 197-218.
- 안대현(2019),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 『合部金光明經』 권3의 서지적 특징, 『고인쇄문화』 26, 청주고인쇄박물관, 5-35.
- 이건식(1997), 「釋讀口訣의 省略表記와 難解吐의 解讀」, 『國語史研究: 午樹 田光鉉 · 宋敏先生의 華甲을 紀念하여』, 國語史研究會, 1055-1090.
- 이용(2019), 『合部金光明經』 자토구결과 현대어 번역, 『고인쇄문화』 26, 청주고인쇄박물관, 101-215.
- 장경준(2019), 「『합부금광명경』 권3의 점토구결 기초 연구」, 『고인쇄문화』 26, 청주고인쇄박물관, 81-98.
- 장경준 편(2019), 「석독구결 자료 6종 전산입력본(sktot_2019_01)」, 구결학회/국어사학회 배포(미간행).
- 장경준 외(2021), 「역주 원고 초안」 (한국연구재단 지원 "중층적 구결 자료 <합부금광명경> 권3의 종합적 연구" 중간 결과물 2021. 6. 13. 최종 작성본), 미간행.
- 장윤희(2019) 『합부금광명경』 권3의 한국어사 자료적 가치, 『고인쇄문화』 26, 청주고인쇄박물관, 39-56.
- 정재영(1998), 「合部金光明經(卷三)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研究』 3, 口訣學會, 113-193.
- 崔然柱(2005), 「『合部金光明經』 간행과 『高麗大藏經』 각성사업」, 『古文化』 66, 韓國大學博物館協會, 37-56.
- 한명숙 역(2019), 『집일 금광명경소』, 동국대학교 출판부.
- 황선엽·이전경·하귀녀 외 편(2009), 『釋讀구결사전』. 서울: 박문사.
- 동국역경원(1998), 『복개정행소집경 외(합부금광명경)』, 서울: 동국역경원.

<합부금광명경> 자토·점토 구결의 현토 양상

-오류와 수정 양상을 중심으로-

김지오(동국대)

1. 서론

2. 자토 구결의 기입 양상

- 2.1. 현토 양상과 특징
- 2.2. 오류의 실태와 정도성
- 2.3. 오류의 수정과 정확도
- 2.4. 미숙한 필체와 기형적 자형
- 2.5. 요약

3. 점토 구결의 기입 양상

- 3.1. 현토 양상과 특징
- 3.2. 수정의 관점에서 본 각필점
- 3.3. 수정의 관점에서 본 세필 구결자
- 3.4. 기타 오류와 수정 양상
- 3.5. 요약

1. 서론

국어사 연구자들은 고문헌이라는 자료를 통해 당시의 언어를 들여다본다. 이들 자료가 ‘당대 언어’를 반영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부는 자료적 특수성이나 문어적 제약으로 ‘현실 언어’를 여실히 보여주기보다는 왜곡되거나 기형적으로 당시 언어를 보여주기도 한다. 따라서 언어 연구 이전에 문헌에 대한 정확하고 철저한 실태 파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구결 자료 중에서도 특별한 위상을 차지하는 <합부금광명경> 권3의 구결 기입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합부금광명경>은 자토 석독구결과 점토 석독구결이 동시에 기입된 희귀한 자료이고, 점토 구결 역시 각필과 묵서가 동시에 기입되어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이 자료가 학계에 알려진 지 20년이 넘었으나 구결의 기입 양상이나 현토의 오류와 수정 실태 파악 같은 1차 연구도 상세히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합부금광명경>에 기입된 구결을 자토 구결과 점토 구결로 나누어 이 자료의 구결 기입 양상 중 특징적인 점이 무엇인지, 특히 오류와 수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합부금광명경>이라는 텍스트 위에 구현된 당시의 언어가 어떤 상태와 얼마만큼의 정확도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안내하고자 한다. 이런 작업이 <합부금광명경>을 통해 고려시대 언어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작은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¹⁾

1) 이 연구는 오랜 시간 저자가 함께 참여했던 <합부금광명경> 공동 연구회의 연구 성과 위에서 이

2. 자토 구결의 기입 양상2)

<금광>은 15장으로 끝나지만 제1장이 낙장인 상태라 총 14장으로 구성된 자료이다. 이는 자토 석독구결 6종 자료 가운데 4번째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한문 텍스트 크기 : 유가 > 화엄 > 금광 > 화소 > 구인 > 자비

■현토된 구결자 수 : 유가 > 화엄 > 화소 > 금광 > 구인 > 자비

	장과 행, 자수	한자	구결자
유가	32장(23행14자)	9407자	9607자
화엄	20장(24행14자)	6781자	7010자
화소	26장(20행15자)	3807자	4784자
금광	14장(25행17자)	5194자	4157자
구인	5장(25행17자)	1954자	2619자
자비	5장(21행14자)	1463자	1455자

표 38

자토구결 6종 자료 가운데 <금광>은 큰 규모의 석독구결 자료는 아니지만 다른 자료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들이 여럿 발견된다. 이 장에서는 자토의 오류와 수정 양상이나 현토의 미숙한 모습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다른 자토 자료들과 차이를 보이는 특징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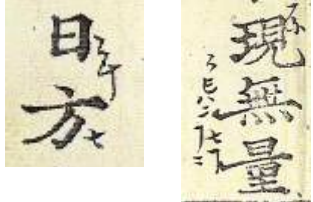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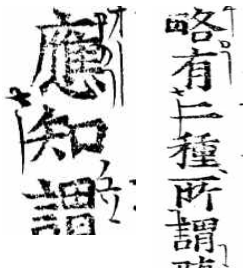
2.1. 현토 양상과 특징

‘특징과 가치’는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금광> 자토 구결의 특징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다른 5종 구결 자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견주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5가지 기준(①구결자의 크기와 필체의 통일성, ②吐의 시작 위치, ③吐의 자간 간격과 기울기의 가지런함, ④한자 획 침범 여부, ⑤목의 농담³⁾)을 설정해, 현토 양상과 특징을 살펴본다.

화소	① 小字의 구결자,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된 필체 ② 계선 때문에 구결 위치의 변이가 매우 큼. 기준 사각형의 ‘31’위치나, ‘35’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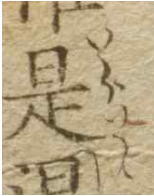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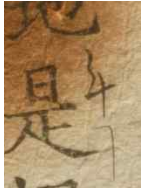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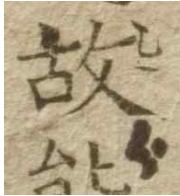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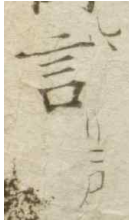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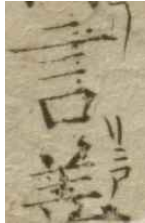
루어진 결과물이다. 공동 연구에 참여하시고 발제를 맡아주셨던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여러 예시들과 특징들 중에는 강독회 토론 과정과 공동 발제문에 기록된 사항들을 기반으로 작성한 내용이 있음도 밝혀 둔다.

- 2) 자토 석독구결을 먼저 다룬 이유는 자토 구결이 점토보다 먼저 발견되어 일찍부터 연구된 측면을 고려한 것이지, 자토 구결이 점토보다 먼저 기입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니다.
- 3) 흑백 복사본밖에 전하지 않는 자료의 경우 컬러본보다 판별이 어렵지만, 명도 차이를 통해 판별이 가능하다. <유가사지론> 흑백복사본을 보면 복사본으로도 농담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치처럼 비정상적인 위치에서 시작되는 ㅌ가 다수 보임 ③ 촘촘하고 자간 공백이 거의 없음, 계선을 따라 현토되기 때 문에 비교적 가지런한 字列을 보임 ④ 구결자가 한자 획을 침범하지 않음 ⑤ 목의 농도가 균질함	 15장20
화엄	① 작은 크기의 구결자, 통일된 필체 ② 비전형적인 현토 위치가 다수 보임 ③ 촘촘하고 자간 공백이 거의 없음, 자열이 비뚤빼뚤한 경우가 다수 ④ 구결자가 한자 획을 침범하지 않음⁴⁾ ⑤ 목의 농도가 균질함	
구인	① 화엄보다는 크고, 통일된 필체 ② 표준적 위치가 다수이나 높게 올려서 현토하는 경향이 존재함 ③ 자간이 균일하고 기울기가 일정함 ④ 구결자가 한자 획을 침범하지 않음 ⑤ 목의 농도가 균질함	
유가	① 구결자가 크고, 세로 직선을 길게 빼는 자형으로 통일. ② 모범적인 현토 위치 ③ 자간이 균일하고 자열도 수직으로 곧게 내려씀 ④ 구결자가 한자 획을 침범하는 것이 일반적임. ⑤ 목의 농도가 전체적으로는 균질한 편이나 진하고 먹이 많이 묻은 글자가 드문드문 출현	
자비	① 가늘고 <유가>보다 작은 자형, 통일된 필체 ② 표준적 위치에서 시작 ③ 자간이 균일하고 촘촘함, 수직으로 곧은 자열 ④ 구결자가 한자 획을 침범하지 않음 ⑤ 목의 농도가 균질함	

위의 5가지 특징을 기준으로 <금광>의 현토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4) 구결이 짧고 단순하며 구결자의 크기가 작아 여백이 많은 환경이다. 따라서 한자와 구결, 구결과 구결이 겹치는 환경이 거의 없어 겹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을 갖고 있다.

그림1	그림2	그림3	그림4	
				
07:20	06:13	02:10	14:25	15:14

- ① 小字인 <화엄>계보다 크고, 大字인 <구인, 유가>와 유사한 크기
서체가 통일되어 있는 5종 자료들과 마찬가지로 <금광>도 전반적으로 서체가 통일되어 있지만, ‘別筆’도 드문드문 섞여 있음 (그림1,2)
- ② 한자의 기준 사각형을 중심으로 우하·좌하 꼭지점 방향에서 현토 시작(표준 위치)
- ③ 자간이 균일하지 않은 예가 다수 존재, 긴 현토의 경우 자열의 기울기는 일정한 편
- ④ 구결자가 한자 획을 침범하지 않음
- ⑤ 묵의 농도가 비균질함(묵이 덜 묻거나 더 묻은 곳 다수) (그림3,4)

이를 통해 <금광>은 전체적인 현토를 한 1인과 그 외의 부분적인 현토를 기입한 다른 인물이 더 존재한 듯이 보이며, 다른 자료들과 비교할 때 묵의 농담과 자간 간격 조절에서 특히 미숙한 모습을 보인다.⁵⁾

2.2. 오류의 실태와 정도성

이 자료의 구결에는 많은 오류들이 발견된다. <금광>의 대표적인 오기의 예와 유형들에 대해서는 김지오(2010)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된 바 있고, 전체 오류 사례에 대해서는 sktot(2019) 교감기에 소개되어 있으므로 이런 사례들을 재론하지는 않는다. 대신 나머지 5종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금광>에 나타난 오류의 ‘정도성’을 살펴보는 데 집중한다.

○ sktot(2019) 교감기를 바탕으로 한 6종 자료의 오류(실수, 미숙) 비교

	화소	화엄	구인	금광	유가	자비
자형 불명 (혼동유발필체)	7	40	2	42	13	10

5) 남권희(1998, 2002)에서는 <금광>의 현토자와 <유가>의 현토자가 동일한 사람으로 추정하였으나, 본고에서 위의 5가지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두 문헌의 현토 양상은 스타일과 능숙도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동일한 현토자로 파악하기 힘들었다. 또한 남권희(1998, 2002)에서는 卷首 두 장(1장·2장)과 卷末 2장(14·15장)의 글씨체가 달라 다른 현토자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5가지 특징을 놓고 볼 때 특별히 이 앞뒤 부분이 다른 장과 다르다는 점도 발견하기 힘들었다. 이런 점은 대표 자형의 필체를 놓고 연구를 진행했던, 유민호(2010)의 결론과도 일치한다.

위치 오류		11		5		1
오기		20	2	31	1	
수정(흔적)		14		32	2	
기타	2(위치 특이) 4(구결자 불명)	2 (구결자 불명)		20 (원본 훼손)	1 (원본 훼손)	3 (원본 훼손)
합계	13	87	4	130	17	14
기타 제외 합계	7	85	4	110	16	11

표 2

문헌	구결자 수	전체 구결자 대비 오류 비율
금광	4157	2.64%
화엄	7010	1.21%
자비	1455	0.75%
유가	9607	0.16%
구인	2619	0.15%
화소	4784	0.14%

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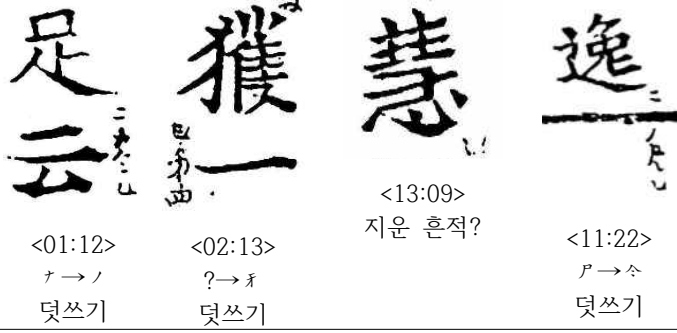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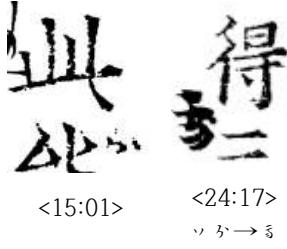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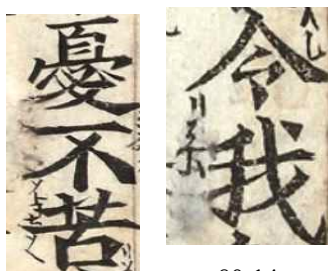
이런 비교를 통해 현토의 오류라는 것이 <금광>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5종 자료와 그 빈도를 비교해 보면 <금광>에서 훨씬 빈번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기술되어 왔던 ‘오류가 많다’에서 ‘많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인지 계량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2.3. 오류의 수정과 정확도

<금광>에 오류가 많다는 사실만큼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런 오류들을 바로 잡기 위해 수정 작업도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은 오류가 많다는 점에 비해 기존 연구들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만큼, 수정의 유형과 특징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다른 5종 자료에서의 수정 현상을 살펴보자. 다른 자료에서는 한번 현토한 구결을 수정하는 일이 드물긴 하지만 전혀 발견되지 않는 현상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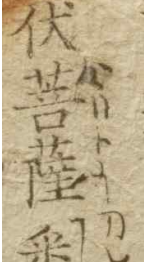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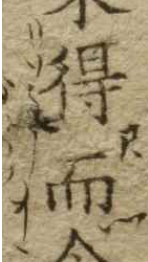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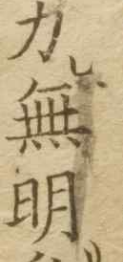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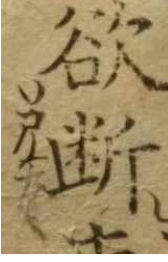
문헌	수정 사항
화소	×
화엄 (11여 곳)	글자 위에 덧쓰기 방식(10회), 위치 오류 지운 흔적?(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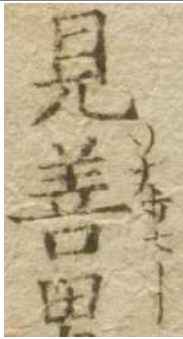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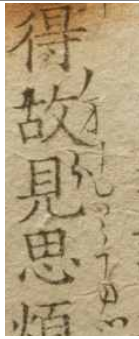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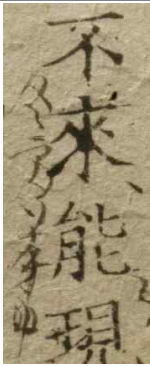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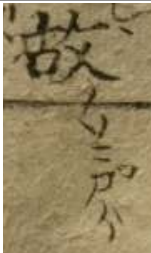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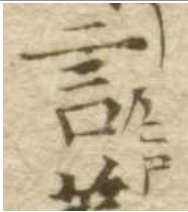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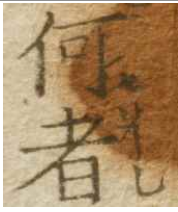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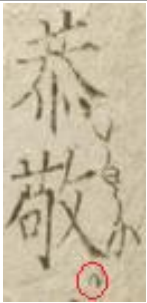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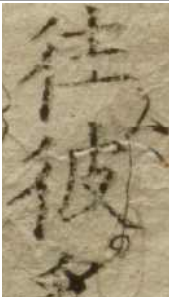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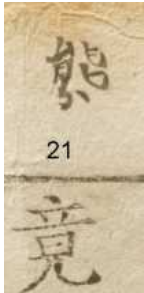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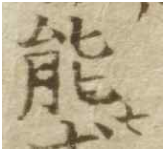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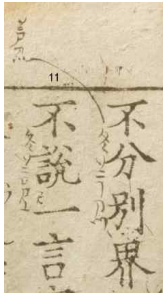
	 <01:12> ナ→ノ 뎃쓰기 <02:13> ?→ヲ 뎃쓰기 <13:09> 지운 흔적? <11:22> 尸→々 뎃쓰기
구인	×
유가 (2회)	 <15:01> <24:17> ッ ㄱ→ㄴ • 지우기와 뎃쓰기 • 물로 지우기  <20:02> <20:14>
자비 (2회)	

다른 5종 자료에서는 그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수정의 ‘방식’도 다양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반면에 <금광>에서는 문헌 전체에 걸쳐 60여 곳 가까이 수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정 방법도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 <금광>의 수정 유형과 방식

- └ 지우기 - 먹으로 지우기, 물로 지우기, 비비거나 긁어내기로 지우기
- 수정 방법└┐ (글자 위에) 뎃쓰기
- └ 지우지 ┐-- 끼워 넣기
- 얹기 └-- 부호 사용
- └-- 난상 이용

유형	사례					빈도
지우기	먹으로 지움	비비기	비비기	물로 지움	긁어내기	30여 곳
	 03:09	 06:04	 06:23	 08:03	 08:01	
위에						10여 곳

덧쓰기	 05:25 1 → ㄱ 1 → 牙	 07:06 ㄱ → 入	 07:25 1 → ㄱ	 14:20	
끼워 넣기 (보입)	 02:22	 13:11	 05:08	 02:22	4회 (+8회: 7개 言)
부호 사용	 09:18	 13:04	 13:21	 15:05	8회
난상 이용	 21 13:21 난상 能 → 能	 13:21 5번째 글자	 11 13:10-11 ソニ 1 入 ㄱ → ソニ 尸 入 ㄱ		2회

<금광>처럼 문헌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수정을 가한 자토 구결 자료는 볼 수 없다. 이처럼 전면적인 수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현토를 한 번 기입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차례 이상 다시 읽어봤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수정 방식이 다양하다

는 사실은 한 사람에 의한 수정이라기보다는 한 사람 이상이 수정했을 가능성도 추측해 볼 수 있다.⁶⁾

다음은 수정의 정확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오류를 수정한 결과는 대체로 올바르게지만, 오류를 수정한 결과가 또 잘못된 경우도 나타난다.

(1) 五者爲[ハ ヌ ヌ ナ 一 リ 一]得[ハ ヌ]甚深無生法忍^乙、<금광3, 03:09>

: 五者 甚深 無生法忍^乙 得^ハ{爲}ハ[ハ ヌ → ヌ ヌ]ナ 一 리 一

3장 9행 ‘爲’자에 현토된 구결에서는 ‘ハ ヌ’로 적혀 있던 구결자를 지우고 ‘ハ ヌ’로 교정되어 있다. 교정하기 전에는 ‘ハ’가 누락되어 있고 교정 후에는 ‘ハ’이 누락되어 있어 교정 결과도 역시 오류를 보인다(김지오: 2010).

그리고 <금광>에는 많은 곳이 수정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오류가 수정된 것은 아니다. 명백한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수정되지 못한 채 남겨진 예들도 상당하다.

○ 수정되지 못한 명확한 오류들(sktot 2019 교감기 기준)

번호	위치	오류	수정할 사항
1	금광04:04	五 ^乙 法	현토 위치 오류, ‘五法 ^乙 ’로 수정해야 함
2	금광04:12	來ノ ^ハ ム	‘來ノム’ 정도 예상
3	금광05:07	成就 ^ハ フノ ^ハ ナ 一 리 一	‘フ’는 ‘フ’로 수정되어야 함
4	금광05:19	無 ^ハ ニ(1?) ^ハ ム	‘ ^ハ ニ1’은 비문법적인 토임, ‘ ^ハ ’가 예상됨
5	금광06:15	善男子 ^ハ	‘善男子 ^ハ ’가 되어야 함
6	금광07:09	無間 ^ハ ?	구결이 달릴 필요 없음
7	금광07:10	故ノ ^ハ 1?	‘故ノ’의 잘못
8	금광07:12	不動地 ^ハ ノ ^ハ ニ ^ハ カ	주체높임의 ‘ ^ハ ’가 쓰일 환경이 아님, ‘ ^ハ ノ ^ハ ’로 수정되어야 함
9	금광08:04	障 ^ハ ノ ^ハ 1 ^ハ ッカ	‘ ^ハ ノ ^ハ 1’은 비문법적임, ‘障 ^ハ ノ ^ハ ’의 잘못
10	금광08:09	生 ^ハ	동사문 부정이므로 ‘生 ^ハ ’로 수정
11	금광09:07	爲 ^ハ ハ ^ハ ッ ^ハ 白ノ ^ハ 1 ^ハ リ ^ハ ニ ^ハ 1 ^ハ リ ^ハ 四	‘爲 ^ハ ハ ^ハ ’로 수정
12	금광13:01	起 ^ハ ニ ^ハ 下	‘ ^ハ ニ ^ハ 下’는 비문법적, ‘ ^ハ ニ ^ハ 下’의 오류
13	금광13:07	至 ^ハ ニ ^ハ 1 ^ハ リ ^ハ 3 ^ハ セ ^ハ ッ ^ハ カ	‘ ^ハ ’가 불필요
14	금광13:11	弟子衆ヲ ^ハ [역독점]	역독점 불필요
15	금광13:12	困苦 ^ハ (1?) ^ハ 1	‘ ^ハ 1’의 잘못
16	금광13:24	不退(乙?)地	‘ ^乙 ’이 현토될 위치 아님
17	금광14:01	誦 ^ハ ッ ^ハ ッ ^ハ 大 ^ハ ヲ ^ハ 1	‘ ^ハ ’의 잘못

6) <금광>의 구결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도 현토자가 1인 이상일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고, 드문드문 별필이 출현한다는 사전 지식을 갖고 볼 때, 이런 수정 방법의 다양성은 복수 현토자의 가능성을 지지해줄 수 있는 한 현상일 수 있다. 이런 맥락 없이 수정의 다양성만으로 현토자의 복수성을 확인할 수는 없다.

18	금광14:02	衆 _二 生	현토 위치 오류, ‘衆生 _二 ’로 수정
19	금광14:03	聽聞[역독점]	역독점이 왼쪽에 있어야 할 것이 오른쪽에 잘못 찍혀 있음
20	금광14:05	不 _失 三ッ	동사문 부정이므로 ‘不 _失 三ッ’ 정도가 적절
21	금광14:06	生ッニ	관형사형 ‘1’의 누락
22	금광14:21	行法乙 _七 七 _一 … 無	현토 위치 오류, ‘行法乙 … 無 _七 七 _一 ’가 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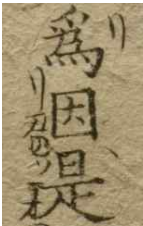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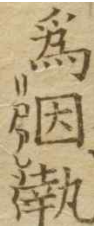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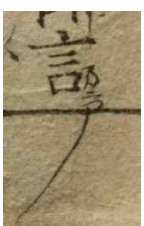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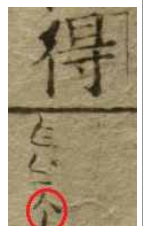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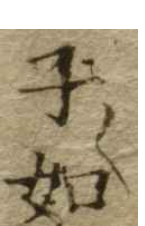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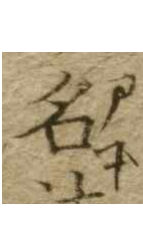
표4

전반적으로 수정을 가했으나 놓친 부분이 많은 것을 보면, 잘못된 현토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미숙한 현토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4. 미숙한 필체와 기형적 자형

이 자료에는 오류까지는 아니지만 미숙한 필체와 기형적인 자형이 많이 출현한다. 이를 통해서도 현토자의 능숙도를 가늠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 미숙하거나 기형적인 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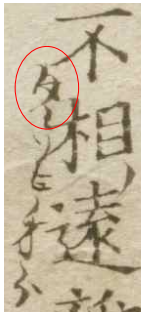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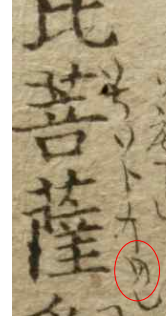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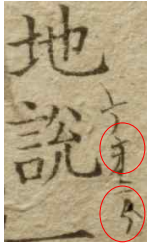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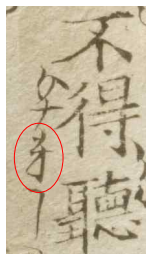
그림5	그림6	그림7	그림8	그림9	그림10
					
07:23 / 08:03	13:21	14:22	14:15	07:15	13:21

[그림5_07:23]의 예는 ‘爲’자에 ‘_二尸入乙ッ’가 현토된 예인데, ‘썼다’기보다는 ‘그렸다’고 해야 할 만큼 자형과 필체가 조악하다. 이때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 포착된다. 7장부터 ‘_二ト一カ 無明_二 因(爲)_二尸入乙ッ’ 구문이 반복되는데, [그림5_07:23]은 반복 구문의 첫 번째 구절이라는 점이다. 이것이 차츰 반복될수록 [그림5_08:03]처럼(6번째 반복 부분) 필체가 안정적이고 능숙해져 현토 능력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6]에서는 ‘尸’의 마지막 획이 비정상적으로 길게 빠져 있는데, 다른 ‘尸’와 비교해 볼 때 이는 현토자가 지닌 개성적 필체가 아니라 실수의 흔적으로 보인다. [그림7]은 ‘子’의 자형이 ‘_二’처럼 나타난 예이고, [그림8]은 ‘善男子’, [그림9]는 ‘名_二’, [그림10]은 ‘佛_一’이 예상되는 자리이다. 이들을 판독할 수 있었던 것은 구문과 문맥을 통한 추정이지 자형 단독으로만은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기형적인 모습이다.⁷⁾

○ 불필요한 획이 덧붙은 사례

7) 자형이 불명확한 사례는 다른 5종 자료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숫자만 놓고 보면 <화엄>이 <금광>과 유사할 정도로 빈도가 높고 다른 문헌들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자형이 왜곡된 정도를 <화엄>과 비교해 보면, 문맥이나 문법적 지식을 동원하지 않으면 도저히 판독되지 않는 예가 <금광>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11	그림12	그림13	그림14	그림15	그림16
					
13:11	14:07	06:12	06:13	07:12	14:03

<금광>에서는 구결자에 군더더기 자획이 덧붙은 경우가 빈번한데,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만큼 빈도가 높다. [그림11]은 ‘ㄱㅑ’에 이상한 획들이 덧붙여 있는 예이고, [그림12]의 ‘ㅈ’에는 가는 가로획이 덧그어져 있다. [그림13]에서는 ‘ㅅ’에 한 획이 더 있고, [그림14]에서는 ‘ㅍ’가 ‘戶’자처럼 한 획이 덧붙여 있다. [그림15]에서는 ‘ㅈ’와 ‘ㅅ’, [그림16]에서도 ‘ㅈ’에 군더더기 획이 덧붙여 있다. 애초에 쓰기로 마음 먹었던 글자와 써야 하는 글자가 달라 급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실수들이 아닌가 한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의 현토자의 능숙도 문제와 관련해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 소개한다. 현토자가 한문 문장을 해석하면서 구결을 현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 (2) A: 師子_ㄴ (臆長毫)獸_ㄴ 王_ㄴ 有_ㅅ 大神力、獨步_ㄴ 無_ㅅ 畏_ㄴ 無_ㅅ
 B: 師子_ㄴ (臆 長毫)獸_ㄴ 王_ㄴ 大神力 {有_ㅅ} 獨步_ㄴ 畏_ㄴ 無_ㅅ
 C: 師자가 臆長毫한 것은 獸의 왕이라, 大神力을 지니고, 홀로 걸되 두려워함 없고 <금광3, 02:02-04>

[그림17]을 보면 ‘大神力、’의 역독점부터 구결자의 굵기가 굵어지고 먹색도 진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먹의 농도와 굵기를 놓고 볼 때 현토자는 ‘王_ㄴ 有_ㅅ’ 다음에 ‘有_ㅅ’를 현토하고, 먹을 다시 짙은 후 ‘大神力、’을 현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장은 ①王_ㄴ, ②大神力、 ③有_ㅅ의 순서로 해석되는 문장이므로 현토자가 이 문장을 해석하면서 현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를 통해 현토자는 본인이 직접 해석하면서 현토하거나 구결문 낭송을 듣고 현토한 것이 아니라, 모본이 된 구결본을 보고 베끼는 방법으로 구결을 기입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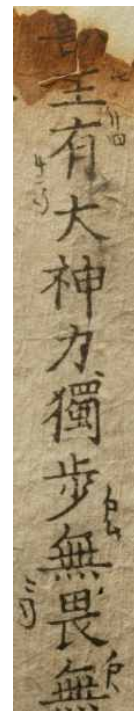


그림 17

2.5. 요약

8) 남권희(2002:631), 정재영(1998)에서도 이 자료는 직접 구결을 단 것이 아니라 어떤 자료를 모본으로 그대로 전사(베끼기)한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는데, 이 사례는 이런 추정을 확실하게 입증해주는 사례이다.

지금까지 다른 5종 자토구결과의 비교 속에서 <금광> 현토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다른 자료에서는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정도와 빈도의 측면에서 현격하게 차이를 보였던 부분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5종 자료들은 모두 하나의 필체로 통일되어 있다. <금광>도 전체적으로는 필체가 통일되어 있기는 하지만, 드문드문 별필이 섞여 있어 현토자가 적어도 한 명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⁹⁾
2. 구결자의 자간 간격이 고르지 않고 먹의 농담이 균질하지 않은 점이 다른 5종 자료와 큰 대비를 이룬다. 이는 현토의 능숙함(숙련도)의 문제와 직결되는 특징이다.
3. 다른 자료들은 0.1%~1%대의 오류에 머문 반면, <금광> 2.6%라는 높은 오류율을 보인다.
4. 수정의 예가 없거나, 있더라도 한 두 개의 수정 방식이 보였던 다른 자료와는 다르게, <금광>에서는 60여 개의 수정 사례와 8가지의 수정 방법이 발견된다.
5. 그러나 수정한 곳에서 또 오류를 보이거나, 수정되지 못한 부분이 20여 곳이 넘는다.
6. 미숙한 자형이나 판독이 불명확한 자형이 80여 곳 이상 보이며, 이 가운데 군더더기 획이 덧붙은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7. 한문을 해석하면서 해독 순서에 따라 현토하지 않고, 순서와 무관하게 위에서 아래로 베낀 흔적도 포착된다.

<금광>은 적어도 한 명 이상이, 한 번 이상 구결문을 읽어보고 현토-수정했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이고, 자간과 묵의 농담, 오류의 빈도와 미수정 오류, 기형적이고 미숙한 자형과 어순을 무시한 현토 순서 등을 볼 때, 다른 5종 자료의 현토자들에 비해 미숙함이 확연히 드러난다. 따라서 이 문헌은 모본이 되는 교재 성격의 자료가 아니라 익힘책 성격의 ‘공용 학습서’ 정도가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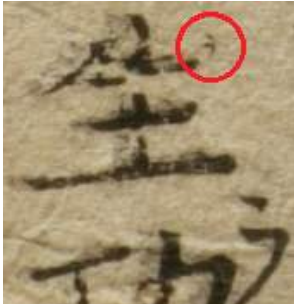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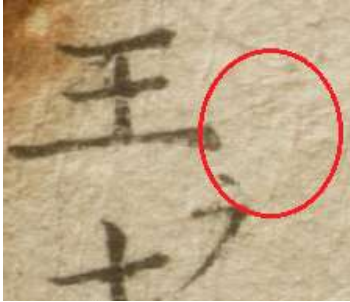
3. 점토 석독구결의 기입 양상

3.1. 현토 양상과 특징

<금광>에는 점토 구결이 ‘목서’와 ‘각필’로 기입되어 있다. 이는 ‘구결점’뿐만 아니라 ‘구결자’와 ‘부호’ 표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구결점	구결자	부호
--	-----	-----	----

9) 유민호(2010)에서는 금광명경의 현토자를 1명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유민호(2010)에서는 자료의 전반을 살피지 않고 ‘ㄹ, ㄴ, ㅁ, ㅂ, ㅅ, ㅈ, ㅊ’ 등 대표 글자만을 살펴본 것이고, 필자가 관찰했던 별필의 글자들은 유민호(2010)에서 다루지 않은 글자들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1인 현토자 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나 몇몇 별필을 제외하곤 <금광> 현토가 전반적으로는 필체가 통일되어 있다는 사실은 유민호(2010)의 주장과도 일부 부합한다.

묵서	 03:14	 03:08 ㄹ	 02:06 역독선
각필	 02:08 44(、)	 02:15 ㄹ	 05:10 역독선

지금까지는 이 자료에 ‘각필·묵서’가 중층적으로 기입된 사실만 강조가 되었고, 묵서와 각필의 출현 비율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아왔다. 그러나 <금광>의 점토 기입 양상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각필의 비율이 극도로 낮다는 사실이다. 이 자료에는 대략 2600(2,323개 점토+해독 미만영 점토+구결자+부호)여 개의 점토 및 부호들이 기입되어 있지만, 각필로 기입된 것은 점토의 경우 19개, 부호와 구결자까지 범위를 확대해도 39개뿐이다.

	실사 이전	2021년 자료 실사 이후
각필 점토만	53개 (1.37%)	19개 (0.49%)
각필 점토+구결자+부호	78개 (2%)	39개 (1%)

표 5

따라서 <금광>은 기본적으로 ‘묵서 점토 자료’이고, 극소수의 각필이 간헐적으로 기입된 자료라는 사실부터 정리되고 강조될 필요가 있다.

3.2. 수정의 관점에서 본 각필점

<금광>에는 적은 수의 점토가 ‘각필’로 기입되어 있다. 이들은 출현 양상에 따라 ‘각필’만 단독으로 기입된 것, 묵서와 함께 기입된 것으로 나뉘는데 이 현황부터 살펴본다.

<공동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

-각: 각필만 기입되어 있음

- 복: 각필과 목서의 기입 위치가 겹쳐 있음
- 잡: 각필과 목서의 기입 위치가 근접해 있음
- 잡+: 각필과 목서의 기입 위치가 멀리 떨어져 있음
- ? : 구결점인지의 여부가 분명치 않음
- { } : 존재하는 것은 확실하나 구결점을 해독에 반영하기 어려움

	점토	?	{ }	부호	구결자	합
각	2		2	17	1	22
복					1	1
잡	5					5
잡+	8	1	1	1		11
합	15	1	3	18	2	39

표 6

이렇게 <금광>의 각필의 수는 너무 적기 때문에, 각필만으로는 **한문 텍스트를 단 한 문장도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각필의 사용 목적은 목서 점토처럼 텍스트를 온전하게 번역하는 데 있지 않고, 무엇인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각필보다 목서 점토가 먼저 기입된 것이라면,¹⁰⁾ 각필 점토는 목서 점토를 보완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뒷받침할 사례들이 보이는데, 아래처럼 3가지 경우가 발견된다.

- ① 빠진 목서 점토를 보충하는 기능
- ② 목서 점토가 흐릿하거나 분명하지 않아 각필로 명시하는 기능
- ③ 목서가 뚜렷하게 있지만, 기입 위치(위치 변이)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

먼저 ‘① 빠진 목서 점토(부호)를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사례를 살펴본다. ‘목서 점토’ 없이 ‘각필 점토’만 기입되어 있는 사례들은 모두 누락(또는 생략)된 ‘목서’ 점토를 보충하는 기능을 보인다.¹¹⁾

(3) <금광3, 02:06-08>

P: 如[ㄷ]是、第五心[二]上[七]種種[七]功德法藏[3+]猶[二]未[二]ハセノ]滿足ッ尸、

Q: 是 如[ㄷ] 第五心[二] 上[七] 種種[七] 功德法藏[3+] 猶[二] 滿足ッ尸 未[二]ハセノ

A: 如是[11(·)]第五心[22~32(·)]上[42(·)]種種功德法藏[44(·)-각]猶[22~32(·)]未滿[합부]足[22~32(·),15~24(/)#빼침선(23~24),21(·)]

B: 如是[ㄷ]第五心[二]上[七]種種功德法藏[+]猶[二]未滿足[二,ッ,ハセ,ノ]

10) 각필이 먼저 기입된 후 목서가 기입되었다면 각필 홈에 먹 고임 현상이 나타난다. 반면 목서가 먼저 기입되고 각필이 그 위를 지나간 것이라면, 각필에 의한 홈 때문에 목선이 살짝 흰 것처럼 보이며 각필의 진행 방향으로 먹이 묻어(배어)나오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3장 7행의 ‘身命[34(·),15~25(-)-각,35(·),2자합부,경계선-각]’을 보면, 2자합부의 목선과 15~25(-)의 각필이 겹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때 먹 고임은 전혀 없고 목선의 흰 현상을 통해 목서가 먼저 기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목서 점토가 먼저 기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겹침이 발생한 용례가 워낙 적고, 원본 확인을 거쳐야 확인할 수 있는 문제라 사실이 아닌, 가정문의 형태로 이런 사실을 기술했을 뿐이다.

11) 그렇다고 목서 구결이 생략/누락된 곳에 반드시 각필 구결이 찍혀 있는 것은 아니다.

C: 是 如^ㄱ 第五 心^ㄴ 上^ㄷ 種種 功德法藏⁺ 猶^ㄴ 滿足 未^ㄴ ^ㄴ ^ㄴ ^ㄴ (ㄷ)ノ

D: 이와 같이 第五 心이 위의 갖가지 功德法藏에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

(4) <금광3, 03:07>

P: 二者不[ㄴ^ㄴ ^ㄴ]惜[ㄴ、]身命乙、不[ㄴ^ㄴ ^ㄴ ^ㄴ]生[ㄴ、]安樂止息ノ^ㄴ ^ㄴ ^ㄴ之觀乙、

Q: 二者 身命乙 惜^ㄴ 不^ㄴ ^ㄴ ^ㄴ 安樂止息ノ^ㄴ ^ㄴ ^ㄴ{之} 觀乙 生^ㄴ 不^ㄴ ^ㄴ ^ㄴ

A: 二者不惜身命[34(·),15~25(-)-각,35(·)]不生安樂止息[24(\\),42(·)]之觀[34(·),15~25(-),35(·),55(·)]

B: 二者不惜身命[乙,ㄴ,^ㄴ]不生安樂止息[ノ^ㄴ,^ㄴ]之觀[乙,^ㄴ,^ㄴ,^ㄴ]

C: 二者 身命乙 惜^ㄴ 不(ㄴ)^ㄴ 安樂止息ノ^ㄴ ^ㄴ ^ㄴ{之} 觀乙 生^ㄴ 不(ㄴ)^ㄴ ^ㄴ(ㄴ)

D: 둘째, 身命을 아끼지 않고 安樂止息하는 觀을 내지 않고 하며,

(3)에서는 ‘功德法藏’에 처격조사가 필요하지만 묵서 점토가 나타나지 않고, (4)에서는 ‘不惜身命’에 부정화소 ‘ㄴ’이 필요하지만 묵서 점토가 나타나지 않는다. 즉 묵서에서 누락된 점토를 각필로 보충해야 현토가 온전하게 완성된다. ‘-각’으로만 나타나는 각필 점토는 2회 출현하는데, 두 예 모두 묵서 점토를 보완하는 기능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② 묵서 점토가 흐릿하거나 분명하지 않아 각필로 명시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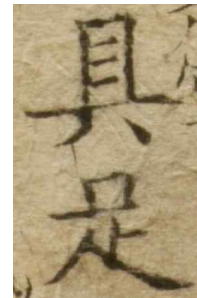
(5) <금광3, 05:06-07>

A: 五者一切諸佛[42(·)]不共法等[52(/)-잡]及[32~42(·)]一切智智[53(·),24(\\),44(·)]具[2자합부]足[역독선(좌상향),2자합부역독선-각]灌頂智能[55(·),+25(/),52(·)]

B: 五者一切諸佛[ㄷ]不共法等[ㄴ ㄴ ㄴ]及[ハ]一切智智[ㄷ,ノ^ㄴ,+]具足灌頂智能[ㄴ,^ㄴ ^ㄴ ^ㄴ,^ㄴ ㄴ ㄴ ㄴ]

C: 五者 一切 諸佛^ㄷ 不共法 等^ㄴ ㄴ ㄴ ㄴ 及^ハ 一切 智智^ㄷ ^ㄴ ^ㄴ ^ㄴ ^ㄴ 灌頂 智能 具足(ㄴ)ㄴ^ㄴ ^ㄴ ^ㄴ ^ㄴ ㄴ ㄴ ㄴ

D: 다섯째, 일체 모든 부처의 不共法 등이니 및 일체 智智니 하는 것에 대해 灌頂의 智와 能을 갖추며 하는 것이다.



‘具足’은 합부역독선이 기입되어 있는데, 묵서 부호의 경우 足자의 좌상향 역독선은 너무 희미해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¹²⁾ 각필 합부역독선이 2글자를 관통한 우하향 반곡선으로 기입되어 있는데, 각필을 통해 묵서 부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예이다.

다음은 ③ 묵서가 있지만, 기입 위치(위치 변이)에 대한 의견이 달랐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이다. 자형에 따른 기준 위치를 달리 파악하거나, 묵서의 점토 위치가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세밀한 위치를 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6) <금광3, 04:13-14>

12) 실제로 2008년 3차례에 걸친 강독회와 2019~20년 2차례의 강독 때까지 ‘足’의 좌상향 역독선은 판독되지 못했고, 김지오(2021)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그리고 각필 부호와 묵서 부호가 동일한 기능을 위해 동시에 기입된 예는 2예뿐인데, 모두 묵서 부호가 비정상적으로 기입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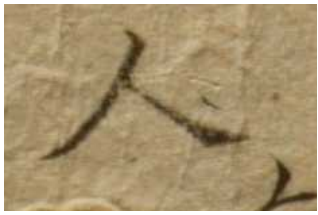
- A: 二者(觀一)切諸法[22~32(·)]最妙[15(·)]一切垢清淨[=45(/)-잡+,22(·)]心得[15(·)]安住[55(·)]
 B: 二者觀一切諸法[11]最妙[15(·)]一切垢清淨[11]心得[15(·)]安住[55(·)]
 C: 二者 一切 諸法11 最妙(11)15(·) 一切 垢 清淨11 觀(11)15(·) 心 得15(·) 安住(11)55(·)
 D: 둘째, 一切 諸法이 最妙하여서 一切 垢가 清淨함을 觀하여 마음이 능히 편안히 머무르며,

		
2004년 촬영본	2019년 A본(들어간 점)	2019년 B본(튀어나온 점)

‘淨’의 경우 끝이 뾰족한 자형이기 때문에 ‘45’의 위치는 기준 선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현토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묵서 현토자는 ‘丁’의 세로획을 기준 사각형의 우변의 끝으로 보았고, 각필 현토자는 ‘尹’의 오른쪽 모서리를 기준 사각형의 끝으로 보아 변이 위치에 대한 해석이 묵서와 각필이 다른 예이다.

(7) <금광3, 05:11-12>

- A: 愚人[53(·)]智人[53(·),+35(\)-잡+](皆悉攝)受是波羅蜜義[55(·)]
 B: 愚人[53(·)]智人[53(·),+35(\)-잡+]皆悉攝受是波羅蜜義[55(·)]
 C: 愚人53(·) 智人53(·)+35(\)-잡+ 皆 悉 攝受(55(·)) 是 波羅蜜 義(11)55(·)
 D: ⑤愚人이니 智人이니 하는 이를 다 攝受하는 것이 波羅蜜의 뜻이며

		
2004년 촬영본	2019년 A본(들어간 점)	2019년 B본(튀어나온 점)

묵서로 표기한 ‘+35(\)’ 위치가 너무 낮다거나 아니면 획에 가깝다고 판단하여 조금 높게, 조금 더 멀리 수정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잡+(묵서와 각필이 동시에 기입되어 있으나 거리가 멀리 떨어진 경우)’는 이런 위치를 섬세하게 교정하고자 했던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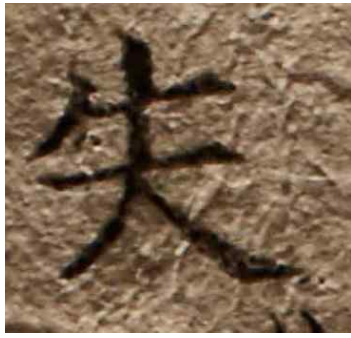
그러나 각필의 사용 목적을 추정해볼 수 있는 예가 있는 반면, 나머지는 기입 목적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다.

(8) <금광3, 05:10-11>

- A: 生死[33(·)]過失[22~32(·)-잡+,55(·)-잡+](涅槃功)德正覺正觀[+25(/)]是波羅蜜義[55(·)]
 B: 生死[11]過失[11,15(·)]涅槃功德正覺正觀[11]是波羅蜜義[55(·)]

C: 生死 1 過失 ㄹ ㄴ 涅槃 功德 正覺 正觀 ヲ 尸 失 是 波羅蜜 義(ㄹ) ㄴ

D: ④生死는 過失이며 涅槃은 功德이라 하여 바로 깨닫고 바로 보는 것이 波羅蜜의 뜻이며

		
2004년 촬영본	2019면 A본(들어간 점)	2019년 B본(튀어나온 점)

(9) <금광3, 13:04-05>

A: 敬禮[11~12(·),41(·)#41~51(·)]無譬喩[22(·),+15~25(-),54(·)-잡+] 說深無相[35(/),53(·)]義[34(·),지시선]

B: 敬禮[ㄱ, ㄴ, x 1]無譬喩[ㄴ, ㄹ, ㄱ, ㄴ] 說深無相[1 ㄷ, ㄴ]義[ㄷ]

C: 敬禮(ㄴ) ㄱ ㄴ x 1 譬喩(ㄴ) ㄴ ㄹ 無 ㄴ 深無相義 ㄷ 說 1 ㄷ ㄴ

D: “敬禮합니다, 譬喩할 바 없으시어 深無相義를 說하신 것을.

		
2004년	2019년 A본	2019년 B본

각필의 사용 목적은 사실 불분명하다. 그러나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점은 각필은 한문을 전면적으로 번역할 의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며, 그 중 일부는 점토를 보완하거나 수정하기 위함으로 보이는 예도 존재한다.

3.3. 수정의 관점에서 본 세필 구결자

<금광>에도 점토와 관련된 구결자가 나타난다. 이 역시 목서로 된 세필자와 각필로 된 구결자, 이렇게 두 종류가 모두 나타난다. 우선 출현 양상부터 정리해 보면, 구결자는 자료의 앞 부분과 뒷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중간 부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12장	13장	14장	15장	합
묵서	2	3		1	2	×	6	3	2	19
각필	1		1			×				2

표 7

세필이나 각필로 기입된 구결자는 ‘乙’과 ‘ㄱ’, ‘乙火’만 다회 출현하고 나머지 구결자들은 단 한 번씩만 출현한다. <유가> 점토 구결에서도 ‘乙’과 ‘ㄱ’가 구결자 중 가장 많이 보인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유가>의 경우 기입되는 구결자는 1음절 글자이며 기입 위치도 기준 사각형 右下 방향이 대부분인 것에 비해, <금광>에서는 多音節 구결이 많으며 구결자의 출현 위치도 자유롭다는 점이 다르다. 특히 출현 위치에서는, 점토가 있는 한자 옆에 구결자를 기입하지 않고, 한자와 멀리 떨어진 欄上과 欄下에 구결자를 가로로 놓혀 세필 구결토를 기입한 모습은 <유가>에서는 볼 수 없다.

빈도	금광 출현 구결자(세필, 각필)
4회	乙
3회	ㄱ
2회	乙火
1회	[1음절] ㄴ, ㄹ, 火 [2음절] ㄴㄹ, ㄹㄴ, 火 [3음절] ㄴㄹ火, ㄹㄴ火, ㄴ火 [4음절] ㄴㄹ火火, ㄹㄴ火火 [5음절] ㄴㄹ火火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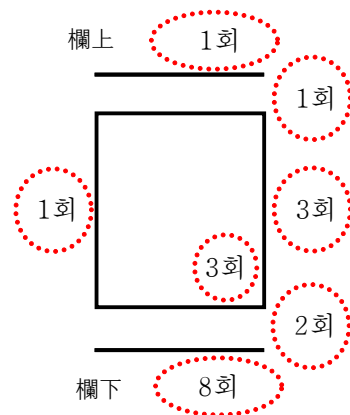


표 8

그렇다면 이런 세필 구결자를 기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구결자의 경우 기입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일부는, 수정의 관점에서 해석해 볼 때 ①누락된 점토를 보충하기 위해, ②점토의 위치가 모호해 정확한 독법을 명시하기 위해, ③회귀 토의 독법을 명시하기 위해, 즉 일종의 수정을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예들도 나타난다.

첫 번째, 누락된 점토를 보충한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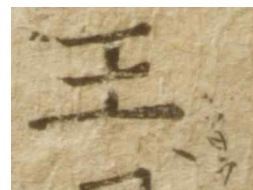
(10) <금광3, 02:01>

A: (譬如寶須彌)山王[+45(·),11~21(·),구결자(ㄴㄹ火)]

B: (譬如寶須彌)山王[x尸入乙,ㄴㄹ火]

C: (譬 寶須彌)山王 (如)x尸入乙 ㄴㄹ火

D: 비유하면 寶須彌山王 같은 바 되어서



점토구결은 구결말에 해당하는 점토를 몰아서 단다. 따라서 구결 말인 ‘王’자에는 ‘如’에 필요한 ‘x尸入乙-’가 현토되어 있고, 비교의 대상인 ‘寶須彌山王(=佛)’을 높이기 위한 객체 존대와 후행절과 연결시키기 위한 연결어미가 필요한 환경이다. 그러나 점토는 ‘+45(·),11~21(·)’밖에 기입되어 있지 않아 구결자 ‘ㄴㄹ火’까지 추가해야 현토가 완성된다.

두 번째는, 점토의 위치 파악이 모호해 점토의 독법을 확실히 지시하기 위해 구결자를 기

입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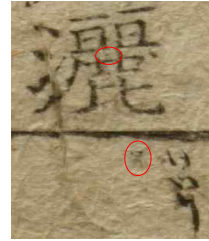
(11) <금광3, 06:04-06>

A: 種種妙花[34(·)]悉皆散灑[=33~34(·), 구결자(ㄹ 1)]

B: 種種妙花[ㄷ]悉皆散灑[ㄹ 1]

C: 種種 妙花ㄷ 悉 皆 散灑(ㄷ)ㄹ 1

D: 갖가지 妙花를 다 散灑하여서



‘灑’에 기입된 ‘33~34(·)’이 위치상 정중앙인 33(·)으로 오인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구결자를 부기하여 이 점이 ‘ㄹ 1’을 의미하는 ‘33~34(·)’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된다.

(12) <금광3, 14:03-14:07>

A: 見佛[34(·), 11~12(·), 35(·)]不[역독선]離[역독선]世尊
[34(·), 35(·), 22(·), 구결자(ㄷ 3)]

B: 見佛[ㄷ, 白, ㄷ]不離世尊[ㄷ, ㄷ, 3]

C: 佛ㄷ 見白ㄷ 世尊ㄷ 不離(ㄷ)ㄷ(ㄷ) 3

D: 부처님을 뵈고 世尊을 여의지 않고 하여



‘尊’에는 ‘22(·)’ 오른쪽에 점토로 오인할 만한 묵점(선?)이 있어, 사선이나 쌍점이 아니라 ‘(ㄷ) 3’에 대응되는 점임을 난하의 구결자를 통해 독법을 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는 자료 안에서 1회만 출현하는, 빈도가 낮은 구결점(회귀토)이라 독법을 명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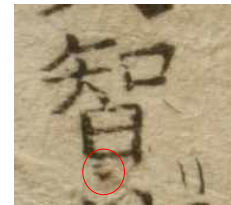
(13) <금광3, 03:24-25>

A: 一者一切諸佛[53(·)]菩薩[53(·)]聰慧大智
[22~32(·), 52~53(:)#=53(:), +35(\), 구결자(ㄷ 1 ㄷ ㄷ)]{45(·)}供養
[35(·)]親近[35(·), +13(·)]

B: 一者一切諸佛[ㄷ]菩薩[ㄷ]聰慧大智[ㄷ, ㄷ, ㄷ, ㄷ, ㄷ]供養[ㄷ]
親近[ㄷ, 白, ㄷ, ㄷ]

C: 一者 一切 諸佛ㄷ 菩薩ㄷ 聰慧大智ㄷ ㄷ, ㄷ, ㄷ, ㄷ, ㄷ 供養(ㄷ)
ㄷ 親近(ㄷ)ㄷ(ㄷ) 白 ㄷ, ㄷ, ㄷ

D: 첫째, 一切 諸佛이니菩薩이니 聰慧大智이신 이이니 하는
이를 공양하고 친근하고 하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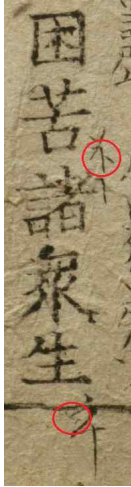


‘52~53(:)’는 이 자료에서 단 1회밖에 출현하지 않는 회귀 토이기 때문에 난하에 독법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세필의 구결자를 한자 옆에 달지 않고 3자 아래의 ‘欄下’에 매우 작고 가는 묵서로 기록한 것이 특이하다.¹³⁾ 이처럼 세필 구결자 중 일부는 점토 구결을 수정 보완하는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필 구결자’와 ‘현토의 수정 문제’에서 생각해 볼 점이 한 가지 있다. ‘이런

13) 이 점토는 위치 상 52(:)으로도 볼 수 있지만 52(:)는 ‘ㄷ ㄷ ㄷ ㄷ’로 해독되므로 문맥에 맞지 않는다. 한편 53(:)은 자토와의 대응을 고려하면 ‘ㄷ ㄷ ㄷ’ 정도 짐작되는, 이 점토가 52와 53의 사이에 있다는 사실과 대응되는 자토가 ‘ㄷ ㄷ ㄷ’라는 점을 고려하면 53(:)과 변별되는 52~53(:)일 가능성이 있다.

세필의 구결자가 과연 점토 구결(수정)만을 위한 요소인가?’하는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금광>은 자토와 점토가 함께 기입되어 있는 자료라는 점, 또한 자토의 오류가 많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정이 이루어졌음을 상기해 보면, 세필의 구결자들도 자토 구결을 교정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실제로 세필자 중에는 자토 석독구결의 현토를 교주한 듯한 예도 확인된다.

(14) <금광3, 13:12> ✓ 자토구결 P: 困苦 ヲ(ㄸ?) 1 諸衆生 ㄸ+ 世尊 ㄸニシ 普 ㄸ 救濟 ヲニロ尸カ Q: 困苦 ヲト 1 諸 衆生 ㄸ+ 世尊 ㄸニシ 普 ㄸ 救濟 ヲニ로尸カ ✓ 점토구결 A: 困苦[21(/·)]諸衆生[23(·),44(·),구결자(ㄸト 1)] 世尊[24(배침선)]普[22~32(·)]救濟[+45~55(·)]世尊[x ㄸ]普[ㄸ]救濟[x ㄸ] B: 困苦[X]諸衆生[ㄸ, +]世尊[x ㄸ]普[ㄸ]救濟[x ㄸ] C: 困苦[X] 諸 衆生 ㄸ+ 世尊 x ㄸ 普 ㄸ 救濟 x ㄸ D: 困苦한 모든 중생에게 世尊이시라야 널리 救濟하시며		
---	--	---

자토구결 중 ‘苦’자에 현토된 구결을 보면 자형이 기이하다. ‘ㄸ’에 가까운 자형이지만 첫 획이 짧아 명확한 ‘ㄸ’도 아니며, 더욱이 관형사형 어미 앞에 ‘ㄸ’가 오는 것도 비문법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난하의 세필 ‘ㄸト 1’은 자토의 부정확한 자형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악되기도 한다.¹⁴⁾

이처럼 세필자들 중에는 자토와 유관해 보이는 구결자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세필자는 점토를 위한 요소로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다른 자토 자료, 다른 점토 자료들에서의 출현 현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토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자토를 수정하는 목적으로 세필자를 사용한 현상을 볼 수 없다는 점과 대신 점토 구결에서는 점토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구결자가 흔히 사용된다는 경향이 참고가 된다.

둘째, 형태적인 특색이 다르다는 점이다. 자토의 먹색, 필체를 고려해 볼 때 세필구결자는 자토와는 다른 현토자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붓의 크기나 두께를 고려하면 묵서 점토를 기입던 세필 붓이라야 <금광>에 나타나는 세필 구결자의 굵기와 가늘기의 구분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자료에는 묵서로 된 세필 구결자 이외에도 각필 구결자도 나타나기 때문에(각필은 점토 구결에만 출현하므로) 점토를 위한 요소로 파악해야 한다.

셋째, 구결자가 기입되어 있는 위치이다. 한자와 멀리 떨어져 ‘난상, 난하’에 기입된 경우

14) 실제로 공동 발제문에서도 “문맥상 ‘困苦ㄸ’의 관형사형의 표기로 보아야 한다는 점과 아래 변란 밑에 ‘ㄸト 1’으로 판독될 수 있는 세필 구결자가 있는 점 등을 중시하여 ‘ㄸト 1’으로 교감하였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것이 자토를 위한 요소가 아니라 점토를 위한 요소로 파악하며, ‘ㄸト 1’이 세필로 기입된 이유는 ‘苦’자에 기입된 ‘21(/·)’이 유일 예라 점토의 독법을 지시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한다.

를 제외하고, 모든 세필(각필) 구결자는 점토 구결이 달려야 할 위치에 기입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앞서 02장 01행에 나타났던 ‘譬如寶須彌山王[+45(·),11~21(·)], 구결자(ㄴ ㅅ ㅅ)’의 경우 이 구결자가 자토를 위한 것이었다면 구결 말인 ‘王’자에 기입되어서는 안 되고 ‘如’자에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구결자들이 누락된 점토를 보완하고, 점토의 위치 변이나 희귀토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금광>에서는 ‘ㄴ ㅅ ㅅ’의 예처럼 자토와 유관해 보이는 구결자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이며, 세필 구결자는 점토를 위한 요소(일부는 점토를 수정/보완하기 위함)로 파악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3.4. 기타 점토의 오류와 수정 양상

지금까지 각필 점토 구결과 세필 구결자가 점토의 오류 내지는 불완전한 현토를 수정 또는 보완하는 기능을 일부 지니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 밖의 기타 오류와 수정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¹⁵⁾

점토 구결은 자토에 비해 오류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 1차적으로는 구결점의 판독 문제가 걸려 있고, 2차적으로는 구결점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그 점토가 어떤 문법 형태와 대응되는지 미해독된 곳이 많기 때문이다.

먼저 점토에서는 왜 오류 판별이 어려운지,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한다.

(15) A: 善男子[22(·)]初菩薩地[44(·)]是相[22~32(·)]前現 [+13(\)#+13(\)] <05:23-25> B: 善男子[ㄴ]初菩薩地[+]是相[ㅅ]前現[ㄴ ㅅ ㅅ] C: 善男子ㄴ 初菩薩地+ 是相ㅅ 前現[ㄴ ㅅ ㅅ] D: ①선남자여, 보살의 초지(初地)에서는 이런 모습이 앞에 나타나되, ※ A: 善男子菩薩四地[44(·)](是)相前現[+13(\)] <06:04> B: 善男子菩薩四地[+](是)相前現[ㄴ ㅅ ㅅ]	 05:25 06:04
--	--

<금광> 5장 23행부터는 ‘十菩薩地’를 설하는 부분으로, 初地부터 十地까지 ‘00菩薩地+ ㄴ ㅅ ㅅ’라는 동일한 문장 패턴이 반복된다. 따라서 공동발제문처럼 <05:25>의 現자에 달린 점토를 ‘13(\)’으로 판독하여 ‘ㄴ ㅅ ㅅ’로 해독한다면, 반복 패턴에서 벗어난 유일한 예이므로 이 현토는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現의 역사선을 ‘+13(\)’로 파악한다면, ‘ㄴ ㅅ ㅅ’가 되어 정상적인 현토로 처리된다.¹⁶⁾ 이처럼 점토의 판독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오류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오류의 문제는 적어도 판독과 해독 차원에서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자토보다는 불리한 면이 많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점은 자토 구결처럼 점토에서는 명백한 오류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특히 자토 구결에서 나타났던 110여

15) 오류는 크게 점토 부분과 부호로 구분될 수 있는데, 부호의 문제에 대해서는 김지오(2021)에서 다뤄진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점토 오류 중심으로 살펴본다.

16) <06:04>에서는 동일한 문장이 반복되는데, 여기에서는 ‘+13(\)’으로 처리하고 있다.

개의 오류들이 점토에서 어떻게 현토되었는지를 대조해보면, (점토가 없는 곳과 이해독 점토로 처리된 곳과 역독점 오류처럼 점토와는 무관한 오류들을 제외하고선) 점토는 정확하게 현토되어 있다. 자토에서는 2.6%라는 높은 오류율을 보인 반면, 점토에서는 적어도 자토의 오류 부분에서만큼은 오류율 0%로, 자토보다 정확도가 훨씬 높다.¹⁷⁾

이 외에 오류로 볼 수 있는 예가 있다. 원인과 이유를 나타나는 ‘故’ 구문에서 현토가 혼란스럽게 나타난 예가 있어 오류일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한다. ‘… 1 入 3 故…’의 경우 ‘1 入 3’를 포함하는 점토인 ‘43(l), 43(/), 43(:)’ 등이 ‘故’자 앞 글자에 현토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토 패턴인데, 이런 점토가 ‘故’자에 달리거나 아니면 두 곳에 모두 달리거나 하는 예들이 나타난다.

(16) <금광3, 02:01-02>

A: 如大地[22~32(·)]持一切(法)事[53(·),=+35(\)#35(\)]故[43(l),21(·)]

B: 如大地[11]持一切(法)事[1,ノ尸乙]故[1 入 3,ノ]

C: 大地11 一切 (法) 事1,ノ尸乙 持(尸) 如(支ッ)1 入 3 故ノ

D: 大地가 一切 法이니 事이니 하는 것을 지니는 것과 같은 까닭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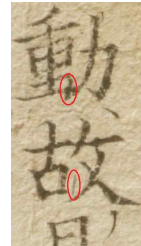
(17) <금광3, 07:11-12>

A: 諸煩惱行[23(·)]不能令動[23~24(·),32~42(·),15(·),43(l)]故[43(l),21(·)]

B: 諸煩惱行[1]不能令動[(ハ)11,ハ,ノ牙,1 入 3]故[1 入 3,ノ]

C: 諸 煩惱 行1 動 令11(尸) 能 不ハノ牙1 入 3 故ノ

D: 모든 煩惱行이 능히 움직이게 할 수 없는 것인 까닭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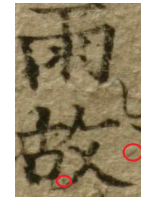
(18) <금광3, 13:10-11>

A: 一切弟子衆[23(·),44(·)] 飽滿法雨[34(·),23~24(·),33~44(/)]故[+35(/),=43(·),21(·),+45~55(·)]

B: 一切弟子衆[1,+]飽滿法雨[乙,ハ11,セ1]故[ッ尸乙,3,ノ,X가]

C: 一切 弟子衆1+ 法雨乙 飽滿ハ11セ1ッ尸乙 故ノX가

D: 모든 弟子들에게 法雨를 飽滿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하시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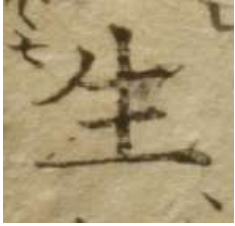
(16)은 ‘1 入 3 故ノ’ 구문이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다. 이곳에서만 ‘43(l)’이 ‘故’자에 현토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故’ 앞 글자에 현토가 된다. (17)에서는 ‘1 入 3’에 해당하는 ‘43(l)’이 ‘動’에도 기입되어 있고 ‘故’에도 중복 기입되어 있다. (18)에서도 ‘故’가 讀字라면,¹⁸⁾ ‘故’에 달린 ‘+35(/),=43(·)’은 앞 글자에 달리는 것이 일반적인 현토 방식이다. (16)과 (18)은 ‘지시선’을 통해 아랫 글자에 현토된 사실이 표시되어야 하지만, 지시선과 같은 부호

17) 자토 구결과 반복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어, 오류 가능성을 생각해 볼 부분들이 존재한다. 1) ‘何者爲五’ 구문으로, 자토는 “11ハロノ令ロッナX入1”로 나타나는 반면 점토에서는 “(11)ハノ令ロッナX入1”로 반복되어 ‘ロ’가 없이 나타난다. 2) 선어말어미 중 자토에서는 ‘-1セ/1セ1’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점토는 ‘-1セ1’으로 반복해 나타나는 곳이 있다.

18) ‘故’의 현토 현상을 오류로 보기 위해서는 ‘故’가 讀字로 읽힌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시한 사례들은 ‘故’가 부독자임을 방증하는 근거들로 사용될 수 있다. sktot(2019)를 비롯해 학계에서는 ‘故’를 讀字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논의를 진행했음을 밝혀둔다.

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류로 추정된다.

다음은 점토의 수정 양상에 대해 살펴본다. 점토도 자토처럼 위치를 잘못 기입하는 실수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럴 때 점토를 지우고 다시 기입하는데, 이런 수정은 <유가> 각필 점토 구결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유가> 권 3·5·8을 통틀어도 8회 정도의 수정 흔적이 발견되는 반면, <금광>에서는 30여 곳 이상 점토를 지운 흔적이 발견되어 <유가>에 비해 수정이 빈번한 편이다.

유가사지론 수정		금광명경 수정	
			
<유가03 17:03>	<유가08 15:02>	<금광> 13:18	<금광> 08:09
33 위치에 무언가 지운 듯한 흔적(목 번짐)	‘42(\\)’의 역사선을 그었다 지우고 다시 획 위에 재기입	‘中’자의 54 위치에 뭔가 썼다가 지운 흔적. 지운 오염 때문에 윗 글자인 ‘會’에 ‘54(·)’를 현토	23~24(·) 위치에 기입했던 점토를 지우고 그 위치에 다시 (·)을 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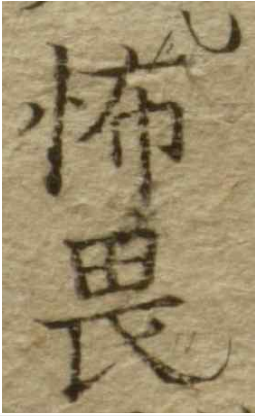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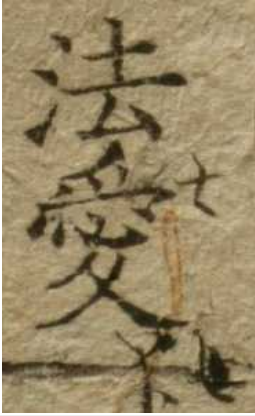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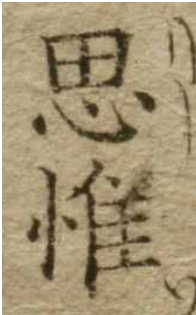
자토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수정법이 사용되었던 것과 달리, 점토의 수정 방식은 ‘문지르기(뭉개기)’, 한 가지 방식만 확인된다.

한편 점토의 수정에 있어 특징적인 현상이 포착되는데, 점토 구결의 현토자는 특히 ‘사향우눈썹(·)’ 기입에 매우 미숙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7장과 8장에는 ‘... ヌ ト 1 ㄱ 無明乙 因 ヌ ㄱ’라는 문장이 16번 반복이 된다. ‘ㄱ’에 해당하는 ‘14(·)’을 지웠다 다시 기입하는 미숙한 모습이 구문이 끝날 때까지 반복된다.

○ 因無名 반복 구문과 ‘14(·)’ 현토 양상 <07:16~0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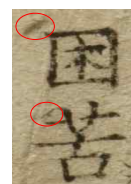
- 1) 相[14(·)]道[34(·),31(·),지시선] : 道에 ‘14(·)’를 지우고 윗 글자에 다시 기입
- 2) 怖[14(·)]畏[지시선] : 畏에 ‘14(·)’를 지우고 윗 글자에 다시 기입
- 3) 罪[14(·)]過[22~32(·),지시선] : 過에 ‘14(·)’를 지우고 윗 글자에 다시 기입
- 4) 動踊[14(·)]
- 5) 不具聞持陀羅尼[34(·),15~25(-),32~42(·),14(·)]
- 6) 微妙淨法[42(·)]愛[14(·)] : ‘愛’자의 14위치가 뭉개져 있음
- 7) 思惟[=14(·)] : 14위치에 무언가 기입했다가 먹으로 지운 듯함.
- 8) 了了顯現[14(·)]
- 9) 不現[35(·),14(·)]
- 10) 未得方便[34(·),=32~42(·),=14(·)] : 14(·)가 기입된 위치의 왼쪽이 뭉개져 있음
- 11) 可得[15(·)]度[42(\\),34(\\),=14(·)] : 14(·)가 기입된 위치의 왼쪽이 뭉개져 있음

- 12) 未能攝持[32~42(·),14(/·)] : 14(/·)가 기입된 위치의 왼쪽이 뚫개져 있음
 13) 自在[=14(/·)]
 14) 未足[32~42(·),=14(/·)] : 14(/·)가 기입된 위치의 왼쪽이 뚫개져 있음
 15) 微細智礙[22~32(·),=14(/·)] : 14(/·)가 기입된 위치의 왼쪽이 뚫개져 있음
 16) 未得不更[22(·)]生[32~42(·),23~24(·),15~24(/),42(·)]智[34(·),=32~42(·),=14(/·)]
 : 14(/·)가 기입된 위치의 왼쪽이 뚫개져 있음

			
07:16 怖[14(/·)]畏[지시선]	07:17 罪[14(/·)?]過[22~32(·),지시선]	07:19 不具聞持陀羅尼[34(·),15~25(-),32~42(·),14(/·)]	07:20 微妙淨法[42(·)]愛[14(/·)]
			
07:22 思惟[35(·)]	07:23 不平等[45(·)]思惟[=14(/·)]	08:02 未得方便[34(·),=32~42(·),=14(/·)]	08:03 難[24(·)]可得[15(·)]度[42(·),34(/),=14(/·)]

한편 <금광>에서는 ‘사선 우눈썸(/·)’이 ‘... ット 1 刀 因無明’ 구문에서 반복되는 16회의 ‘14(/·)’를 제외하고 ‘ット 1’ 정도로 추정되는 ‘21(/·)’이 한 번 더 출현하는데, ‘21(/·)’에서도 또 수정의 흔적이 나타나는 점이 흥미롭다.

- (19) A: 困苦[21(/·)]諸衆生[23(·),44(·),구결자(ット 1)]
 B: 困苦[X]諸衆生[ㄹ, +]
 C: 困苦X 諸 衆生ㄹ+



D: 困苦한 모든 중생에게

(19)의 ‘困’을 보면 ‘11(/·)’을 기입하였다가 지운 흔적이 나타나고, 다시 ‘苦’자에 ‘21(/·)’을 기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금광>에서는 ‘/·’이 지속적으로 수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점토의 현자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사선우눈썹(/·)’의 현토에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3.5. 요약

지금까지 <금광>에 기입된 점토 구결의 기입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오류와 수정의 관점에서의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금광>에는 묵서와 각필 점토와 부호가 함께 기입되어 있지만, 각필은 전체 점토 구결의 1%로, 그 사용이 미비하다.
2. 각필은 한문 문장을 해석하기 위한 용도로는 보기 힘들며, 그 중 일부는 묵서 점토를 수정·보완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 세필 구결자도 일부는 점토 구결을 수정·보완할 목적으로 사용된 예들이 보인다.
4. 점토 구결의 판독과 해독의 불완전성으로 오류를 판단하기가 자토보다 어렵다. 그러나 자토에서 오류로 지적되었던 110여 곳이 점토에서는 정확하게 현토되어 있기 때문에, 자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토의 정확도가 높다.
5. 그러나 ‘故’ 구문에서 혼란스러운 현토(지시선 없이 점선을 아랫 글자에 달거나 또는 위 아래 두 글자에 중복되게 현토)가 반복되고 있어 오류로 의심된다.
5. 또한 점토를 현토했다가 지운 예가 30여 곳 나타난다. 이런 수정은 점토 <유가>와 비교하면 수가 많은 것이고, 수정의 사례 대부분이 ‘사선우눈썹(/·)’의 현토에서 반복된다는 점이 특이하다.

참고문헌

- 구결학회(2008), 『合部金光明經』 제3차 공동발제문(과일본).
- 김지오(2010), 『合部金光明經』 字吐口訣의 誤記, 『구결연구』 25.
- 김지오(2021), 『합부금광명경』의 부호 연구, 『어문연구』 49-1.
- 남권희(1998), 高麗 口訣本 <(合部)金光明經> 卷3에 관한 書誌的 考察, 『서지학연구』 15.
- 남권희(2002),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청주: 淸州古印刷博物館.
- 안대현(2019),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 『合部金光明經』 권3의 서지적 특징」, 『古印刷文化』 26, 3-36.
- 유민호(2010),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서체 연구- 금광명경 권3과 유가사지론 권20을 중심으로-, 『구결연구』 25.
- 장경준 외(2021), 『역주 원고 초안』(한국연구재단 지원 “중층적 구결 자료 <합부금광명경> 권3의 종합적 연구” 중간 결과물), 미간행.
- 장경준(2005), 『瑜伽師地論 點土釋讀口訣의 解讀 方法 研究』(國語學叢書58), 태학사
- 장경준(2019), 「『합부금광명경』 권3의 점토구결 기초 연구」, 『古印刷文化』 26, 79- 98.
- 장경준 외(2021), 『역주 원고 초안』(한국연구재단 지원 “중층적 구결 자료 <합부금광명경> 권3의 종합적 연구” 중간 결과물), 미간행.
- 장윤희(2019), 「『合部金光明經』 권3의 한국어사 자료적 가치」, 『古印刷文化』 26, 37- 56.
- 정재영(1998), 합부금광명경(권3) 석독구결의 표기법과 한글 전사, 『구결연구』 3.

『합부금광명경』 권3 자토와 점토의 대응 양상과 상호 관련성

이강혁(서울대 박사수료)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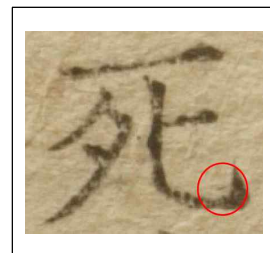
- 중층 구결자료
- 특기할 만한 대응 양상 확인
- 어떠한 상호 관련성이 있는지?

2. 치격조사 ‘-ㅅ’ 관련 문제

일반적으로 석독구결자료에서 치격조사는 자토구결에서 (1가)와 같이 ‘ㅅ +’로, 점토구결에서는 (1나)와 같이 ‘+’로 현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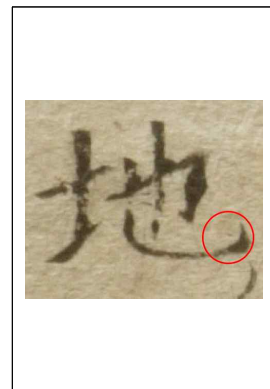
(1) 가. <금광3, 04:22>

- Q: 一切衆生이 生死ㅅ 往還ノムム
A: 一切衆生[22~32(·)]往還生死[44(·),+13(\)]
B: 一切衆生[이]往還生死[+,ノムム]
C: 一切衆生이 生死+ 往還ノムム
D: 一切衆生이 生死에 往還하되



나. <금광3, 14:07>

- Q: 不退地ㅅ 生ㅅ 師子勝人乙 而ㅅ 得ㅅ 親近ㅅ
A: 生不退地[44(·),33(:)]師子勝人[34(·)]而[43(·)]得[15(·)]親近[11~12(·),22(·)]
B: 生不退地[+,=1]師子勝人[乙]而[ㅅ]得[ㅅ]親近[ㅅ]
C: 不退地+ 生(ㅅ)=1 師子勝人乙 而ㅅ 得(ㅅ)ㅅ 親近(ㅅ)ㅅ
D: 不退地에 나신 師子勝人을 능히 親近히 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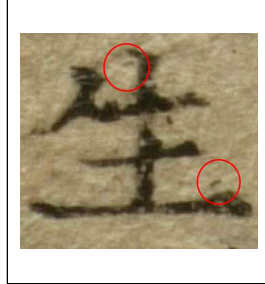


2.1. ㄹ+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격을 나타내는 ‘ㄹ+’에 대해서는 아래 (2)와 같이 자토와 점토 모두 동일하게 현토되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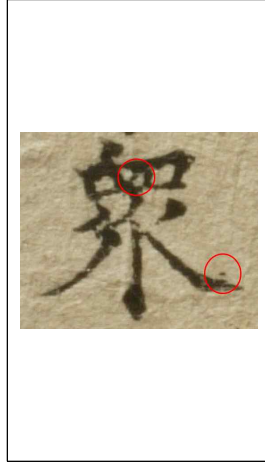
(2) 가. <금광3, 13:11>

- Q: 諸衆生ㄹ+ 世尊ㄹ니시 普ㄹ리 救濟ㄹ니로尸가
 A: 諸衆生[23(·),44(·)]世尊[24(배 침 선)]普[22~32(·)]救濟[+45~55(·)]
 B: 諸衆生[ㄹ,+] 世尊[x시]普[리]救濟[x가]
 C: 諸衆生ㄹ+ 世尊x시 普리 救濟x가
 D: 모든 중생에게 世尊이시라야 널리 救濟하시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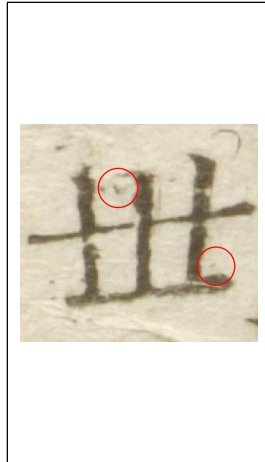
나. <금광3, 13:13>

- Q: 一切 弟子衆ㄹ+ 法雨乙 飽滿ㄹ리세이로尸入
 故ㄹ니로尸가
 A: 一切弟子衆[23(·),44(·)] 飽滿法雨
 [34(·),23~24(·),33~44(/)]故
 [+35(/),=43(·),21(·),+45~55(·)]
 B: 一切弟子衆[ㄹ,+]飽滿法雨[乙,ㄹ리,세이]故[로尸
 乙,ㄴ,노,x가]
 C: 一切 弟子衆ㄹ+ 法雨乙 飽滿ㄹ리세이로尸乙
 故ㄹx가
 D: 모든弟子들에게 法雨를 飽滿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하시며,



다. <금광3, 15:16>

- Q: 노 法乙 久로 {於}世ㄹ+ 住ㄹ리白로1丁노牙ナ
 1리1로에ハニ1
 A: 則[21(·)#11~21(·)]法久[22(·)]住於世
 [=23(·),44(·),23~24(·),11~12(·),22(·),+11(·),15(ㄴ),51
 ~52(·),41(·)]
 B: 則[노]法久[로]住於世[ㄹ,+,ㄹ리,白,로,丁,노牙,ナ1
 리1,에ハニ1]
 C: 則노 法(乙) 久로 {於}世ㄹ+ 住ㄹ리白로(1)丁노
 牙ナ1리1(로)에ハニ1
 D: 곧 法을 오래 세상에 머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
 다.” 하셨다.



라. <금광3, 1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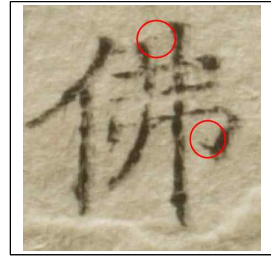
Q: 佛 白 言 白ニ尸

A: 白佛[23(·),44(·),22(·)]言

B: 白佛[ㄹ,+,ㄴ]言

C: 佛ㄹ+ 白ㄴ 言(白ニ尸)

D: 부처님께 사죄어 말씀드리시기를,



(2가, 나, 다)는 자토에 ‘ㄹ+’ 현토되어 있으며 점토에도 ‘ㄹ+’가 동일하게 현토되어 있다. 다만 (2라)는 자토구결은 없지만 점토에 ‘ㄹ+’가 현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ㄹ+’이 와 같이 단독으로도 나타나지만 아래 (3)과 같이 ‘ㄴ 1 ㄹ+’로 나타나기도 한다.

(3) 가. <금광3, 04:22>

Q: 不生ㄴ 不滅ㄴ 不有ㄴ 不無ㄴ ㄴ 1 ㄹ+ 心 安
樂 ㄴ 住 ㄴ 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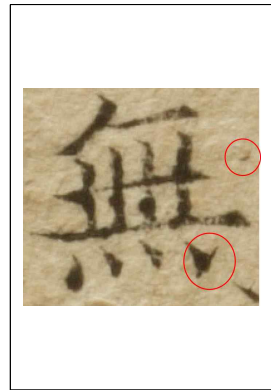
A: 生[35(·)]不滅[35(·)]不有[35(·)?]不無[35(·),44(/)]心安樂
[45(·)-잡+]住[55(·)]

B: 生[ㄴ]不滅[ㄴ]不有[ㄴ]不無[ㄴ,ㄴ 1 +]心安樂[ㄴ]住[ㄴ]

C: 不生(ㄴ) 不滅(ㄴ) 不有(ㄴ) 不無(ㄴ) ㄴ 1 +

D: 心 安樂 ㄴ 住(ㄴ) ㄴ

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있지 않고 없지 않고 한 것
에 대하여 마음이 안락히 머무르며,



나. <금광3, 06:01>

Q: 三千大千世界 ㄴ 地 平 ㄴ 1 ㄹ+ 掌 如 ㄴ ㄴ 1 ㄹ+ 量
無 ㄴ

A: 三千大千世界[42(·)]地平[24~25(/)#25(/)]如掌
[11(·)#11(/),=44(/)#43~44(/)]無量[55(·)]

B: 三千大千世界[ㄴ]地平[ㄴ 1 ㄹ+]如掌[ㄴ,ㄴ 1 +]無量
[ㄴ]

C: 三千大千世界 ㄴ 地 平 1 ㄹ+ 掌 如 ㄴ ㄴ 1 + 量 無
ㄴ

D: 三千大千世界の 땅이 평평한 것이 손바닥과 같은
곳에 한량없고



다. <금광3, 6:03>

Q: 自身 ㄴ 勇健 ㄴ 1 ㄹ+ 鎧仗 ㄴ 莊嚴 ㄴ ㄴ

A: 自身勇健[44(/)]鎧仗[43(·)]莊嚴[22(·)]

B: 自身勇健[ㄴ 1 +]鎧仗[ㄴ]莊嚴[ㄴ]

C: 自身 勇健 ㄴ 1 + 鎧仗 ㄴ 莊嚴(ㄴ) ㄴ

D: 자기 몸이勇健한 데에 鎧仗으로 莊嚴하여



(3)은 장경준 외(2021)의 판독안에 기반한 용례이며 ‘44(/)’의 판독은 장경준(2005) 이래로 제시하고 있는 『유가사지론』 권5와 8의 점도를 참고한 것이다. 그러나 『유가사지론』 권 5와 8에는 ‘44(/)’가 문증되지 않으며 ‘44(/)’가 ‘ㄴ 1 +’에 대응한다는 것은 ‘점토의 형태 정보(α)’와 ‘단점의 위치 정보(β)’에 기반을 둔 판독에 불과하다.¹⁾ 물론 이처럼 ‘α+β’를 고려한 해독의 추정은 ‘34(/)’가 ‘ㄴ 1 ㄷ’에 대응하는 경우와 같이 타당한 경우도 있으나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44(/)’에 대하여 ‘α+β’에 의한 추정인 ‘ㄴ 1 +’가 아니라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ㄴ 1 ㄷ +’로 해독하고자 하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모든 자토구결 자료에 동명사 어미 ‘-1’과 처격조사 ‘-+’가 직접 결합하는 ‘*1 +’와 같은 형태는 문증되지 않는다. 점토의 ‘-+’가 자토의 ‘- 3 +’에 대응된다는 점을 고려하여도 ‘*1 3 +’와 같은 형태는 마찬가지로 문증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같은 점토구결인 화엄경 계열 점토구결에서도 ‘*1 3 +’ 혹은 ‘*1 +’는 문증되지 않는다.

(4) 가. <주본화엄31, 05:09>

A: 住無性[51(·)]無依[14(·),33(·),53(l),25(l)]神力[11(·)]

B: 住無性[가]無依[ㄴ, 1, ㄷ +, ㄴ ㄷ]神力[:]

C: 性 無가 依ㄴ 無 1 ㄷ + 住(ㄴ)ㄴ 神力:

D: 性 없으며 의지함 없는 데에 住하는 神力이니

나. <주본화엄34, 09:10-11>

A: 入三世平等[12(·),53(l),52(·)]

B: 入三世平等[ㄴ 1, ㄷ +, 가]

C: 三世 平等ㄴ 1 ㄷ + 入(ㄴ)가

D: 三世 平等한 곳에 들며,

(4가)와 같이 ‘33(·)’과 ‘53(l)’을 통해 ‘1 ㄷ +’로, 혹은 (4나)와 같이 ‘12(·)’과 ‘53(l)’ ‘ㄴ 1 ㄷ +’로 문증된다. 마지막으로 (3)과 같이 중층 자료인 『합부금광명경』 권3에서 자토구결 ‘ㄴ 1 ㄷ

1) 현재 『합부금광명경』 권3의 판독을 재정비하는 장경준 외(2021)뿐만 아니라 『유가사지론』 권66에 대한 점토구결의 논의를 담고 있는 장경준(2018)에서도 ‘44(/)’에 대하여 『유가사지론』 권5와 8의 점도를 참고하여 ‘ㄴ 1 +’로 판독하고 있다. 이처럼 학계에서 두루 통용이 되고 있는 『유가사지론』 계통의 점도는 장경준(2005) 이래로 제시하고 있는 『유가사지론』 권5·8의 점도를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작 『유가사지론』 권5와 8에서는 ‘44(/)’가 문증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여서 점도 상에 존재하게 된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장경준 선생님에게 문의한 결과, ①2006년 이후에 발표된 본인의 논문에서 줄곧 『유가사지론』 점토구결의 ‘44(/)’의 용례를 인정한 것은 모두 박사논문인 장경준(2005)의 부록(2004년 12월 최종 작성) 내용에 근거한 것인데 ②이때 ‘44(/)’ 용례는 유일례로서 이후 공저로 참여한 이승재 외(2005)에서는 해독에 반영하지 않는 ‘{44(·)#44(/)}’로 수정하였으며 ③따라서 장경준(2006) 이래로 현재까지 논문에서 『유가사지론』 권5·8의 점도에서 ‘44(/)’의 존재를 언급한 것은 판독 및 해독안을 수정한 이승재 외(2005) 이전 장경준(2005)의 부록 내용을 반영한 결과이고 현 시점에서 판단할 때 ‘44(/)’의 용례를 인정하지 않는 이승재 외(2005) 수정안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입장을 고려한다면 종래에 제시하였던 『유가사지론』 권5·8의 점도에서 ‘44(/)’의 용례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十'에 점토구결 '44(/)'이 대응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44(/)'에 대하여 'ㄴ 十 十'보다는 'ㄴ 十 十'로 해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3)을 수정하면 아래와 같다.

(5) 가. <금광3, 04:22>

- Q: 不生ㄴ 不滅ㄴ 不有ㄴ 不無ㄴ 十 十 十 心安樂 住 十 十
- A: 生[35(·)]不滅[35(·)]不有[35(·)?]不無[35(·),44(/)]心安樂[45(·)-잡+]住[55(·)]
- B: 生[ㄴ]不滅[ㄴ]不有[ㄴ]不無[ㄴ, 十 十]心安樂[ㄴ]住[ㄴ]
- C: 不生(ㄴ) 不滅(ㄴ) 不有(ㄴ) 不無(ㄴ) 十 十 十 心安樂 住(ㄴ)
- D: 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있지 않고 없지 않고 한 것에 대하여 마음이 안락히 머무르며,



나. <금광3, 06:01>

- Q: 三千大千世界 地 平 十 十 十 掌 如 支 十 十 十 量 無 十
- A: 三千大千世界[42(·)]地平[24~25(/)#25(/)]如掌[11(·)#11(/),=44(/)#43~44(/)]無量[55(·)]
- B: 三千大千世界[ㄴ]地平[ㄴ 十 十]如掌[ㄴ, 十 十]無量[ㄴ]
- C: 三千大千世界 地 平 十 十 十 掌 如 支 十 十 十 量 無 十
- D: 三千大千世界の 땅이 평평한 것이 손바닥과 같은 곳에 한량없고



다. <금광3, 6:03>

- Q: 自身 勇健 十 十 十 鎧仗 莊嚴 十 十
- A: 自身勇健[44(/)]鎧仗[43(·)]莊嚴[22(·)]
- B: 自身勇健[ㄴ 十 十]鎧仗[ㄴ]莊嚴[ㄴ]
- C: 自身 勇健 十 十 十 鎧仗 莊嚴(ㄴ)
- D: 자기 몸이勇健한 데에 鎧仗으로 莊嚴하여



이를 통해 『합부금광명경』 권3에서 확인할 수 있는 '十'에 대해서는 다음에 살펴볼 (6)의 용례를 제외하면 모두 점토와 자토가 동일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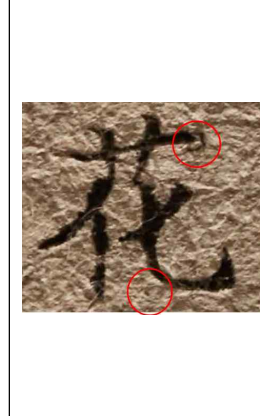
(6) 가. <금광3, 03:13-14>

- Q: 三者一切難行ノ^ㄹヲ⁺ 猒心乙 生尸 不冬ッカ
 三者一切難行[24(\\),44(·)]不生[역독선-각]猒心[34(·),15~25(-),55(·)]
 A: 三者一切難行[ノ^ㄹ冬⁺,+]不生猒心[乙,尸,カ]
 C: 三者 一切 難行ノ^ㄹ冬⁺ 猒心乙 生尸 不(ッ)カ
 D: 셋째, 一切 難行하는 것에 대해서 猒心を 내지 않으며,



나. <금광3, 06:11>

- Q: 鬱波羅花^ㄴ 拘物頭花^ㄴ 分陀利花^ㄴノ^ㄹヲ⁺ 其 池乙
 莊嚴ッカッヲセ^ㄹ乙
 A: 鬱波羅花[53(·)]拘物頭花[53(·)]分陀利花[53(·),=15(ㄴ)]莊嚴其[15~24(/),34(/)]池[34(·),55(·),]
 B: 鬱波羅花[ㄴ]拘物頭花[ㄴ]分陀利花[ㄴ,ノ^ㄹ]莊嚴其[ッ^ㄹ冬⁺,ッ^ㄹ乙]池[乙,カ,ッ^ㄹ冬⁺]
 C: 鬱波羅花^ㄴ 拘物頭花^ㄴ 分陀利花^ㄴノ^ㄹ 其 池乙
 莊嚴(ッ)カッ冬(セ)ッ^ㄹ乙
 D: 鬱波羅花이니 拘物頭花이니 分陀利花이니 하는 것이 그 연못을 莊嚴하며 하거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6)를 제외하고 자토에 ‘ㄹ+’로 현토되는 경우는 모두 점토에도 동일하게 ‘ㄹ+’로 현토되었다. 그러나 (6)의 경우는 유일하게 자토와 점토가 대응하지 않는 데 이러한 예외적인 양상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먼저 (6가)의 ‘ㄹ+’는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해당 용례가 유일하며 김지오(2010:170 각주 17)에서도 해당 용례가 점토와 현토 양상이 다를 것을 지적하였으나 오기로 단정하지는 않았다. 또한 (6나)의 ‘ㄴ+’는 문법에 맞지 않는 현토 양상이며 마찬가지로 점토와의 대응도 일치하지 않는다. 본 자료의 모든 용례가 자토와 점토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ㄹ+’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자토와 점토가 모두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6)에서 자토에 ‘ㄹ+’로 현토되어 있는 부분은 오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바이다.

2.2. 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토구결에서 ‘ㄴ+’로 현토되는 반면 점토구결에서는 ‘+’로만 현토된다. 이는 자토구결에서 ‘ㄴ+’에 해당되는 경우가 점토구결에서는 ‘+’으로만 현토되는 현상과 유사한 부분이며 실질적으로 점토에서 처격을 표현할 때 ‘ㄴ+’로 현토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용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금광3, 05:17-18>

Q: {於}菩提 道場₃ +₃ 佛慧₃ 十力₃ 四無所畏₃
 不共法₃ 等₃ 1 乙 成就₃ 尸 矣 是 波羅蜜義₃
 ㄱ

A: 於菩提道場[44(·),22(·)]佛慧[53(·)]十力[53(·)]四無所畏[53(·)]不共法[53(·)]等[34(/)]成就[+25(/)]是波羅蜜義[55(·)]

B: 於菩提道場[+,3]佛慧[3]十力[3]四無所畏[3]不共法[3]等[3 1 乙]成就[3 尸 矣]是波羅蜜義[3]

C: {於}菩提道場+(3)3 佛慧₃ 十力₃ 四無所畏₃
 不共法₃ 等₃ 1 乙 成就₃ 尸 矣 是 波羅蜜 義(11)
 ㄱ

D: 菩提道場에서 佛慧니 十力이니 四無所畏니 不共法이니 하는 것 등을 成就하는 것이 波羅蜜의 뜻이며



해당 용례는 ‘場’에 ‘44(·)’과 ‘22(·)’이 현토된 경우인데 해독은 ‘3 + 3 3’로 현토된 자토구결과의 대응 양상과 점토구결에서는 처격을 표현할 때 ‘3 +’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3)3’로 하였다.²⁾

그렇다면 이러한 대응 양상을 고려한다면 아래의 용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남선 유가08 11:14-16>

於 所 不 與 [35(·)?] 不 捨 [35(·)] 不 棄 [35(·),33(\),44(·),22(·)] 而 [43(·)] 生 希 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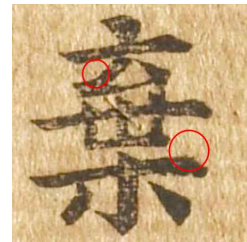
A: [34(·),+25(/)#+15~25(/),51(·)]者[23~33(·)]謂劫盜 [=22(·)]他[23(·),22(·),34~35(·),지시선(/)]欲爲己 [23(·)]有[22~23(·),11~21(-),24(·),31(·), +15~25(/)#+25(/),33~43(·),53(·)]

B: 於所不與[3]不捨[3]不棄[3,3,3,+]而[3]生希望[3,3,x1]者[x1]謂[1]劫盜他[3,3,3]欲爲己[3]有[4,3,3,3,x1,3,3]

C: {於}不與(3)3 不捨(3)3 不棄(3)3 1 所+(3)3 [←所3+] 而 3 希望 3 生 3 x1 {者}x1 1 謂 1 他 3 3 乙 劫盜(3 3) 己 3 {有}4 3 {爲}3 {欲}3 3 x1 3 1 3

①不與하고 ②不捨하고 ③不棄하고 한 바에 대해

D: 希望을 낸다 하는 것은, 즉 남의 것을 劫盜하여 자기의 가진 바 삼고자 하는 것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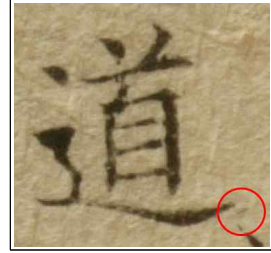


2) 처격에 후행하는 ‘3’에 대해서는 김지오(2019:221-224)에서 ‘於’의 재독이 번역에 반영된 자토석독구결 자료의 특수한 현상으로 보았으며 ‘於’의 동사 의미에 ‘있다, 존재하다’가 있는 점이 재독과정에서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때 ‘3’는 ‘있다’에 대응될 수 있다고 하였다.

(2)의 경우는 종래에 ‘22(·)’와 ‘44(·)’가 함께 현토된 것에 대하여 ‘22(·)’를 所의 말음첨기로 보았다. 그러나 점토구결은 말음첨기와 같은 음가 표시는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3) 가. <금광3, 06:09>

- Q: 七寶花池_ㄴ 十_ㄴ 四階道 有_ㄴ 七_ㄴ
 A: 七寶花池[44(·)]有_ㄴ四階道[55(·)]
 B: 七寶花池[+]有_ㄴ四階道[ㄴ]
 C: 七寶花池+ 四階道 有_ㄴ
 D: 七寶花池에 四階道 있으며



나. <금광3, 05:22>

- Q: 著_ㄴ 尸_ㄴ 所 無_ㄴ 七_ㄴ
 A: 無所著[+15~25(-),35(·)]
 B: 無所著[_ㄴ 尸_ㄴ, 七_ㄴ]
 C: 著_ㄴ 尸_ㄴ 所 無_ㄴ
 D: 짐작하는 바 없고



다. <금광3, 13:15>

- Q: 法界 1 分別 無_ㄴ 七_ㄴ 1
 A: 法界[33(·)]無分別[33~34(·)]
 B: 法界[1]無分別[ㄴ 1]
 C: 法界 1 分別 無_ㄴ 1
 D: 法界는 分別이 없으니



라. <금광3, 04:01>

- Q: 獸足_ㄴ 尸_ㄴ 無{有} 七_ㄴ
 A: 無有獸足[+15~25(-),55(·)]
 B: 無有獸足[_ㄴ 尸_ㄴ, 七_ㄴ]
 C: 獸足_ㄴ 尸_ㄴ 無{有} 七_ㄴ
 D: 獸足함이 없으며



(4) 가. <금광3, 02:20>

- Q: 是 如_ㄴ 支_ㄴ 十_ㄴ 十種 乙 菩薩摩訶薩 尸_ㄴ 菩提心因_ㄴ 尸_ㄴ 十_ㄴ 尸_ㄴ 1
 A: 如是[33(·)]十種[34(·)]菩薩摩訶薩[15~25(-)]菩提心因[53(·),+41(·)]
 B: 如是[_ㄴ 1]十種[乙]菩薩摩訶薩[尸_ㄴ]菩提心因[_ㄴ, 尸_ㄴ 十_ㄴ 尸_ㄴ 1]
 C: 是 如(支)_ㄴ 十_ㄴ 十種 乙 菩薩摩訶薩 尸_ㄴ 菩提心因_ㄴ 尸_ㄴ 十_ㄴ 尸_ㄴ 1
 D: 이와 같은 열 가지를 菩薩摩訶薩의 菩提心因이라 하는 것이다.



나. <금광3, 02:22>

Q: 何セッ 一乙{者} {爲}五リハロノ今ロッナ尸入 1

A: 何[34(/)#34~35(/)]者爲五[32~42(·),15(·),23~33(\·)]

B: 何[ッ 1 乙]者爲五[ハ,ノ今ロ,ッナX入 1]

C: 何ッ 1 乙{者} {爲}五(リ)ハノ今ロッナX入 1

D: 어떠한 것을 다섯 가지라고 하는가 하면,



다. <금광3, 13: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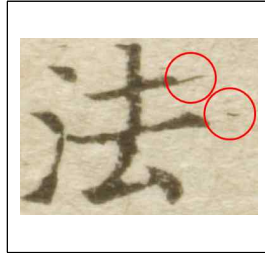
Q: 能_カ一法_ノ生_ル尸 不_レ冬_ニッ_ニ ㄹ

A: 不能[55(·)]生一法[+11~12(·),14(·),15~25(-),35(·)]

B: 不能[ㄴ]生一法[ㄱ,ㄷ,ㄹ,ㄴ,ㄹ]

C: 能_カ 一法_ノ生_ル尸 不_レ冬_ニッ_ニ ㄹ

D: 능히 한 법만큼도 생하지 않고



라. <금광3, 14:01-02>

Q: 一切 衆生リ 善根乙 種一尸 未_レリ ㄹ

A: 一 切 衆 生 [2 2 ~ 3 2 (·)] 未 種 善 根
[34(·),15~25(-),22~32(·),35(·)]

B: 一切衆生[リ]未種善根[乙,尸,リ,ㄹ]

C: 一切 衆生리 善根乙 種尸 未_レ리(ㄴ)ㄹ

D: 一切 衆生이 善根을 심지 못하고



(3)과 (4)는 『합부금광명경』 권3에서 자토구결과 대응하였을 때 점토구결에서는 말음첨기와 같은 음가 표기는 대부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계통을 망라하는 점토구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유가사지론』 계통에는 所의 말음첨기가 표기되는 경우가 없는 것을 고려한다면 종래의 해독보다는 (1)과 같이 ‘+(ㄴ)’로 판독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유가66 14:06-07>

A: 唯界所攝[51(·),23~33(·)]者謂諸大種[44(·),22(·)]所有[42(·)]種子[55(·)]

B: 唯界所攝[1, ㄴ 1]者謂諸大種[+, ㄴ]所有[ㄴ]種子 [55(·)]

C: 唯界所攝(리) 1 (ㄴ 1) ㄴ 1 {者} 謂 諸 大種+(ㄴ) ㄴ 有 所 ㄴ 種子(리)ㄴ

D: 오직 界로 포섭하는 바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大種에 있는 바의 種子이며



또한 (3)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2(·)’과 ‘44(·)’이 함께 현토되어 있는 양상을 고려한다면 ‘ㄴ’보다는 ‘+(ㄴ)’로 해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3. ‘ㄴ ㄴ’과 ‘ㄴ ㄴ’ 문제

자토에는 ‘ㄴㅌ’으로 현토가 되어 있고 점토에는 43위치의 빠침선으로 ‘ㄴㅌ’이 현토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자토와 점토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단순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는 문제가 없지만 해당 용례가 유일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재고의 여지가 있다.

(1) <금광3, 04:12-13>

- Q: 一者 {於}一切 法_{ㄴㅌ} 本_{ㄴㅌ} 來_{ㄴㅌ} 不_{ㄴㅌ} 生_{ㄴㅌ} 不_{ㄴㅌ} 滅_{ㄴㅌ}
 ㄴㅌ 不_{ㄴㅌ} 有_{ㄴㅌ} 不_{ㄴㅌ} 無_{ㄴㅌ} ㄴㅌ ㄴㅌ 心 安樂_{ㄴㅌ} 住_{ㄴㅌ}
 A: 一者於一切法[22~32(·)]本[빠침선(43)]來[=+13(\)#13(\)]
 不_{ㄴㅌ} 生[35(·)]不_{ㄴㅌ} 滅[35(·)]不_{ㄴㅌ} 有[35(·)?]不_{ㄴㅌ} 無[35(·),44(/)]心 安樂[45(·)-잡+]住[55(·)]
 B: 一者於一切法_{ㄴㅌ} 本[ㄴㅌ]來_{ㄴㅌ} 不_{ㄴㅌ} 生_{ㄴㅌ} 不_{ㄴㅌ} 滅_{ㄴㅌ} 不_{ㄴㅌ}
 有_{ㄴㅌ} 不_{ㄴㅌ} 無_{ㄴㅌ} ㄴㅌ 心 安樂_{ㄴㅌ} 住_{ㄴㅌ}
 一者 {於}一切 法_{ㄴㅌ} 本_{ㄴㅌ} 來_{ㄴㅌ} 不_{ㄴㅌ} 生_{ㄴㅌ} 不_{ㄴㅌ} 滅_{ㄴㅌ}
 C: (ㄴㅌ) 不_{ㄴㅌ} 有_{ㄴㅌ} 不_{ㄴㅌ} 無_{ㄴㅌ} ㄴㅌ 心 安樂_{ㄴㅌ} 住_{ㄴㅌ}
 ㄴㅌ
 첫째, 一切 法이 본래부터 오되 나지 않고 없어지지
 D: 않고 있지 않고 없지 않고 한 것에 대하여 마음이 안
 락히 머무르며,



문현수(2016)에 따르면 ‘ㄴㅌ’는 대부분 후행 체언을 수식하고 ‘ㄴㅌ’는 체언과 용언 둘 다 수식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용례는 문현수(2016:91)에서 지적하였듯이 유일하게 용언을 수식하는 ‘ㄴㅌ’의 용례이다.

동일한 ‘[本 ㄴㅌ VP]’ 구문에서도 모두 아래와 같이 ‘ㄴㅌ’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구역인왕경 상, 14:25>

- Q: 法性_{ㄴㅌ} 本_{ㄴㅌ} 無_{ㄴㅌ} 性_{ㄴㅌ} 第一義_{ㄴㅌ} 空_{ㄴㅌ} 如_{ㄴㅌ}
 D: 法性は 본래부터 없는 性이라 第一義이고 空이고 眞如이고 하며,

(3) <주본화엄34, 08:11>

- A: 自性[33(·)]本[43(/)]空寂[43(-)]{44(/)}無二[44(·),22(·)]亦[33(·)]無盡
 [44(·),22(·),51(·)]
 B: 自性[1]本[ㄴㅌ]空寂[ㄴㅌ]無二[ㄴㅌ]亦[1]無盡[ㄴㅌ, ㄴㅌ]
 C: 自性_{ㄴㅌ} 本_{ㄴㅌ} 空寂(ㄴㅌ) 無二 ㄴㅌ 無_{ㄴㅌ} 亦(ㄴㅌ) 盡_{ㄴㅌ} 無_{ㄴㅌ}
 D: 自性は 본래부터 空寂하시어 둘 없고 또한 다함 없고 하며,

(2)은 자토구결의 용례이며 (3)는 점토구결의 용례이며 모두 (1)과 같이 동일한 ‘[本 ㄴㅌ VP]’ 구문에서 (1)에서 ‘ㄴㅌ’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다르게 모두 ‘ㄴㅌ’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석독구결에서 ‘ㄴㅌ’는 선행하는 체언에 결합하여 기준점 내지 출발점으로써 후행

하는 용언을 수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ㄴㄷ’는 (1)의 용례를 제외하면 모두 후행하는 체언을 수식한다.

이러한 (1)의 ‘ㄴㄷ’ 용례에 대하여 문현수(2016)에서는 유일례로 처리하는 것에 그쳤지만 ‘[本 ㄴ VP]’ 구문에서는 모두 ‘ㄴㄷ’으로 문증된다는 점, (1)에서 대응되는 점토구결이 43위의 빼침선으로서 ‘ㄴㄷ’인 점 등을 고려한다면 (1)의 ‘ㄴㄷ’ 용례는 ‘ㄴㄷ’의 오기일 가능성을 고려해봄 직하다.

4. 선어말어미 ‘-ㄴ-’ 문제

『합부금광명경』 권3을 포함하여 『유가사지론』 계통에서는 아직까지 선어말어미 ‘-ㄴ-’를 나타내는 점토구결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는 같은 점토구결이지만 ‘42(-)’가 선어말어미 ‘-ㄴ-’로 해독되는 『화엄경』 계열과 상이한 부분이다. 그렇다고 하여 『유가사지론』 계통에서 무조건 ‘-ㄴ-’가 문증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아래는 선어말어미 ‘-ㄴ-’를 고려한 용례로 봄직 할 만하다.

(1) <금광3, 1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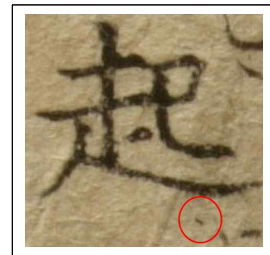
Q: 卽ノ座乙從ㄷ起ㄴㄷ

A: 卽[21(·)]從座[34(·),42(·)]起[54(·)]

B: 卽[ノ]從座[乙,ㄷ]起[ㄷ]

C: 卽ノ座乙從ㄷ起ㄷ

D: 곧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자토구결에는 ‘ㄴㄷ’로 기입되어 있고 점토구결에는 ‘54(·)’의 ‘ㄷ’만이 기입되어 있다. 이는 선어말어미 ‘-ㄴ-’에 연결어미 ‘-ㄴ’이 후행할 때 ‘-ㄷ’로 나타나는 현상을 고려한 기입 양상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같은 『유가사지론』 계통에서는 이와 같이 선어말어미 ‘-ㄴ-’를 고려하여 기입한 ‘ㄷ’를 찾을 수 없으며 오로지 『합부금광명경』 권3에서만 확인이 된다.³⁾

이밖에도 『합부금광명경』 권3에서는 수직 쌍점이 자토구결과와 대응양상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 선어말어미 ‘-ㄴ-’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화엄경』 계통에서는 ‘ㄷ’에 대응하는 ‘53(·)’은 주로 명명구문의 서술어 ‘名’에만 나타나며 주체높임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ㄴ’으로 해독되는 42(-)와 ‘ㄷ’으로 해독되는 53(·)의 조합을 쓰지 않고 ‘ㄴㄷ’에 대응되는 ‘43(-)’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문현수(2017: 378-380, 542-544)를 참고할 수 있다.

(2) 가. <금광3, 06:19-22>

Q: 善男子。菩薩十地。是相。前現ノ尸ム。如來尸之身。金色
晃耀。ニ下量無。淨光。悉。皆圓滿。ニ上

A: 善男子[22(·)]菩薩十地[44(·)]是相[=22~32(·)]前現[+13(\)]如來之身
[22~32(·)]金色晃耀[54(·)]無量淨光[22~32(·)]悉皆圓滿[34(:)#34~35(:)]

B: 善男子[；]菩薩十地[+]是相[；]前現[ノ 尸 ャ]如來之身[；]金色晃耀[下]
無量淨光[；]悉皆圓滿[= 1 乙]

C: 善男子。菩薩(尸)十地+(1)是相。前現ノ尸ム。如來{之}身。金色晃耀。無量淨光。悉皆圓滿ニ乙乙

D: ⑩선남자여, 보살의 十地에서는 이 相이 前現하는데, 여래의 몸이 금
색으로 晃耀하시어 한량없는 淨光이 모두 圓滿하시거늘

나. <금광3, 09:07-10>

Q: 善男子。是陀羅尼。名一恒河沙數。過_二諸佛_一初地菩薩_二救護_一。爲_レ人_二白_一。ノ_二リ_一ニ_二リ_一四

A: 善男子[22(·)]是陀羅尼[42(·)]名[33(·)]過一恒河沙數[34(·),33(:)]諸佛
[22~32(·)]爲救護初地菩薩[34(·),31(·),22~32(·),32(:)]

B: 善男子[ㄅ]是陀羅尼[ㄗ]名[ㄒ]過一恒河沙數[ㄘ , = ㄒ]諸佛[ㄩ]爲救護初地菩薩[ㄘ , 人, 自ノㄒㄩ , = ㄒㄩ 四]

C: 善男子 } 是 陀羅尼セ 名ノ 一 恒河沙數ニ 過(ッ)ニ 諸 佛ノ 初地
菩薩ニ 救護(ッ){爲}ム(ッ)白ノ 一ノ 二ノ 三ノ 四

D: 善男子여, 이 陀羅尼의 이름은 一 恒河沙數를 넘으신 모든 부처님이
初地菩薩을 救護하고자 하신 것인지라

(2가)에서는 (1)과 동일하게 서술어 ‘晃耀’에 선행하는 ‘如來’를 높이기 위하여 선어말어미 ‘-ニ-’를 고려한 54(·)의 ‘ㄸ’가 현토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하게 서술어 ‘圓滿’은 ‘無量淨光’을 주어로 삼고 있으며 ‘無量淨光’의 주체는 마찬가지로 선행하는 ‘如來’이다. 따라서 ‘圓滿’에 현토된 ‘32(:)’는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ニ-’를 포함하고 있는 요소로 해독할 수 있으며 대응되는 자토구결에는 ‘ㄴ = 1 ㄷ’이 기입되어 있는 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2나)에서도 ‘33(:)’과 ‘32(:)’에 대응되는 주체는 모두 ‘諸佛’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수직 쌍점인 점, 해당 자토구결과의 대응 양상을 고려하면 모두 선어말어미 ‘-ニ-’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이 이외의 자료에도 적용이 가능한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합부금광명경』 권3의 수직 쌍점과 자토구결 간의 대응 양상을 통한 해독을 다른 『유가사지론』 계통의 용례에 적용시켜보고자 한다.

(3) 가. <유가05 05:19-20>

- A: 又薄伽梵[33(·)]建立想受滅樂[34(·),22(·)]爲樂中[42(·)]第
[32~42(·)?,+51(·)?]—[지시선(/)]此[33(·)]依[역독선]住樂[34(·),53(:)]非
[역독선]謂[역독선]受樂[34(·),33(:),51(·)]
- B: 又薄伽梵[1]建立想受滅樂[ㄷ, ㄹ]爲樂中[ㄷ]第[ハ, x 1]—此[1]依住樂
[ㄷ, ㄹ 1 ㄴ]非謂受樂[ㄷ, ㄹ 1, 1]
- C: 又薄伽梵1 想受滅樂ㄷ 建立(ㄴ) ㄹ {爲}樂 中ㄷ 第一(1)ハx 1 此1
住樂ㄷ 依ㄹ 1 ㄴ 受樂ㄷ 謂ㄹ 1 非(ㄴ) 1
- D: 또 薄伽梵은 想受滅樂을 建立하여 즐거움 중의 第一이라고 하셨다.
이는 住樂을 의거하신 것이지 受樂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나. <유가66 15:14-15>

- A: 世尊[33(·)]依彼自類差別[42(·)]所造色[34(·),43(:)]故[21(·)]
- B: 世尊[1]依彼自類差別[ㄷ]所造色[ㄷ, ㄹ 1 ㄴ]故[ノ]
- C: 世尊1 彼 自類 差別ㄷ 所造色ㄷ 依ㄹ 1 ㄴ 故ノ
- D: 世尊은 저自類 差別의 所造色을 의지하신 까닭으로

다. <유가66 16:05-06>

- A: 答[단락부(13, “○”)]世尊[33(·)]依[역독선(수평)]彼不斷[55(·)]應斷
[42(\\),33(/)]世間[33~43(·)]意[31(·)]法[31(·)]及與[42(·)]意識
[31(·),34(·),43(:)]說如是[33(·)]言[34(·),51(:)]
- B: 答世尊[1]依彼不斷[ㄹ]應斷[ㄴ 1]世間[1 1]意[ハ]法[ハ]及與[ㄷ]意識
[ハ, ㄷ, ㄹ 1 ㄴ]說如是[1]言[ㄷ, ㄹ x 1]
- C: [答] 世尊1 彼 不斷(ㄴ) ㄹ 斷ノ ㄴ {應}ㄷ ㄴ 1 世間1 1 意ハ 法ハ 及
與ㄷ 意識ハ ㄷ 依ㄹ 1 ㄴ 是 如1 言ㄷ 說ㄹ x 1
- D: [답] 世尊은 저 끊지 않았으나 끊어야 하는 世間인 意와 法과 意識을
의지하시므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

(3가)에서 ‘53(:)’과 ‘33(:)’은 각각 ‘依’와 ‘謂’에 대응하며 주체는 모두 ‘薄伽梵’이며, (3나)에서
는 ‘43(:)’에 대응하는 ‘依’의 주체는 ‘世尊’이다. 이들은 모두 주체높임의 대상이 되므로 해당
수직 쌍점의 점토구결은 모두 ‘-ㄹ-’를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3다)의 경우에도
‘43(:)’과 ‘51(:)’이 각각 ‘依’와 ‘說’에 대응하며 주체는 모두 ‘世尊’임을 확인할 수 있기에 마찬
가지로 ‘-ㄹ-’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독할 수 있다. 다만 ‘51(:)’의 경우 종결어미 ‘-1’에
다른 선어말어미가 추가로 반영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ㄹx 1’로 해독하였다.

(4) <유가66 21:17-19>

- A: 云[명칭미상(15.“○”)]何[34(·),순서표시자(35,“二”)]無學法[51(·),15(·)]
謂阿羅漢[15~25(-)]諸漏已盡[23(:)]若出世[42(·)]有爲法[31(·)]若世間
[42(·)]善法[31(·),34(·)]是[34(·)]名無學法[53(·),51(·)]
- B: 云何[乙]無學法[1,ノ今ロ]謂阿羅漢[尸]諸漏已盡[ニ1ヲ]若出世[セ]有爲
法[ハ]若世間[セ]善法[ハ,乙]是[乙]名無學法[ハ,x1]
- C: 云何乙 無學法(1)1ノ今ロ 謂 阿羅漢尸 諸 漏 已盡ニ1ヲ 若 出世セ
有爲法ハ 若 世間セ 善法ハ乙 是乙 名 無學法ハx1
- D: 무엇을 無學法이라 하는가? 말하자면 阿羅漢, 모든 漏가 이미 다하신
이의, 혹 出世間の 有爲法和 혹 世間の 善法를, 이를 일컬어 無學法
이라 한다.

수직 쌍점에 주체높임의 선어말어미가 포함되어 있다면 (4)의 ‘23(:)’역시 단점의 위치 정보가 ‘ヲ’임을 고려하여 ‘ニ1ヲ’ 정도로 해독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아도 ‘23(:)’은 ‘已盡’에 대응되며 ‘諸漏’, 즉 ‘모든 번뇌’를 다한 이는 선행하는 아라한 혹은 더 나아가 세존을 지칭하는 것이므로⁴⁾ 마찬가지로 주체높임 선어말어미가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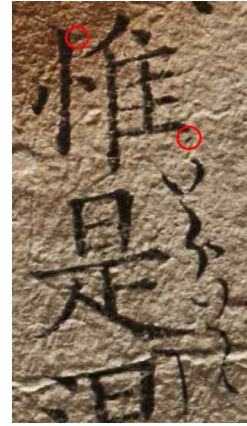
5. 문장 구조 문제

본 절에서는 자토구결과 점토구결이 어말어미와 조사에서 불일치하는 대응 양상을 보이는 용례를 중심으로 문장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4) 佛身無漏 諸漏已盡《維摩經, 弟子品》

(1) <금광3, 07:21-07:24>

- 一意 ㄴ 1 涅槃 ㄴ 入 ㄴ {欲} ㄴ 思惟 ㄴ ㄴ 一意
 ㄴ 1 生死 ㄴ 入 ㄴ {欲} ㄴ 思惟 ㄴ ㄴ 1 是 1
 Q: 涅槃 ㄴ 1 思惟 ㄴ ㄴ 是 1 生死 ㄴ 1 思惟 ㄴ ㄴ ㄴ 1
 1 刀 無明 ㄴ 因 {爲} ㄴ ㄴ 入 ㄴ ㄴ ㄴ 生死 涅槃 ㄴ ㄴ
 ㄴ ㄴ ㄴ 思惟 ㄴ ㄴ 1 刀 無明 ㄴ 因 {爲} ㄴ ㄴ 入 ㄴ ㄴ
 ㄴ ㄴ 是 五地 ㄴ 障 ㄴ ㄴ ㄴ ㄴ
 一意 [44(·), 33(·)] 欲入涅槃 [44(·), 31(·)] 思惟 [55(·)] 一
 意 [44(·), 33(·)] 欲入生死思惟 [55(·), 22(·)] 是 [33(·)] 涅
 A: 槃 [22~32(·), 51(·)] 思惟 [35(·)] 是 [33(·)] 生 死
 [22~32(·), 51(·)] 思惟 [35(·)] 無明爲因生死涅槃 [44(·)]
 不平等 [45(·)] 思惟 [=14(·)] 無明 [22~32(·)] 爲因
 [+45(·), +31(·)] 是 [34(·)] 五地障
 一意 [+1] 欲入涅槃 [+1, ㄴ] 思惟 [ㄴ] 一意 [+1] 欲入
 生死思惟 [ㄴ, ㄴ] 是 [1] 涅槃 [ㄴ, 1] 思惟 [ㄴ] 是 [1] 生
 B: 死 [ㄴ, 1] 思惟 [ㄴ] 無明爲因生死涅槃 [+1] 不平等 [ㄴ]
 思惟 [ㄴ 1 刀] 無明 [ㄴ] 爲因 [ㄴ 入 ㄴ, ㄴ ㄴ ㄴ] 是五地
 障
 一意 ㄴ 1 涅槃 ㄴ 入 (ㄴ) {欲} ㄴ 思惟 (ㄴ) ㄴ 一意 ㄴ
 1 生死 入 (ㄴ) {欲} (ㄴ) 思惟 (ㄴ) ㄴ ㄴ ㄴ 是 1 涅
 C: 槃 ㄴ 1 思惟 (ㄴ) ㄴ 是 1 生死 ㄴ 1 思惟 (ㄴ) ㄴ ㄴ (ㄴ
 ㄴ 1 刀) 無明 (ㄴ) 因 {爲} (ㄴ ㄴ 入 ㄴ ㄴ ㄴ) 生死 涅
 槃 ㄴ ㄴ ㄴ 思惟 ㄴ ㄴ 1 刀 無明 ㄴ 因 {爲} (ㄴ) ㄴ
 入 ㄴ ㄴ ㄴ ㄴ 是 (ㄴ) 五地 (ㄴ) 障 (ㄴ ㄴ ㄴ ㄴ)
 ⑤一意에서는 涅槃에 들고자 思惟하며 一意에서
 는 生死에 들고자 思惟하며 하여, 이는 涅槃이라
 D: 사유하고 이는 生死이라 思惟하고 하는 것도 無
 明이 因이 되며, 生死 涅槃에 不平等하게 思惟하
 는 것도 無明이 因이 되는 것이라, 이를 五地の
 障礙라고 하는 것이며,



먼저 (1)은 자토구결에서는 동명사 어미 ‘1’으로 현토된 것에 반해 점토구결에서는 연결어미 ‘ㄴ’가 현토되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전체적인 구조를 고려하여 만약 동명사 어미로 해석한다면 원문 “一意欲入 涅槃思惟 一意欲入 生死思惟”에 해당하는 부분이 후행하는 “是 1 涅槃 ㄴ 1 思惟 ㄴ ㄴ 是 1 生死 ㄴ 1 思惟 ㄴ ㄴ ㄴ 1”라는 NP를 수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1’이 연결어미와 같은 용법을 보이기도 하므로 점토구결의 ‘ㄴ’와 대등한 구조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영인본상으로 볼 때, ‘ㄴ ㄴ ㄴ 1’에서 ‘1’의 자토가 불명확하기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다음으로는 연결어미에서 불일치하는 경우이다.

- <금광3, 13:18-20>

是 時 + 大自在梵王 1 {於}大會セ 中 3 + ッナハ

[illegible]

右膝乙 地ゝ十 著ゝゝ 合掌恭敬ゝ白ゝ亦 頂ゝ佛

足乙 禮ソ白口 而^一 佛 白 言

是時[44(·)]大自在梵王[33(·)]於大會[42(·),54(·)]中

[44(·), 구결자(ッナハニ1ニ), 지시선]從座

[34(·),42(·)]而[43(·)]起[54(·)#+54(·)#54(·)]偏

A: [22(·)] 袒右肩 [34(·) 22(·)] 右膝 [34(·)] 著地

[33(-) 44(-)]合堂共歡[11~13(-) 15(-)]頂[43(-)]禮佛

[22(一),44(一)日事恭敬[11-12(一),13(一)日頃[43(一)日檀佛
品[84(一)-11~12(一)-15(一)]至[48(一)]在佛言

是[34(·),11-12(·),+15(·)]而[43(·)]曰佛言
是時[+]土白女林下[1]於土食[ト、ハ、シ]

是時[一]人自梵土[一]於人曾[ϵ , x-]中[一]從座

B: [ㄜ, ㄝ]而[ㄣ]起[ㄣ]偏[ㄣ]袒右肩[ㄜ, ㄝ]右膝[ㄜ]者

地[ㄉㄧˋ]合掌恭敬[白,示]貝[ㄟ]禮佛足[乙,白,口]而

[三]白佛言

是時十 大自在梵王 一 {於}大會七 中十x一 座乙

從_レ 而_二 起(ニ)下 偏_一 右肩_乙 袒 右膝_乙 地

3十 著 合掌恭敬(ッ)白(3)ホ 頂ㄣ 佛足乙 禮

(ソ)白口 而^ニ 佛白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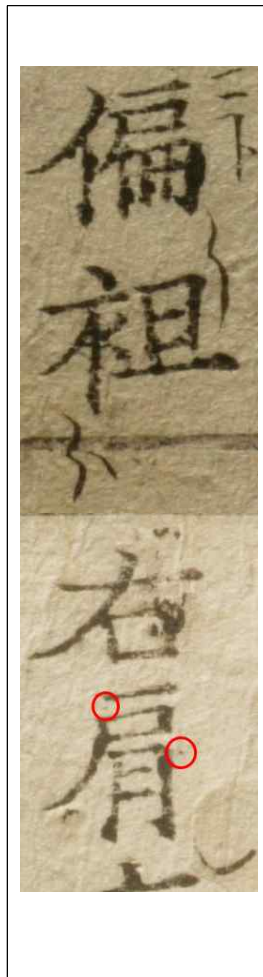
이 때 大自在梵王은 大會 가운데에 계시다가, 자

리에서 일어나시어 한쪽으로 오른쪽 어깨를 벗어

D: [으르쭉 어깨마 버어] 으르쭉 무르으 따에 대며

스당恭敬하여서 저스키르 브킵니이 바에 예수히

그 부친에게서도, 이 귀신, 만썬드귀신귀로



(2)는 자토구결에서는 연결어미 ‘-ㅂ’, 점토구결에서는 연결어미 ‘-ㅂ’로 통일치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이다. 형태적으로는 모두 연결어미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안대현(2008:282, 2020:133-134)에서는 점토구결에서 51과 55 위치 사이의 반사 대칭은 연결어미 ‘-ㅂ’와 종결어미 ‘-ㅣ’의 문법적 대립을 잘 보여주며 ‘-ㅂ’는 현대 국어의 ‘-며’와 달리 시상·서법·높임법 등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와 비교적 제약 없이 통합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ㅂ’는 ‘-ㅁ’나 ‘-ㅂ’ 같은 다른 연결어미와 달리 ‘-ㅣ’와 대립되는 지위에 있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이를 참고하면 ‘-ㅅ’은 종결어미인 ‘-ㅁ’과 문법적으로 대등한 지위였으므로 의미적으로도 전형적인 연결어미인 ‘-ㅅ’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①偏袒右肩 ②右膝地着 ③合掌恭敬은 일련의 연속적인 사건인 점, 자토구결과 점토구결에서 ②와 ③은 연결어미 ‘-ㅅ’로 연결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결어미와 문법적으로 대등한 지위를 가진 ‘-ㅅ’ 보다는 점토구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ㅅ’로 해석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는 조사에서 불일치하는 경우이다.

佛¹言^リニ^尸善男子³此五法^乙依³菩薩摩訶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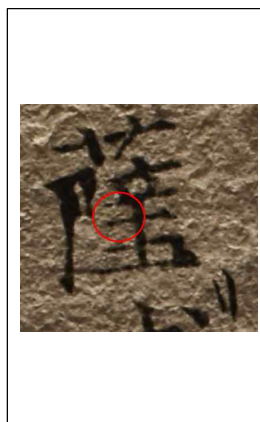
Q: 力波羅蜜乙 成就ッナホセ |

A: 佛[33(·)]言善男子[22(·)]依此五法[34(·),22(·)]菩薩摩訶
薩[33(·)]成就力波羅蜜[42(-),51(·)]

B: 佛[1]言善男子[3]依此五法[乙,3]菩薩摩訶薩[1]成就
力波羅蜜[ナナセ,1]

C: 佛¹ 言(リニ尸) 善男子³ 此 五法^乙 依³ 菩薩摩訶
薩¹ 力波羅蜜^(乙) 成就^(ッ) ナシセ¹

D: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이 다섯 법을 의
거하여 菩薩摩訶薩은 力波羅蜜을 성취한다.



(3)은 ‘菩薩摩訶薩’에 자토구결에서는 주격조사 ‘-니’가, 점토구결에서는 보조사 ‘-1’이 통한 경우이다. 허인영(2017)에 따르면 ‘-니’가 통합된 경우, ‘菩薩摩訶薩’은 타동사인 ‘成就’의 행위주로서 초점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으며 ‘-1’이 통합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화제, 적극적으로는 대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응 양상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현토자에 따라 정보구조를 다르게 파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는 아우름 동사 구조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이다.

(4) 十地 依功德力陀羅尼 <합부금광명경 3, 08:25-13:01>

① 初地 誦持陀羅尼 <금광3, 08:25-09:10>	
Q:	善男子 菩薩摩訶薩 1 {於}此 初地 3 + 依功德力 2 ノ 尸 名セ 陀羅尼 乙 得 3 忖 生リナ ニセ 1
C:	善男子 (3) 菩薩摩訶薩 1 {於}此 初地 + 依功德力 2 ノ 尸 名セ 陀羅尼 乙 得 忖 生 (リ ナニセ 1)
[다라니]	
...(중략)...	
Q:	五障 乙 解脫 ッ 忖 初地 乙 念 ノ 尸 入 乙 忘 尸 不 忖 ッ 忖 ナニセ 1
C:	五障 解脫 (ッ) 忖 初地 乙 念 ノ 尸 入 乙 忘 尸 不 (ッ) 忖 (ッ) ナニ세 1

② 二地 善安樂住陀羅尼 <금광3, 09:10-18>	
Q:	善男子ᄃ 菩薩摩訶薩ᄃ {於}此 二地ᄃ + 善安樂住ᄃノ尸 名セ 陀羅尼ᄃ 得ᄃホ 生リ ナシセ
C:	善男子ᄃ 菩薩摩訶薩ᄃ {於}此 二地 + 善安樂住ᄃノ尸 名セ 陀羅尼ᄃ 得ホ 生(リ)ナ シセ
[다라니]	
...(중략)...	
Q:	五障ᄃ 解脫ᄃッカ 二地ᄃ 念ノ尸入乙 忘 不ᄃッカッナシセ
C:	五障ᄃ 解脫(ッ)カ 二地ᄃ 念ノ尸入乙 忘(尸) 不(ッ)カ(ッ)ナシセ

참고문헌

- 국립한글박물관(2018), 《초조대장경 유가사지론 권66 각필구결》, 국립한글박물관.
- 김지오(2010), 『습부金光明經』 字吐口訣의 誤記, 구결연구 25, 구결학회.
- 김지오(2019), 자토석독구결 ‘호(ㄴ)’의 분포와 특이 용법, 국어사연구 29, 국어사학회.
- 문현수(2014), 『瑜伽師地論』 系統 點吐釋讀口訣에 사용된 빠침선의 기능, 구결연구 33, 구결학회.
- 문현수(2016), ‘-롯’과 ‘-록’의 관계에 대하여, 구결연구 37, 구결학회.
- 문현수(2017), 周本 華嚴經 點吐釋讀口訣의 解讀研究,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안대현(2008),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의 해독(1) -12와 14위치의 동형성 및 51과 55위치의 대칭성에 대하여, 구결연구 20, 구결학회.
- 안대현(2020), 점토석독구결의 점토 체계의 대칭성, 구결연구 44, 구결학회.
- 장경준(2005),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의 해독 방법 연구 -권5, 8의 단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경준(2006), 점토 체계의 특징이 부호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 구결연구, 16, 구결학회, 209-239.
- 장경준(2007),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의 해독 방법 연구』, 태학사.
- 장경준(2009), 호림본 『유가사지론』 권3의 점토에 대한 기초 연구, 『구결연구』 23, 구결학회.
- 장경준(2016), 남선사 소장 고려 초조대장경 『유가사지론』 권8의 점토석독구결에 대하여, 『구결연구』 36, 구결학회.
- 장경준(2017), 『유가사지론』 점토구결의 몇 가지 특징, 『구결연구』 38, 구결학회.
- 장경준(2018),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유가사지론』 권66의 점토 개관, 『초조대장경 유가사지론 권66 각필구결』, 국립한글박물관.
- 장경준(2020),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유가사지론』 권66의 점토석독구결과 『유가사지론』 권20의 자토석독구결의 관련성, 『구결연구』 44, 구결학회.
- 장경준 외(2021), 「역주 원고 초안」 (한국연구재단 지원 "중층적 구결 자료 <합부금광명경> 권3의 종합적 연구" 중간 결과물 2021. 6. 13. 최종 작성본), 미간행.
- 허인영(2017), 고려 시대 한국어의 정보구조에 관한 일고찰 -『유가사지론』 권20의 자토석독구결을 대상으로, 어문논총 30, 전남대 한국어문학연구소.

점토석독구결 『합부금광명경』 권3에 사용된 빼침선 연구

문현수(인하대 한국학연구소)

1. 머리말

- 점토석독구결에서 빼침선은 『화엄경』 계통 점토석독구결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유가사지론』 계통 점토석독구결에서만 발견된다.
- 빼침선은 초기 연구에서는 자토와 대응되지 않는 일종의 부호(符號)로 간주되었으나, 안대현(2009)에서 자토로 해독되는 구결점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문현수(2014)에서는 빼침선이 모두 자토로 해독되는 구결점임을 주장하였다.
- 『합부금광명경』 권3에서도 다른 『유가사지론』 계통의 점토석독구결자료와 마찬가지로 빼침선이 사용되고 있다. 안대현(2009)에서는 이 자료에 쓰인 빼침선에 대하여 당시에 작성된 각필구결 연구모임의 공동 판독안을 기준으로 최대 2개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후 문현수(2014)에서는 이 자료에 모두 세 유형의 빼침선이 총 10회 현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 그런데 최근 『합부금광명경』 권3의 원본조사를 비롯하여 보다 정밀한 공동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문현수(2014)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빼침선이 더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또 기존에 해독안이 제시된 빼침선의 재검토도 요청되었다.
- 본고에서는 문현수(2014)에서 누락된 빼침선을 추가 검토하는 한편, 보다 정밀한 논의가 필요한 빼침선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합부금광명경』 권3의 점토석독구결 해독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합부금광명경』 권3은 자토석독구결과 점토석독구결이 함께 현토된 자료이므로, 우리는 빼침선에 대응되는 자토를 통해 자토와 점토의 상호 연관 관계에 대해서도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합부금광명경』 권3에 쓰인 빼침선의 목록

- 아래의 [표1]은 문현수(2014)에서 정리한 『합부금광명경』 권3의 빼침선 목록이다. 문현수(2014)에서는 『합부금광명경』 권3에서 빼침선(23), 빼침선(24), 빼침선(51)의 3종류의 빼침선이 사용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시작점 위치	문헌	용례	개수	
23	『금광명경』 권3	足<2:08>, 具<6:02>, 首<6:08>, 其<6:11>, 上<6:19>, 得<6:23>, 得<7:18>	7	10
24	『금광명경』 권3	尊<13:13>, 佛<13:15>	2	
51	『금광명경』 권3	得<7:18>	1	

[표1] 문현수(2014)의 빼침선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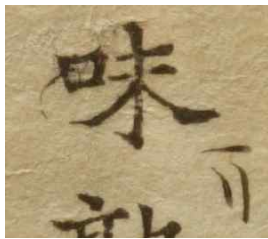
- 아래의 [표2]는 본고에서 새로 정리한 『합부금광명경』 권3의 빼침선 목록이다. 문현수

(2014)에 비해 빼침선(22~32)와 빼침선(43)이 추가되었으며, 빼침선(23)이 빼침선(23~24)로 위치 조정이 되었다. 또한 빼침선(24)의 용례도 하나 더 추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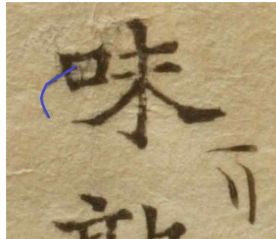
시작점 위치	문헌	용례	개수
22~32	『금광명경』 권3	味<8:01>	1
23~24	『금광명경』 권3	足<2:08>, 具<6:02>, 首<6:08>, 其<6:11>, 上<6:19>, 得<6:23>, 得<7:18>	7
24	『금광명경』 권3	尊<13:05>, 尊<13:13>, 佛<13:15>	3
43	『금광명경』 권3	本<04:13>	1
51	『금광명경』 권3	得<7:18>	1

[표2] 본고에서 새로 수정한 빼침선 목록

- 아래는 [표2]의 빼침선에 대한 실제 예를 빼침선 표시본과 함께 제시한 것이다.



味<8:01>
빼침선(22~32)



빼침선(22~32)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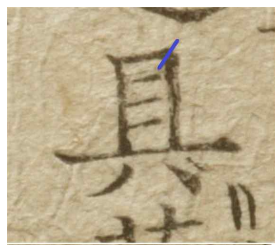
足<02:08>
빼침선(2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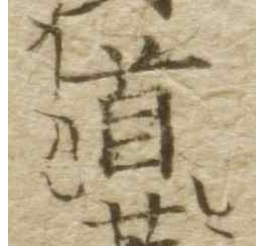
빼침선(23~24)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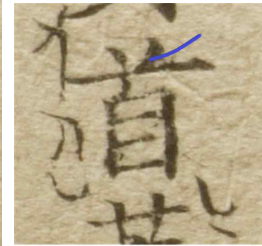
具<06:01>
빼침선(2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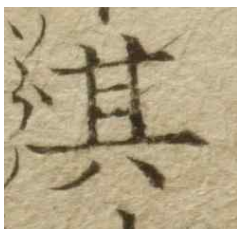
빼침선(23~24)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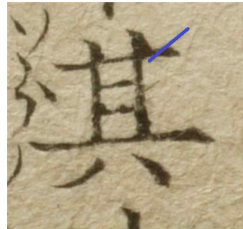
首<06:08>
빼침선(23~24)



빼침선(23~24)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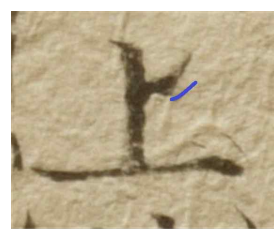
其<06:11>
빼침선(23~24)



빼침선(23~24)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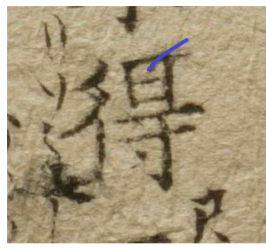
上<06:19>
빼침선(23~24)



빼침선(23~24)
표시



得<6:23>
빼침선(2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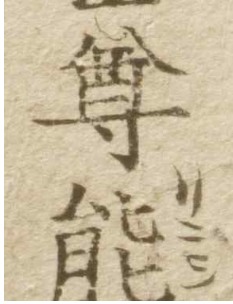
빼침선(23~24)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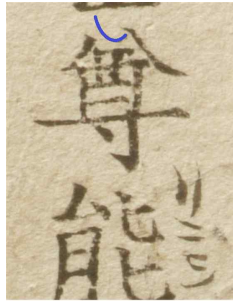
得<7:18>
빼침선(23~24), 빼침선(51)



빼침선(23~24) 표시
빼침선(51) 표시



尊<13:05>
빼침선(24)



빼침선(24)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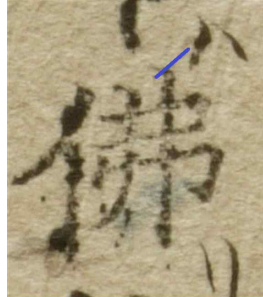
尊<13:13>
빼침선(24)



빼침선(24)
표시



佛<13:15>
빼침선(24)



빼침선(24)
표시



本<04:13>
빼침선(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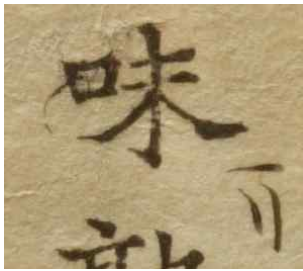
빼침선(43)
표시

3. 『합부금광명경』 권3의 빼침선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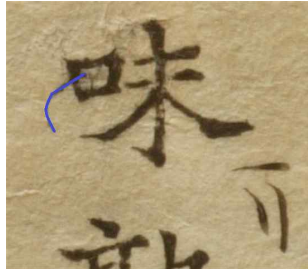
3.1. 새로 추가된 빼침선

3.1.1. 빼침선(22~32)[- 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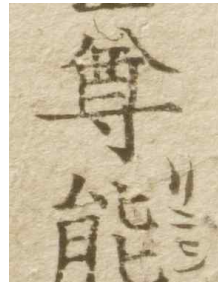
- 『유가사지론』 계통의 점토석독구결에서 빼침선은 보통 각필로 기입되고 있으며, 이때 빼침선은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합부금광명경』 권3의 점토는 대체로 각필이 아닌 모필을 이용해 먹으로 기입되고 있다. 또한 그 형태도 대체로 직선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드물게 곡선의 형태를 띠는 것도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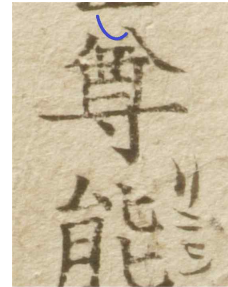
味<8:01>
빼침선(22~32)



빼침선(22~32)
표시



尊<13:05>
빼침선(24)



빼침선(24)
표시

- 위의 '味<8:01>'에 현토된 빼침선(22~32)와 '尊<13:05>'에 현토된 빼침선(24)가 바로 곡선의 형태를 띠는 빼침선이다. 문현수(2014)에서는 빼침선의 형태가 보통 직선의 형태임을 감안하여 위의 예들은 빼침선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빼침선의 형태가 대다수 직선인 것은 곡선을 기입하기 쉽지 않은 각필의 특성으로 생긴 우연한 결과일 뿐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위의 예를 모두 빼침선의 용례로 인정하고자 한다.
- 문현수(2014)에 따르면 『유가사지론』 계통의 점토석독구결에서 빼침선(22~32)는 'ㄱ'으로 해독되는 점토이다.



害<성암 유가8 07:13-14>
빼침선(22~32)



教<성암 유가8 10:08-09>
빼침선(22~32)

(1) ㄱ. <성암본 유가8 07:13-14>

A:常[22~32(·)]能[55(·)]爲害[빼침선(22~32),21(·)]故[41(·)]名[54(·)]爲常害[53(·),+55(·)]

B:常[ㄱ]能[ㄴ]爲害[ㄱ,xノ]故[ㄴ]名[下]爲常害[ㄱ,ノ牙カ]

C:常ㄱ 能ㄴ 害 {爲}ㄱ xノ 故ㄴ 名下 {爲}常害ㄱノ牙カ

D:항상 능히 해를 일으키니, 그러므로 일컬어 常害라고 하며

ㄴ. <성암본 유가8, 10:08-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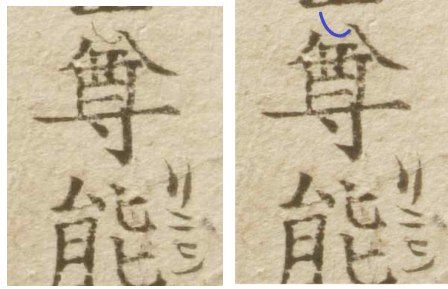
A:血塗其手[51(·)]者[23~33(·)]謂[33(·)]爲成殺[+45(·),빼침선(22~32),31(·),22(·)]身[33(·)]相[22~32(·)]變[43(·)]故[55(·)]

B:血塗其手[1]者[白ㄱ1入1]謂[1]爲成殺[ノ尸入乙,ㄱ,人,3]身[1]相[ㄱ]變[ㄴ1入ㄴ]故[ㄴ]

C:血塗其手(ㄱ)1 {者}(ㄴ)白ㄱ1入1 謂1 殺ノ尸入乙 {成}ㄱ{爲}人(ㄴ)3 身1 相ㄱ 變(ㄴ)ㄴ1入ㄴ{故}ㄴ

D:血塗其手라 하신 것은, 즉 殺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여 몸은 相이 변한 까닭이며,

3.1.2. 빼침선(24)[ニシ]



尊<13:05>
빼침선(24)

빼침선(24)
표시

- 문현수(2014)에서는 '尊'에 현토된 24위치에서 시작되는 둥근 선을 직선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빼침선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앞서 살펴본 (3)의 빼침선(22~32)도 곡선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이를 빼침선으로 보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곡선은 빼침선(24)로 볼 수 있다.

(4) <금광3, 13:04-05>

자토:衆生リ {於}見乙 失リ 1 乙 世尊 リニシ 能か 濟度 ッニロ乙か

A:衆生[22~32(·)]失於見[34(·),34~44(·),22(·),44~45(/),구결자(乙火)]世尊[22~32(·),빼침선(24)]能[55(·)]濟度[+45~55(·)]

B:衆生[リ]失於見[乙,火,1,1乙]世尊[リ,ニシ]能[か]濟度[xか]

C:衆生リ {於}見乙火 失 1 1乙 世尊리니시 能か 濟度xか

D:衆生이 正見을 잃은 것을 世尊이시라야 능히 濟度하시며,

- 문현수(2014)에서는 빼침선(24)를 '리니시'로 해독되는 점토로 보았다. 그러나 (4)의 빼침선(24)는 '리'로 해독되는 22~32(·)가 함께 현토되어 있으므로 빼침선(24)는 '니시'로 해독되는 점토로 수정되어야 한다.

(5) <금광3, 13:12-13>

자토:困苦 ット 1 諸 衆生ヲ + 世尊 리니시 普리 救濟 ッニ로尸か

A:困苦[21(/)]諸衆生[23(·),44(·),구결자(ット 1)]世尊[빼침선(24)]普[22~32(·)]救濟[+45~55(·)]

B:困苦[X]諸衆生[ヲ,+]世尊[니시]普[리]救濟[xか]

C:困苦X 諸 衆生ヲ + 世尊(리)니시 普리 救濟xか

D:困苦하는 모든 중생에게 世尊이시라야 널리 救濟하시며

(6) <금광3, 13:15>

자토:亦 不滅 ッ 1 ットノ 1 乙 唯ハ 佛 리니시 能か 了知 ッニ로尸か

A:亦不滅[35(·),45(·)/#44~45(·)]唯佛[빼침선(24)]能[55(·)]了知[+45~55(·)]

B:亦不滅[1,1,1乙]唯[ハ]佛[니시]能[か]了知[x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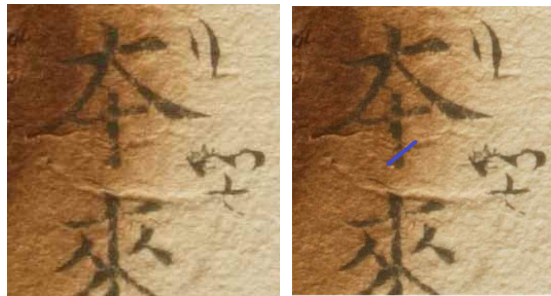
C:亦 不滅(ッ)1(ッ)トノ 1 乙 唯ハ 佛(리)니시 能か 了知xか

D:또한 不滅하고 하는 것을 오직 부처님이시라야 능히 了知하며,

- 『합부금광명경』에는 이외에도 빼침선(24)가 2개 더 존재하는데, '世尊'의 '尊'과 '佛'에 현토되고 있다. 이 자료에 빼침선(24)가 '世尊'의 '尊'에 현토되고 대응되는 자토가 모두 'ㄴ=ㄷ'라는 점, 앞서 검토한 예에서는 'ㄴ'로 해독되는 22~32(·)가 따로 현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빼침선(24)는 'ㄴ=ㄷ'로 해독하는 점토로 볼 수 있다.

3.1.3. 빼침선(43)[ㄴㅏ]

- 2021년 3월 12일(금)에 이루어진 『합부금광명경』 권3의 원본조사에서는 아래의 예와 같이 '本'에 빼침선(43)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本<04:13>
빼침선(43)

빼침선(43)
표시

(7) <금광3, 04:12-13>

자토: 一者 {於}一切 法 ㄴ 本 ㄴㅏ 來 ㄴ 尸 ㅏ

A: 一者於一切法[22~32(·)]本[빼침선(43)]來[=+13(\)#13(\)]

B: 一者於一切法[ㄴ]本[ㄴㅏ]來[ㄴ 尸 ㅏ]

C: 一者 {於}一切 法 ㄴ 本 ㄴㅏ 來 ㄴ 尸 ㅏ

D: 첫째, 一切 法이 본래부터 오되

- (7)의 '本'에는 빼침선(43)에 대응하는 자토로 'ㄴㅏ'이 현토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가사지론』 계통 점토석독구결에서 빼침선(43)은 'ㄴㅏ'으로 해독된다(안대현 2009; 문현수 2014).

(8) ㄱ. <화소35, 07:03-05>

如來 滅 ㄴ ㄴㅏ ㄴㅏ ㄴㅏ 後 ㄴㅏ 有 ㄴㅏ ㄴㅏ 如來 滅 ㄴ ㄴㅏ ㄴㅏ 後 ㄴㅏ 無 ㄴㅏ ㄴㅏ 如來 滅 後 亦有 亦無 ㄴㅏ ㄴㅏ 如來 滅 後 非有 非無 ㄴㅏ ㄴㅏ ㄴㅏ ('여래 滅하심으로부터 後에[滅하신 後에] 有이다', '여래 滅하심으로부터 後에[滅하신 後에] 無이다', '여래 滅하신 後에 亦有 亦無이다', '여래 滅하신 後에 非有非無이다' 하는 것과)

ㄴ. <구인상, 02:03>

各 ㄴㅏ 各 ㄴㅏ ㄴㅏ 座前 ㄴㅏ 花 ㄴㅏ 上 ㄴㅏ 量 無 ㄴㅏ ㄴㅏ 化佛 ㄴㅏ 有 ㄴㅏ ㄴㅏ ㄴㅏ (각각 자리 앞의 꽃으로부터 위에[꽃 위에] 양 없는 化佛이 계시며)

- 자토석독구결에서 'ㄴㅏ'은 총 5회 사용되는데, (8)처럼 체언을 수식하는 예가 4개이고 (7)의 '本 ㄴㅏ'처럼 용언을 수식하는 예가 1개이다.

(9) ㄱ. <화엄14, 15:10>

彼 一 塵 乙 ㄴ 內 ㄴ 衆 一 多 ㄴ 一 刹 一 或 刀 有 ㄴ 佛 矢 有 ㄴ 八 ㄴ 一 矢 ㄴ 或 ㄴ 佛 矢 無 ㄴ 一 矢 ㄴ (저 한 티끌로부터 안의[티끌 속의] 많은刹은 또 있다, 부처 계신 곳이, 또 있다, 부처 없으신 곳이)

ㄴ. <화소35, 10:09>

我 一 無 始 ㄴ 已 來 ㄴ 一 飢 餓 乙 以 ㄴ 三 一 ㄴ 故 支 身 乙 喪 ㄴ 一 數 ㄴ 無 ㄴ ㄴ 一 ㄴ (나는 無始로부터 오되[無始이래로] 飢餓를 말미암은 까닭으로 몸을 망치 되 수 없이 하였지만)

ㄷ. <화소35, 16:02-03>

假 使 ㄴ {此} ㄴ 乙 由 ㄴ 三 ㄴ ㄴ 阿 僧 祇 ㄴ 劫 乙 經 ㄴ 諸 一 根 不 具 ㄴ 尸 矢 ㄴ 亦 ㄴ 一 心 ㄴ 十 一 ㄴ 念 ㄴ 悔 惜 ㄴ 尸 ㄴ 生 ㄴ 尸 不 ㄴ ㄴ (비록 이로 말미암아 阿僧祇의 劫을 지내 모든 根이 不具할지라도 또한 마음에 한 念의 悔惜함도 내지 아니하여)

- 반면에 'ㄴ'은 자토석독구결에서 총 10회 사용되는데, (9ㄱ)처럼 체언 수식 2회, (9ㄴ)처럼 용언 수식 5회, (9ㄷ)처럼 말음첨기 3회로 쓰였다(문현수 2016).

- 한편, 점토석독구결과 자토석독구결에서의 'ㄴ'과 'ㄴ'의 빈도와 용법은 아래와 같다.

자료	빈도	'ㄴ'의 사용빈도		'ㄴ'의 사용빈도				
		체언 수식	용언 수식	체언 수식	용언 수식	말음 첨기	목적격 조사	연결 어미
점토 석독구결	유가03	0	0	1	0	0	0	0
	유가05	0	0	1	1	0	0	0
	유가08 (성암)	0	0	1	0	0	0	1
	유가08 (남선사)	0	0	1	0	0	0	1
	금광03	0	0	0	1	0	0	0
	진본 화엄20	0	0	2	0	0	0	0
	화엄06	1	0	1	0	0	0	0
	화엄22	2	0	0	1	0	0	0
	화엄31	0	0	0	0	1	0	0
	화엄34	2	0	0	1	0	0	0
자토 석독구결	화엄57	0	0	0	0	0	2	0
	화소35	3	0	0	1	2	0	0
	화엄14	0	0	1	0	0	0	0
	금광03	0	1	0	0	0	0	0
	유가20	0	0	0	1	1	0	0
	구역上	1	0	0	3	0	0	0
합계	자비04	0	0	1	0	0	0	0
		9	1	9	9	4	2	2
		10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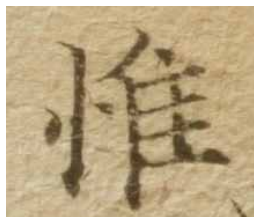
[표3] 석독구결에 현토된 'ㄴ'과 'ㄴ'의 문헌별·용법별 사용 빈도
- 문현수(2016)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

- 위의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ㄴ'은 체언 수식의 예가 대부분으로, 용언 수식은 점토석독구결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또 자토석독구결에서도 『합부금광명경』 권3의 '本 ㄴ'만이 용언 수식의 유일한 예이며, 그마저도 대응되는 점토는 빼침선(43)[ㄴ]이다.
- 한편 중세국어에서 조사구성체 '-룻'은 총 45회 쓰이는데, 체언 수식은 41회이고 용언 수식은 4회이다. 반면에 조사구성체 '-룩'은 총 18회 쓰였는데, 체언 수식은 11회이고 용언 수식은 7회이다(문현수 2016).
- 요컨대, '-룻'이 용언을 수식하는 예는 점토석독구결에서는 전혀 없고, 자토석독구결에서는 1개, 중세국어에서는 4개의 예만이 존재한다. 고려시대 점토석독구결 자료는 자토석독구결 자료보다 이전 시기의 국어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와 같은 용언 수식의 기능을 하는 '-룻'과 '-룩'의 시대별 빈도 차이는 '-룻'이 용언 수식이라는 새로운 용법을 점점 획득해 나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공교롭게도 『합부금광명경』 권3에서는 (7)과 같이 점토로는 빼침선(43)[ㄴ]이 쓰이고, 자토로는 'ㄴ'이 쓰여 후행하는 용언을 수식하고 있다. 이처럼 개신된 용법의 '-룻'이 자토로만 등장하는 것은 『합부금광명경』 권3의 점토가 좀 더 보수적인 표기법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거나, 『합부금광명경』 권3의 자토가 점토보다 늦은 시기에 현토되었기에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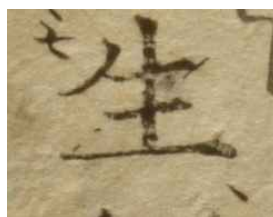
3.2. 해독 수정이 필요한 빼침선

3.2.1. 빼침선(23~24)[ㄴ]

- 『합부금광명경』 권3에서는 역독선과 지시선과 같은 부호들이 각필로 기입된 다른 『유가사지론』과는 달리 짧게 기입되는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빼침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빼침선(23~24)의 경우 현토 위치상 15~24(/)와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 그런데 선 점토의 경우 빼침선 점토보다 시작점과 끝점이 분명하고 선의 굵기가 일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빼침선의 경우 선보다 길이가 좀 더 긴 경우가 많다.
- ① 『합부금광명경』 권3에서 15~24(/)[ㄴ]은 총 2회 현토되었는데, 아래와 같이 선의 시작점과 끝점이 분명하고 선의 굵기가 일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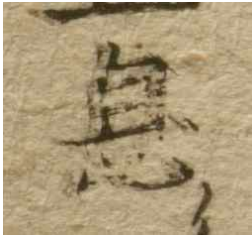
惟<7: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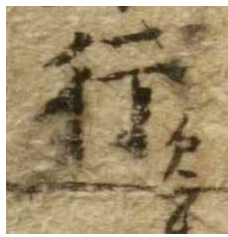
生<8:09>

- ② 『합부금광명경』 권3에서 24(\)[ㄴ]은 총 12회 현토되었는데, 아래와 같이 대부분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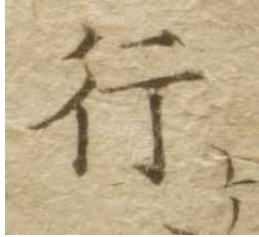
의 시작점과 끝점이 분명하고 선의 굵기가 일정하다.



息<금광3, 0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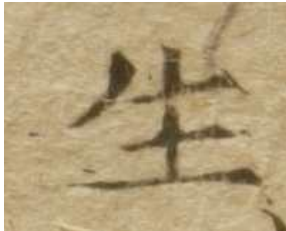
行<금광3, 03:13>



行<금광3, 04:06>



法<금광3, 04:07>



生<금광3, 04:16>



那<금광3, 0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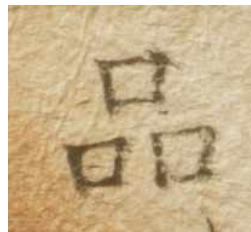
智<금광3, 05:06>



邊<금광3, 0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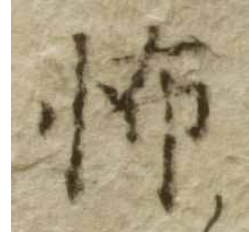
邊<금광3, 06:16>



品<금광3, 07:05>



根<금광3, 13:25>



怖<금광3, 15:08>

- ③ 『합부금광명경』 권3에서 빠침선(23~24)는 총 7회 현토되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선의 시작점이 분명한 것에 비해 끝점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선의 굵기가 일정하지 않다. 또한 선 점토보다 길이가 긴 경우가 많다.



足<02:08>



具<06:01>



首<06: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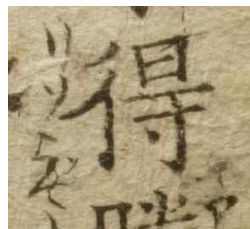
其<06:11>



上<06:19>



得<6:23>



得<7:18>

- 빼침선(23~24)와 대응하는 자토는 '스ㅅ', 'ㅅㅅㅅ', 'ㅅㅅㅅ'으로 일정하지 않다. 이들은 각각 [히], [히앗], [히잇]을 표기한 것으로 보이며, 모두 용언 'ㅎ-'를 포함하고 있다

- ① 滿足ッ尸 未リスㅅノ 是乙 名下 禪波羅蜜因ノヲカ
- ② 具リㅅㅅㅅノ 1入乙 菩薩1 悉3 見ッナヂセ1
- ③ 身首乙 貫飾ㅅㅅㅅノ 1入乙 菩薩1 悉3 見ッナヂセ1
- ④ 分陀利花ノヲナ 其 池乙 莊嚴ッカㅅㅅㅅ1乙
- ⑤ {於}上ノナ 覆ㅅㅅㅅノ 1入乙 菩薩1 悉3 見ナヂセ1
- ⑥ 昔尸 得尸 未リㅅㅅㅅ1ノ 1 所リ1乙
- ⑦ 昔尸 得尸 未リㅅㅅㅅ1ノ 1 所セ 勝利乙 得3 1入ㄴ1)

- '스'는 보통 용언 'ㅎ-'와 사동접사 '-이-'의 결합형을 나타내는 구결자이다. 그러나 '스ㅅ'의 '스'는 맥락상 용언 'ㅎ-'와 사동접사 '-이-'의 결합형으로 보기 어려우며 선어말 어미 '-ㅅ-'의 존재도 인정하기 어렵다.

- 구결자 'ㅅ'가 양성모음 뒤에서는 [이]를 표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ㅅㅅㅅ'은 [히잇]이 되는데, 이는 '스ㅅ[히]'과 음가상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스ㅅ'과 'ㅅㅅㅅ'는 동일 형태소 구성의 이표기일 가능성이 높다.

- 'ㅅㅅ'과 'ㅅㅅ'은 동일한 구문 유형에서 동일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큰 의미 차이 없이 교체되어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때의 'ㅅㅅ'은 인용문 내의 용언에서 쓰이는 선어말 어미 '-ㅅㅅ-'과는 별개의 형태소이다.

1) 각 예문들에 대해 보다 갖추어진 석독구결문과 현대어역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① <금광02:07-08> 是 如支 第五心リ 上セ 種種セ 功德法藏3ナ 猶リ 滿足ッ尸 未リ스ㅅノ 是乙 名下 禪波羅蜜因ノヲカ(이와 같이 第五 心이 위의 갖가지 功德法藏에 아직 가득 차지 않아 있는 것, 이것을 일컬어 禪波羅蜜因이라 하며)
- ② <금광06:01-02> 三千大千世界セ 地 平ッ1矢 掌 如支ッ1ヲナ 量 無カ 數 無ッ1 種種セ 妙色リ1 淸淨ッヒセ{之} 寶ㄴ1 莊嚴セ{之} 具リㅅㅅㅅノ 1入乙 菩薩1 悉3 見ッナヂセ1(三千大千世界の 땅이 평평한 것이 손바닥과 같은 곳에 한량없고 數 없는 갖가지 妙色인 淸淨한 보배로 된 莊嚴의 道具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菩薩은 다 본다.)
- ③ <금광06:07-08> (寶)女人 如支ッ1リ 一切之セ 其 身 頂上乙 莊嚴ノ尸ム 散多那花ノ 妙寶瓔珞ノ尸ム 身首乙 貫飾ㅅㅅㅅノ 1入乙 菩薩1 悉3 見ッナヂセ1(寶女人 같은 이가 一切 그 몸과 머리를 莊嚴하되 散多那花이니 妙寶瓔珞이니 하는 것으로 몸과 머리를 貫飾하고 있는 것을 菩薩은 다 본다.)
- ④ <금광06:09-11> 七寶花池3ナ 四階道 有セカ 金沙リ 徧滿ッ3 淸淨 無穢ッカ 八功德水リ 皆セ 悉3 盈滿ッカ 鬱波羅花ノ 拘物頭花ノ 分陀利花ノヲナ 其 池乙 莊嚴ッカㅅㅅㅅ1乙(七寶花池에 四階道가 있으며 金沙가 徧滿하여 淸淨無穢하며 八功德水가 다 盈滿하며 鬱波羅花이니 拘物頭花이니 分陀利花이니 하는 것이 그 연못을 莊嚴하며 하고 있거늘.)
- ⑤ <금광06:18-19> 頂上3セ 白蓋1 量 無ッ1 衆寶ㄴ{之} 莊嚴ノ1 所1乙 {以}シホ {於}上ノナ 覆ㅅㅅㅅノ 1入乙 菩薩1 悉3 見ナヂセ1(頂上の 白蓋는 한량없는 衆寶로 莊嚴한 바이거늘 그것으로써 위에 덮고 있는 것을 菩薩은 다 본다.)
- ⑥ <금광06:23-24> 出世心乙 得カ 昔尸 得尸 未リㅅㅅㅅ1ノ 1 所リ1乙 而ㄴ 今ハ1シ 始ノ 得ッカ 大事ノ 大用ノ尸ム 意セ 願ノ1 所乙 如ハ 悉3 皆 成就ッカッ3(出世心を 얻으며, 예전에 얻지 못했던 바이거늘 지금에야 비로소 얻으며, 大事이니 大用이니 하는 것을 뜻에 원하는 대로 다 成就하며 하여.)
- ⑦ <금광07:18-19> 昔尸 得尸 未리ㅅㅅㅅ1ノ 1 所セ 勝利乙 得3 1入ㄴ 故ノ 動踊ット1カ 無明乙 因ノッカ(예전에 얻지 못했던 바의 수승한 이익(勝利)을 얻은 까닭으로 動踊함도 無明을 因하며)

- 인용문 내에 쓰이는 선어말어미 '-ㅓㅑ-'은 선어말어미 '-ㅑ-'나 계사 '-ㅓ-'에 후행한
며, '-ㅓㅑㅣ', '-ㅓㅑㅓ', '-ㅓㅑㅑ'와 같이 어말어미만이 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때
'-ㅓㅑ-'은 '-ㅑㅑㅣ', '-ㅑㅑㅓ', '-ㅑㅑㅑ'와 같이 '-ㅑㅑ-'으로 교체되는 일이 없다.
- 서로 교체되어 쓰일 수 있는 'ㅓㅑ/ㅑㅑ'이 무엇인지는 아래의 예가 힌트를 줄 수 있다.

(10) ㄱ. <금광06:23-24>

昔^ㅓ得^ㅑ未^ㅓㅓㅑㅣㅓ^ㅑ所^ㅓㅓㅑㅓ 而^ㅓ今^ㅓㅓㅑ始^ㅑ得^ㅑㅓㅑ 大事^ㅓ大用^ㅓ
ㅓㅑ意^ㅑ願^ㅑㅓㅑ所^ㅓㅓㅑ如^ㅑㅓㅑ悉^ㅑ皆^ㅑ成就^ㅑㅓㅑㅓ

(예전에 얻지 못했던 바이거늘 지금에야 비로소 얻으며, 大事이니 大用이니 하는
것을 뜻에 원하는 대로 다 成就하며 하여.)

ㄴ. <금광07:18-19>

昔^ㅓ得^ㅑ未^ㅓㅓㅑㅑㅓㅣㅓ^ㅑ所^ㅓㅑ勝利^ㅑㅓㅑ得^ㅑㅓㅑㅓㅓ 故^ㅑㅓㅑ動踊^ㅑㅓㅑㅓㅓㅓㅓ 無明^ㅑㅓㅑ因^ㅑㅓㅑㅓ

(예전에 얻지 못했던 바의 수증한 이익(勝利)을 얻은 까닭으로 動踊함도 無明을 因하며)

ㄷ. <상서도관첩(尙書都官貼) 1262년: 37-38행>

累世 私門成黨 甲兵自衛/爲有^ㅑ如^ㅑ乎 /由以 垂垂掃蕩 人員 /無如在^ㅑ乙

((최씨 정권이) 여러 대에 걸쳐 자기 집안에 당을 이루고 무장한 병사가 스스로 방위하
였던 까닭으로 점차 소탕되어 인원이 없던 것을)

ㄹ. <월인석보, 09:33b-34a>

ㅎ다가 아래 人間에 이십 저기 藥師瑠璃光如來ㅣ 일후를 듣^ㅑㅓㅑ단^ㅑ디면 이 도흔 因
緣으로 이제 와 또 생각^ㅑㅓㅑ 고죽^ㅑㅓㅑ 므스ㅓㅑ로 歸依^ㅑㅓㅑ면 부텨 神力으로 한 受苦를
버서(若昔人中曾聞世尊藥師琉璃光如來名號。由此善因今復憶念至心歸依。以佛神力衆
苦解脫。)

- (10ㄱ)의 'ㅓㅑ'과 (10ㄴ)의 'ㅑㅑ'에 후행하는 'ㅣ'는 선어말어미 '-더-'를 표기한 것이
다. 이들은 모두 과거의 사태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환경에서 쓰이고 있다. 고려시대 이두
에서는 이와 유사한 환경에서 (10ㄷ)처럼 '爲有^ㅑ' 구성이 쓰이고, 중세국어에서는 (10ㄹ)
처럼 '-아+잇+-더-' 구성이 쓰인 바 있다.

- 다만 (10ㄱ, ㄴ)과 (10ㄹ)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 ① (10ㄱ)의 'ㅓㅑ[ㅎ앗]'은 중세국어의 '-앓-'이 '-앗-'이 된 것처럼 활음 '-ㅣ'가 탈락
된 구성이다.²⁾
- ② (10ㄴ)의 'ㅓㅑㅑ[ㅎ잇]'은 연결어미 '-아' 없이 'ㅎ-'와 '잇-'이 결합한 구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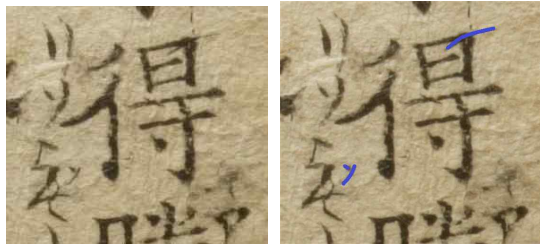
- 중세국어에서 '-앓-'보다 '-앗-'이 후대형이며 어간 복합 구성이 드물게 쓰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10ㄴ)의 'ㅑㅑ'이 선대형이고 (10ㄱ)의 'ㅓㅑ'은 언어의 변화를 반영하는 후대
형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이들은 모두 이두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爲有^ㅑ' 구성을
표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2) 이와 같은 분석 가능성은 안대현 선생님의 교시에 따른 것이다.

- 빼침선(23~24)과 대응하는 자토가 'ㄸㅅㅅ[히]', 'ㄸㅅㅅㅅ[히앗]', 'ㄸㅅㅅㅅ[히잇]'처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爲有' 구성의 형태적 구성이 다양하게 실현되던 시기에 자토가 현토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 다만 빼침선(23~24)는 아래의 특징을 고려하면 정확히는 'ㄸㅅㅅㅅ/ㄸㅅㅅ[히잇/히]'으로 해독되는 점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① 'ㄸㅅㅅ'과 'ㄸㅅㅅㅅ'은 선대형인 'ㅎ--+잇-'의 [히]를 표기한 것이고 'ㄸㅅㅅㅅ'은 후대형인 'ㅎ--+아+(이)ㅅ-'의 [히앗]을 표기한 것인데, 현존하는 고려시대 점토석독구결은 자토석독구결보다 앞선 시대의 자료가 많다.
 - ② 빼침선은 같은 위치의 단점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데, 23~24(·)는 '(ㅅ)ㅅ[히]'로 해독되는 단점이다.
- 이러한 해독은 이 점토를 빼침선(23)으로 판독하고 [ㄸㅅㅅ]로 해독했던 문현수(2014)에 비해 구결점의 실제 현토 위치를 더 잘 반영하고 단점과의 관련성을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다.

3.2.2. 빼침선(51)[-ㅣ[더]-]

- 빼침선(51)은 『합부금광명경』에서 (11)과 같이 하나의 예만 관찰되는데, 앞서 살펴본 빼침선(23~24)과 함께 쓰인 것이 특징이다. 문현수(2014)에서는 '(ㅅ)ㅣ'로 해독되었다.



得<7:18> 빼침선(23~24) 표시
 빼침선(23~24), 빼침선(51) 빼침선(51) 표시

(11) <금광3, 07:18-07:19>

자토: 昔^ㅅ 得^ㅅ 未^ㄸ ㄸㅅㅅㅅ^ㅣ 所^ㅅ 勝利^乙 得^ㅅ ㅅㅅㅅ 故^ノ 動踊^{ㅅㅅ} ㅅㅅ ㅅㅅ 無^ㅅ 明^乙 因^ノ ㅅㅅ

A: 昔所未得[15~25(-), 22~32(·), 빼침선(23~24), 빼침선(51), 33(\), 42(·)] 勝利[34(·)] 得[22(·), 43(/)] 故[11~21(·)] 動踊[14(·)] 因無明[34(·), 21(·), 55(·)]

B: 昔所未得[ㅅ, ㅅ, ㅅㅅㅅ, ㅅ, ㅅ, ㅅ] 勝利[乙] 得[ㅅ, ㅅㅅㅅ] 故[ノ] 動踊[ㅅㅅ ㅅㅅ] 因無明[乙, ㅅ, ㅅ]

C: 昔 得ㅅ 未ㄸㅅㅅㅅ ㅅ ㅅ 所ㅅ 勝利乙 得ㅅ ㅅㅅㅅ 故ノ 動踊ㅅㅅ ㅅㅅ 無明乙 因ノ(ㅅ)ㅅ

D: 예전에 얻지 못했^던 바의 수승한 이익[勝利]을 얻은 까닭으로 動踊하는 것도 無明을 因하여 하며

- 빼침선(51)은 51위치의 단점과 사선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빼침선들과는 형태상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는 마치 구결자 'ㄷ'처럼 보이지만 문현수(2014)에서는 자토구결에서 'ㄷ'를 보충하기 어려운 점, 점토구결에서 'ㄷ'에 해당하는 구결점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토로 볼 수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 이를 구결자 'ㄷ'가 아니라 빼침선(51)로 볼 경우, 자토와 점토와의 대응을 고려하면 빼침선(51)은 'ㄷ'와 대응이 되는 점토로 볼 수 있다.



得<6:23>
빼침선(23~24)

빼침선(23~24)
표시

(12) <금광3, 06:23>

자토:昔^ㄷ 得^ㄷ 未^ㄷ ㄷ^ㄷ ㄷ^ㄷ ㄷ^ㄷ 所^ㄷ ㄷ^ㄷ 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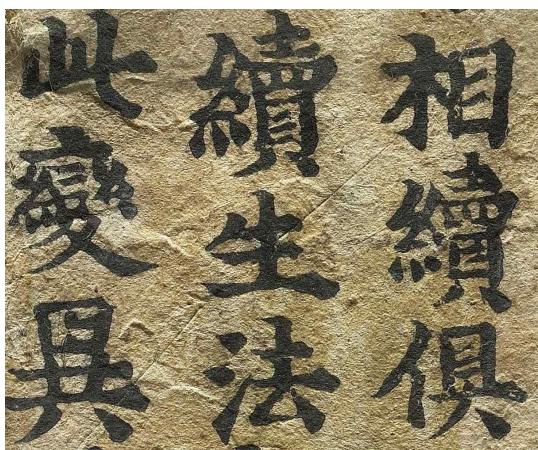
A:昔所未得[15~25(-), 빼침선(23~24), 33(\), 35(/)]{43(·)}

B:昔所未得[ㄷ, ㄷ^ㄷ ㄷ^ㄷ, ㄷ^ㄷ, ㄷ^ㄷ]

C:昔 得^ㄷ 未(ㄷ) ㄷ^ㄷ ㄷ^ㄷ (ㄷ) ㄷ^ㄷ 所^ㄷ ㄷ^ㄷ 乙

D:예전에 얻지 못했던 바인 것을

- 『합부금광명경』 권3에서는 (11)과 동일한 구성이 (12)처럼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는 빼침선(51)이 있을 법한 자리에 자토 'ㄷ'이 지저분하게 기입되어 있다. 빼침선(51)이 기입된 위치에 자토 'ㄷ'을 겹쳐 기입한 것으로 본다면, 빼침선(51)의 예는 모두 2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문현수 2014).



[유가03] 生<9:17>

빼침선(23~24), 빼침선(51)

- 문헌수(2014)에서는 『유가사지론』 권3에 쓰인 빼침선(51)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11)에서 빼침선(51)을 인정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13) <유가3, 09:17>

A: 先[54(·)]未[역독선]相續[45(·)]生[22~32(·)?, 빼침선(23~24), 빼침선(51), 33(·)]法[22~32(·)]今[32~33(·), 24(·), 경계선, 구결자(ゝ)]最初[45(·)]生是[34(·)]名[54(·)]生有爲相[53(·), +55(·)]

B: 先[下]未相續[가]生[리, 소라세, 1, 1]法[리]今[리, 3]最初[가]生是[乙]名[下]生有爲相[하, 노가]

C: 先下 相續가 生 未리 소라세 1 法리 今리 最初가 生(소 1 入 乙) 是乙 名下 生有爲相하 노가

D: 앞서 相續히 生하지 못했던 法이 이제야 最初로 生하는 것을 이를 일러 生有爲相이라고 하는 것이며

- (13)에서는 빼침선(23~24)와 빼침선(51)이 함께 쓰이고 있는데, 이는 '未' 부정문에 쓰였다는 점과 과거의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11), (12)와 공통점을 보인다.
- (11)과 (12)의 자토석독구결에서 구결자 'ㅣ'는 종결어미 '-다'가 아니라 선어말어미 '-더-'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인 것이다. 그런데 이와 대응하는 점토로는 일반적으로 'ㅣ'로 해독되는 51(·)이 아니라 빼침선(51)이 쓰이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빼침선(51)은 종결어미 '-ㅣ(다)'가 아니라 선어말어미 '-ㅣ(더)-'를 변별적으로 표기하기 위해 마련된 구결점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4. 맺음말

- 『합부금광명경』 권3에 쓰인 빼침선의 유형과 그 해독안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 | |
|----------------------------------|-----------------------|
| ① 빼침선(22~32): 一 ㄱ [일이] | ※ 22~32(·): ㄱ [이] |
| ② 빼침선(23~24): 소 라 세 / ㄱ 세 [히/爲有] | ※ 23~24(·): (ㄱ) ㄱ [히] |
| ③ 빼침선(24): 二 3 [시사] | ※ 24(·): 3 [사] |
| ④ 빼침선(43): ㄴ ㅏ [록] | ※ 43(·): ㄴ [로] |
| ⑤ 빼침선(51): 一 ㅣ [더]- | ※ 51(·): ㅣ [다] |

- 위의 빼침선의 해독안을 고려하면, 빼침선은 동일 위치 단점의 해독을 포함한 좀 더 복잡한 형태적 구성을 나타내거나(①, ②, ③, ④), 형태는 동일하지만 서로 변별되는 형태소를 표기하기(⑤) 위해 마련된 구결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빼침선(51)과 다른 빼침선이 외형적 형태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러한 해독 결과의 차

이를 나타내기 위한 것일 수 있다.

- 빼침선(23~24)과 대응되는 자토로 'ㄴ ㄹ ㅅ / ㅅ ㅅ [히려]' 이외에도 그 후대형인 'ㄴ ㄹ ㅅ [히려]'이 쓰이기도 하고, 빼침선(43)은 대응되는 자토로 'ㅁ ㅂ [복]'이 아니라 용언 수식이라는 새로운 용법을 획득한 'ㅁ ㅅ [복]'이 쓰이고 있다. 이처럼 점토에 대응되는 자토가 언어 변화의 결과를 반영한 후대형이 쓰이는 것은 ①『합부금광명경』 권3의 점토가 자토보다 좀 더 보수적인 표기법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거나 ② 점토가 자토보다 이른 시기에 현토되었기에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

참고문헌

- 김성주(2005a),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爲’字에 현토된 난해 구결」, 『한국어문학연구』 45, 한국어문학연구학회, 61-78.
- 金星周(2005b), 「‘爲’에懸吐되는口訣字와機能」, 『口訣研究』 15, 口訣學會, 29-54.
- 남권희(2002),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 淸州古印刷博物館.
- 南豐鉉(1998), 「『瑜伽師地論』(卷20) 釋讀口訣의表記法과 한글轉寫」, 『口訣研究』 3, 口訣學會, 253-336.
- 남풍현(1999), 『國語史를 위한口訣研究』, 태학사.
- 南豐鉉 외(2020), 『吏讀辭典』,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員.
- 노명호 외(2011),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上)』,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문현수(2014), 「『瑜伽師地論』系統點吐釋讀口訣에 사용된 빼침선의 기능」, 『口訣研究』 33, 口訣學會, 249-283.
- 문현수(2016), 「‘-롯-’과 ‘-록-’의 관계에 대하여」, 『口訣研究』 37, 口訣學會, 67-100.
- 박진호(1998), 「고대국어어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3』, 국립국어연구원, 121-205.
- 안대현(2009),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의 빼침선에 대하여」, 『口訣研究』 22, 口訣學會, 197-218.
- 윤행순(2001), 「한국의符號口訣과 일본의오코토(ヲコト)點에 대하여:瑜伽師地論을 중심으로」, 일본북해도대학 워크샵 발표논문집.
- 李丞宰 외(2005), 『각필구결의해독과번역1』, 태학사.
- 李丞宰(2001a), 「符號字의文字論的論議」, 『국어학』 38, 국어학회, 89-116.
- 李丞宰(2001b), 「瑜伽師地論角筆符號口訣의解讀을 위하여」, 『국어연구의이론과실제』(이광호선생회갑기념논총), 태학사.
- 李丞宰·安孝卿(2002), 「角筆符號口訣資料에 대한 조사 연구:誠庵本『瑜伽師地論』卷第5와卷第8을 중심으로」, 『口訣研究』 9, 口訣學會, 115-145.
- 이용(2013), 「『함부금광명경』 권3 석독구결의 현대어역」, 『口訣學會 제46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41-225.
- 장경준(2007), 『『瑜伽師地論』點吐釋讀口訣의解讀方法研究』, 태학사.
- 장경준(2008a), 「高麗初期點吐口訣의諸符號」, 『한국어학』 40, 한국어학회, 307-339.
- 장경준(2008b), 「點吐口訣研究의成果와當面課題」, 『口訣研究』 21, 口訣學會, 67-98.
- 장경준(2009), 「湖林本『瑜伽師地論』卷3의點吐에 대한 기초 연구」, 『口訣研究』 23, 口訣學會, 285-304.
- 장경준·오민석·문현수·허인영(2015), 『『유가사지론』 권20의 석독구결 역주』, 역락.
- 張景俊(2013), 「釋讀口訣と訓點資料に使われた符号について」, 訓點語と訓點資料131, 東京:訓點語學會, 8-28.
- 장경준(2021), 「『함부금광명경』 권3의 점토구결 기초 연구」(『고인쇄문화』 26집 게재 논문의 공동 연구 데이터 반영 수정본), 미간행.
- 정재영(1998), 「合部金光明經(卷三) 釋讀口訣의表記法과 한글轉寫」, 『口訣研究』 3, 口訣學會, 113-193.
- 정재영(2006), 「한국의 구결」, 『口訣研究』 17, 口訣學會, 129-189.
- 황선엽·이전경·하귀녀 외(2009), 『석독구결사전』, 박문사.

小林芳規・西村浩子(2001),「韓國遺存の角筆文獻調査報告」, 訓點語と訓點資料107, 東京:訓點語學會, 36-68.

小林芳規(2002),「韓國における角筆文獻の發見とその意義-日本古訓点との關係」,『朝鮮學報』107, 朝鮮學會, 1-82.

2021 년 제 60 회 구결학회 하기(夏期) 전국 학술(대한민국) 주최 : 구결학회 청주
고인쇄박물관

2021 년 8 월 11 일 On-line 방식

훈점어와 중세 일본어—설화(說話)・군키모노(軍記物)부터 쇼모노(抄物) 에—

< 訳参考 : 번역 참고 >

군키모노(軍記物) : 전쟁 소설 전쟁실록『일한사전』금성교과서(주)

쇼모노(抄物) : 특히 室町시대 京都五山の 승려들이 불전・한시 등을 주석한 것

『일한사전』금성교과서(주))

도쿄여자대학 (東京女子大学)

야마모토 신고 (山本 真吾)

1. 일본어 훈점자료의 어휘

중국 고전인 한문을 자국어 음훈으로 읽기 위한 부호를 일본에서는 '훈점(訓点)'이라 한다. 이 훈점(訓点)은 원래 한문의 글자 옆과 글자 사이에 또는 난외(欄外)와 종이 뒤등에 덧붙여 쓰여져 어순을 한문에서 일본어문으로 바꾸어 놓기 위한 반점(返点), 한자 읽기와 오쿠리가나(送り仮名), 조사・조동사와 같은 부속어를 나타내는 가나(仮名) 및 오고토점(オコト点), 복수의 한자 결합을 나타내는 합符, 성조(声調)를 나타내는

성점(声点)등이 있다. 이 훈점(訓点)을 기입한 문헌을 훈점본(訓点本)이라 하고 연구자료로 볼 때는 훈점자료(訓点資料)라고 한다(주 1).

한국 구결자료(口訣資料)와 일본 훈점자료(訓点資料)와 차이 하나는 가나(仮名) 및 오고토점(ヲコト点)에 의한 어형표시(語形表示) 방법이 있다. 일본 훈점자료의 경우 문헌에 훈독을 위한 기호를 뽁뽁하게 써 넣는 자료에는 가나(仮名)에 의한 어형표시는 문법요소와 어미뿐만 아니라 한자 어형전체를 나타내지는 것이 많고 훈점자료에 사용된 자립어의 어휘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築島裕(쓰키시마히로시) (주 2) 는 院政시대(12 세기) 훈점자료 대표적인 것으로서 興福寺(고후쿠지)藏大慈恩寺三藏法師伝를 거론하여 여기에 사용된 어휘와 平安시대의 가나(仮名) 문학 작품의 최고 걸작으로 저명한 源氏物語(겐지 모노가타리)의 전어휘를 자세히 비교해서 한문훈독체(漢文訓読体)와 화문체(和文体)의 이대(二大) 문체의 존재증명을 한 것은 특히 유명한 연구 업적으로 후대의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築島(쓰키시마) (주 3) 는 동의적(同義的) 이어형(異語形) 이항(二項) 대립어군(対立語群)으로서 す・さす／シム、やうなり／ゴトシ、いと／ハナハダ、とく／スミヤカニ、かたみに／タガヒニ、え～ず／～コトアタハズ등을 소개하고 A/B 의 전자 A 를 화문(和文)특유어 후자 B 를 한문훈독특유어로 호칭했다.

이러한 연구가 가능하게 된 것은 일본의 훈점자료에서 자립어의 형태가 가나(仮名)에 의해 구석구석까지 표시된다는 특성에 의한 것이다.

< 訳参考 : 번역 참고 >

반점(返点) : 한문을 훈독할 때 한자 왼 쪽에 붙여 아래에서 위로 올려 읽는 순서를

나타내는 기호『일한사전』금성교과서(주)

오고토점(ウコト点) : 훈고점(訓詁點), 한문을 훈독하기 위해 썼던 부호『일한사전』

금성교과서(주)

合符 : 한문 훈독 중에 한자의 熟습을 나타내기 위해 붙인 기호(沖森卓也(2013)『

漢文資料を読む』朝倉書店)

和文 : 平安시대의 가나로 된 문장『일한사전』금성교과서(주)

2 . 고훈점연구사에 있어 中田祝夫박사의 위치

築島裕(쓰키시마히로시) 훈점 자료 연구 특히 한문 훈독어의 해명은 일본어사 연구에서 획기적인 성과이고 築島(쓰키시마)의 대표적인 업적중 하나로 손꼽히지만 이 연구를 촉구하고 이끌어낸 존재로서 中田 祝夫(나카다노리오) 박사의 교육 연구 활동을 빼놓을 수 없다.

여기선 먼저中田祝夫(나카다 노리오) 박사의 연구 역사의 의의(意義)를 소개하자 한다. 中 田 (나카다) 박사가 제시한 연구 방향은 지금 더욱 저희들의 연구 지침으로 그 유효성(有効性)을 잃지 않고 달성되지 않은 단계라는 것을 제시하고 싶다.

中田祝夫(나카다노리오)(1915~2010) 박사는 도쿄문리(東京文理) 대학을 졸업. 도쿄

교육대학 쓰쿠바(筑波)대학 교수를 역임 후 같은 대학 명예교수가 되었다. 문학 박사.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를 육성했다. 그 대표적인 업적은 『古点本の 국어학적 연구』((총론편: 1954, 번역문편: 1958, 講談社)이며 훈점자료를 구사하여 완성한 오코토점(ヲコト点)의 계통론 연구는 훈점 연구 역사의 획기적인 성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것은 그 후에 築島裕(쓰키시마히로시)『平安時代訓点本論考』(오코토점도(ヲコト点図)가나(仮名)자체표(字体表):1986, 연구편:1996, 汲古書院)에 의해 증보 수정되지만 그 기본이 되는 것에 큰 하자(瑕疵)는 없다. 근년(近年)에는 宇都宮啓吾(주 4)는 中田・築島の 연구 성과를 근거로 밀교교학(密敎敎学)을 축으로 한 사원(寺院) 학승(学僧)의 네트워크까지 갖추어 오코토점(ヲコト点)의 전개사(展開史)를 역동적으로 그려보려고 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中田 박사의 연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아주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 주축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영역이며 그 자료기반을 갖추기 위해 핵심이 되는 문헌 자료인 영인(影印) 해제(解題) 주석(注釈)을 정력적으로 공표 간행했다.

(1) 고사서(古辞書) 연구

倭名類聚抄(元和本)、色葉字類抄、古辞書大系(勉誠社):古本節用集六種・文明本節用集・書言字考節用集・節用集大全・字鏡集・多識編・倭玉篇・古本下学集等

(2) 변체한문(変体漢文) 연구

日本靈異記

(3) 쇼모노(抄物) 연구

抄物大系(勉誠社):江湖風月集抄・三体詩素隠抄・三体詩幻雲抄・応永二十七年本論語

抄・足利本論語抄・玉塵抄・四河入海・毛詩抄・燈前夜話・中華若木詩抄等

(4) 가나서(仮名書) 경전(經典) 연구

足利本仮名書法華經(勉誠社)、妙一記念館本仮名書き法華經(靈友会)

이 외에도 쓰레즈레구사(徒然草) 도와즈가타리(とはずがたり) 미카와모노가타리(三河物

語) 아유히쇼(あゆひ抄) 등 개별 문헌 자료에 입각한 연구도 있지만 주로 심혈을 기울인

문헌군은 상기 4 종으로 봐도 좋다.

이 (1)~(4)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中田박사가 일본어사에 있어 한어한문(漢語漢文)

의 중요성을 충분히 자각해 한어한문(漢語漢文)의 이해·표현에 관련있는 문헌을

중심적으로 연구를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中田祝夫(나카다노리오)는 중국고전의 한적(漢籍) 불전(仏典)의 훈점자료 고사서(古辭書)

변체한문(変体漢文) 쇼모노(抄物) 가나서(仮名書) 경전(經典)을 한문의 훈독(訓読)이라는

시점에서 파악해 일본어사의 의의(意義)를 해명하는 지향성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

연구지침은 다음 세대에 착실히 계승되어 대학원에 있어 직접적인 지도관계에

한정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계보에 다다를 수 있다.

먼저 훈점 자료의 연구로는 田中에서 小林芳規(요시노리)로 이어진다. 그것은

연구성과의 계승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긴키(近畿)지방의 여러 사찰 경장(經藏)에 잠든

훈점자료를 실제 현장에서 발굴 조사한다는 스타일도 포함해 계승되었다. 그리고

築島(쓰키시마)에서 石塚晴通・月本雅幸에, 小林에서沼本(누모토)克明・松本光隆・宇都宮啓

품로이어져 그 위에 石塚에서 小助川貞次(고스케가와테이지)에로 발전적으로

계승되었다.

고사서(古辭書) 연구도 築島裕・小林芳規・林義雄・峰岸明등이 있고 더욱더 築島에서 白藤礼幸・宮澤俊雅에게 小林에서 原卓志(다쿠시)・山本秀人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宮澤에서 池田証寿으로 이어졌다. 변체한문(変体漢文) 연구는 築島裕・小林芳規・峰岸明가 있고 築島에서 冲森卓也에게 小林에서 三保忠夫 鈴木恵 山本真吾으로 대상연구 범위를 고문서(古文書) 往来 설화(說話) 表白・願文와 같이 세분화해 진전해 나갔다.

더욱더 中田는 쇼모노(抄物) 연구도 한어한문(漢語漢文)을 축으로 한 일본어사 연구의 확대 속에 자리매김하고 小林賢次・小林千草(지구사)・福島邦道등이 계승해 갔다. 가나서(仮名書)경전(經典) 연구도 野澤勝夫 柴田昭二 石井文夫 林義雄등의 논고(論考)가 공표되었다.

여기서 中田祝夫 연구를 언급한 것은 현시점 학계에서도 그 사정(射程)의 확대를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中田는 오코토점(ヲコト点)의 계통론에서 획기적인 업적을 올렸지만 훈점자료를 축으로 해서 그 폭을 넓게 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일본어사에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鎌倉시대의 화한혼효문(和漢混淆文)에 그치지 않고 室町시대 쇼모노(抄物) 자료군까지 확장해 가는 지향성을 획득했다라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 訳参考 : 번역 참고 >

往来 :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왕복 서간문체로 엮은 鎌倉시대부터 明治시대 초기까지의 교과서『일한사전』금성교과서(주)

表白 : << 仏 >> 법사 처음에 그 취지등을 불전에 알리는 것, 또는 그 문(文)『大辞林』題 3 版 三省堂

願文 : (신불에서의) 발원문『일한사전』금성교과서(주)

3 . 훈점어와 한문훈독어

발표자는 구고(旧稿) (주 5)에서 平安시대 가나(仮名)문학 작품에서는 볼수 없고 훈점 자료 쪽에서만 보이는 어(語)에 대해서 이 조작(操作) 단계에서 '한문 훈독어'라는 호칭 쓰는 것을 멈추고 이를 훈점자료 쪽에서 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훈점 특유어'로 복구시킨 것에 더하여 의미 용법의 문제를 일단 어형과 별개로 고찰하기 위해 '훈점 특유어형'을 축으로 의논을 시작한 것이 유효한 것이 아닌가를 제안했다.

헤이안(平安) 시대 후반기에 가나(仮名) 문학작품에서는 보이지 않고 훈점자료 쪽에서만 보이는 어(語)를 築島(쓰키시마)는 당초에 '훈점 특유어'로 호칭했지만 『平安時代語新論』에서는 '한문 훈독(특유)어'의 호칭을 변경해 이후에 '한문 훈독 특유어' 혹은 '한문 훈독어'라 부르게 되어 지금까지 계승되고 있다. 그리고 이 '한문 훈독어'(즉 발표자가 말하는 '훈점 특유어형')가 院政가마쿠라(鎌倉)시대의 이른바 설화집이나

군키모노가타리(軍記物語) 화한혼효문(和漢混淆文)에서 보이는 경우에 발표자는 그것을 《漢》의 요소를 측정하는 지표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검토를 더하는 것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것은,

- (1) 훈점 자료의 의미 용법과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지.
- (2) 특정 장면 화자등 분포상의 편중이나 사용의 제약등은 관찰되지 않는가.
- (3) 헤이안(平安)시대 가나(仮名)문학작품에서 일절 보이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열세(劣勢)이지만 볼 수 있는 것인가.

이상의 3 점이다. 그리고, (1)에 대해 의미 용법이 다른 경우에 기존에는

- ① 11 세기까지의 훈점 자료와 12, 13 세기의 화한혼효문(和漢混淆文)과의 사이에 시대차가 이 의미용법의 차이를 발생시킨 이유이다. 즉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의미용법이 변화한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을 채택한 것이 많았던 것 같다. 하지만

- ② 화한혼효문(和漢混淆文)의 의미용법은 원래의 자연스러운 일본어 표현의 의미용법을 반영한 것이고 훈점자료 쪽 그것은 원한문(原漢文)을 훈독할 때 생긴 왜곡된 의미용법이다.

라고 하는 해석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즉 '훈점 특유어형'은 언뜻 한문 훈독 시에 사용되는 훈점자료중의 어형(語形)과 일치해서 《漢》의 요소를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가나(仮名)문학작품

이외의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던 어(語)이고 그것이 훈점자료 옆에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어형군(語形群)의 존재를 상정(想定)하는 것이다.

4, 훈점어의 위상

발표자는 3 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훈점어 가운데 다음의 여러 단어에 대해 재차 검토를 더해 왔다. 훈점자료에 이용된 어(語)='훈점어'라고 규정하고 훈점자료에 있어서 해당어의 의미용법과 그 이외의 문헌에서 사용되는 경우의 의미용법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대략 이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훈점자료에 이용되고 있는 어(語)로는 공통적으로 사용되지만 그 사용법은 어(語)에 따라 다르며 한적(漢籍)에 편중되 보이는 어(語) 불전(仏典)에 한정되는 어(語) 특정 자료에 한정되 오히려 훈점자료 옆에는 예외적인 출현을 하는 어(語)등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1) すみやか(速 스미야카): 긴장을 동반한 남성의 일상 회화어

今昔物語集に於ける「速ニ」の用法について(『鎌倉時代語研究』11、1988)

訓点特有語と漢字仮名交じり文—延慶本平家物語の仮名書き訓点語をめぐる—(『訓点語と訓点資料』139、2017)

2) をしふ(教 오시후): <人+ を(을/를)+ をしふ>의 구조는 한문훈독에 의해 생긴

어법(語法)

平安時代に於ける動詞「をしふ(教)」の意味用法について—訓点資料の用例に注目して—(『訓点語と訓点資料』92、1993)

3) おぎろ(蹟 어기로): 상대어(上代語)가 훈독에 사용되 헤이안(平安)시대에는

이해어휘로서 계승. 가마쿠라(鎌倉)시대에 법회의 장(場)을 통해 표현어휘로 재생해 다양한 의미 용법을 파생.

「おぎろ (蹟)」の語史—中世語の一つの流れ— (『国語語彙史の研究』 23、2004)

4) しきり (頻 시키리): 「すみやか」도 「しきり」도 본래에 니형(ニ型)

정태부사(情態副詞)로 쓰이지만 한문 훈독의 장(場)을 통해 형용동사화(形容動詞化)하였다.

平安時代に於ける「しきり(頻)」の意味用法について—その文体的意義特徴、漢文訓読を要因とするニ型情態副詞の形容動詞化の問題など— (『国語語彙史の研究』 25、2006)

5) きらふ (기라후): 상대(上代) 이후의 남성어. 상대어(上代語)가 훈독에 쓰여

헤이안(平安)시대에는 이해어휘로서 계승하는 중에 의미용업을 확장한다. 가마쿠라(鎌倉)

시대의 군키(軍記)등에 표현어휘로 사용.

「きらふ」続貂—宣命の言葉と漢文訓読語— (『国語語彙史の研究』 32、2013)

6) あきだる (飽足 아키다루): 상대(上代) 이후의 어(語). 가마쿠라(鎌倉) 시대의

군키(軍記)등에 보이지만 이것은 헤이안(平安) 시대의 한문훈독 용법이 아닌

상대어(上代語) 이후의 용법을 계승.

「あきだる(飽足)」の史的展開—中世軍記物における訓点語の受容— (中山緑朗『日本語史の研究と資料』 2015、明治書院)

7) ささふ (사사후): 한문훈독의 장에서〈保つ(유지하다)・持ちこたえる(지탱하다)〉의

의미로 「さふ」의 의미가 더해져〈妨げる(방해하다)〉의 의미가 생겼다. 이것은 「まうす」가

후접(後接)한 복합동「ささへまうす」가 되지만 이 어(語)는 〈抗弁する(항변하다)・反論する

(반론하다)〉의미로 한결같이 쓰여 문서 용어로서 용법을 획득했다. 또 한편

가평(歌評)용어로서는<말이 이어지는 상태가 매끄럽지 않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ささふ(支)」から「ささへまうす(支申)」へー訓点語から文書用語への史的展開ー
(『訓点語と訓点資料』135、2015)

8) そろふ(소로후) : 헤이안(平安) 시대 일부 훈점 자료에 보인다. 가마쿠라(鎌倉) 시대

이후 평속(平俗)적인 남성어로 사용.

訓点特有語と漢字仮名交じり文ー延慶本平家物語の仮名書き訓点語をめぐるー(『訓点語
と訓点資料』139、2017)

9) くぐる(구구루) : 군키모노(軍記物)의 용법은 만엽집(万葉集) 이후의 가어(歌語)로서의

용법과 평속(平俗)적인 구어의 용법을 도입했을 가능성.

「訓点特有語形」と和漢混淆文(全国大学国語国文学会『文学・語学』226、2019)

10) すぎる(스가루) :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등의 화문(和文)에도 훈점자료에서도 찾기

어려운 어(語)로 15 세기 중엽까지 한자표기가 정착되지 않았던 어(語). 평속적인
어(語)인가.

『今昔物語集』の動詞「すぎる」一欠字・仮名書自立語・漢字表記のゆれをめぐるー(『国
語と国文学』97-3、2020)

11) きらぎらし(기라가라시) : 상대어(上代語)가 한문 훈독에 사용되어 이해(理解)

어휘로서 계승. 원정기(院政期) 이후 활발히 쓰여져 <전거(典拠)를 바르게 근거로
하다>의미의 가평(歌評)용어도 파생시킨다.

平安鎌倉時代における「きらぎらし」の意味用法と位相ー訓点語と歌評用語ー、(東
京女子大学日本文学』117、2021)

12) こひねがふ(고히네가후) : 훈점어지만 고기록에 사용되 이를 이어받아 가평(歌評)

용어로서 <모범이 되는 선례를 찾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에 이른다.

平安鎌倉時代における「こひねがふ」の意味用法と位相ー訓点語及び記録語と歌評

用語一 (『中部日本・日本語学論集』 2021、和泉書院、印刷中・初校済)

이상과 같이 시대차(時代差) 위상차(位相差) 더불어 그 쌍방의 요인이 겹치는 사례도 있다.

5, 쇼모노(抄物) 어휘와의 관계

5.1 헤이안(平安) 시대 훈점 특유어·화문(和文) 특유어와 쇼모노(抄物) 어휘

헤이안(平安) 시대 훈점어 및 화문(和文)어는 그 후 어떻게 계승되어 가는가. 가마쿠라(鎌倉) 시대의 화한혼효문(和漢混淆文) 문장으로 유입 계승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었지만 더 나아가 무로마치(室町) 시대의 쇼모노(抄物) 자료 등에서는 어떠한가. 여기에선 이 문제에 대해 전망을 얻는 그 첫 단계로서 『시대별국어대사전 무로마치(室町)시대편』에 게재된 표제어를 <무로마치(室町) 시대어>의 총체(總体)로 간주하고 특히 쇼모노(抄物)의 용례가 거론되는지 어떤지를 기준으로 해 정리해 보았다.

쇼모노(抄物)은 무로마치(室町) 시대 중기(15 세기)부터 에도(江戸) 시대 초기(17 세기)에 걸쳐 제작된 문헌으로 한적(漢籍)과 불전(仏典) 국서(国書)등 한문작품의 강의기록이나 주석서(注釈書)를 말한다. 狂言대본이나 기리시탄 문헌과 함께 중세 구어를 아는 자료로서 중시되어 왔다.

()안의 문헌명은 『시대별국어대사전 무로마치(室町)시대편』에 게재된 쇼모노(抄物) 문헌, × = 표제어는 있지만 쇼모노(抄物)의 예불게(例不掲), % = 표제어 그 자체가 없음이라는 것을 표시한다.

○助動詞・接尾語の類…ゴトシ（中華若木詩抄）ーやうなり（古文後抄）、シム（史記抄）ーす・さす（使役）（山谷詩集鈔）、ザル%ーぬ%（打消、連体修飾法）、ザレ%ーね%（打消、已然形）

○接続詞…カルガユエニ（春鑑抄）・カレ×・ココヲモテ×・コノユエニ（古文後抄）・コレニヨリテ×・コレヲモテ（江湖抄）・シカラバ×・ユエニ（三体詩抄）・ユエヲモテ%ーされば（史記抄）、シカウシテ×ーさて（四河入海）、シカルニ（江湖抄）・シカルヲ（漢書列伝景徐抄）ーされど（されども＝史記抄）、さはあれど×

○陳述副詞…アニ×ーなど×、アヘテ×ーえ（…ず）（論語湖月抄）、カツテ×ーつゆ（…ず）×、ネガハクハ×ーいかで（…がな）（四河入海）、イハムヤ（四河入海）ーまさに（…むや）（漢書列伝竺桃抄）、イマダ×ーまだ（勅規桃源抄）

○程度副詞…スコブル×・ハナハダ（中華若木抄）ーいみじく×・いたく×・いと×、ホボ（写本莊子抄）ーおほかた（詩学大成抄）、マスマス×ーいとど（六韜秘抄）・いよいよ（毛詩抄）

○情態副詞…アラカジメ（応永本論語抄）ーかねて（応永本論語抄）、アルイハ（史記抄）ーあるは%、イマシ（聯句集抄）ーいま（史記抄）、コトゴトク（蒙求抄）ーすべて（応永本論語抄）、コモゴモ（古文後抄）ーかたみに×、シキリニ×ーしばしば（三体詩抄）、シバラク×ーしばし（史記抄）・とばかり×（歌語）、スデニ（古文後抄）ーはやう%、タガヒニ（玉塵）ーかたみに×、タマタマ（毛詩抄）ーたまさかに（三体詩抄）、タヤスク（玉塵）ーたはやすく%、ツトニ（三体詩抄）ーはやく（古今和歌集聞書）、マノアタリ（応永本論語抄）ーただに（△古文後抄）、ママ（察病指南抄）ーときどき、ミダリニ（句双紙抄）ーみだりがはしく（御成敗式目抄）、モシクハ×ーもしは（史記抄）、ヤウヤク（莊子抄）ーやうやう（三略抄）、ヨリヨリ（六韜秘抄）ーときどき（四河入海）

○所謂形容動詞語幹…イルガセ（応永本論語抄）ーなほざり（三略抄）、オゴソカ（史記抄）ーいかめし（三体詩絶句抄）、オダヒカ%ーおだし（御憲法玄恵注抄）、スコシキ（詩学大成抄）ーそこし%・わづか（史記抄）、スミヤカ（史記抄）ーはやし（蒙求知抄）、ヒソカ（史記抄）ーしのびに（無門関才応鈔）・しのびて%・しのびやかに（玉塵）

○動詞…アタハズ（あたふ＝蒙求抄）ーえ…ず（論語湖月抄）・…あへず×、イキドホル（朗詠集鈔）ーむつかる×、イコフ（蒙求抄）ーやすむ（蒙求知抄）、イソフ×ーきほふ×、イヌ（中華若木抄）ーぬ（応永本論語抄）、イマス（玉塵）ーおはす×・おはします×、ウカル×ーあくがる×、ウベナフ%ーうけひく×、ウム（玉塵）ーあく（毛詩抄）、ウヤマフ（日本書紀抄）ーかしづく（？）×、オソル（応永本論語抄）ーおづ（漢書列伝竺桃抄）、オヨブ（蒙求抄）ーいたる（史記抄）、カウブル（杜詩抄）ーかづく×、カク（欠）（応永本論語抄）ーなし（玉塵）、キソフ（莊子抄）ーきほふ×、キタス（詩学大成抄）ーこさす%、キタル（三体詩抄）ーく（勅規桃源鈔）、キハム（四河入海）ーいたる（？）（史記抄）、クルシブ（孟子抄）ーくるしがる%、ケス（応永本論語抄）ーけつ×、コゾル%ーかぎる（？）（史記抄）、コヒネガフ（史記抄）ーねがふ（応永本論語

抄)、サイギル(史記抄)ーへだつ(玉塵)・さふ(周易是齋抄)、サク(裂)(史記抄)ーやる×、サヅク(詩学大成抄)ーたまふ(史記抄)・たまはす%、シリゾク(史記抄)ーしぞく%、ソナフ(玉塵)ーまうく(古文前抄)、タタフ%ーほむ(蒙求知抄)、ツカル(史記抄)ーこうず(毛詩抄)、ツラナル(玉塵)ーならぶ(史記抄)、フケル(史記抄)ーすさぶ(?) (「すさむ」：勅規桃源鈔)、フサガル(江湖抄)ーふたがる×、フサグ(勅規桃源鈔)ーふたぐ×、ホドコス(蒙求知抄)ーたまふ(?) (史記抄)、マジハル(莊子鈔)ーまじる(詩学大成抄)・まじらふ(山谷詩集鈔)、マジフ(史記抄)ーまず(詩学大成抄)、

○形容詞…イサギヨシ(毛詩抄)ーきよらなり×・うるはし(四河入海)、イソガハシ(四河入海)ーいそがし(尚書抄)、カマビスシ(四河入海)ーかしかまし×、ハナハダシ(詩学大成抄)ーいみじ×、モシ%ーしげし(史記抄)

○名詞…オバシマ×ーこうらん%、トモガラ(玉塵)ーひとびと(山谷詩集鈔)、ヲフト%ーをとこ(蒙求知抄)、カウベ(応永本論語抄)ーかしら(莊子抄)・みぐし(勅規桃源抄)、スナ(詩学大成抄)ーいさご×、

マナコ(中華若木抄)ーめ(史記抄)、ユビ×ーおよび×、カヒゴ(卵)(太平記聞書)ーかひ×、クモ×ーささがに×、カタナ(史記抄)・ツルギ×ーたち×

(단 오른쪽 화문(和文)특유어 중에는 ‘はやく’ ‘なし’ ‘まうく’ ‘ほむ’ ‘ならぶ’ ‘ひとびと’와

같이 훈점자료에 보이는 것도 약간 포함되어 있다.)

※단『시대별국어대사전 무로마치(室町)시대편』제 2 권: p1050~1051 사이에 탈락이 있는가?

이들을 쇼모노(抄物) 어휘에도 사용 여부의 관점에서 분류하여 집계하면 다음과 같다.

1, 훈점어도 화문(和文)어도 쇼모노(抄物) 어휘에 보이는 예...43 예

2, 훈점어 쪽에 사용되고 화문(和文)어에 보이지 않는 예...16 레

3, 훈점어에는 보이지 않고 화문(和文)어 쪽에 보이는 예...7 예

4, 어느 쪽에도 보이지 않는 예 ... 5 예

쇼모노(抄物)에는 1 의 훈점어도 화문(和文)어도 보이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그 병존(併存)의 이유를 찾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무로마치(室町)

시대의 구어 자료에 헤이안(平安) 시대의 대립 어형의 쌍방을 볼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약간 검토된 논고가 공개된 바 있다(주 6).

2 에 대해 동사 ‘消す’와 ‘消つ’는 전자가 훈점어 후자가 화문(和文)어지만 전자는 쇼모노(抄物)에 보인다. 『시대별국어대사전 무로마치(室町)시대편』의 ‘消つ’의 해설에 ‘문어에 쓰이고 구어에는 별로 쓰이지 않는다’ 라고 쓰여져 있고 헤이안(平安) 시대에는 훈점어가 문어(일종의 문장어) 화문(和文)어가 구어(일상 회화어)로 설명되어 있던 것과 정반대의 관계이므로 주의를 끈다.

헤이안(平安) 시대의 각 어(語)의 표현 가치가 시대 변화에 의해 변모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5.2 쇼모노(抄物) 어휘에 있어 훈점어 의미용법 - 새로운 의미용법 획득 -

헤이안(平安) 시대 훈점어가 가마쿠라(鎌倉) 시대의 화한혼요문(和漢混淆文)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더 나아가 무로마치(室町) 시대 쇼모노(抄物)에 어떻게 계승되는지(전승되지 않는지)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4 에서 지금까지 조사한 어(語)에 대해 쇼모노(抄物)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위에 새로운 의미 용법을 획득한 것처럼 보이는 어(語)를 아래에 소개하고 싶다.

1, おぎろ(오기로):상대어(上代語)가 훈독에 사용되 헤이안(平安) 시대에는 이해 어휘로서 계승. 가마쿠라(鎌倉) 시대에 법회(法會)의 장(場)을 통해 표현 어휘로 재생되 다양한 의미 용법을 파생.

<지나치게 용맹스럽게 말하다.>

・ヲギロトハケナゲダテヲスル者ノコト也 (『太平記聞書』 廿二)

<능란하게 사실 이상으로 과장된 것을 말함.>

・夸一ハ世界ノヲギロ云テ、ソラウデコク者ゾ。夸ハ誇ト同ゾ、ウデコイテ、大功ヲナイテ (『黄鳥鉢鈔』 七)

2, きらふ(기라후):상대(上代) 이후의 남성어. 상대어(上代語)가 훈독에 사용되
헤이안(平安) 시대에는 이해어휘로서 계승하는 중에 의미용법을 확장한다.
가마쿠라(鎌倉) 시대 軍記등에 표현 어휘로 사용.

<대상이 싫어 그것을 피하고 싶다고 생각하다.>

・妻ガ夫ヲキラウテ、ニゲツナソドシテハ、ナントシテ子ヲバマウケウゾ (『史記抄』 四)
・王充道ハ大酒飲デ有ルホドニ、茶ヲバ嫌ハウズガ、クレタホドニ戯ゾ (『山谷詩集鈔』 十六)

<좋지 않은 것으로 기피하다.>

・孔子ノ以テノ外キラワレタルコトゾ。惚別人ノ惡事ヲ云コトハ、仏説ニモキライ、儒家ニ
モキラウコトゾ」 (『三略抄』 四)

3, ささふ(사사후): 한문 훈독의 장(場)에서 <유지하다·지탱하다>의 의미에 'さふ'의
의미가 더해져 <방해하다>의 의미가 생겼다. 여기에 'まうす'가 후접(後接)해 복합동사
'ささへまうす'가 생기지만 이 어(語)는 <항변하다·반론하다> 의미로만 쓰이고
문서(文書)용어로서의 용법을 획득했다. 또 한편으로 가평(歌評) 용어로서는<말이
이어지는 상태가 매끄럽지 않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남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서 윗사람에게 고한다.>

・賢人ヲササエテ流ツコロシツシタモノハ、ワザハイガ子孫三代マデ及ゾ (『三略捷抄』)

6, 정리~헤이안(平安)시대 혼점어휘와 중세 쇼모노(抄物) 어휘

발표자의 관심은 헤이안(平安) 시대 혼점어(혼점 자료에서 보이는 어형)가 혼점 자료 이외의 문헌 자료에 사용되었을 때 존재 이유를 추구(追究)하는 것에 있다.

지금까지는 그것은 대개 한문혼독 어휘어법(語彙語法) 혼입(混入)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혼점자료라는 한문혼독의 현장(現場)과는 다른 의미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이것도 종래에는 시대차이로 설명을 하는 것이 많았다. 그러나 한문을 읽을 때 사용된 어(語)가 다른 장(場)에서 표현어휘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시대차로만 설명이 안 된다. 그것이 가나(仮名) 문학 작품에서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가나(仮名) 문학 작품에는 사용하는 것이 회피된 단어로, 동시에 한문혼독의 장(場)이 아닌 표현세계에서 보이는 어(語)의 사용형태야 말로 본래의 그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용법일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헤이안(平安)시대 혼점자료에서 보이는 '혼점어(형)'와 가마쿠라(鎌倉)시대 설화집(說話集) 군키모노(軍記物)에 사용된 해당어의 의미용법을 비교 검토해 위상(位相) 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명을 시도해 왔다.

이번에는 무로마치(室町)시대 말기 구어(口語)자료 중 하나인 쇼모노(抄物) 문헌도 조사대상에 더하여 의미용법 변화가 어떠한 혼점어에서 보이는지(볼 수 없는지)에 대해 알아봤다.

中田祝夫가 시사(示唆)했던 한문 혼독이 후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문제들과 그 사정(射程)에는 무로마치(室町) 시대 쇼모노(抄物)까지 주시하고 있었다. 이 연구

저변 확대에 대해 그 일부를 해명할 수 있으면이라고 생각한다.

注

1, 『日本語学大辞典』 「訓点」 (築島裕) (2020、東京堂出版) 을 바탕으로 나에게

설명했다.

2, 築島裕 『平安時代の漢文訓読語につきての研究』 (1963, 東京大学出版会)

3, 築島裕 『平安時代語新論』 (1969, 東京大学出版会)

4, 宇都宮啓吾 「叡山点の成立について」 (『訓点語と訓点資料』 140、2018)

同「仁都波迦点の創始と展開—憐昭から皇慶門流へ—」(中部日本・日本語学研究会 87, 口頭発表、2021)

5, 山本真吾 「訓点特有語と漢字仮名交じり文—延慶本平家物語の仮名書き訓点語をめぐる—」 (『訓点語と訓点資料』 139、2017)

6, 宮地敦子 「身体語彙の変化—「かうべ」「かしら」「あたま」「なづき」など」 (『国語学』 94, 1973)。

脇村ますみ 「天草本平家物語にみられる「まだ」「いまだ」をめぐって」 (『福岡大学日本語日本文学』 6, 1996)。

坂詰力治 「漢文訓読語と和文脈語—動詞「消(け)つ」とp「消(け)す」の場合—」 (『武蔵野学院大学大学院研究紀要』 5, 2012)。

【謝辞】 基盤研究 (A) (一般) 「抄物コーパス」の構築とコーパスを応用した日本語史研究 (課題番号: 21H04349、研究代表者: 青木博史) の成果の一部である。